

고양시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연구 2
A Study on Active Ageing Policy for Healthy
Elderly in Goyang City

고양시 건강한 노인을 위한 활동적 노화정책 연구

문 정 화
유 선 치
고 아 라

A Study on Active Ageing Policy for Healthy Elderly in Goyang City

고양시 건강한 노인을 위한 활동적 노화정책 연구

연구책임자

문정화(고양시정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유선치(전 고양시정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위촉연구원)

고아라(고양시정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위촉연구원)

발행일 2020년 11월 30일

저자 문정화, 유선치, 고아라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주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yri.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89636-86-9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고양시서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고령화 대응과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정책	9
제1절 고령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11
제2절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정책	22
제3장 노인 인구변화 및 정책 동향	41
제1절 노인 인구규모 및 향후 전망	43
제2절 노인의 다양성	53
제3절 국내 노인 정책 동향	69
제4장 활동적 노화 정책 사례연구	75
제1절 국외 활동적 노화 정책 사례연구	77
제2절 국내 활동적 노화 정책 사례연구	107
제5장 고양시 노인 인구변화 및 노인복지 정책	147
제1절 고양시 노인 인구 규모 및 전망	149
제2절 고양시 노인복지 정책 및 사업	155

제6장 고양시 노인 생활실태 분석	169
제1절 분석 개요	171
제2절 일반적 특성	173
제3절 고양시 노인의 사회참여 및 관계 영역	183
제4절 고양시 노인의 건강 및 행복감	218
제5절 고양시 노인의 안전 및 노후준비 영역	226
제6절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구성요소와 행복감	237
제7장 정책 방안 및 연구의 한계점	241
제1절 건강한 노인을 위한 활동적 노화 정책 방안	243
제2절 연구의 한계점	252
참고문헌	253
Abstrac	263

표 목차

[표 1-1] 연구 내용 및 방법	7
[표 2-1] 세계 주요기구 노인 인구 비율 추계	11
[표 2-2] 노인을 위한 UN 원칙(1991)	13
[표 2-3] UN,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2002)	15
[표 2-4]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17
[표 2-5] EU의 활동적 노화 및 세대간 연대를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2012)	19
[표 2-6] UNFPA의 고령인구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10가지 우선 행동(2012)	21
[표 2-7]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 활동적 노화 비교	23
[표 2-8] 국제기구의 Active Ageing의 정의와 Active 내용	27
[표 2-9] 활동적 노년 측정 지표	32
[표 2-10] 활동적 노화 지표 구성 및 측정 방법	35
[표 2-11] 노인정책 영역별 국제기구 정책과제 비교	38
[표 3-1] 전국 노인 인구 변화 추이	43
[표 3-2] 한국 노인 현황과 OECD 노인 평균 비교	45
[표 3-3] 고령자 직업별 취업 현황 변화 추이	46
[표 3-4] 동부, 읍면부 65세 이상 노인의 종사 직종(2017)	47
[표 3-5] 노인일자리사업 직접적 수요집단 추정치(비율)	49
[표 3-6] 노인일자리사업 직접 수요 추계(인구수)	50
[표 3-7] 전국 65세 이상 노인의 주된 여가활동(2017)	52
[표 3-8] 코호트별 노인 인구사회적 특성 비교	55
[표 3-9] 코호트별 노인 근로 생애 및 경제적 여건 비교	56
[표 3-10] 퇴직 후 삶과 일에 대한 인식 태도 유형	57
[표 3-11] 신노년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59
[표 3-12] 건강한 노인의 활동 특성	60

[표 3-13] 지역유형별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특성	64
[표 3-14]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기초	66
[표 3-15] 노인복지정책의 변화	70
[표 4-1] 뉴욕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Age-Friendly NYC)의 전략과제	78
[표 4-2] 영국 벨파스트의 고령친화도시 추진 과제	80
[표 4-3] 호주 레인코브의 고령친화도시 추진 과제	81
[표 4-4] 일본 아키타시의 고령친화도시 추진 과제	82
[표 4-5] 홍콩의 고령친화도시 추진 과제	83
[표 4-6] 고령친화 상점 지침 사례	103
[표 4-7] 고령인력 활용 안내서 사례	104
[표 4-8] 건강한 노화를 위한 노인관광프로젝트	105
[표 4-9]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건강한 노인 관련 부문)	108
[표 4-10]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110
[표 4-1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2019)	114
[표 4-12]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	115
[표 4-1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60+교육센터의 지원사업	117
[표 4-14] 노인복지관의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119
[표 4-15] 문화체육관광부의 노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120
[표 4-16]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친화도시 관련 조례 현황	123
[표 4-17]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정책(2016)	124
[표 4-18] 서울시 어르신 정보꾸러미 발간	125
[표 4-19] 서울시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운영 과정	126
[표 4-20] 서울시 실버숲 프로그램	127
[표 4-21] 종묘·탑골공원 어르신 문화거리 조성 사업	128
[표 4-22] 서울시어르신 취업지원센터	129
[표 4-23]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정책(2016)	130

[표 4-24] 부산시 1·3세대 소통프로그램 - 할매랑 아이랑	131
[표 4-25] 제주도 고령친화도시 정책(2017)	132
[표 4-26] 제주도 민관협력 1·2·3세대 통합 프로그램 - 라이프스토리 어르신 이야기 사업	133
[표 4-27] 경기도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134
[표 4-28]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정책(2014)	135
[표 4-29]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정책(2019)	136
[표 4-30] 수원시 무라도학교, 마을공유소, 노인인권지킴이	137
[표 4-31] 광주 동구 고령친화도시 정책(2017)	138
[표 4-32] 광주 동구 건강한 노인 지원사업 사례	139
[표 4-33] 부천시 고령친화도시 정책(2018)	140
[표 4-34] 부천시 건강한 노인 지원사업 사례	141
[표 4-35] 강북구 고령친화도시 정책사업(2018)	142
[표 4-36] 양천구 고령친화도시 정책(2018)	143
[표 4-37]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정책(2018)	144
[표 4-38] 강남시니어클럽 고학력 전문직 은퇴노인 일자리 사례(2020)	145
[표 5-1] 고양시 성별 노인인구 현황(2020년 1월 기준)	149
[표 5-2] 고양시 구별 노인인구 현황(2020년 1월 기준)	150
[표 5-3] 고양시 5세 단위 연령별 인구 변화(2000~2030)	153
[표 5-4] 건강한 노인 인구 추정 - 65세 이상	154
[표 5-5] 고양시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증진 정책 예산(2020년도 본예산)	155
[표 5-6] 고양시 구별 노인복지증진 정책 예산(2020년도 본예산)	156
[표 5-7] 고양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총괄(2019)	158
[표 5-8] 고양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사례(2019)	159
[표 5-9] 고양시 노인전문자원봉사단 사례(2020)	162
[표 5-10] 고양시 노인 교육, 취미여가 활동 지원 사례(2020)	164
[표 5-11] 고양시 노인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지원 사례(2020)	165

[표 6-1] 고양시 노인 생활실태 분석 내용	172
[표 6-2] 고양시 노인의 교육수준	174
[표 6-3] 고양시 노인의 교육수준 타지역 비교	175
[표 6-4] 고양시 노인의 결혼상태	176
[표 6-5] 고양시 노인의 주택형태	177
[표 6-6] 고양시 노인 주택점유형태	178
[표 6-7] 고양시 노인의 거주기간	179
[표 6-8] 고양시 월평균 가구 소득	179
[표 6-9] 고양시 개인소득 만족도	180
[표 6-10] 고양시 소비생활 만족도	180
[표 6-11] 고양시 노인의 생활비 지출 부담	181
[표 6-12] 고양시 사회경제적 위치 평가	182
[표 6-13] 지역별·세대별 경제활동 현황 타지역 비교	183
[표 6-14] 고양시 노인의 경제활동 현황	184
[표 6-15] 지역별 노인 고용률 비교	185
[표 6-16] 고양시 노인의 성별 경제활동 현황	186
[표 6-17] 고양시 고령자 취업자수 변화 추이	187
[표 6-18] 경기도 지역유형별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2013~2019)	188
[표 6-19] 고양시 노인의 종사상 지위와 타지역 노인 비교	190
[표 6-20] 고양시 노인의 성별 종사상 지위	191
[표 6-21] 고양시 노인의 지역별 월평균 임금	193
[표 6-22] 고양시 노인의 성별 월평균 임금	193
[표 6-23] 고양시 및 타지역 노인 직업분포	194
[표 6-24] 고양시 노인의 연령별·성별 직업분포	195
[표 6-25] 고양시 노인의 종사산업 분포	196
[표 6-26] 고양시 노인의 재직 사업체 소재지	197

[표 6-27] 고양시 노인의 고용 관련 만족도	199
[표 6-28] 고양시 노인의 일자리 선택시 주요 고려사항	200
[표 6-29] 고양시 노인의 평생교육 경험	202
[표 6-30] 고양시 노인 평생교육 미참여 이유	203
[표 6-31] 고양시 노인의 사회공헌 활동경험	204
[표 6-32] 고양시 노인의 정기모임 수	205
[표 6-33] 고양시 노인의 주말·휴일 여가생활	206
[표 6-34] 고양시 노인의 노인복지 관련 시설 이용 경험	207
[표 6-35] 고양시 노인의 노인복지 관련 시설 이용 의향	208
[표 6-36] 고양시 노인복지관 연령별 회원 현황(2019년 8월말 기준)	209
[표 6-37] 고양시 노인의 홀몸노인(1인 가구) 여부	210
[표 6-38] 고양시 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	212
[표 6-39] 고양시 노인의 가사분담	213
[표 6-40]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 여부	214
[표 6-41] 이웃과 일반인에 대한 신뢰	215
[표 6-42] 지역사회소속감	215
[표 6-43] 평소 스마트폰 사용 유무	216
[표 6-44] 자택 와이파이 설치 유무	217
[표 6-45] 고양시 노인의 건강상태 평가	219
[표 6-46] 고양시 노인의 우울감	220
[표 6-47] 고양시 노인의 만성질환여부	220
[표 6-48] 고양시 노인의 규칙적인 운동 여부	221
[표 6-49] 고양시 노인의 운동장소	222
[표 6-50] 고양시 노인의 보건시설 만족도	223
[표 6-51] 고양시 노인의 의료시설 만족도	223
[표 6-52] 고양시 노인의 행복도	224

[표 6-53] 고양시 노인의 영역별 생활만족도	225
[표 6-54] 고양시 노인의 영역별 안전 인식	227
[표 6-55] 고양시 노인의 영역별 피해 두려움	229
[표 6-56] 고양시 노인의 성별·영역별 피해 두려움	230
[표 6-57] 고양시 노후준비 여부	230
[표 6-58] 고양시 노인의 노후준비 방법	232
[표 6-59] 고양시 노인 노후준비하지 못하는 이유	233
[표 6-60] 고양시 노인이 인지하는 노인의 문제	234
[표 6-61] 고양시 노인의 우선확대 희망 노인복지서비스	236
[표 6-62] 활동적 노화 구성요소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239

그림 목차

[그림 2-1] 세계 고령화 대응 정책 동향	12
[그림 2-2] 활동적 노화 구성요소	29
[그림 3-1] 전국 고령자 직업별 취업 현황 변화 추이(2008~2017)	46
[그림 3-2] 동부, 읍면부 65세 이상 노인의 종사 직종(2017)	47
[그림 3-3] 연령대별 노인의 희망직업(2016)	48
[그림 3-4] 한국 노인이 경험한 경제, 사회, 제도적 변화	54
[그림 3-5] 국내 고령화 대응 정책 동향 - 건강한 노인 관련	69
[그림 4-1] 뉴욕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노인을 위한 벤치	84
[그림 4-2] 뉴욕의 고령친화 상점, 비즈니스, 집수리 가이드	85
[그림 4-3] 뉴욕의 노인을 위한 문화 가이드	86
[그림 4-4] 캔자스주 위치토의 그랜드페어런츠 파크	87
[그림 4-5] 콜로라도주의 노인을 위한 홈쉐어링(주택공유) 서비스	88
[그림 4-6] 캔자스주 위치토의 그랜드페어런츠 파크	89
[그림 4-7] 세대간 톨킷 및 가이드, 노인 자원봉사자상	90
[그림 4-8] 연령친화적인 벨파스트 한장	90
[그림 4-9] 고령친화 성과가 담긴 전단지	91
[그림 4-10] 정보와 조언을 위한 노인 웹사이트	92
[그림 4-11] 노인의 업적과 공헌을 인정하는 에이지 어워드 시상식 수상자	92
[그림 4-12] 웰빙 워킹 프로그램의 산책 경로 및 참여자	93
[그림 4-13] 노인과 청소년 세대간 예술작품, 노인과 함께 셀카 대회	94
[그림 4-14] 노인에 대한 배려 - 노인용 의자, 다양한 정보 제공 - 노인용 뉴스레터	96
[그림 4-15] 노화 예술 사진 전시회	96
[그림 4-16] 즐겁고 활기찬 교류의 장 - 시니어 엑스포	97
[그림 4-17] 보상 포인트로 활동적인 노인 지원	98

[그림 4-18] 지역 커뮤니티센터 근력 트레이닝	99
[그림 4-19] 공중목욕탕 건강증진 서비스 ‘데이 센토’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99
[그림 4-20] 커뮤니티 카페 나고미	100
[그림 4-21] 원-코인 버스를 이용하는 노인	100
[그림 4-22] 즈시 시청 내 ME-BYO 상담센터	101
[그림 4-23] 지역사회 노인의 목소리 역할	102
[그림 4-24] 노인일자리 캐릭터	112
[그림 4-25] 노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추진 현황	120
[그림 4-26] 정읍 효 사랑 걷기 회	135
[그림 4-27] 강북구립시니어합창단	142
[그림 5-1] 고양시 인구 변화(2000~2035)	151
[그림 5-2] 고양시 60세 이상 인구 변화(2000~2035)	152
[그림 6-1] 고양시 노인의 교육수준	174
[그림 6-2] 고양시 노인의 교육수준 타지역 비교	175
[그림 6-3] 고양시 노인의 결혼상태	176
[그림 6-4] 고양시 노인의 주택형태	177
[그림 6-5] 고양시 노인의 주택점유형태	178
[그림 6-6] 고양시 노인의 노후생활비 지출 부담	182
[그림 6-7] 고양시 노인의 경제활동 현황 타지역 비교	184
[그림 6-8] 고양시 노인의 성별 경제활동 현황	186
[그림 6-9] 고양시 고령자 취업자수 변화 추이(2013~2019)	187
[그림 6-10] 경기도 지역유형별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2013~2019)	188
[그림 6-11] 고양시 노인의 성별 종사상 지위	192
[그림 6-12] 고양시 노인의 성별 월평균 임금	193
[그림 6-13] 고양시 노인의 직업분포	195
[그림 6-14] 고양시 노인의 고용 관련 만족도	198

[그림 6-15] 고양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수	201
[그림 6-16] 고양시 노인의 평생교육 경험	202
[그림 6-17] 고양시 노인의 사회공헌활동 경험	204
[그림 6-18] 고양시 주말·휴일 여가생활	206
[그림 6-19] 고양시 노인의 노인복지 관련 시설 이용경험 및 향후 이용의향	208
[그림 6-20] 고양시 노인의 홀몸노인(1인 가구) 여부	210
[그림 6-21] 고양시 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	211
[그림 6-22] 고양시 노인의 가사분담	214
[그림 6-23] 고양시 노인의 건강상태 평가	219
[그림 6-24] 고양시 노인의 만족도	224
[그림 6-25] 고양시 노인의 영역별 생활만족도	225
[그림 6-26] 고양시 노인의 노후준비	231
[그림 6-27] 고양시 노인의 노후준비 방법	232
[그림 6-28] 고양시 노인이 인지하는 노인의 문제	235
[그림 6-29] 고양시 노인의 우선확대 희망 노인복지서비스	236
[그림 7-1] 건강한 노인을 위한 활동적 노화 정책 추진 방안 및 전략과제	243

요 약

1.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2019년 활동적 노화 정책연구 시리즈 1로 실시된 중장년 실태분석 연구에 이어 고양시의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활동적 노화 정책지원 방안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건강한 노인을 위한 활동적 노화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활동적 노화 개념들을 적용하여 고양시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실태를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시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활동적 노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정책 검토
- 노인의 인구변화 및 정책 동향 검토
- 국내외 활동적 노화 정책 정책사례 분석
- 고양시의 노인 인구 변화와 노인복지 정책 및 사업 검토
- 2차 자료를 활용한 고양시 노인의 생활실태 분석
 - 2019년 지역별 고용조사, 2019년 고양시 사회조사, 2018년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 2020년 행복실태조사 등 활용
- 고양시 건강한 노인을 위한 활동적 노화 정책지원 방안 및 과제 도출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고령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활동적 노화 정책, 국내 노인 동향 검토

– 통계분석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경기도 시군구별 장래인구 추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활용, 노인 인구 규모 및 추이 등 분석

– 사례분석

- 미국, 영국, 호주, 일본, 홍콩 등 해외 활동적 노화 정책사례, 국내 중앙정부 노인 활동적 노화 정책사례, 국내 지방자치단체 활동적 노화 정책사례 등 분석

– 2차 자료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

- 지역별 고용조사, 고양시 사회조사, 지역사회보장계획 욕구조사, 고양시 행복실태조사, 2020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변화 실태 조사 등 활용, WHO의 활동적 노화 정책들 사용하여 고양시 노인 생활실태 분석

2. 고령화 대응과 활동적 노화 정책

□ 고령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 전 세계적으로 65세 미만 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옴

〈세계 고령화 대응 정책 동향〉

	세계 고령화 대응	노인을 위한 지원 정책 주요 내용(제안, 권고)
1948년	UN, 노인의 권리에 대한 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식주 보조 건강 보호 생활 안전 여가 일자리 마련 노인 존경
1982년	UN, 1차 비엔나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적 인구고령화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 고령화에 따른 건강과 삶의 질 유지 노인세대를 위한 적절한 도시환경 조성
1991년	UN, 노인을 위한 UN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의)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2000년	OECD, 고령화에 따른 7대 개혁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소득이전프로그램의 조기퇴직 유인가능성 배제 노년층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와 자질 제고 공공부채 축소와 재정건전성 확보 은퇴 후 소득원의 다양화 건·강의료문제의 비용 효율성 증시 효율적 규제를 포함한 금융시장 인프라 강화를 전제로 고액연금제도 도입 가능 국민적 이해를 얻기 위한 전략적 틀 마련의 중요성
2002년	UN, 2차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과 발전(고용, 훈련, 참여 등)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 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
2007년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8대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 편의 환경 안전 및 고령친화시설 주거 편의 환경 사회적 존중 및 포용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지역사회 활동 참여 지역복지 및 보건 고령인 활용 및 일자리 지원
2012년	EU, 활동적노화 및 세대간 연대를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지속적 직업교육과 훈련, 연령차별 방지 등) 사회참여(소득보장, 사회적통합, 노인봉사 등) 자립생활(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고령친화주택 등)
2016년	WHO, 고령화에 대한 국제전략 및 실행계획(2016-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한 노화에 대한 실천 의무 고령친화적 환경 개발 고령자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시스템 정비 고령자 장기돌봄을 위한 시스템 개발 건강한 노화에 대한 측정 및 모니터링

□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정책

○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개념

-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는 인구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국가의 새로운 정책들로 1990년대 말부터 유럽연합(EU), 세계보건기구(WHO),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활발히 논의됨

- 활동적 노화의 기반이 되는 활동 이론은 활동이 삶의 만족에 대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년기에도 지위에 따르는 역할이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하여 긍정적 노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봄(권중돈, 2019; Hooyman & Kiyak, 2014). 노년기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강조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역할을 지지하고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을 강조함
- 현재 활동적 노화는 고령사회 대응에 있어 최선의 지침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각각 활동적 노화에 대한 정의와 자체 실현과제를 제시해 옴

〈국제기구의 Active ageing의 정의와 Active 내용〉

구분	정의	활동(Active/Activity)의 내용
OECD (1998)	노인이 되어가면서 사회 및 경제 속에서 생산적인 삶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역량	노동, 학습, 여가활동, 돌봄 제공 등에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의 유연성
EU (1999)	이전보다 더 오래 살며, 풍부한 자원과 더 좋은 건강상태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삶을 맞추고, 이러한 개선이 가져온 기회를 포착하는 것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더 오래도록 일하기, 더 늦게 은퇴하기, 은퇴 후 돌봄 제공 또는 자원봉사 같은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기 등
WHO (2002)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 참여와 안전을 위한 기회를 최대화 하는 과정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 시민적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

〈출처〉 김교성·김수연(2016). "활동적 노화에 관한 다차원적 측정과 국가간 비교", 『사회복지정책』, 2014, 41(1) : 1-32.

- 활동적 노화는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옹호된 정책 전략 중 하나임. 활동적 노화의 전략은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하여 통찰력을 예견할 수 있도록 함
- 활동적 노화 정책의 다양한 설계는 정책 목표를 결정하는데 복지 및 사회 응집력을 유지하고, 공공 복지 시스템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독립된 증거 기반과 고품질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됨.

- 이를 위하여 활동적 노화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자 활동적 노화 지수(Active Ageing Index: AAI)를 구성하고 수준별(국제, 국가, 지방정부) 결과를 비교하고자 함(Zaidi et al., 2018)

○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차원

- (활동적 노화 차원) 활동적 노화 개념의 명확성뿐만 아니라 수준을 어떠한 형식으로 측정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합의는 미비한 실정임.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활동적 노화의 차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활동적 노화의 개념 및 구성요소(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건강, 사회참여, 안전의 차원에 대한 내용) 검토의 차원의 연구, 활동적 노화 개념 속 개별 국가들의 고령화 정책 대응 제시 및 비교 연구들, 활동적 노화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 실증적 수준에서 활동적 노화의 파악을 위해 적용 가능한 지표 개발의 측면 등을 살펴볼 수 있음
- (활동적 노화 지수 정의 및 특성) 활동적 노화 지수(Active Ageing Index: AAI)는 European Year 2012 추진의 일환으로 각 유럽 국가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더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화와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활동적 노화 관련 성과와 사회 기반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개발됨. 2008년부터 2년마다 산출하여 27개 유럽 국가들의 활동적 노화 지수를 측정·수치화하여 국가별 비교 보고 하고 있음
- 활동적 노화 지수는 유럽연합(EU)에 소속된 국가들 간 비교를 통해 상호 연대 책임 및 교류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노인 관련 각종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기준을 담당하며, 노인의 개인 특성 뿐 아니라 사회 환경 요인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노인의 노동시장 내 지속과 독립적 생활 유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퇴직 이후 재고용 촉진 등을 중심으로 함
- (활동적 노화 지수 구성) 크게 고용(Employment), 사회참여(Participation in society), 독립생활과 보건 및 안전(Independent, healthy and secure living), 활동적 노화를 위한 환경 변화 수용(Capacity and enabling environment

- for active ageing)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함. 각 영역당 하위지표를 구성하였으며, 각 지표 값이 높게 나올수록 활동적 노화 결과가 좋은 것으로 해석함
- (정책 결정을 위한 활동적 지수 활용 방안) 활동적 노화 지수(AAI)의 지수와 지표에 있어 사회 맥락적인 다양성 적용 부분, 적용 단위(국제, 국가, 지방정부)의 다양성 적용으로 노인 정책입안자들에게 다양한 차원의 정책 개발에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국제기구 활동적 노화 적용의 노인정책 영역 과제

- 국제기구에서는 노인을 의존적 존재가 아닌 독립적이고 능동적 존재로 인식의 전환이 나타나게 되면서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 계층을 위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전략들을 세우고 있음
- 활동적 노화의 적용은 모든 인구 집단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괄적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현재 사회에 적용되어야 하는 관점임. 인구고령화를 사회발전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국제사회의 대응은 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세대통합과 연대를 이루고자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노인 인구변화 및 정책 동향

□ 노인 인구 규모 및 향후 전망

- 우리나라 노인(만 65세 이상)인구는 2020년 전체인구의 15.7%로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 약 1천만명(10,511,000명, 전체 인구의 20.3%)을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2030년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5%, 2060년 43.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인구 비율)는 2020년 21.7%에서 2030년 38.2%, 2060년에는 91.4%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됨(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 9.공표)

- 한국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회원국 중 1~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음.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은 소득빈곤때문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빈곤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노인소득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 한국 65~79세 취업자수는 2008년 1,564,000명에서 2017년 2,087,000명으로 50만명 이상 증가하였으며, 직종별로 보면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증가가 두드러짐. 2020년 기준 노인일자리 직접 수요는 1,238,804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노인인구(2020년 8,125,432명)의 15.2%에 해당하는 비율임.
-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의 여가문화활동 참여율은 85.1%임. 취미오락활동, 기타 종교 및 사회활동, 휴식활동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관람 및 스포츠관람, 관광활동은 1% 이하의 극히 낮은 비율로 나타남

□ 노인의 다양성

- 한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 정치·경제·사회의 변화 및 고령화 속도가 급속히 이루어진 국가 중 하나이며, 이러한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라 한국의 노인은 연령대에 따라 겪은 환경의 차이가 큼. 또한 같은 연령대라도 살아온 경험, 직업, 건강, 교육, 소득 수준 등의 차이가 젊은층보다 훨씬 커서 노인의 생활방식 및 욕구는 더욱 다양성을 띠
- 노인 연령대별 사회환경 변화의 경험 차이, 연령대별 교육, 직업, 소득수준의 차이, 노인 특성에 따른 일 욕구 차이,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활동 특성 차이, 노인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및 여가복지시설 이용 차이 등을 분석하고, 연령, 건강상태, 운동능력에 따른 적절한 운동 등의 내용을 살펴봄
- (시사점)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노인들은 살아온 경험 및 개인적 특성이 다양하여 하나의 특성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며, 삶과 일에 대한 인식 유형에 따라 퇴직 후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도 31%~62%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수요 집단 유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소득수준과 일자리 경력 차이 등에 따라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도 다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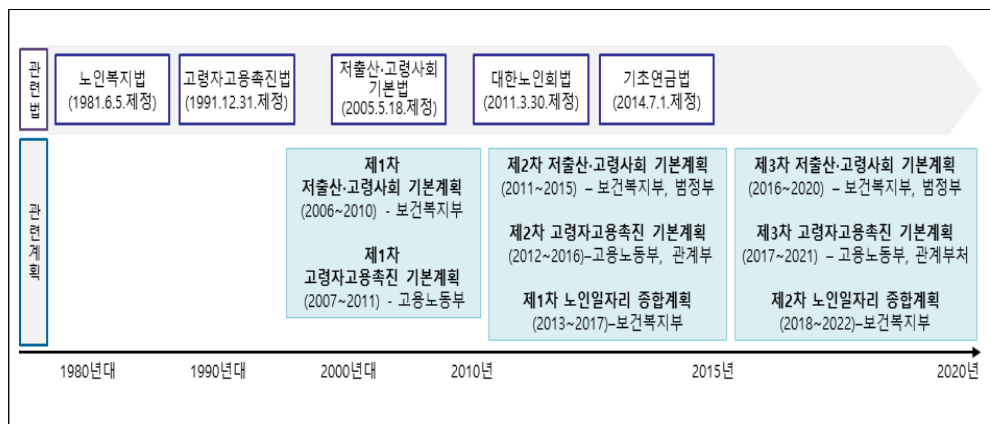
-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도 자기주도적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노인은 운동 및 건강관리, 취미활동과 경제활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경우 봉사활동 자체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감이 참여 동기 및 지속 요인이 되고 있어서 언어적, 비경제적인 격려 및 지지가 중요한 보상이 됨.
-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농어촌지역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며,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건강여가문화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확충이 필요함. 도시지역 노인은 여가시설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우선시 하므로 근거리 지역 공공시설물 활용과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건강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 모두 ‘노인이라는 어감에 대해 부정적 의견’과 ‘노인 취급을 당연시 하는 태도에 대해 반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정책적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 재정립 또는 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

□ 국내 노인 정책 동향

- 세계의 정책 동향은 국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UN의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2002년)’은 한국 정부의 고령사회 대응 계획(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WHO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2007년)’는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GNAFCC)에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정책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00년대 이전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소득, 주거, 고용, 건강, 사회서비스 등)의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991

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으로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2000년대 이후는 세계적인 고령화 대책의 영향을 받아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2005년)과 관련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20년 현재 3차 계획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제4차 계획 수립 중에 있음

<국내 고령화 대응 정책 동향 - 건강한 노인 관련>



4. 활동적 노화 정책 사례연구

□ 국외 활동적 노화 정책 사례연구

○ 건강한노인과 건강한도시를 위한 고령친화 정책

- 미국 뉴욕 : 뉴욕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Age-Friendly NYC) 추진, 공공 공간과 교통, 주거환경, 지역사회 및 시민참여, 건강 및 사회서비스 영역의 전략과제 마련
- 영국 벨파스트 : 고령친화 행동계획(2014-2017), 새로운 벨파스트 고령친화 계획(2018-2021) 추진
- 호주 레인코브 : WHO GNAFCC 가입요건의 범주(야외환경, 교통, 주거, 존중과 사회적 포용, 사회적 참여,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시민참여, 지역복지

및 보건)에 따라 고령친화 행동계획 개발

- 일본 아키타 : 건강한 노화와 장수 장려, 지역 내 통합된 지역사회 양로시스템 구축, 노인이 자신의 지역에서 원할 때까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지원,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긍정적인 이미지 만들기, 베리어프리 촉진, 고령자의 고립 방지 및 교통수단 확보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
- 홍콩 : 조부모프로젝트 추진, 노인의 교통수단을 위한 사회적기업 운영, 노인카드를 발급해 정부, 공공·민간기업, 상업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료 또는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공,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8대 영역을 홍콩의 특성에 맞추어 6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추진

○ 건강한 노인을 위한 지원사업 사례

- 미국
 - 뉴욕주 : 노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각종 가이드 제공(노인을 위한 벤치, 고령친화 상점 및 비즈니스 가이드, 노인을 위한 문화 가이드)
 - 캔자스주 위치토(Wichita) : 그랜드페어런츠 파크
 - 콜로라도주 : 노인을 위한 주택공유 서비스
 - 뉴저지주 베르겐카운티(Bergen County) : 노인을 돕는 노인 '핸디맨 서비스'
- 영국
 - 벨파스트(Belfast) : 연령친화적 벨파스트 현장
 - 샐퍼드(salford) : 지역 노인과 함께 연령친화도구 제작
 - 뉴캐슬어폰타인(Newcastle upon Tyne) : 노인과 함께 노인을 위한 정보사이트 개발
 - 와이트 섬(Isle of Wight) : 에이지 어워드 시상식
 - 선더랜드(Sunderland) : 웰빙 워킹 프로그램
- 호주
 - 로킹엄(Rockingham)시 : 노인과 함께 예술작품, 노인과 함께 셀카대회
 - 레인코브 지방(Lane Cove) : 노인용 의자, 노인용 뉴스레터

- 뉴사우스웨일즈주(NSW) : 노화예술사진 전시회
- 노던 주(Northern Territory) : 시니어 엑스포

- 일본

- 오다와라 시(Odawara) : 보상 포인트로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오이시(Oi) : 집 근처에서 건강증진 활동 지원
- 가마쿠라 시(Kamakura) : 공중목욕탕에서 건강서비스 지원
- 요코스카 시(Yokosuka) : 노인들의 사랑방, 커뮤니티 카페 활동
- 아키타 시(Akita) : 원코인 버스 프로젝트
- 즈시 시(Zushi) : 시청 내 건강상담센터 운영

- 홍콩

- 다푸 구(tai-po) : ‘내 인생의 이야기’ 프로젝트
- 유젠왕 구(Yau Tsim Mong) : 지역사회 노인의 목소리 ‘AFC 대사’
- 고령친화상점지침, 고령인력활용 안내, 노인관광프로젝트

○ 국외 건강한 노인 지원 정책·사업 시사점

- 이상 해외 사례를 보면 노인을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적극적으로 자립적인 주체로 보고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 및 사업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한 세계 각 지역의 정책은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고령친화정책 추진에 있어 노인이 직접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희망을 주고 있음
- 노인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의 책임이 WHO의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가이드(외부환경 및 시설,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 환경 안정성, 고령 인적자원의 활용, 여가 및 사회활동, 존중 및 사회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 지역지원 및 건강)에 따라 노인복지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대, 시 전체가 인구 고령화에 대응을 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음

- 고령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시)의 노인은 지원정책에 따라 여가 및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더욱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의 증가는 노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 시킴에 따라 결국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건강한 사회가 되는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음

□ 국내 활동적 노화 정책 사례연구

○ 정부의 건강한 노인 지원 정책

-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1,2,3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등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의 경우 50세 이상 중장년 지원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60세 또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을 검토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 취업훈련 및 사회활동형 교육,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보건복지부), 노인 문화예술 지원사업(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시행 중임

○ 지방자치단체의 건강한 노인 지원 정책 사례

- 2020년 1월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GNAFCC)¹⁾에 가입하였으며, 37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함.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지역은 2013년 서울시, 2014년 전북 정읍시, 2016년 수원시, 부산시, 2017년 제주도, 광주 동구, 2018년 부천시, 서울 강북구, 도봉구, 양천구, 충남 논산시, 2019년 광주 서구, 전남 나주시 등임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 사례

¹⁾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GNAFCC)에 관한 설명은 제2장 이론적 검토에서 다룸

- 서울시 : 어르신 정보꾸러미, 어르신 정책모니터링단, 서울 실버숲 프로그램, 종로·탑골공원 어르신 문화거리 조성, 서울시어르신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
- 부산시 : 노인들의 편안한 은퇴 생활 제공에 중점을 둔 정책 시행, 노인 취업기회 창출, 복지시설의 가용성 보장, 노인 개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퇴직을 위한 재정 지원, 활기찬 레저 문화 조성, 미래 친환경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정책 시행 등
- 제주도 : 매월 장수 수당 제공, 제주장수문화포럼(제주고령사회포럼) 창립·운영, 2017년 제주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어르신 모니터링단 조직·운영, 고령친화 관광 환경 조성 과제 수행 등
- 경기도 :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실버문화공간 지원, 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 어르신 작품공모전 및 순회전시, 어르신 문화즐김 기자단 등의 사업 추진 등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 사례

- 전북 정읍시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기반 조성, 생동감 있는 사회·경제적 참여 활성화 기반 조성, 공존 위한 품격 높은 배려와 존중, 소통 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맞춤형 지역지원과 보건복지 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효사랑 걷기대회', '우울No, 행복In 노인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
- 수원시 : 활동적인 노인 지원 사업 다수 추진, '뒤편 학교', '마을공유소', '인권 토크' 등 프로그램 운영
- 광주 동구 :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 '그린실버피아 페스티벌' 개최, 노인 부부 관계개선 프로그램 '꽃보다 부부' 운영,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실버리더자' 구성·운영,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 경로당' 사업 등 운영
- 부천시 : '100세 건강실' 설치, 노인 보행자와 노인 운전자의 배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가 부천 으뜸드라이버' 캠페인 실시, 향후 '노인 이해 교육단', 세대공감 '노리터',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뚝뚝뽕뽕', 시니어 재능나눔서비스 박람회, 신노년문화 조성사업 '시니어 문화살롱' 등 시행 검토 중임
- 서울 강북구 : 강북구립시니어합창단 등 운영 중임
- 서울 양천구 : 노인 활력과 안전 보장,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준비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계획
- 서울 도봉구 : 노인 센터 개선, 복지 시설 지원, 노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간호, 노인들을 위한 상담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진행 중임

○ **국의 건강한 노인 지원 정책·사업 시사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은 노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통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기간을 연장시키고, 길어진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음. 부차적으로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 등을 통해 돌봄 노인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막는데도 의의가 있음

5. 고양시 노인 인구변화 및 노인복지 정책

□ **고양시 노인 인구 규모 및 전망**

○ **고양시 노인 인구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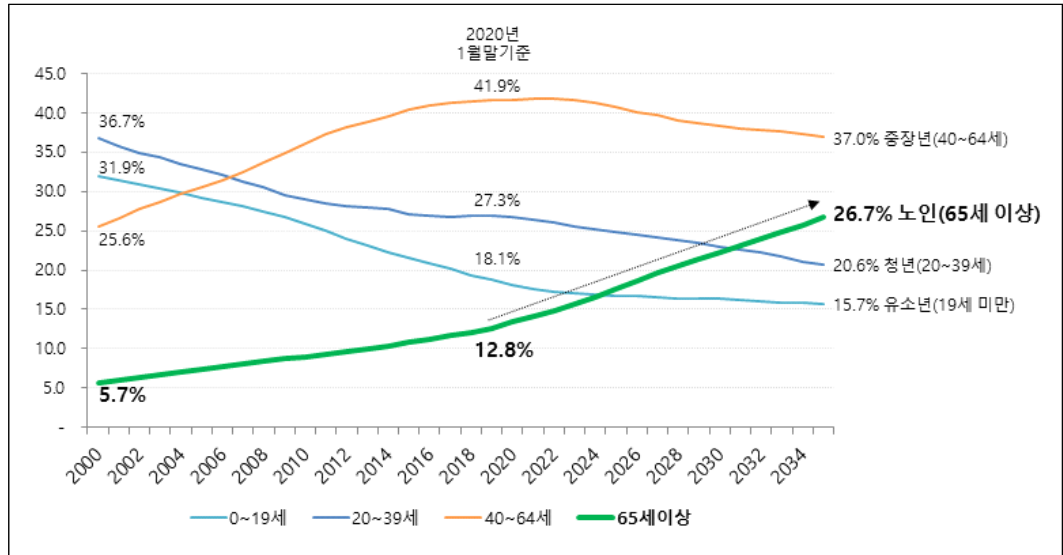
- 2020년 1월말 기준 고양시 만 65세 이상 인구는 136,316명으로 전체 1,068,641명의 12.8%. 남성은 57,681명(42.3%), 여성은 78,635명(57.7%)으로 여성노인인구가 남성노인에 비해 약 2만명 이상 많으며, 고연령화 될수록 여성의 비율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고양시 노인 인구 변화 추이**

- 고양시는 2021년 노인인구 15만명(150,398명, 14.1%)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되어 2035년 고양시 노인인구는 30만명(305,687명, 26.7%)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2021년 14.1%로 고령사회, 2028년 20.6%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에 대한 빠른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

〈고양시 인구 변화(2000~2035)〉

(단위 : %)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00~2010) 각 년도말 기준. / 2020년도는 1월말 기준 비율임
 경기도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 추계보고서(2015~2035)』, 2017. (기준인구 2015.7.1.)

○ 5세 단위 인구 변화

- 2020년 5.8%인 70대 인구 비율이 10년 후인 2030년에 9.7%(109,558명), 80세 이상 인구 비율 역시 5.5%(62,212명)까지 증가가 예상됨

○ 고양시 건강한 노인²⁾ 인구 추정

- 현 복지정책에서 광의의 보호 대상 노인(약 18.4%)은 시설요양, 재가돌봄, 생활지원 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추정되며, 이를 제외한 약 81.6%의 노인을 본 연구에서 정의한 건강한 노인²⁾으로 추정할 수 있음

²⁾ 본 연구에서 건강한 노인은 '시설 및 재가에서 타인의 돌봄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정의한다.

〈건강한 노인 인구 추정 - 65세 이상〉

구분	2020년(1월말)	2025년	2030년
고양시 전체 인구수	1,068,641명	1,104,689명	1,132,639명
만65세 이상 노인인구수	136,316명	194,605명	252,602명
건강한 노인수	110,150명	157,592명	204,679명
돌봄 필요 노인수	26,166명	37,013명	47,922명

* 경기도 시군구 장래인구추계(2015~2035)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각 기능별, 연령별 ADL, IADL 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 고양시 노인복지 정책 및 사업

○ 고양시 노인복지증진 정책 예산

(단위 : 천원)

구	정책사업	예산액	비고
3개구 기초연금 지급액 합계		251,372,807	구청 가정복지과 노인복지증진 예산
3개구 경로당 운영지원 등 합계		7,783,963	
덕양구	기초연금 지급	137,448,000	국고보조금 96,213,600 / 도비보조금 8,246,880 / 시비보조금 32,987,520
	노인복지 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등)	3,511,685 (국·도·시비 포함)	경로당 운영, 사회활동,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지원, 경로잔치 지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효 가정 지원, 100세인 지원 등
일산동구	기초연금 지급	56,639,000	국고보조금 39,647,30 / 도비보조금 3,398,340 / 시비보조금 13,593,360
	노인복지 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등)	2,047,640 (국·도·시비 포함)	상동
일산서구	기초연금 지급	57,285,807	국고보조금 96,213,600 / 도비보조금 8,246,880 / 시비보조금 32,987,520
	노인복지 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등)	2,224,638 (국·도·시비 포함)	상동

〈출처〉 고양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20.

○ 고양시 건강한 노인 지원 사업 사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전문자원봉사단, 교육 및 취미여가 활동 지원,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 건강한 노인 지원사업은 주로 고양시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고양시 건강한 노인 지원 정책·사업 시사점

-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고양시 65세 이상 고용률도 계속 증가하여 2013년 15.3%에서 2019년 20.2%로 증가하였으나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이며, 일자리의 질도 열악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2019년 개관한 노인일자리종합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일자리에 관한 모든 종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일자리 사업량 확대와 더불어 고양시 특성화 노인일자리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 고령자 친화기업의 지속적인 개발 및 노인 고용률이 높은 직종의 사업장에 고령친화적 환경개선 인센티브 지급 등 노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질적인 부분의 지원도 필요함. 여가 부문에서는 노인의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관 확충이 필요함

6. 고양시 노인 생활실태 분석

□ 분석개요

○ 고양시 노인 생활실태 분석 목적 및 방법

- 고양시 노인과 관련된 일반영역, 사회참여 및 관계 영역, 건강 및 삶의 만족 영역, 안전 영역 등에서 현재 생활실태와 욕구 등을 탐색, 이를 통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수요를 파악해 노인의 Active ageing을 위한 고양시 노인 지원정책 방향 제시하고자 함
- 생활실태 분석을 위해 2019년 지역별 고용조사, 2018년 및 2019년 고양시 사회조사, 2018년 고양시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2020년 고양시민 행복증진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를 활용함

□ 일반적 특성

○ 교육수준

- 고양시 노인의 교육 수준은 서울시, 경기도와 비교해 볼 때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는 53.2%이며, 전기노인(만 65~74세)이 중기노인(만 75세~84세)과 후기노인(만 85세 이상)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으며, 성별에 있어서는 전기, 중기, 후기노인 세 집단 모두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경향이 뚜렷함. 연령 및 성별에 따라 교육수준에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 중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고,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이 적다는 공통성을 보임

○ 결혼상태

- 고양시 노인의 결혼상태는 유배우자인 경우가 64.8%로 가장 많음. 65세 이상 노인의 35.2%는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기노인의 55.1%는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혼노인의 비율은 전기, 중기, 후기노인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형태

- 고양시 노인 가운데 아파트 거주자가 55.3%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 거주자가 22.2%로 나타남. 연령대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전기노인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주택점유형태

- 고양시 노인 중 61.3%가 자가주택 소유자로 나타남. 모든 연령대에서 주거지 소유 비율이 절반을 넘으나 1/5 전후의 노인들이 월세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양시 거주기간

- 고양시 노인의 고양시 거주기간은 평균 19.98년으로 나타남. 연령대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가구 소득

- 고양시 노인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3만원으로 나타남. 연령대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소득 만족도

- 고양시 노인의 개인소득 만족도는 총 10점 만점 중 4.66점으로 중간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생활 만족도

- 고양시 노인의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만족도는 총 10점 만점 중 5.04점으로 중간수준으로 나타남.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생활비 지출 부담항목

- 고양시 노인들이 생활비 중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은 보건의료비가 44.5%로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함. 주거비 22.2%, 부담스러운 지출 없음이 15.8% 순으로 나타남. 연령대와 관계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보건의료비 지출을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경제적 위치 평가

- 고양시 노인의 사회경제적 위치 평가는 10점 만점 중 4.97점으로 평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사회경제적 위치 평가는 청년, 중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양시 노인의 사회참여 및 관계 영역

○ 경제활동 현황

- 고양시 노인의 19.0%가 경제활동을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국 노인 고용률(32.3%), 경기도 노인 고용률(25.2%)에 비해 낮음
- 고양시 65세 이상 고용률은 2013년 15.3%에서 2019년 20.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의하면 도시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이 도농복합도시 및 농어촌지역보다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도시지역에 속하는 고양시의 노인 고용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9년 기준 20.2%로 도시지역 평균 22.2% 보다도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음
- 고양시 노인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가 36.1%로 타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종사상 지위의 연령별, 성별 비중을 종합해 볼 때 연령이 높은 여성노인의 종사상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임
- 최근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양시 노인의 월평균 임금은 186.77만 원으로 나타남. 이는 고양시 중장년 월평균 임금인 357.49만 원의 절반 수준이며, 고양시 청년 월평균 임금의 70% 정도 수준임
- 고양시 노인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가 3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 및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 고양시의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세 지역 중 가장 낮게 나타남

- 고양시 노인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영역은 사업시설 관리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18.1%로 나타났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6.0%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고양시 노인의 직장은 고양시에 소재하는 경우가 62.9%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2.3%, 파주 10.6%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 노인의 고용 관련 만족도는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3.42점으로 가장 높았고, 근로시간 3.29점, 근무환경 3.20점, 고용안정성 3.11점이 그 뒤를 이었으며, 임금수준이 3.04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고양시 노인이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수입, 고용안정성인 것으로 나타남
- 고양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동기는 경제적 도움 76.2%, 사회참여 9.2%, 자기발전 7.6% 순으로 경제적 동기의 비중이 가장 큼. 참여자 중 75세 이상이 65.3%이며, 여성이 71.6%임.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고양시 노인의 여가·문화

- 고양시 노인 중 지난 1년간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노인은 22.6%로 나타남. 중기노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평생교육 미참여 이유로 '프로그램 정보가 없어서'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18.7%)', '비용 때문에(18.1%)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 노인의 사회공헌활동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자원봉사 유경험자는 11.6%, 후원 유경험자는 14.9%인 것으로 나타남
- 60세 이상 인구의 '2018년도 제7회 지방선거' 선거투표참여율은 63.6%로 고양시 전체 인구의 투표참여율 58.4%보다 높게 나타남

- 고양시 노인이 평소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개수를 살펴본 결과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3.4%로 가장 많았고, 2개의 정기모임을 갖는 노인이 30.2%로 나타남
- 고양시 노인의 주말과 휴일 여가활동 내용을 살펴본 결과 TV시청이 68.8%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기노인, 중기노인, 후기노인 모두 동일하게 나타남
- 고양시 노인이 각종 노인복지 관련 시설을 이용한 경험을 살펴본 결과 보건소 이용경험이 69.0%로 가장 많았고, 경로당 57.6%, 노인종합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36.3%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 노인의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 기관인 고양시 노인복지관의 65세 이상 회원수는 약 7만명(2019년 8월말 기준 71,748명)으로 노인인구(132,096명)의 54.3%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복지관 이용연령이 고령화되어 70세 미만 이용회원은 7.9%에 불과함

○ 고양시 노인 가족·사회적 관계

- 고양시 노인 중 홀몸노인은 23.6%로 나타남. 1인 노인가구비율이 후기노인>중기노인>전기노인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고양시 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3.98점으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평균 2.69점으로 가장 낮음
- 고양시 노인의 46.9%는 가사를 ‘부인이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하는 상황이었고,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11.7%로 나타남
- 고양시 노인 중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족, 친구, 이웃 등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없다고 응답한 노인이 10.6%로 나타났으며, 후기노인의 18.2%가 도움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함
- 고양시 노인의 이웃에 대한 신뢰는 10점 만점 중 5.39점, 일반인에 대한 신

- 회는 4.34점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남
- 고양시 노인의 지역사회 소속감은 10점 만점에 6.76점으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후기노인의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고양시 노인의 94.0%는 평소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8.7%가 자택에 와이파이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함

□ 고양시 노인의 건강 및 행복감

○ 고양시 노인의 건강

- 고양시 노인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자가평가는 평균 2.90점으로서 보통보다 낮게 나타남
- PHQ-9 우울증 척도를 사용하여 노인의 우울증 위험 정도를 측정한 결과, 고양시 노인의 10.6%가 우울증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근소한 차이이지만 후기노인의 경우 13.6%로 우울증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양시 노인의 만성질환율은 84.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후기노인의 경우 92%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양시 노인의 절반 이상인 51.9%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며, 80.9%가 운동장소로 공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양시 노인의 보건시설 만족도는 3.77점, 의료시설만족도는 3.88점으로 보건 및 의료서비스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양시 노인의 행복감

- 고양시 노인의 행복도(삶의 평가)를 살펴본 결과 전체 노인의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5.82점으로 중간 정도를 약간 상회함
- 고양시 노인의 영역별 생활만족도(10점 만점) 중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7.7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안전 7.52점, 가족관계만족도가 7.12점 순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고용(5.7점), 거버넌스(6.38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고양시 노인의 안전 및 노후준비 영역

○ 고양시 노인의 안전

- 고양시 노인의 안전 인식을 사회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평균점수(5점 만점)는 3.14점으로 보통 이상의 안전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재해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느끼는 강도가 2.96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보보안 및 신종전염병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2.6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사회 영역별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해서 고양시 노인들은 ‘밤에 혼자 택시 탔을 때(3.22점)’ 가장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후기노인의 경우 3.98점으로 두려움의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고양시 노인의 노후준비

- 고양시 노인 중 노후준비를 하고있는 노인은 전체의 40.3%이며, 59.7%가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고양시 노인의 노후준비 방법은 예금·적금·저축성 보험이 42.7%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부동산 운용 24.6%로 나타남
- 노후준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준비할 능력이 없어서(52.6%)’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고양시 노인들이 노후생활에서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큰 문제는 경제문제로 전체의 38.7%를 차지하였으며, 근소한 차이로 건강문제(36.8%)가 두 번째로 나타남
- 고양시 노인이 노후생활을 위해 우선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노인복지서비스는 건강검진 28.6%, 간병·목욕서비스 18.2%, 가사서비스 16.9% 순으로 나타남

□ 활동적 노화 구성요소와 행복감

- 활동적 노화의 구성요소(건강, 사회참여, 안전 영역으로 구성)와 행복감의 관계에 대해 규명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 분석결과, 건강 영역과 안전 영역에 속하는 변수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참여 영역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노인의 행복감 향상을 위해서 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과 노인 소득보장 방안 마련, 노인의 우울감에 대한 관심과 꾸준한 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함

7. 정책 제언

□ 노인의 활동적 노화를 위한 기반조성

- 고령친화도시 추진(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 노인 지역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 정기적인 노인실태 및 행복도 조사
- 고령사회대응센터 설치

□ 노인의 일자리 ·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정책

- 노인일자리 관련 조사 연구
- 전기노인을 위한 일자리 모델 개발
- 노인일자리 종합센터 기능과 역할 강화

□ 노인의 문화 · 여가 지원 정책

- 노인복지관 추가 건립

- 경로당 활성화 방안 모색
- 노인이 주도가 되는 노인을 위한 정보 사이트 개발

□ 노인의 가족 · 사회적 관계 지원 정책

- 부부관계 증진 및 가족 소통 프로그램 운영
- 노인 디지털 접근성 강화
-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 지원

□ 노인의 건강 · 행복 지원 정책

- 노인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 공원 운동 환경 조성
- 지역 내 시설을 활용한 건강서비스 지원
- 우울증 관리 프로그램 지원

□ 노인의 안전 · 노후준비 지원 정책

- 신종전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 강화
-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교육 지원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절 연구 배경 및 목적

고양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0년 1월 기준 136,316명으로 전체 인구의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5년에는 30만 명이 넘어 노인인구가 26.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7). 고양시는 한국 전체보다 늦은 2005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지만 2028년 초고령사회에 진입이 예상되는 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23년이 걸려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 고령화 속도 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문정화 외, 2018).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사회복지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먼저 고령화가 시작된 유럽에서는 고령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발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생산적 노화, 성공적 노화, 활동적 노화 등 신노년 담론이 발전하였다.

이 중 활동적 노화 정책(Active ageing)은 노인을 돌봄이 필요한 보호의 대상이며 은퇴 이후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여가를 보내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보았던 전통적 관점을 전환하여 노인을 보다 독립적이고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려는 패러다임이다. 1990년대 말부터 유럽연합(EU), 세계보건기구(WH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활동적 노화에 대한 개념이 활발히 논의되었고 회원국에 권고되었으며 국제기구뿐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을 통하여 지난 20여년 동안 강력하게 옹호된 정책 전략 중 하나이다.

활동적 노화 정책은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이지만 더불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측면은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을 통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 패러다임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1960년대 1인당 국민총소득이 80달러에서 2019년 3만 1,838달러로 크게 증가했지만, 관련지표가 보여주는 오늘날 노인들의 삶의 질은 결코 높지 않다. 2019년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5.7%로 OECD 평균 13.5%의 약 3.4배로 가장 높고, 노인 자살

률은 가장 높으며 특히 85세 이상 자살률은 100만명 당 87.1명으로 OECD 평균 13.5명의 6.45배에 이른다.

수명연장으로 유래없이 긴 노년기를 살아가는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사회복지 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건강한 노인에게는 본인이 가진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적극적인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활동기반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즉, 일을 하고 싶은 노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뿐 아니라 가족을 위한 돌봄, 지역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자원봉사활동도 유급활동만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노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으며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활동적 노화 정책 대상은 건강한 노인뿐 아니라 노인이 되기 전인 중장년, 그리고 건강하고 허약한 모든 노인을 포괄한다. 본 연구원에서는 2019년 활동적 노화 정책연구 시리즈 1로 중장년 실태분석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어 2020년에는 고양시 활동적 노화 (Active ageing) 정책연구 시리즈 II로 고양시의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활동적 노화 정책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건강한 노인을 위한 활동적 노화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활동적 노화 개념틀을 적용하여 고양시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실태를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시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활동적 노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음 여섯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정책에 대해 검토하였다. 고령화에 대한 세계 노인정책 동향으로 UN, OECD, WHO, EU, UNFPA의 고령화 정책을 검토하였고 활동적 노화 개념과 유사개념인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의 개념과 비교하여 활동적 노화 개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활동적 노화를 구성하고 있는 차원과 활동적 노화 지수 특성, 구성,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국제기구의 활동적 노화와 관련된 노인정책 영역과제를 검토하였다.

둘째, 노인의 인구변화 및 정책 동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노인 인구 변화에 있어서는 전국 노인 인구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OECD 노인 현황과 비교, 노인 고용현황, 여가 문화활동 현황을 살펴보았다. 노인 연령대별 사회환경의 변화 경험의 차이와 교육, 인구 사회학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고 노인특성에 따른 일 욕구, 여가활동, 여가복지시설 이용, 건강상태 및 운동의 차이 등을 살펴보면서 노인의 다양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의 노인 관련법과 관련 계획을 검토하였다.

셋째, 국내외 노인의 활동적 노화 정책사례를 분석하였다. 국외 건강한 노인 정책사례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홍콩 등 국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국내 건강한 노인 지원 정책사례는 정부의 건강한 노인 지원 정책과 서울시, 부산시, 제주도,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검토하였다.

넷째, 고양시의 노인인구 변화와 노인복지 정책 및 사업을 검토하였다. 고양시 노인 인구 변화는 노인인구 규모, 노인인구 변화 추이, 건강한 노인인구 추정 등을 검토하였으며 고양시 노인복지정책 및 사업에서는 고양시 노인복지 예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회참여, 여가, 건강분야 사업들을 살펴보았다.

다섯째, 2019년 지역별 고용조사, 2018, 2019년 고양시 사회조사, 2018년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 2020년 고양시 행복실태조사 등 2차 자료를 활용하여 고양시 노인의 생활실태를 분석하였다. 생활실태는 WHO의 활동적 노화 정책의 개념적 틀에 따라 ① 사회참여 및 관계 영역, ② 건강 및 행복, ③ 안전 및 노후준비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65세 이상 노인을 전기노년기(early old age, young-old, 65~74세), 중기노년기(middle old age, middle-old, 75~84세), 후기노년기(advanced old age, old-old, 85세 이상)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여섯째, 앞선 연구내용을 종합화하여 고양시 건강한 노인을 위한 활동적 노화 정책 지원방안 및 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양시 건강한 노인을 위한 정책 현황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노인을 위한 활동적 노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방법이다. 고령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활동적 노화 정책, 국내 노인 동향 등을 검토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통계분석 방법으로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경기도 시군구별 장래인구 추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활용하여 노인 인구규모 및 추이 등을 분석하였다.

셋째, 사례 분석 방법으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홍콩 등 해외 활동적 노화 정책 사례, 국내 중앙정부 노인 정책사례, 국내 지방자치단체 활동적 노화 정책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넷째, 1, 2차 자료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으로 지역별 고용조사, 고양시 사회조사, 지역사회보장계획 욕구조사, 고양시 행복실태조사,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의 생활변화실태조사 등을 활용하여 고양시 노인의 생활실태를 분석하였다. 생활실태는 WHO의 활동적 노화 정책틀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술적 통계와 다중회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1-1]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내용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 OECD, WHO, EU, UNFPA의 대응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적 노화 개념 활동적 노화의 차원 국제기구 활동적 노화 적용의 노인정책 영역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인구변화 및 정책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인구규모 및 향후 전망 노인의 다양성 국내 노인정책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통계자료 분석 문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건강한 노인 지원 정책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 활동적 노화 정책 사례 분석 국내 중앙정부 활동적 노화 정책 사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시 노인 인구변화 및 노인복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시 노인인구 규모 및 전망 고양시 노인복지 정책 및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통계 및 행정 자료 분석 사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시 노인 생활실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시 노인 사회참여 및 관계 영역 분석 고양시 노인 건강 및 행동도 영역 분석 고양시 노인 안전 및 노후준비 영역 분석 활동적 노화 구성요소가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차 자료를 활용한 기술분석, 다중회귀분석 2019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2018, 2019고양시 사회조사, 2018 고양시 지역사회회보장육구조사, 2020 고양시 행복실태조사, 2020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의 생활변화 실태조사 등 활용



고양시 건강한 노인의 활동적 노화 정책 방안 도출

제 2 장

고령화 대응과 활동적 노화 정책

제1절 고령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제2절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정책

제절 고령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¹⁾

전 세계적으로 65세 미만 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왔다.

[표 2-1] 세계 주요기구 노인 인구 비율 추계

(단위 : 천명, %)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전세계	총인구수	5,320,817	6,127,701	6,916,184	7,716,749	8,424,937	9,038,687
	14세 이하	32.9	30.1	26.6	25.4	23.5	22.1
	15-64세	60.9	63.0	65.7	65.4	64.9	64.0
	65세 이상	6.2	6.9	7.7	9.3	11.6	13.9
OECD	총인구수	1,067,386	1,152,639	1,236,914	1,304,137	1,355,071	1,389,358
	14세 이하	22.5	20.5	18.6	17.7	16.7	16.0
	15-64세	66.0	66.4	66.7	64.4	61.9	60.1
	65세 이상	11.6	13.1	14.7	17.9	21.3	23.9
EU	총인구수	475,995	487,441	503,833	514,913	522,597	525,750
	14세 이하	19.4	17.2	15.7	15.5	14.6	14.2
	15-64세	66.1	66.5	66.8	64.2	61.5	58.9
	65세 이상	13.8	15.7	17.5	20.2	23.8	27.0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통계동향」, 2019, P. 144.

* 원자료 : OECD, Historical population data and projections(1950-2050), (<http://stats.oecd.org>), 2016.1.

1) 보건복지부,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2002. / WHO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가이드', 2007. / 김영현, "고령자 활동적 삶을 위한 도시 생활권 공공공간 계획요소와 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19. pp. 14-20. 등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함
* 정책동향은 건강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노인을 포괄하는 세계 고령화 대응 정책을 중심으로 기술함

[그림 2-1] 세계 고령화 대응 정책 동향

	세계 고령화 대응	노인을 위한 지원 정책 주요 내용(제안, 권고)
1948년	UN, 노인의 권리에 대한 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주 보조 • 건강 보호 • 생활 안전 • 여가 • 일자리 마련 • 노인 존경
1982년	UN, 1차 비엔나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인구고령화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 • 고령화에 따른 건강과 삶의 질 유지 • 노인세대를 위한 적절한 도시환경 조성
1991년	UN, 노인을 위한 UN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2000년	OECD, 고령화에 따른 7대 개혁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소득이전프로그램의 조기퇴직 유인가능성 배제 • 노년층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와 자질 제고 • 공공부채 축소와 재정건전성 확보 • 은퇴 후 소득원의 다양화 • 건강의료문제의 비용 효율성 중시 • 효율적 규제를 포함한 금융시장 인프라 강화를 전제로 고액연금제도 도입 가능 • 국민적 이해를 얻기 위한 전략적 틀 마련의 중요성
2002년	UN, 2차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과 발전(고용, 훈련, 참여 등) •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 증진 •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
2007년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8대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편의 환경 • 안전 및 고령친화시설 • 주거 편의 환경 • 사회적 존중 및 포용 •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 지역사회 활동 참여 • 지역복지 및 보건 • 고령인 활용 및 일자리 지원
2012년	EU, 활동적노화 및 세대간 연대를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지속적 직업교육과 훈련, 연령차별 방지 등) • 사회참여(소득보장, 사회적통합, 노인봉사 등) • 자립생활(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고령친화주택 등)
2016년	WHO, 고령화에 대한 국제전략 및 실행계획(2016-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노화에 대한 실천 의무 • 고령친화적 환경 개발 • 고령자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시스템 정비 • 고령자 장기돌봄을 위한 시스템 개발 • 건강한 노화에 대한 측정 및 모니터링

1. 노인을 위한 UN 원칙

고령화 이슈에 대해 최초로 UN에서 ‘노인의 권리에 대한 선언(1948년)’이 이루어졌으며, 선언의 주요 내용은 의식주 보조, 건강보호, 생활안전, 여가, 일자리 마련, 노인에 대한 존경 등을 포함하고 있다. 1991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에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능한 경우 정부 사업에 이 원칙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정책 및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표 2-2] 노인을 위한 UN 원칙(1991)

구분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p style="text-align: center;">독립 (Independen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참여 (Particip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구분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보호 (C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자아실현 (Self-fulfill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기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존엄 (Dig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2002.8. pp. 72-74(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2. UN,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UN은 1982년, 2002년, 2013년에 1,2,3차 고령화회의를 개최하고, ‘고령화에 관한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을 발표하였다. 1차 ‘비엔나 고령화 국제행동계획(1982년)’에는 세계적 인구 고령화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 고령화에 따른 건강과 삶의 질 유지, 노인세대를 위한 적절한 도시환경 조성이 제시되었으며, 2차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2002년)’은 고령화가 경제·사회적 부담이 아닌 미래 발전의 토대가 됨을 강조하고, 노인의 소외 완화, 이주 문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 등을 포함하였다. UN은 각 지역위원회 및 다양한 UN 조직을 활용하여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에 대한 전 지구적인 홍보와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²⁾.

[표 2-3] UN,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2002)

주요 방향	과제	목표
노인과 발전	사회와 발전에 적극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의 사회·문화 경제·정치적 기여 인식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노인 참여
	근로와 고령화되고 있는 노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노인에게 고용기회 부여
	농촌개발, 이주 및 도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지역의 생활여건 및 하부구조 개선 농촌지역 노인들의 소외 완화 노인이주자의 새로운 지역사회 통합
	지식, 교육 및 훈련에의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속적인 교육, 훈련 및 재훈련에 대한 기회 균등 모든 연령층 잠재능력과 전문지식의 완전한 이용
	세대간 연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간 평등과 상호이익을 통한 연대성 강화
	빈곤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들의 빈곤 감소
	소득보장, 사회보장 및 빈곤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 증진 모든 노인들에게 최저소득 제공
	긴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재해 등의 경우 식량, 피난처, 의료 등 서비스 접근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 증진	전 생애에 걸친 건강증진과 안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의 위험요소 감축 노인 질병 예방 정책 개발 식품 및 적절한 영양에 대한 모든 노인들의 접근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등한 의료접근을 위한 불평등 철폐 일차보건의료서비스의 강화 및 노인 참여 지속적인 보건의료 개발 노인의 개별참여와 장기요양치료서비스 강화
	노인과 에이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노인을 위한 에이즈 영향평가 강화 에이즈 감염노인에게 적절한 정보, 보호, 훈련, 치료 지원 제공 아동보호자로서 노인의 기여 증진
	보호제공자와 보건전문가의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전문가를 위한 정보와 훈련 제공
	노인들의 정신건강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 개발
	노인과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노인의 기능적 능력유지 및 참여 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	주택과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선택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에서의 노화증진 독립적 주거향상을 위한 주택과 환경 설계증진 노인을 위한 교통수단의 제공 증진
	보호 및 보호제공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보호와 서비스 제공 및 보호제공자 지원 노인의 보호자 역할 지원
	유기, 학대 및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에 대한 유기, 학대 및 폭력 근절 노인학대 대응을 위한 지원서비스 신설
	노화의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의 권위, 지혜, 생산성, 공헌에 대한 공중의 인식 향상

〈자료〉 보건복지부,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2002.8. 행동권고(16항~113항) 내용 정리.

*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고사항을 대부분 포함함 (단,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큰 감염률을 보이지 않는 '노인과 에이즈' 는 제외)

3. OECD, 고령화에 따른 7대 개혁 원칙

OECD의 ‘고령화에 따른 7대 개혁 원칙(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eing Society in Reforms for an Ageing Society 2000)’에는 각종 사회적 소득이전 프로그램의 조기퇴직 유인 가능성 배제, 노인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와 자질 제고, 공공부채 축소와 재정건전성 확보, 은퇴 후 소득원의 다양화, 건강·의료문제의 비용효율성 중시, 효율적 규제를 포함한 금융시장 인프라 강화를 전제로 고액연금제도 도입 가능, 고령화 대비 개혁의 국민적 이해를 얻기 위한 전략적 틀 마련의 중요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³⁾

4.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고령친화도시는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활동적 노화를 구현하기 위한 도시와 지역사회에 제시되면서 강조되고 있다. 세계적인 고령 인구의 증가와 고령사회 대응 방안으로써 전 세계적인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하였고, 고령친화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Ageing in Place’ 개념은 핵심가치로 역할한다. ‘Ageing in Place’는 1982년 제1차 세계 고령화 회의의 국제행동계획에서 언급된 개념으로, 건강한 노인 뿐만 아니라 기능적 제한이 있는 노인들 모두 기존 살아오던 거주지 또는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오래 거주하면서 생활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노인의 개인 생활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시키면서 시설 요양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는 점에서 노인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고령자들의 사회참여 도모의 목적으로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2007)(이하 GAFC 가이드)를 발간하여 유럽과 북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보급하였다. GAFC 가이드를 통해 정의한 ‘고령친화도시’란 정책, 서비스 및 도시구조를 통해 6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 지역사회 및 경제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전 생애에 걸쳐 활기차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Active Ageing)을 지원하는 도시를 의미하며(고영호 외, 2018),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

3) 이수희 외,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II」, 한국경제연구원, 2005. p. 20.

는 지역사회를 의미한다(정순돌, 어윤경, 2012). 이를 위한 주요 요인으로 자율성(Autonomy), 독립성(Independence), 삶의 질(Quality of life), 그리고 건강 유지(Healthy life expectancy)가 중요하며(이동현 외, 2012; WHO, 2007), 또한 활기찬 노년을 위해 경제적 결정요인, 보건과 사회서비스 요인, 행동적 요인, 개인적 요인, 물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을 제시하였다(지은구 외, 2013; WHO, 2007). 결과적으로 고령친화 도시는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이며(정순돌, 윤희수, 2014), 나아가 고령자 자신의 의사 결정이 중요시되는 주체적 생활 보장, 지역사회에서의 안심 생활 보장, 사회적 자원의 접근성·활용성 보장, 활기찬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생활 보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를 지칭한다. 이런 배경에서 WHO는 국제 고령친화 도시 네트워크 구축(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GNAFCC)을 위해 전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노인 인구가 경험하고 생활하는 다양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고령친화도시(WHO)의 8대 영역으로는 ‘야외공간 및 건물’,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환경 안정성’, ‘사회 참여’, ‘존경 및 사회통합’, ‘시민참여와 고용’,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지역사회자원 및 건강서비스’이 있다.

2020년 1월 기준, GNAFCC에 전 세계 41개국 1,000개의 도시와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가입 요건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간의 협력관계 구축, 지역여건을 고려한 노인실태조사, 지역사회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고령친화도를 자체 평가하고, 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체계를 WHO에서 평가하여 결정한다.

[표 2-4]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영역	기본방향	내용
야외공간 및 건물 (Outdoor spaces and build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제고 - 야외 환경과 공공건물 등을 포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녹지의 중요성, 휴식공간의 확보, 고령친화적인 도로, 보행자가 안전한 교차로, 안전한 환경, 인도와 자전거 도로의 확보, 고령친화적인 건물, 적절한 공공화장실의 확보, 고령자에 대한 배려 등
교통 (Transpor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이 쉽고 저렴한 대중교통 편의 환경 구축 - 고령자의 사회참여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이용가능성, 가격의 적절성, 신뢰성과 운영 빈도, 목적지로의 이동 가능성, 고령친화적인 승수 수단, 노인을 위한 특별서비스, 우선석 및 우대, 정중한 운전자, 안전성과 편안함, 정거장, 택시, 지역사회 이동, 정보·운전환경, 고령운전자에 대한 우대, 주차 등
주택 (Hou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시설의 구조·디자인·위치·비용 및 공공 설계 - 고령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실현 	가격의 적절성, 중요서비스, 디자인, 유지, 변경, 서비스에의 접근성, 지역사회 및 가족과의 연계, 주거 선택권, 주거환경 등
사회참여 (Social particip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의 가족·사회·문화·종교·여가 활동 접근성 - 행정·정보 지원체계를 통한 사회적 소속감 증대 	접근 가능한 참여 기회, 적절한 비용, 폭넓은 사회 참여 기회, 참여의 촉진과 고립에 대한 관심, 세대·문화·지역사회의 통합 등
존경과 사회통합 (Respect and social inclu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이미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매체 활용 - 지역사회 내 고령자 역할 강화를 통한 세대통합 	노인에 대한 정중한 행동, 연령차별주의와 무시, 세대 간 교류와 공교육, 지역사회 내의 위상, 지역사회의 도움, 가족 내 위상, 경제적 배제 등
시민참여와 고용 (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욕구에 따른 자원봉사 및 취업 기회 확대 - 시민참여활동 독려 및 지역사회공헌 활성화 	자원봉사 기회, 더 나은 고용 기회, 고령 노동자와 자원봉사에 대한 유연한 적응, 시민참여의 촉진·훈련·사회 기회, 노인의 기여에 대한 인정 등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보제공체계 구축 - 정보 접근성 강화로 사회활동 및 인간관계 활성화 	정보의 폭넓은 전파, 적절한 시점에서의 적절한 정보제공 등
지역사회지원과 건강서비스 (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의료서비스의 충분성·적절성·접근성 강화 - 고령자 건강생활 유지 및 자립생활 가능성 증대 	접근 가능한 보호서비스, 폭넓은 건강서비스, 노화관련 서비스, 재가서비스, 집에서 거주하기 힘든 사람을 위한 주거시설, 지역사회 서비스 네트워크, 자원봉사의 필요성 등이 언급됨

<출처> 정순돌, 윤희수(2014), 정은하(2016)에서 재구성

5. EU, 활동적 노화 및 세대간 연대를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EU는 2012년을 ‘유럽의 활동적 노화 및 세대 간 연대의 해(EY 2012)’로 정하고, 경제활동 중심보다 포괄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고령화 대책을 추진시켜 나갔다. EY 2012 캠페인의 목표는 활동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 정책담당자들이 시민사회 및 기업과 협력하여 고령자의 취업, 참여, 사회보장, 보건 의료, 정보화 및 이동성 보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발간(2012)한 ‘활동적 노화 및 세대 간 연대를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은 고용, 사회 참여, 자립생활 부분에서 활동적 노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표 2-5] EU의 활동적 노화 및 세대간 연대를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2012)

구분	EU의 정책 가이드라인 원칙	
고용	지속적인 직업 교육과 훈련	모든 연령대의 남녀에게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여 완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질 높은 직업의 교육, 훈련, 기술개발의 접근성과 참여권을 제공한다.
	건강한 근로 조건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여 근로자의 평생 취업 능력을 보장하도록 근로 조건과 근로환경을 증진한다.
	연령 관리 전략	연령대에 따라 변화하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직장 생활과 근로 조건을 조정하여 조기 퇴직을 피한다.
	고령근로자를 위한 고용서비스	노동시장에 남고자 하는 고령근로자들을 위해 상담, 취업알선, 재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연령차별 방지	노동시장의 고령근로자들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근로자가 일하기에 적합한지 판단할 때 연령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을 삼가하고, 연령과 관련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근로현장에서의 차별적인 태도를 막고, 고령근로자들이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도록 한다.
	고용친화적인 세금혜택시스템	고령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혜택을 보장하는 임금지불 및 조세제도를 검토한다.
	경험의 이전	멘토링과 연령다양성(age-diverse)팀을 통해 고령근로자들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다.
	근로와 돌봄의 조화	남성과 여성에게 맞는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휴가제도를 제공하여 비공식 돌봄제공자로서 고용상태로 남아있거나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구분		EU의 정책 가이드라인 원칙
사회 참여	소득보장	고령자들이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고 품위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소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적 통합	고령자들에게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고립되는 것을 방지한다.
	노인봉사	고령자들의 봉사활동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물을 제거하여 고령자들의 능력과 기술, 경험 등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
	평생학습	고령자들에게 배움의 기회(정보통신기술, 자기관리, 개인금융 등)를 제공하여 사회에 활발히 참여하고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다.
	의사결정에의 참여	고령자들을 의사결정과정, 특히 자신들이 영향을 받는 분야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비공식적 보호자들 위한 지원	비공식적 보호자들이 접근 가능한 전문적인 지원과 훈련을 만들어서, 보호자들의 사회적 배제를 막는 일시적 휴식서비스와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보장한다.
자립 생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의 시행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건강한 삶을 극대화하고, 의존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고령친화주택과 서비스	건강장애를 가진 고령자들이 최대한의 자주성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 주택을 개조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접근 가능하고 가격이 일맞은 교통	고령자들에게 접근이 쉽고 비용이 적절하도록 교통시스템을 조정하여 그들이 자율적으로 지내면서 사회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연령친화적 환경, 상품,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의 접근에 대한 연령 차별을 방지한다. 새로운 기술의 적용(e-Health) 등을 통하여 지역 환경과 상품, 서비스 등을 조정함으로써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용이하도록 만든다.
	장기요양에서 독자성의 극대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자율성과 참여를 최대한 유지, 증진, 회복할 수 있도록 존엄성 보장과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출처> 박영란. “초고령사회 대비 EU의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정책 패러다임”, 유럽연구, 31(1), pp. 149-150.

6. UNFPA, 고령인구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권고안

UNFPA(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유엔인구기금)에서 2012년 발간한 ‘21세기의 고령화: 축복받을 성과와 당면한 도전(Ageing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Celebration and A Challenge)’에서는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당사자들이 취해왔던 정책을 검토하고, 향후의 과제(way forward)에서 인구고령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고 이와 관련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2-6] UNFPA의 고령인구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10가지 우선 행동(2012)

	UNFPA의 권고안 내용 전문
1	인구고령화는 불가피한 인구변동의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기관(정부, 민간부문, 지역사회, 가족) 모두가 고령인구의 증가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강화하여, 고령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개혁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2	고령자 모두가 품격과 안정감을 지니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증한다. 이를 위하여, 나라의 사회적 보호의 최저기준(SPF, Social Protection Floor)이나 여타 사회적 투자를 추진함으로써, 고령자가 기본적인 보건으로 및 사회적 서비스를 향유하고, 최저한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하여 자립, 독립하여 생활하는 기간을 연장하며, 고령기의 궁핍을 예방하고, 보다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행동계획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강력한 정치적 책임의식과 위기 또는 정권교체가 있는 경우에도 계획 자체가 후퇴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예산상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3	지역사회나 가족을 지원하여, 허약해진 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케어를 받게 하고, 적극적이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support system)를 정비하여 고령화의 진행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한다.
4	미래의 고령세대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최고의 선행투자로서, 현재의 청년층에게 투자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촉진하고, 교육과 고용기회, 건강의료서비스의 이용, 노동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의 고령자 세대를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통합시키기 위하여, 유연성 있는 고용제도(flexible employment), 생애학습(lifelong learning)과 재훈련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5	고령화에 대한 비교연구를 시도하는 국제적, 국내적 활동을 지원하고, 젠더(gender)와 문화를 배려하는 데이터와 그것을 이용한 연구에서 명백해진 사실들을 정책수립의 담당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6	고령의 여성과 남성 각각의 요건을 배려하여, 고령화를 젠더 관련 정책에, 또 젠더 문제를 고령화 정책의 주류(mainstream)에 위치하도록 한다.
7	고령화와 고령자의 요구를 모든 나라의 개발정책과 사업계획에 확실하게 포함시키도록 한다.
8	고령화와 고령자의 요구를 국가의 인도적 대응, 기후변동의 경감 및 적응계획, 재해관리 및 준비계획 속에 확실히 포함시키도록 한다
9	고령화 문제가 특성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2015년 이후 개발계획 스케줄에 적절히 반영하도록 한다.
10	권리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고령자 문화를 창조하고, 복지 수혜자에서 활동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헌하는 사람들까지, 고령자에 대해서 사람들의 전반적 사고방식이나 사회전반의 의식의 변화를 촉진하며, 이를 위하여 국제적인 인권문서의 작성과 국내 법 규정으로의 전환, 연령에 의한 차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적극적인 대책(affirmative measures), 고령자를 자립하는 개인(autonomous objects)으로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출처〉 UNFPA, “21세기의 고령화 : 축복받을 성과와 당연한 도전 요약본(한글판)”, 2012. p. 8.

제2절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정책

1.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개념

앞서 살펴보았듯이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함께 노인의 존재를 새롭게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을 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건강, 활동, 독립, 사회·경제적 기회와 참여 증진 등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논의되고, 이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노인을 의존적 존재, 돌봄의 대상으로 규정짓는 것에서 벗어나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특징들을 새로운 각도로 조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의 잠재력 개발, 생산적 대상 등 독립적이고 건강한 존재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면서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eing),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eing)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 개념은 사회경제적 맥락 가운데 발전해온 것으로 서구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정착(1950~60년대), 복지국가 축소와 인구고령화 문제의 대두(1980년대),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의 보편화와 근로 연계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1990년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각 개념들은 등장시기와 강조점의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1980년대 등장한 활동적 노화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 Rowe와 Kahn(1998)이 제시한 성공적 노화의 개념은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 초점을 두고 각 기능 수준이 높으며 삶의 만족과 환경에 대한 적응 수준이 높은 상태로 규정되고 있다(권중돈, 2019). 노년기의 행복한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사회구조적인 측면보다 개인 수준에서 탐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Rowe와 Kahn(1998)은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애주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상태를 노년기 동안 유지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의 목표라고 한다. 성공적 노화는 각 차원별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성공적 노화에 도달하지

못한 노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생산적 노화는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축약한 개념으로 사회정책에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점을 가장 최근으로 가장 제한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다(Morrow-Howell, Hinterlong & Sherraden, 2001). Caro, Bass & Chen(1993)에 의해 ‘유급이든 무급이든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과정에 기여하고 이를 가능케 하거나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노인들의 활동’으로 정의되는 개념으로서 노인들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둔다. 이는 경제협력기구(OECD)의 노인 정책에서 강조한 관점으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것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것을 이상적인 노년으로 본다. 따라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신체적·시간적 여유가 있는 노년기에 초점을 둔다.

생산적 노화는 사회활동 이론을 기반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강조하였으나 활동적 노화는 노동시장 참여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인 활동의 참여를 논하였다. 뿐만 아니라 활동적 노화에서는 노인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과 경험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 모든 분야에서 노인의 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Walker, 2006).

[표 2-7]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 활동적 노화 비교

구분	성공적 노화 (Successful Ageing)	생산적 노화 (Productive Ageing)	활동적 노화 (Active Ageing)
등장 배경	바람직한 노년기의 삶에 관한 고 민에 대한 연구	고령사회의 진입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라는 거시적 문제에 대 한 해결책으로 제시	1960년대 전후 노년학에서 논의 되기 시작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 담론 이 한계점을 수정하고자 노력
정의	신체적인 질병이 없이, 높은 수준 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유지하 며, 적극적으로 삶을 사는 것	유급이든 무급이든 생산과 관련된 과정에 기여하거나 가치를 창출하 는 기술을 습득하는 노인들의 활 동	노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적으로 생산적인 생활을 할 수 있 는 능력(OECD) 사회구성원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 참여, 보장의 기회를 극대화 하는 과정 (WHO)

구분	성공적 노화 (Successful Ageing)	생산적 노화 (Productive Ageing)	활동적 노화 (Active Ageing)
목표	생애주기를 통해 지속적인 준비를 하고, 이러한 상태를 노년기 동안 유지하는 것	노인들의 생산성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에 초점	최대한 더 많은 노인들을 더 오랜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머물도록 하려는 것
강조점	주로 사회구조적 측면 보다는 노년기에 행복한 삶을 위한 개인적 노력의 중요성 강조	이상적인 노년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생산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강조	단순히 노동시장 참여의 수준을 넘어 사회·경제·문화·영적 활동·시민사회 활동 등 사회 모든 분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
의미	의학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성공적 노화의 기준을 제시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강조함으로써 노후의 삶에 대한 적극적 의미를 부여	경제적·사회적·생산적 활동에 관여하는 노인들의 능력과 욕구를 반영 생애과정의 안녕을 강조하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
한계	개인의 다양성을 무시 성공적 노화의 개념적 정의 상태에 부합하는 삶을 성공적으로 평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만 초점을 둔 좀 더 협소한 관점	

〈출처〉 임호·오재환,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부산연구원 2017. p. 127.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는 인구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국가의 새로운 정책틀로 1990년대 말부터 유럽연합(EU), 세계보건기구(WH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활동적 노화에 대한 개념이 활발히 논의되었고 회원국에 권고되고 있다.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의 위기의식에 등장하여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고령노동력 확보 및 사회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럽은 고령사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발전과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동적 노화 패러다임에 입각한 고령사회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영란, 2013). 즉 활동적 노화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 영역 즉, 노동, 소득보장, 건강, 교육, 훈련, 사회봉사, 취미활동 등에 적용하고 있다(윤민석·서명희, 2015).

활동적 노화의 기반이 되는 활동 이론은 활동이 삶의 만족에 대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것은 노인 집단이라고 예외는 아니라고 하였다. 중년기까지의 활동과 역할의 축소를 강요받아 사회와 분리될 경우 다양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 노년기에도

지위에 따르는 역할이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하여 긍정적 노화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권중돈, 2019; Hooyman & Kiyak, 2014). 1950~60년대 서구의 자본주의 발전과 당시 정착된 연금제도와 함께 노인이 은퇴 생활을 즐기며 더 활기차게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즐거운 은퇴 생활 등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홍보 방안으로 활용되면서 활동 이론은 노년기의 지침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활동과 참여라는 측정의 용이함으로 전문가들에게 선호받은 이론이기도 하다(최희경, 2010). Havighurst(1963, 1968)와 Stone(1996) 등은 노년기의 활동을 강조하며 활동 이론을 논의하였다. 노년기는 생물적 노화와 건강의 불가피한 변화를 제외하고는 노인은 근본적으로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수록 심리적 만족감 또는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잘 적응하는 노인은 과거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의 연령에 적합한 역할을 찾아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적절한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역할이나 활동이 중단될 때 새로운 역할이나 활동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활동 이론은 노년기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강조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역할을 지지하고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노년기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강조되는 이론이 부각되면서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활동적 노화에 대하여 1990년대부터 구체적으로 정책적 대응을 마련하고 새롭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활동적 노화는 고령사회 대응에 있어 최선의 지침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각각 활동적 노화에 대한 정의와 자체 실현과제를 제시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활동적 노화의 개념을 ‘사람이 고령화되어 가면서도 사회와 경제 속에서 생산적인 삶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OECD, 1998). 은퇴 연령기에 일과 퇴직 간 이행에 있어서 유연한 선택과 노동시장에 남아있기로 선택한 노인들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기여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Hutchison et al., 2006).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사회정책 패러다임으로 활동적 노화를 재정립하면서 노인의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포괄하는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2002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던 ‘제2차 세계 고령화 회의’에서 ‘고령화

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for Action on Ageing: MIPAA)'가 채택되면서 활동적 노화를 국가적 경제 및 사회정책,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사회 내에서의 고령자들의 권리와 욕구를 통합하는 것으로 결의하여 촉진하게 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활동적 노화란 사람들이 나이 들에 따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health), 참여(participation), 안전(security)의 영역에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WHO, 2002). 이것은 노동 시장 참여하는 능력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등 다방면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상호작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양운정, 2011; Thanakwang & Soonthornhada, 2006; Deeming, 2009).

한편 유럽연합(EU)에서는 활동적 노화를 폭넓은 시각에서 조망하면서 경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활동을 강조하였다. 지속적인 노동 시장 참여, 가사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돌봄 제공과 같은 일에 대한 적극적 기여, 자원봉사와 무급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스포츠 활동이나 취미, 적극적 여가활동 등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고용 정책적 수단에 초점을 두고 더 오래 일함으로 은퇴시기를 늦추고, 그 이후 사회적 활동으로 생산적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성취되는 장기적인 경제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Walker, 2008). 유럽연합(EU)은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for Action on Ageing: MIPAA)' 10주년을 맞이하여 '활기찬 노후와 세대 간 결속(Active Ageing in International Solidarity)'을 위한 해로 지정하였고, 'European Year 2012'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노인들의 사회참여 지원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고용, 사회참여, 독립적 생활로 나누어 정책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고령사회 대책을 경제활동 중심의 '생산적 관점'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보장하며 '모든 연령을 위한 사회'를 추구하는 방향을 구체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세대 간 연대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구 고령화와 전 세대와의 교류를 통하여 의식의 환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 각국 정부, NGO, 대학 등의 역할을 부여하여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표 2-8] 국제기구의 Active Ageing의 정의와 Active 내용

구분	정의	활동(Active/Activity)의 내용
OECD (1998)	노인이 되어가면서 사회 및 경제 속에서 생산적인 삶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역량	노동, 학습, 여가활동, 돌봄 제공 등에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의 유연성
EU (1999)	이전보다 더 오래 살며, 풍부한 자원과 더 좋은 건강상태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삶을 맞추고, 이러한 개선이 가져온 기회를 포착하는 것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더 오래도록 일하기, 더 늦게 은퇴하기, 은퇴 후 돌봄 제공 또는 자원봉사 같은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기 등
WHO (2002)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 참여와 안전을 위한 기회를 최대화 하는 과정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 시민적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

<출처> 김교성·김수연(2016). "활동적 노화에 관한 다차원적 측정과 국가간 비교", 『사회복지정책』, 2014, 41(1) : 1-32.

국제기구들 외에도 몇몇 학자들이 정의한 바를 살펴보면, Walker(2008)는 사람들이 나이 들에 따라 참여와 안녕을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의하였으며, Deeming(2009)은 적극적인 삶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한편 Fernández-Ballesteros 외(2013)에 의해 제안된 활동적 노화의 또 다른 측면은 심리사회적인 배경에 기반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활동적 노화는 질병과 장애의 가능성이 낮고,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이 높으며, 긍정적인 분위기와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참여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을 통하여 지난 20여년 동안 강력하게 옹호된 정책 전략 중 하나가 활동적 노화임을 알 수 있다. 활동적 노화의 전략은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하여 통찰력을 예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인이 노동 시장 및 가족·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활동적 노화 정책의 다양한 설계는 정책 목표를 결정하는데 복지 및 사회 응집력을 유지하고, 공공 복지 시스템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독립된 증거 기반과 고품질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개별 수준의 노화 경험을 유급 및 무급 노동과 같은 활동,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 개선, 노년기 뿐만 아니라 전 세대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의 수준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하여 활동적 노화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자 활동적 노화 지수(Active Ageing Index: AAI)를 구성하고 수준별(국제, 국가, 지방정부)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Zaidi et al., 2018).

2.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차원

1) 활동적 노화 차원^{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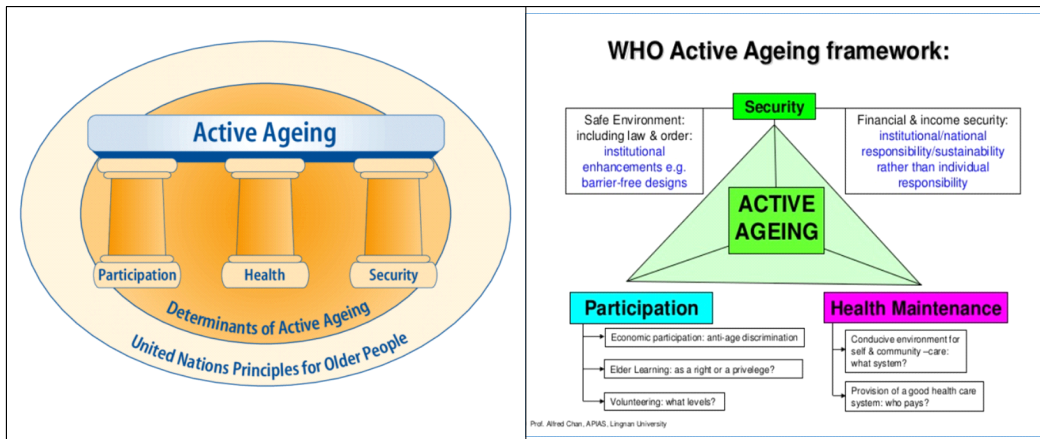
활동적 노화를 기본 정책 방향으로 하는 경우 관련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노인이 주체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경제적 요소는 물론 사회·문화·정치·건강 측면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정책, 연구 및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활동적 노화 개념의 명확성 뿐만 아니라 수준을 어떠한 형식으로 측정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합의는 미비한 실정이다. 활동적 노화의 형태(form)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 건강한 노화 등을 의미하는 바와 유사하게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다양한 접근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활동적 노화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1) 활동적 노화의 출현 배경, 개념 및 구성요소 검토 연구(선우덕·김세진·모선희, 2012; 박영란, 2013; WHO, 2002; Nayak et al., 2006; Thanakwang & Soonthorndhada, 2006), 2) 활동적 노화 개념 속 개별 국가들의 고령화 정책 대응 제시 및 비교 검토 연구(Walker & Kyōkai, 2001; Giorgi, 2005; Polykreti, 2006; Hoskins, 2007), 3) 활동적 노화에 대한 노인들의 직접적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서베이 연구(Norazizan & Aizan, 2007; Tesauo & Pianelli, 2010), 4) 실증적 수준에서 활동적 노화 상태 파악을 위한 노인에게 적용 가능한 활동적 노화 지표의 개발 및 관측 변인 측정 연구(UNECE, 2013) 등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각 연구에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활동적 노화의 차원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기에 어떠한 관점으로 논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활동적 노화의 개념 및 구성요소 검토의 차원에서 살펴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건강, 사회참여, 안전의 차원에 대한 내용이다. ① 건강(health)영역은 개인의 건강증진요인을 최대화함으로써 건강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서비스나 요양서비스 이용 감소를 가져올 것을 기대한다. ② 참여

4) 본 부분은 이은진(2016). 노인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활동적 노화 유형화 및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재구성하였음.

(participation) 영역에서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교육기회 제공 등을 통해 고령자들이 사회경제적, 문화적, 영적 활동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년기에도 보수 또는 무보수로 생산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③ 안전(security) 영역은 노년기에 사회적, 재정적, 신체적으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존엄성과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선우덕·김세진·모선희, 2012; 박영란, 2013; WHO, 2002; Boulton-Lewis & Tam, 2011). 이와 같이 건강, 참여, 안전의 각 차원에서 가지는 목표를 제시하며 노인의 활동적 노화의 측면을 다차원적으로 논의하는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2] 활동적 노화 구성요소



<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Policy Framework(WHO, 2002)

이와 다르게 활동적 노화 개념을 노인 개인의 차원에 적용하여 반영한 연구들도 소수 제시되고 있는데, Nayak, Buys와 Lovie-Kitchin(2006)은 활동적 노화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고자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지표를 구성하였다. 165개 세부 속성들을 예측적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탐색하여 일, 건강, 학습, 사회·정서적, 생애 사건 등 8개 속성이 활동적 노화의 지표로 산출되었다. 이 연구는 활동적 노화가 건강이나 사회적 차원의 단일 차원이 아니라 복합적인 이슈이며, 삶의 질과 관련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Thanakwang와 Soonthorndhada(2006)는 대만의

5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활동적 노화의 건강, 사회 참여, 안전의 세 가지 차원에서 15개의 관련된 지표(건강 차원의 주관적 건강상태, 심리적 안녕, 일상행동 유형, 기능적 제한, 장애, 운동 참여, 사회 참여 차원의 노동시장 참여, 가사노동, 집단 및 클럽활동, 안전 차원의 소득, 소득충분도, 소득원천, 안전한 환경, 주거지, 자가 소유 등 포함)를 선정하여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 국가의 수준에서 활동적 노화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활동적 노화의 세 차원 가운데 더욱 개발되어야 할 영역이 무엇이며, 보다 많은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집단을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활동적 노화 개념 속 개별 국가들의 고령화 정책 대응 제시 및 비교연구를 살펴 볼 수 있다. 특정 정책 영역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정책의 국가별 차이점 또는 관련 정책 개혁 등을 분석함으로써 활동적 노화의 차원을 탐색하고 있다. Polykreti(2006)는 유럽 연합(EU) 회원국들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들 가운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개인, 기업, 국가 사회영역의 포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독일과 스웨덴의 성공적인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은퇴 후 활동 프로그램이 자원봉사활동 촉진과 세대 간 연대성을 강화시켰고, 출산수당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나 일·가정 양립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스웨덴의 경우 고령자 고용 기업의 세금감면 등이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활동적 노화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춘 처방보다는 포괄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Hoskins(2007)는 활동적 노화와 관련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다.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보호 시스템 적용, 빈곤예방을 위한 시스템, 사적연금과 직업연금 체계 확립, 여성에 대한 생애 과정 관점에서 보호 강화, 건강촉진 및 예방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동등한 제공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등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다차원적 개입을 요구하였다. 이 외에 선행연구들에서도 활동적 노화를 위한 고령화 정책 대응 정책 영역의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고령화 정책 영역을 크게 사회보장, 연금정책, 고용 촉진,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 등으로 살펴보고 있다(Walker & Kyōkai, 2001; Giorgi, 2005; Polykreti, 2006; Hoskins, 2007).

셋째, 활동적 노화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Norazizan과 Aizan(2007), Tesauro와 Pianelli(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교육, 고용, 소득 등), 가족 배경(결혼상태, 가구구성), 장애율, 고용율, 평생학습, 운동 참여 등 몇 가지의 영역별 범주를 설정하고, 2차 자료 분석, 심층면접 등을 통해 활동적 노화의 양상이 지역이나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Bowling(2008)은 노인이 인지하는 활동적 노화 요소를 신체적 건강, 여가활동, 사회적 접촉, 정신적 활동, 서비스와 지원, 심리적 건강, 재정, 독립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론적 모델의 주요 항목과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은 활동적 노화의 의미가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배제하고 있어 건강한 노인과 허약한 노인을 모두 포함하는 학문적 논의와 정책적 개념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넷째, 실증적 수준에서 활동적 노화의 파악을 위해 적용 가능한 지표 개발의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HAI(Hartford Aging Index)는 OECD국가를 대상으로 생산성 및 사회참여, 웰빙, 형평성, 통합력, 안정성 등을 측정하여 활동적 노년지수를 산출하고 있으며, 노인의 실질적 헬스케어의 접근, 사회참여를 위한 재정적 안정 및 기회의 보장, 노인의 독립성 향상과 의존성을 낮추는 지지의 제공 등이 노인의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9)에서 HAI(Hartford Aging Index)를 활용하여 ‘한국의 활동적 노년 지수(Korean version of Hartford Aging Index, KHAI)’를 산출하였는데, 산출 결과 한국의 활동적 노년 지수는 53.04로 OECD 평균(53.49)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OECD 34개 국가 중 20위(하위 41%)로 나타났다.

GAI(Global AgeWatch Index)는 소득안정성, 건강상태, 노인의 능력, 사회적 환경 등을 측정하여 노인의 웰빙과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내며, IW(Index of Well-being)는 노인의 물질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웰빙 등을 측정하여 노인 인구의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한다. ‘세계노인관측지수(Global Age Watch Index, GAI)’인데, 2015년도 발표한 노인행복지수 세계 60위라는 하위권에 위치하여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및 생활의 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⁵⁾.

5) 홍석호김순은.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 보건사회연구 36(4), 2016, pp. 126-130.

AAI(Active Ageing Index)는 2012년 UNECE(유엔유럽경제위원회)에서 EU국가를 대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로 일관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명목화된 지표를 제시하였다. 크게 고용(Employment), 사회참여(Participation in society), 독립 생활과 보건 및 안전(Independent, healthy and secure living), 활동적 노화를 위한 환경 변화 수용(Capacity and enabling environment for active ageing)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는 제시한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활동적 노화의 강점과 개선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국가별 비교를 통한 활동적 노화 순위를 보고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노인들이 활동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거대지표 차원 즉, 국가적 차원의 개입 방안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본 지표에 대한 내용은 다음 소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2-9] 활동적 노년 측정 지표

구분	활동적 노년 측정 영역 및 지표
HAI (Hartford Ageing Inde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국가별 고령화 대응상황 측정(측정대상 : OECD 국가, 한국 제외) • 구성 : 5개 영역(생산성 및 사회참여, 웰빙, 형평성, 통합력, 안정성), 20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및 사회참여 : 노동참여율(65세 이상), 실제 은퇴연령, 자원봉사 참여시간(65세 이상), 재교육참여(55-64세) - 웰빙 : 건강 기대여명(65세), 삶의 만족도(50세 이상) - 형평성 : 지니계수(65세 이상), 빈곤위험(65세 이상), 식량안보(65세 이상) 고등학교 이수(55-64세), 고등교육 이수(55-64세) - 통합력 : 사회적지지, 세대간 이전, 세대간 공동거주(65세 이상) 이웃 신뢰(50세 이상) - 안정성 : 소득(65세 이상), 순 연금자산, 장기요양보호 공공지출(% GDP), 물리적 안전, 정부 대외 부채 <p>*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HAI를 활용한 KHAI(한국의 활동적 노년 지수)를 산출함(2019)</p>
GAI (Global AgeWatch Inde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노인의 웰빙과 삶의 질을 측정하고 개선(측정 대상 : 96개국, 한국 포함) • 구성 : 4개 영역(소득안정성, 건강상태, 능력, 환경), 13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안정성 : 연금소득범위, 노인빈곤율, 노인의 상대적 복지, 1인당 국민총소득 - 건강상태 : 60세 때 기대수명과 건강기대수명, 상대적인 심리적 웰빙 - 능력 :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고용률), 노인들의 교육 이수 - 환경 : 사회적 연결성, 물리적 안전, 시민의 자유, 대중교통의 접근성

구분	활동적 노년 측정 영역 및 지표
IW (Index of Well-be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노인의 웰빙을 다각도로 측정(측정 대상 : 미국, 유럽 11개국) • 구성 : 4개 영역(물질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웰빙), 12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적 웰빙 : 1인당 중위 가구 소득, 절대 빈곤에 속하지 않는 비율 - 신체적 웰빙 : 약물복용에 어려움이 없는 비율(독립적 생활), 장애가 없는 비율, 짧은 거리를 걷는 데에 문제가 없는 비율(기능적 한계 없음), 노년기의 연령대별 기대수명(50-54세, 65-69세, 75-79세), 비만이 아닌 비율 - 사회적 웰빙 : 경제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비율, 적어도 한 명의 자녀와 접촉하는 비율 - 정서적 웰빙 : 우울증이 없는 비율(비임상적), 노인의 자살률, 노인의 변화율(현재의 삶과 미래의 전망에 만족함)
AAI (Active Ageing Inde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에 대한 노인의 가능성을 국가별로 측정(측정 대상 : EU 국가) • 구성 : 4개 영역(고용, 사회참여, 독립건강안정성, 역량환경), 22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 연령대별 고용률(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 사회참여 : 자원봉사 활동, 자녀와 손자녀 돌봄, 병약자와 장애인 돌봄, 정치적 참여 - 독립건강안정성 : 신체적 운동, 건강 서비스에의 접근, 독립적 생활, 물리적 안전체감도, 평생학습 재정적 안정(3개 지표-상대적 중위소득 비율, 상대적 빈곤위험, 물질적 박탈) - 활동적 노화 역량환경 : 55세 기준 기대여명, 건강수명, 정신건강, 정보통신기술 사용, 사회적관계, 교육수준

〈자료〉 배재윤 외, 「활동적 노년지수 산출 및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9.12. pp. 8-33. 내용 재구성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활동적 노화의 차원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없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지표 개발이 이루어지고 정책 비교를 시도하였고, 개념상의 속성을 몇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가 무엇인지를 탐색하여 결과를 보여 주었다. 또한 통계적 자료를 제시하거나 노인들의 직접적인 인식 또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활동적 노화는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었다.

2) 활동적 노화 지수 정의 및 특성

활동적 노화 지수(Active Ageing Index: AAI)는 European Year 2012 추진의 일환으로 각 유럽 국가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더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화와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활동적 노화 관련 성과와 사회 기반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개발되었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와 유럽연합(EU)가 정기적으로 공동 산출하고 있는 활동적 노화 지수(AAI)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활동적 노화에 대한 정의를 개념 틀로 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활동과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활동적 노화 기반을 평가한다. 이는 2008년부터 2년마다 산출하여 27개 유럽 국가들의 활동적 노화 지수를 측정·수치화하여 국가별 비교 보고를 하고 있다. 가장 최근 2019년에 발표된 2018년 지표 적용 측정평가 결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핀란드의 순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표의 측정 전체 평균 점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UNECE, 2019).

활동적 노화 지수의 특징은 첫째, 유럽경제위원회(UNECE)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의 건강하고 적극적인 노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이다. 따라서 유럽연합(EU)에 소속된 국가들 간 비교를 통하여 긍정적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대 책임과 상호교류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 유럽과 관련된 국가에서 실행된 노인 관련 투자사업, 각국 지원, 노인 정책, 노인 프로그램 등의 효과를 검증하는 기준을 담당하여 회원국들 간 점검을 통한 미비한 영역을 보완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셋째, 노인의 개인적 특성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요인을 포함하는 지표로 지역사회와 주변 환경 지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넷째, 유럽연합(EU)는 활동적 노화의 사회참여 중에서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활동적 노화 촉진 정책은 노인을 노동시장 내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퇴직 이후 노인들의 재고용 촉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3) 활동적 노화 지수 구성

활동적 노화 지수(AAI)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고용(Employment), 사회참여(Participation in society), 독립생활과 보건 및 안전(Independent, healthy and secure living), 활동적 노화를 위한 환경 변화 수용(Capacity and enabling environment for active ageing)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당 하위지표를 구성하였는데 고용(Employment) 영역에서는 노인 연령의 진입을 압둔 연령대부터 노인 연령대까지 각

연령대별 취업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회참여(Participation in society) 영역에서는 55세 이상인 대상자들에게 무급근로를 기준으로 자원봉사활동, 손자녀 돌봄, 노인 돌봄, 정치 참여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독립생활과 보건 및 안전(Independent healthy and secure living) 영역에서는 건강 측면, 경제적 안전 측면, 신체적 안전 측면, 지속적인 학습 활동을 통한 독립적이며 건강한 생활 유지 등의 차원을 포함하여 파악하고 있다. 이 세 영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활동적 노화의 세 차원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 가능하다. 차별점은 노인이 변화에 대한 유연한 사고 및 수용에 대한 부분으로 마지막 활동적 노화를 위한 변화가능한 환경과 수용(Capacity and enabling environment for active ageing) 영역에서는 55세에 건강한 기대여명의 공유, 정신 건강, 55세~74세 인터넷 사용, 사회 유대감(관계), 2·3차 교육정도를 포함하였다(UNECE, 2013).

각 지표는 값이 높게 나올수록 활동적 노화 결과가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 예를 들어, 노인들이 자녀나 손자녀 돌봄,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사회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인식, 활동적 노화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 각 지표의 개별적 측정 후 각 범주 점수로 합산하면 전체 활동적 노화 지수가 결정되며, 총점은 4가지 영역 범주의 지수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치로 결정된다. 이를 적용하여 국가별 순위를 비교·분석하고, 각각 4가지 영역 범주별 점수, 성별 점수와 국가별 순위로 나눠서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한다.

[표 2-10] 활동적 노화 지표 구성 및 측정 방법

범주	지표	측정방법
1. 고용	1.1 55~59세 고용률	주 1시간 이상 물질적 보상, 이익 또는 가족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한 사람 직장 또는 사업체가 있으나 질병, 휴가, 산업 분쟁 또는 교육 및 훈련의 이유로 임시로 직장에 나가지 못한 사람
	1.2 60~64세 고용률	
	1.3 65~69세 고용률	
	1.4 70~74세 고용률	
2. 사회참여	2.1 자원봉사활동 (55세 이상)	무급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비율(일주일에 한 번 이상)
	2.2 손자녀 돌봄 (55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를 돌보는 비율(일주일에 한 번 이상)
	2.3 노인 및 장애인 돌봄	노인 또는 장애인 친척을 돌보는 비율(일주일에 한 번 이상)

범주	지표	측정방법
	(55세 이상)	이상
	2.4 정치적 참여 (55세 이상)	노조, 정당 또는 정치적인 활동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
3. 독립생활과 보건 및 안전	3.1 규칙적인 운동 (55세 이상)	거의 매일 신체적인 운동 또는 스포츠를 하고 있는 비율
	3.2 병의원 접근성 (55세 이상)	설문 실시 이전인 지난 12달간 의료나 치과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은 비율
	3.3 독립적인 생활 (75세 이상)	1인 또는 부부 2인 가구 비율
	3.4 상대적 중위소득 (65세 이상)	65세 이상 평균 가처분소득의 65세 미만 평균 가처분소득에 대한 비율
	3.5 빈곤 위험이 없음 (65세 이상)	빈곤의 위험이 없는 고령인구의 비율 빈곤 위험이 있는 자들은 사회적 연금 등의 이체 후에 평균 국민 가처분소득의 50%로 정해져 있는 빈곤 위험 한계점 이하에 머물러 있는 노인들로 정의
	3.6 심각한 물질이 부족하지 않음 (65세 이상)	심각하게 물질적으로 결핍되지 않은 노인인구 비율 경제적이고 지속적으로 부담되는 상태로 아해 항목 9개 (집세, 난방비, 식비, 휴가, TV, 세탁기, 자가용 등) 중 4개 이상을 부담할 수 없는 어쩔수 없이 무능하게 된 경우
	3.7 신체적 안전 (55세 이상)	어두워진 이후 자신의 거주지를 산책해도 안전하게 느끼는 비율
	3.8 평생 학습 (55~74세)	지난 4주 동안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노인 비율
4. 역량 및 환경	4.1 55세 기대수명	55세인 사람이 105세까지 50년을 더 살 수 있는 확률
	4.2 55세 건강수명의 공유	55세인 사람이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율
	4.3 정신건강 (55세 이상)	주관적 정신적 만족감 EQLS 2011과 WHO's ICD-10 측정 모델 활용
	4.4 정보통신의 사용 (55~74세)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
	4.5 사회 유대감(관계) (55세 이상)	친구, 친지 또는 동료들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는 비율
	4.6 교육 수준 (55세 이상)	고등학교 이상 또는 제3의 교육수준을 가진 노인의 비율

<자료> 유럽경제연합 홈페이지(UNECED: www.unecce.org) 번역 정리

4) 정책 결정을 위한 활동적 지수 활용 방안

활동적 노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 적용의 목적으로 활동적 노화 지수(AAI)를 다양하게 적용한 연구들이 실시되고 있다. Dynkstra & Flieschmann(2018)은 활동적 노화 지수의 지표들을 결합하여 연령 통합에 유리한 조건을 검토하였다. 모든 세대에 초점을 두고 낮은 수준의 연령차별과 연령 간 유대의 구체적인 척도를 사용한 결과 높은 수준의 독립성, 건강, 연령에 따른 활동적 잠재력보다 노동, 자원봉사, 돌봄, 정치적 활동이 연령통합을 위한 많은 기회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Vidovićová(2018)는 노인의 인식된 역할과 기여, 노인의 선호하는 것과 일반적인 역할을 적용하여 활동적 노화 지수(AAI)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 자원봉사자와 같은 생산적 역할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저자는 노인들이 주로 조부모, 가족을 부양하는 제공자로서의 기여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할아버지, 배우자, 친구, 부모의 역할을 가장 높은 노인의 일반적인 역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활동적 노화 지수(AAI)에서 가족 역할의 상대적 중요성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Wöhrmann, Deller 와 Pundt(2018)는 은퇴 연령에 가까운 직업을 중심으로 활동적 노화 지수(AAI)를 보완할 수 있는 Silver Work Index를 제안하였다. 이것은 고령 노동자들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증거 확보 전략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다. 본 지수는 조직간 비교가 가능하며 노인의 적극적 역할을 위한 좋은 관행을 촉진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친화적 고용 현장을 8개 차원의 좋은 조직 구성으로 볼 수 있는 혁신적인 지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여기에서는 나이든 직원들과 관련된 조직적 관행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을 넘어 지역의 관점에서 활동적 노화 지수(AAI)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들(Breza & Perek-Bialas, 2014; Poland & Bauknecht et al., 2016)을 통해서 국가 내 지역의 격차를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내 분석은 지역정책입안자들에게 더 나은 활발하고 건강한 노후 정책 전략 개발에 촉진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볼 때 활동적 노화 지수(AAI)의 지수와 지표에 있어 기존

내용 외의 사회 맥락적인 다양성 적용 부분 그리고 적용 단위(국제, 국가, 지방정부)의 다양성 적용으로 노인 정책입안자들에게 다양한 차원의 정책 개발에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국제기구 활동적 노화 적용의 노인정책 영역 과제

앞서 살펴본 활동적 노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국제기구별 노인 정책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의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을 의존적 존재가 아닌 독립적이고 능동적 존재로 인식의 전환이 나타나게 되면서 노인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 계층을 위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전략들을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활동적 노화의 적용은 모든 인구 집단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괄적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현재 사회에 적용되어야 하는 관점인 것이다. 인구고령화를 사회발전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국제사회의 대응은 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연령통합적 사회 구축 즉, 세대통합과 연대를 이루고자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1] 노인정책 영역별 국제기구 정책과제 비교

노인정책대 영역	MIPAA	Active Ageing (WHO)	EY2012-Active Ageing (EU)	Age-Friendly City (WHO)
소득보장	- 빈곤해소 - 소득보장, 사회보장 및 빈곤예방		소득보장	
경제활동	- 경제활동과 노동력의 고령화 대응	- 개인의욕구및 선호, 역량에 따른 경제 활동 참여	- 건강한 근로조건 - 조기퇴직 예방 - 고령 근로자를 위한 고용 서비스 - 연령차별 방지 - 고령친화적인 세금혜택	- (인적자원의 활용) 자원봉사 기회 제공, 고용 선택권, 근로기회 제공, 복지 프로그램 확대, 사회참여 기여 인정, 창업 기회 제공, 자원봉사 독려

노인정책대 영역	MIPAA	Active Ageing (WHO)	EY2012-Active Ageing (EU)	Age-Friendly City (WHO)
			- 고령근로자들 의 멘토링 - 근로와 돌봄의 조화	
건강보장	- 전생애에 걸친 건강 증진과 안녕 - 보건의료서비스에의 평등한 접근 - 노인과 HIV/AIDS - 보호제공자와 보건전 문가 훈련 - 노인과 정신건강 - 노인과 장애	- 장애, 만성질환 및 조기 사 망의 위험 방지 - 삶의 과정 전반에 서의 건강보호 요 인 증가 및 주요 질환 관련 위험 요인 감소	- 건강증진과 질 병 예방	- (지역사회 지원 및 건강 돌봄)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의 비용 적절성 보건복지 관련 충 분한 서비스 제공, 자원봉사자 를 통한 노인지원, 응급조치 대 책 수립
돌봄보장	- 보건의료서비스에의 평등한 접근 - 보호와 보호제공자 지원	- 장기요양서비스 - 노화에 따른 요구 와 권리를 위해 안정적이고 접근 성이 높고 높은 질의 연령친화적 인 연속적 건강 및 사회서비스 개발 - 돌봄인력 교육	- 비공식 보호자 들을 위한 지원 - 장기요양대상 자의 존엄성 보장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	- 비공식 보호자들을 위한 지원 - 장기요양대상자의 존 엄성 보장		- 노인 자원봉사	- (여가 및 사회활동) 사회참여기 관과의 시간 및 지리적 접근성, 참가비용 적절성, 선택의 기회 제공, 정보제공, 참여도려, 지 역사회 내 통합
교육	- 지식·교육·훈련에의 접근성 제고	- 지속적인 직업 교 육과 훈련	- 지속적인 직업 교육과 훈련 - 평생학습	- (인적자원의 활용) 고용 관련 교 육기회 제공
주거보장	- 적절한 주택과 주거 환경 조성		- 고령친화주택 서비스	- (주거환경 안정성) 비용적절성, 필수공공서비스제공, 노인적합 설계, 주택개조, 주택관리, Aging in place, 지역사회 통합 지원, 주거선택권, 노인주거시 설, 생활환경
고령친화적	- 적절한 주택과 주거		- 접근 가능하고	- (외부환경 및 시설) 도시의 청결

노인정책대 영역	MIPAA	Active Ageing (WHO)	EY2012-Active Ageing (EU)	Age-Friendly City (WHO)
지역환경	환경 조성		가격이 적절 한 교통	성, 녹지공간과 보도, 야외의자 설치, 인도편리성, 도로 편리성, 보행자 중심의 교통, 자전거 도 로 유무, 안전성, 시설접근성, 건물편리성, 공중화장실 접근 성 - (교통수단 편의성) 노인층할인, 대중교통의 적절한 배차간격,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과 의 교통 접근성, 노인친화적 대 중교통수단, 장애인 특별 서 비스, 노약자석유무, 교통질서 준수, 범죄로부터의 안전, 교통 시설의 접근성, 교통수단 관련 정보의 적절성, 자원봉사 운전 자 확보, 고령친화적 택시, 도 로관리, 운전자 재교육, 노인우 선 주차 환경
노인인권/ 학대/존중/ 노인이미지 (경로우대)	- 세대 간 연대 강화 - 긴급상황 하의 노인 보호 - 유기, 학대와 폭력으 로부터의 보호 - 노인 이미지 개선	- 가족 및 공동체 생 활에 적극적 참여 - 노인의 사회적, 재 정적, 물리적 보 완 욕구 해결을 통한 노인 보호 및 안전, 존엄성 보장 - 안전에 대한 욕구 충족	- 사회적 통합 - 의사결정에의 참여	- (존중 및 사회통합) 노인의견 수 렴,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세대통합과 가족간 상호작용, 노년에 대한 이해 교육, 노인의 공로 인정, 경제적 소외 노인 지원
기타	- 농촌개발, 이주와 도 사회에의 대응		- 연령친화적 환 경, 상품, 서비 스	- (의사소통 및 정보) 방송매체 구두 활자를 활용한 정보제공, 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사 용, ICT활용 접근성

<출처> 이윤경·강은아·황남희·주보혜·김세진, 「노인정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p. 49~52.

제 3 장

노인 인구변화 및 정책 동향

제1절 노인 인구 규모 및 향후 전망

제2절 노인의 다양성

제3절 국내 노인 정책 동향

제절 노인 인구 규모 및 향후 전망

1. 한국 노인 인구 현황

1) 전국 노인 인구 변화

우리나라 노인(만 65세 이상)인구는 2020년 전체인구의 15.7%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 약 1천만명(10,511,000명, 전체 인구의 20.3%)을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증가세는 가속화되어 2030년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5%, 2060년 43.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인구 비율)는 2020년 21.7%에서 2030년 38.2%, 2060년에는 91.4%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 9.공표).

[표 3-1] 전국 노인 인구 변화 추이

(단위 : 천명,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60년
총인구	47,008	48,184	49,554	51,015	51,781	51,905	519,273	42,838
0~14세	9,911 (21.1)	9,223 (19.1)	7,979 (16.1)	7,030 (13.8)	6,297 (12.2)	5,541 (10.7)	5,000 (9.6)	3,445 (8.0)
15~64세	33,702 (71.7)	34,641 (71.9)	36,209 (73.1)	37,444 (73.4)	37,359 (72.1)	35,853 (69.1)	33,947 (65.4)	20,578 (48.0)
65세 이상	3,395 (7.2)	4,321 (9.0)	5,366 (10.8)	6,541 (12.8)	8,125 (15.7)	10,511 (20.3)	12,980 (25.0)	18,815 (43.9)
노년부양비	10.1	12.5	14.8	17.5	21.7	29.3	38.2	91.4
중위연령	31.8	34.8	37.9	40.9	43.7	46.7	49.5	61.3
평균연령	33.1	35.5	37.9	40.2	42.8	45.4	47.6	56.4

* 원자료 : 2020~2030년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9 .공표) 수치임

** 천명 미만 단위 반올림

2) 한국 노인 현황과 OECD 평균 비교⁶⁾

OECD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의 기대여명은 82.4세로 높은 편(OECD 평균 기대여명은 80.6세)이지만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후의 기대여명은 남성 12.9년, 여성 16.3년으로 다른 국가(OECD 평균 남성 17.8년, 여성 22.5년)에 비해 짧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다른 회원국 노인들에 비해 더 오랫동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OECD 회원국 평균 은퇴연령이 남성 65.4세, 여성 63.7세인데 비해 한국은 은퇴연령이 남녀 모두 72.3세로 다른 국가들보다 은퇴연령이 늦다. 이에 따라 한국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회원국 중 1~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한국 노인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더 오랜 기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소득빈곤 때문으로 한국 노인의 43.8%가 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빈곤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65~75세 소득빈곤율 35.5%, 76세 이상 소득빈곤율 55.9%).

한국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 좋음 ’ 과 ‘ 매우 좋음 ’ 으로 응답한 비율이 18.5%로 OECD 국가 중 하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65~69세는 37.1명에서 85세 이상은 87.1명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며, 노인 연령대별로 OECD 평균의 4~7배에 이르고 있다. ‘ 2017 노인실태조사 ’ 에 따르면 한국 노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27.7%, 건강문제 27.6%, 가족과의 갈등 및 단절 18.6%, 외로움 12.4% 순서로 나타나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연구(원시연, 2019)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고령자용 일자리 마련, 초고령노인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지원 강화, 지역공동체의 역할 강화, 지역사회 인프라를 통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프로그램(노후준비, 인생설계 등) 제공, 노인복지 인프라를 활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 및 홍보 등을 제안하고 있다.

⁶⁾ 원시연, ‘ OECD 통계에서 나타난 한국 노인의 삶과 시사점 ’,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3호, 2019.12. 내용 요약 정리함

* OECD는 소득빈곤율에 자산을 포함하지 않고, 연금소득 등 금융소득만을 고려한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보아 그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 빈곤 ’ 하다고 정의함(자자 주석).

⇒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의 주택 자가점유율 75.5%, 자가보유율 77.6%로 자산구성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경우, OECD 소득빈곤율 기준이 부적합할 수 있으나 ‘ 2017년 노인실태조사 ’ 에 70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가 생계비 마련(73%) 때문이라는 연구결과 등을 감안해보면 한국 노인이 경제활동에 오래 참여하는 이유가 소득빈곤 때문이라는 설명은 일면 타당함(p. 6).

[표 3-2] 한국 노인 현황과 OECD 노인 평균 비교

(단위 : %)

구분		한국	OECD 평균(36개국)	비고
기대여명	전체	82.4세	80.6세	10위
은퇴연령	남성	72.3세	65.4세	-
	여성	72.3세	63.7세	-
은퇴 후 기대여명	남성	12.9년	17.8년	2위
	여성	16.3년	22.3년	1위
경제활동참가율	55~59세	74.7%	73.3%	22위
	60~64세	61.4%	53.5%	11위
	65~69세	47.6%	27.4%	2위
	70~74세	35.3%	16.2%	1위
노인소득빈곤율	65세 이상	43.8%	13.5%	(불명예) 1위
노인자살률 (10만 명 당)	65~69세	37.1명	9.9명	(불명예) 1위
	70~74세	54.9명	10.8명	(불명예) 1위
	75~79세	72.5명	11.1명	(불명예) 1위
	80~84세	81.5명	11.2명	(불명예) 1위
	85세 이상	87.1명	13.5명	(불명예) 1위
주관적 건강상태	‘ 좋음, 매우 좋음’ 응답 비율	18.5%	-	30위

<자료> 원시연. ‘OECD 통계에서 나타난 한국 노인의 삶과 시사점’,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3호, 2019.12, pp. 1-11. 내용 재구성

* 자료 기준 : 통계처 2018년 기준(주관적건강상태는 2017년, 자살률은 2016년 기준) / 비교는 OECD 36개국 중 한국 순위

3) 전국 노인 고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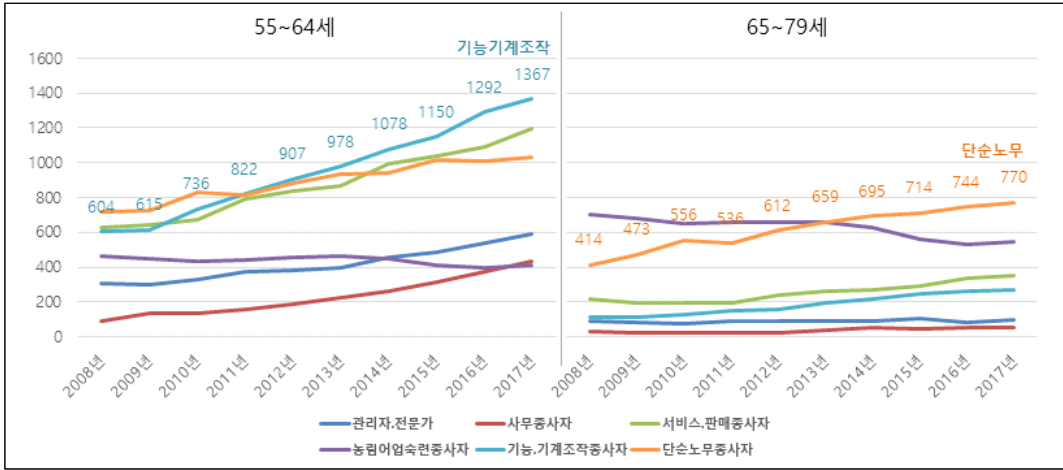
(1) 전국 고령자 직업별 취업 현황 변화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머물며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65~79세 취업자수는 2008년 1,564,000명에서 2017년 2,087,000명으로 50만명 이상 증가하였으며, 직종별로 보면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참고로 55~64세의 경우 기능·기계조작 및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

[그림 3-1] 전국 고령자 직업별 취업 현황 변화 추이(2008~2017)

(단위 : 천명)



[표 3-3] 고령자 직업별 취업 현황 변화 추이

(단위 : 천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관리자·전문가	87	79	77	88	92	90	89	104	86	97
사무종사자	28	24	21	24	24	37	55	49	52	50
서비스·판매	217	195	193	194	243	259	272	290	334	350
농림어업숙련	706	679	652	655	656	657	628	559	532	548
기능·기계조작	112	112	131	149	157	194	218	248	259	272
단순노무	414	473	556	536	612	659	695	714	744	770
65~79세 계	1,564	1,562	1,630	1,646	1,784	1,896	1,957	1,964	2,007	2,087
관리자·전문가	306	300	332	375	383	398	455	485	540	591
사무종사자	93	132	136	156	187	221	259	314	376	433
서비스·판매	630	643	671	793	838	871	996	1038	1092	1196
농림어업숙련	465	451	433	442	458	467	449	413	397	411
기능·기계조작	604	615	736	822	907	978	1078	1150	1292	1367
단순노무	717	729	829	817	881	933	939	1013	1012	1031
55~64세 계	2,815	2,870	3,137	3,405	3,654	3,868	4,176	4,413	4,709	5,029

<자료> 이수정 외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체계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p.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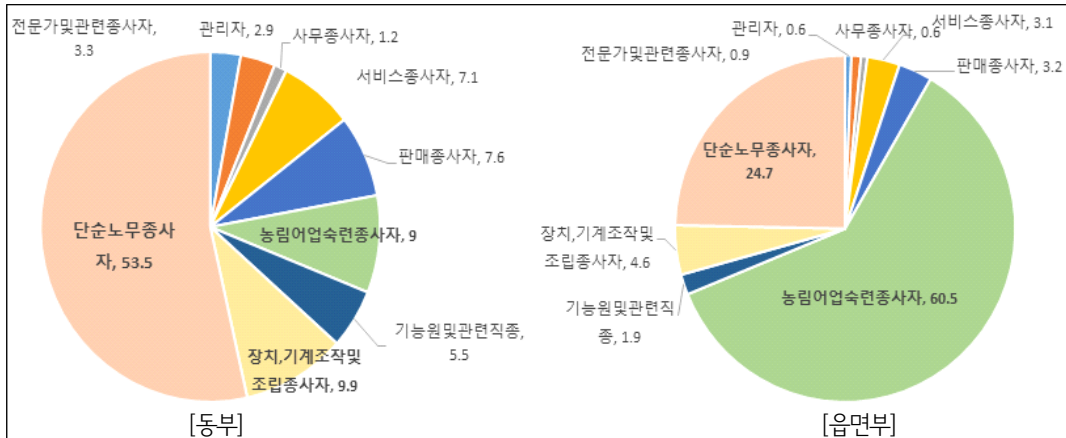
* 원자료 <출처> : 통계청(<http://kostat.go.kr>) 접속일 2018.6.11.

(2) 동부, 읍면부 노인의 종사 직종

전국 노인실태조사(2017)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종사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40.1%)와 농림어업숙련종사자(32.9%)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동부와 읍면부로 비교해 보면 동부는 단순노무종사자(53.5%)가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이 많은 읍면부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60.5%)가 6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2] 동부, 읍면부 65세 이상 노인의 종사 직종(2017)

(단위 : %)



〈자료〉 정경희 외. 「2017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p. 463.

[표 3-4] 동부, 읍면부 65세 이상 노인의 종사 직종(2017)

(단위 : %)

지역	관리자	전문가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및 관련직	장차,기계 조작및조 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전체	1.8	2.2	0.9	5.2	5.6	32.9	3.8	7.5	40.1
동부	2.9	3.3	1.2	7.1	7.6	9.0	5.5	9.9	53.5
읍면부	0.6	0.9	0.6	3.1	3.2	60.5	1.9	4.6	24.7

〈자료〉 정경희 외. 「2017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p. 463, 778. (분석 대상 : 일하고 있는 응답자 3,11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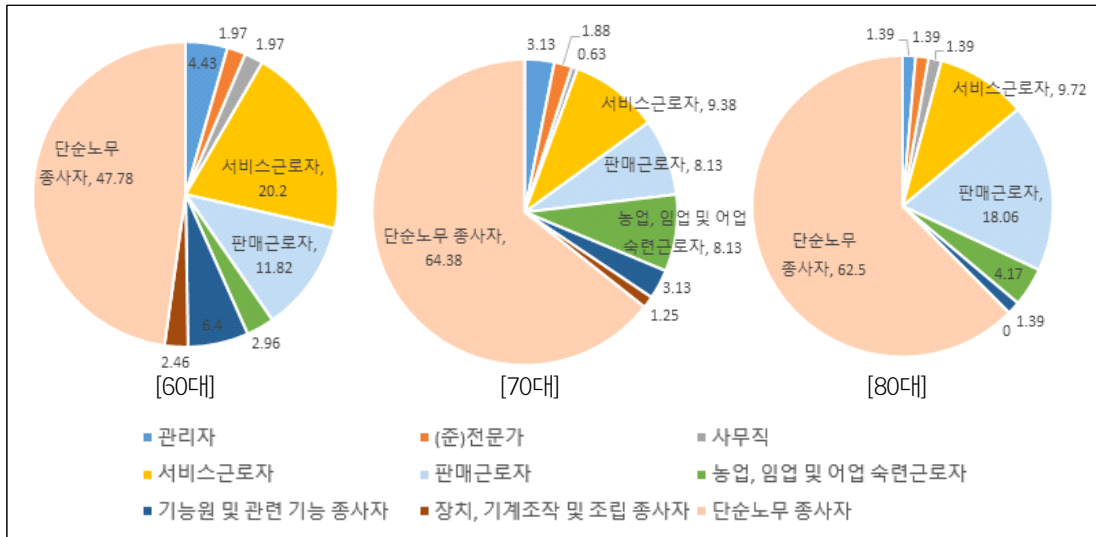
* 세종시는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연령대별 노인의 희망직업

고령화연구패널조사(2016)에서 노인의 희망직업은 60대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 47.8%, 서비스근로자 20.2%, 판매근로자 11.8% 순으로 나타났으며, 70대는 단순노무종사자 64.4%, 서비스근로자 9.4%, 판매근로자 8.1%, 농림어업숙련근로자 8.1% 순으로 나타났다. 80대는 단순노무종사자 62.5%, 판매근로자 18.1%, 서비스근로자 9.7% 순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희망직업으로 단순노무종사자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이어서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70대의 경우 농림어업숙련근로자도 판매근로자와 동일하게 3순위 안에 들었으며, 80대의 경우 판매근로 희망비율(18.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서 눈여겨 볼만하다.

[그림 3-3] 연령대별 노인의 희망직업(2016)

(단위 : %)



<자료> 고용조사분석시스템 - 고령화연구패널조사(<https://analysis.keis.or.kr/klosaSubject.do#none>), 인출일 2020.3.6.

(4) 노인일자리 수요 추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 수요 추계 연구(2019)⁷⁾를 진행하였다. 2020년 도부터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으로 진입하는 1955년~1963년생(베이비붐세대)의 특성과

노인일자리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신노년층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의 개편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통계청 고령자통계(2018)에 의하면 55~79세 고령자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4.1%이며, 2018년 기준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은 전체 노인의 8.4% 수준이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노인층에 진입할 세대는 현재의 고령 노인층과 달리 전문역량,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이 비교적 높고,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욕구도 다양하다.

연구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잠재적 수요집단은 넓은 의미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며, 직접적 수요집단은 그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여겨지는 집단이다. 근로능력, 건강수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추정된 잠재적 수요집단은 36.5%,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라도 취업의사가 있는 경우 등 직접적 수요집단은 10.5% 규모로 추정되었다. 여기에 코호트별 차이와 노화를 반영하여 산출한 노인일자리 직접 수요 비율은 2020년 기준 60~65세 10.5%, 66~71세 13.4%, 72~77세 10.9%, 78~83세 7.9%, 84~89세 4.7%로 추정되었다.

[표 3-5] 노인일자리사업 직접적 수요집단 추정치(비율)

(단위 : %)

구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60~65세	10.50	9.73	9.01	8.35	7.73
66~71세	13.40	12.41	11.50	10.65	9.87
72~77세	10.90	10.10	9.35	8.66	8.02
78~83세	7.90	7.32	6.78	6.28	5.82
84~89세	4.70	4.35	4.03	3.74	3.46

[자료] 김수린 외. 「신노년세대 노동시장 전망과 노인일자리 수요 추계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9.11. p. 124.

*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잠재적, 직접적 수요집단을 추정하고, 코호트 차이와 노화의 영향을 반영하여 추계 비율을 산출함

7) 김수린 외. 「신노년세대 노동시장 전망과 노인일자리 수요 추계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9.11.

* 잠재적 수요집단 : 근로능력, 건강수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노후에 일할 수 있거나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
직접적 수요집단 : 잠재적 수요집단 중 은퇴 후 계속 일하기를 원하거나 봉사활동 또는 소일거리를 원하는 집단

고령자 인구추계에 연령대별 추정치를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직접 수요 추계 인구를 산출하였다. 2020년 기준 노인일자리 직접 수요는 1,238,804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노인인구(2020년 8,125,432명)의 15.2%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연구에서 노인일자리 직접 수요 추계 인구는 잠정적 추정으로 기초연금액, 정년 연장, 노인일자리 대상 연령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표 3-6] 노인일자리사업 직접 수요 추계(인구수)

(단위 : 명)

구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60~65세	471,955	491,016	458,826	435,696	360,776
66~71세	382,768	499,439	559,101	515,828	516,460
72~77세	227,923	259,141	330,559	397,698	364,696
78~83세	122,229	125,943	143,862	181,219	226,688
84~89세	33,930	42,905	45,559	51,848	67,101
계	1,238,804	1,418,444	1,537,907	1,582,288	1,535,721

<자료> 김수린 외. 「신노년세대 노동시장 전망과 노인일자리 수요 추계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9.11. p. 127.

*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잠재적, 직접적 수요집단을 추정하고, 코호트 차이와 노화의 영향을 반영하여 추계 비율을 산출함

4) 전국 노인 여가문화활동 현황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의 여가문화활동 참여율은 85.1%에 이른다.

(1) 전국 노인 연령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전국 노인실태조사(2017)에서 연령대별 주된 여가활동(1,2순위 중복응답)을 살펴 보면 취미오락활동, 기타 종교 및 사회활동, 휴식활동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관람 및 스포츠관람, 관광활동은 1% 이하의 극히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취미오락활동(화투·고스톱, 등산, 화초·텃밭가꾸기, 독서·만화책·종교서적 보기, 낚시,

바둑, 장기, 윗놀이, 교양강좌, 노인교실 등)은 65세~84세까지 50% 내외의 비슷한 활동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화초텃밭가꾸기가 65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12% 내외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사회 및 종교활동은 80~84세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54.3%)을 보이고 있다. 종교활동은 전 연령층에서 10% 내외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 단체활동 등의 그 외 사회활동은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비율도 증가(35%~39%)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휴식활동(산책, 음악감상 등)은 85세 이상의 노인이 가장 높은 비율(50.8%)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65~84세는 산책이 25%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85세 이상은 목욕, 낮잠, 라디오 청취 등의 정적인 휴식활동에서 25%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다.

스포츠참여활동은 65~69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19.0%)을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참여활동(악기연주, 노래교실, 미술활동, 춤무용 등)은 70~79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9.5%)을 보이고 있으며, 악기연주노래교실이 5% 이상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2002년 기준)⁸⁾ 문화예술관람 비율이 젊은층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다. 예를 들어 클래식음악은 65세 이상 11%로 25~44세 9.9%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65세~74세의 경우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기타연주, 무용, 미술관, 공연전시회 등 모든 공연예술 관람 비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영국(2001년 기준)은 65세 이상 문화예술관람 비율이 젊은층에 비해 낮은 편이긴 하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10~25% 정도의 관람 비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노인의 공연예술 관람 비율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일본의 경우(2001년) 65세 이상 연극 및 미술작품 관람비율이 약 1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지만 결코 낮지 않은 비율이다.

이는 국가의 문화적 차이도 있지만 사회의 변화 및 노인인구의 다양성에 따라 우리나라 노인들의 문화예술관람 비율도 증가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⁸⁾ 각 국 공연예술 관람 비율 : 조현성 외, '노인 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p. 83. 91. 101.

[표 3-7] 전국 65세 이상 노인의 주된 여가활동(2017)

(단위 : %)

구분	전체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85.1	87.0	85.7	84.5	83.5	78.8
취미오락활동	50.5	51.1	50.5	51.4	49.5	46.7
화초·텃밭가꾸기	12.0	12.3	12.7	11.1	11.7	11.4
화투·고스톱 등	10.0	5.9	9.3	13.6	14.6	13.0
독서 등	8.2	7.5	7.8	9.2	8.3	9.7
바둑장기 등	4.3	3.4	4.8	5.4	4.1	4.5
교양강좌, 노인교실	3.0	2.8	3.0	3.0	3.6	2.9
낚시	1.4	2.5	1.1	0.8	0.6	0.2
기타*	5.4	6.2	5.8	4.7	3.9	4.2
사회 및 기타활동	49.1	48.0	47.8	50.1	54.3	52.9
종교활동	10.7	11.2	10.7	9.4	11.5	10.6
그 외 사회활동	34.9	32.8	33.6	36.3	38.5	39.2
기타**	3.9	3.9	3.5	4.5	4.4	3.1
휴식활동	43.5	40.9	45.2	41.9	45.4	50.8
산책	27.5	26.5	30.7	27.6	26.2	22.1
음악감상	2.6	2.7	2.9	2.2	2.3	2.5
기타***	13.4	11.7	11.6	12.0	16.9	26.1
스포츠참여활동	16.6	19.0	17.3	16.9	12.0	10.0
문화예술참여활동	8.6	8.2	9.4	9.5	7.6	6.0
문화예술관람활동	1.0	1.5	1.3	0.6	0.2	0.4
스포츠관람활동	0.5	0.6	0.5	0.4	0.2	0.7
관광활동	0.4	0.7	0.3	0.4	0.3	0.0

<자료> 정경희 외, 「2017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p. 517. (분석 대상 :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한 8,569명)

* 취미오락활동의 기타 : 수집(스크랩 포함), 생활공예, 요리, 다도, 애완동물 돌보기, 게임, 음주 등이 포함됨

**사회 및 기타활동의 기타 :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가활동이 포함됨

*** 휴식활동의 기타 : 목욕, 사우나, 찜질방, 낮잠, 라디오 청취, 신문, 잡지 보기 등이 포함됨

문화예술관람활동 : 영화보기, 전시회, 박물관 관람, 음악연주회 및 전통예술공연 관람 등이 포함됨

문화예술참여활동 : 악기연주노래교실, 미술활동(그림, 서예 등), 춤무용 등이 포함됨

관광활동 : 자동차 드라이브, 문화유적방문, 자연명승 및 풍경 관람, 산림욕, 여행, 소풍·야유회나들이 등이 포함됨

제2절 노인의 다양성

한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 정치·경제·사회의 변화 및 고령화 속도가 급속히 이루어진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러한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라 한국의 노인은 연령대에 따라 겪은 환경의 차이가 크다. 또한 같은 연령대라도 살아온 경험, 직업, 건강, 교육, 소득 수준 등의 차이가 젊은층보다 훨씬 커서 노인의 생활방식 및 욕구는 더욱 다양성을 띤다.

1. 노인 연령대별 사회환경 변화의 경험 차이

2020년 현재 만 80세(1940년생)는 유년·아동기에 8·15광복과 6·25전쟁을 모두 경험한 세대이며, 초등학교 의무교육(1952년 교육법시행령, 1954~1959년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 실시 이전에 취학연령을 맞이하여 다수가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무학) 세대이다.

현재 만 75세(1945년생)는 6·25전쟁 혼란기에 유년기를 보내고 4·19 혁명(1960년)에 청소년기를 거쳐 노동집약적 공업화 시기(1961~1972년)와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화시기(1973~1979년)에 청년기를 보낸 세대이며, 근로현장에서 컴퓨터 및 인터넷 작업이 보편화되던 시기(1995~2000년)에는 이미 50대를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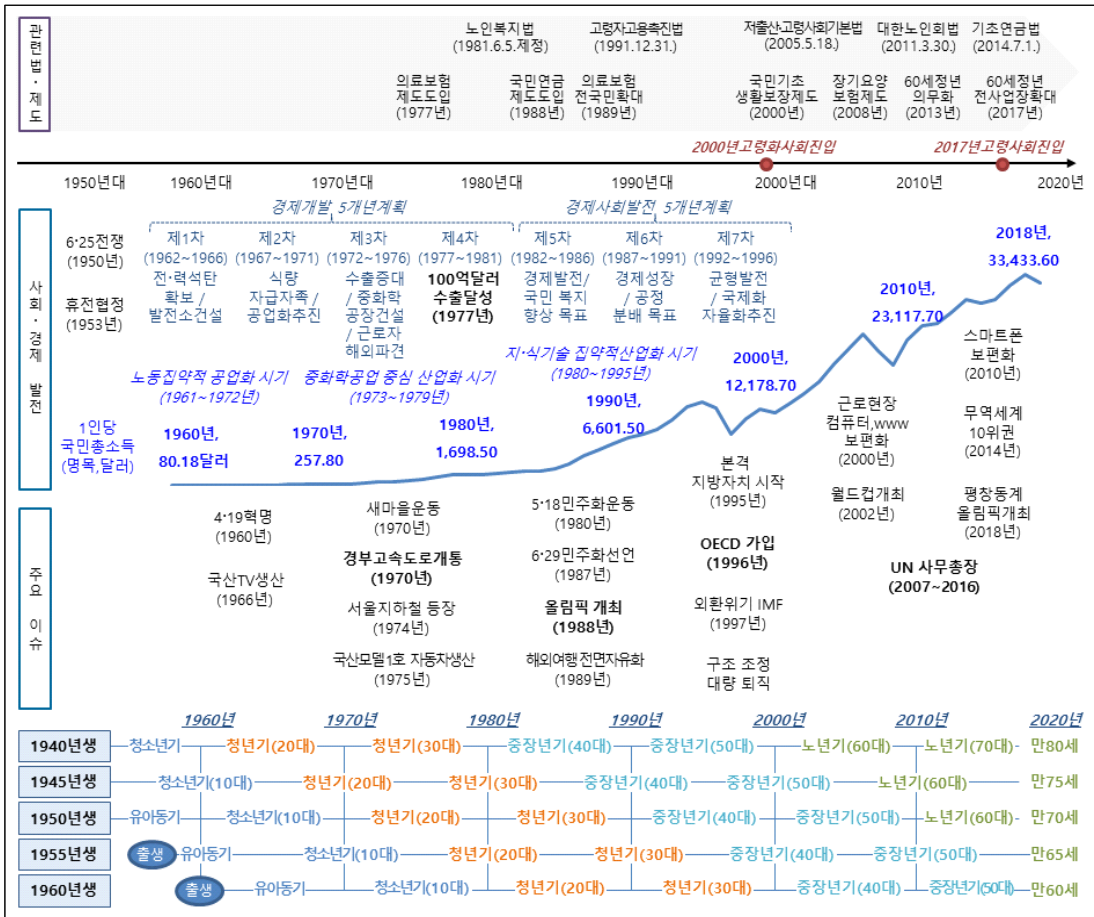
현재 만 70세(1950년생)는 근로자 해외파견 및 수출중대 정책 시기(1970~1980년)에 청년기를 맞이한 세대로 밤낮 없이 노동력을 투입하여 일하면서 100억달러 수출 달성(1977년)의 목표를 이루어 한강의 기적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한 주요 세대이다.

현재 노년기에 막 진입한 만 65세(1955년생)는 휴전협정(1953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로 아동기부터 텔레비전(1966년 국산 TV생산)을 접했으며, 산업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 개통(1970년)과 서울 지하철 등장(1974년) 등 국가 기간산업 구축의 주요 이슈를 청소년기에 접한 세대이다.

현재 만 60세(1960년생)는 20대에 5·18민주화운동(1980년)과 6·29민주화선언(1987년)을 통해 민주화를 경험하고, 88올림픽 개최(1988년) 및 해외여행 전면자유화

(1989년)를 통해 세계화를 경험한 세대이다. 또한 국민연금제도 도입(1988년), 의료보험 전국민 확대(1989년) 등 복지발전을 경험하였고, 지식기술 집약적 산업화 시기(1980~1995년)에 청년기를 보낸 세대이다. 이는 곧 노인세대에 진입하게 될 60대 초반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및 문화생활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고, 교육수준도 높아서 노년기 이후의 노동생산 역량과 일자리 및 여가 욕구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한 노인 지원사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3-4] 한국 노인이 경험한 경제, 사회, 제도적 변화



<자료> 경제, 사회, 제도 변화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외, 접속일 2020.3.9.
 1인당 국민총소득 변화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연간지표-1인당 국민총소득(명목, 달러), 인출일 2020.3.9.
 한국 산업화 시기 구분 : 김영하. 「한국 산업화 시기의 교육과 경제성장」, 교육과학사, 2015.7.

2. 노인 연령대별 교육, 직업, 소득수준의 차이

1) 연령대별 교육수준 차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9)에서 코호트별 인구사회적 특성 비교를 하였다. 특히 연령대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육수준의 차이인데, 기존 노인세대보다 새로운 노인세대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2020년 기준 만 68~73세 집단(1947~1952년생)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35.5%인데 비해 만 60~65세 집단(1955~1960년생)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70%에 이른다.

또 다른 변화는 읍면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노인들의 거주지역 변화가 보이므로 도시지역 거주 노인에 적합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표 3-8] 코호트별 노인 인구사회적 특성 비교

(단위 : %)

구분		1955~1960년생 (2020년, 만 60~65세)	1951~1956년생 (2020년, 만 64~69세)	1947~1952년생 (2020년, 만 68~73세)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2.8	25.6	35.5
	중학교	17.3	22.7	22.5
	고등학교 이상	69.9	51.8	42.0
	(대학 이상)	(17.3)	(12.6)	(11.5)
거주지역	농어촌	15.1	18.1	21.0
	중소도시	40.4	34.6	31.3
	대도시	44.5	47.3	47.7

<출처> 김수린 외 「신노년세대 노동시장 전망과 노인일자리 수요 추계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9.11. p. 24.

2) 연령대별 주된 직업 및 소득수준 차이

코호트별 근로생애를 비교해 볼 때 현재 만 68~73세(1947~1952년생) 집단은 주된 일자리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19.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만 60~65세(1955~1960년생) 집단은 주된 일자리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은 3.8%에 불과하며 66%가 10~19년 경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 산업도 고 연령 집단은 농림어업에 종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저 연령 집단은 제조업에 종사하고 기능직이나 관리·사무직을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코호트별 경제적 여건을 비교해 볼 때 최근 코호트(저 연령 집단)로 올수록 빈곤율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는 경제발전으로 인해 절대적 빈곤에 처한 비중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자산 보유액도 1955~1960년생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기존 노인세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3-9] 코호트별 노인 근로 생애 및 경제적 여건 비교

(단위 : %, 천원)

구분		1955~1960년생 (2020년, 만 60~65세)	1951~1956년생 (2020년, 만 64~69세)	1947~1952년생 (2020년, 만 68~73세)
주된 일자리 경력	주된 일자리 경력(평균)	17.3	19.2	21.1
	10~19년	66.0	57.4	47.8
	20~29년	30.2	29.0	32.9
	30년 이상	3.8	13.6	19.4
주된 일자리 산업	농림어업	10.2	15.6	20.7
	제조업	35.6	28.7	27.8
	서비스업	51.7	53.3	48.5
주된 일자리 직종	관리직, 전문가	18.8	13.8	12.7
	사무직	15.4	11.2	10.6
	서비스, 판매	20.5	20.7	21.3
	농림어업	8.4	12.0	16.5
	기능, 기계, 조립	25.4	22.1	20.0
	단순노무, 기타	11.5	20.2	18.9
경제 여건	빈곤율	11.4	14.8	20.3
	연간 개인 총소득	16,429	16,304	14,934
	금융자산	21,768	17,051	11,917
	부동산자산	193,892	149,084	142,173

<출처> 김수린 외 「신노년세대 노동시장 전망과 노인일자리 수요 추계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9.11. p. 26. 29.

* 경제적 여건은 각 연령대별 56~61세 시점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화를 고려하여 반영함

3. 노인 특성에 따른 일 욕구 차이

1) 퇴직 후 삶과 일에 대한 인식 차이

직업능력개발원(2018)⁹⁾에서 고령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삶과 일에 대한 인식에 따라 5가지(활동형, 휴식형, 방어형, 좌절형, 혼란형)로 유형화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5가지 유형 중 ‘활동형’은 본 연구의 건강한 노인에 가장 가까운 유형으로 퇴직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하고자 하며, 학력 수준이 다소 높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수도권 중소도시의 50~60대 특성을 보인다. 이들은 생계보다는 일을 통해 능력 발휘나 자아실현을 하길 원하는 집단이다.

‘휴식형’은 퇴직 이후 활동보다 쉬고자 하는 유형으로 지방 대도시에 거주하는 60~70대 부부의 특성을 보인다. ‘방어형’은 퇴직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다소 높은 유형으로 수도권 60~70대 특성을 보인다. ‘좌절형’은 퇴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은 퇴직 전후의 60대 특성을 보인다. ‘혼란형’은 퇴직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이 없이 모든 상황에 대해 고려해보고자 하는 유형으로 지방 대도시에 거주하는 60대 부부의 특성을 보인다.

퇴직 후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방어형 62.4%, 활동형 61.8%, 좌절형 54.5%, 혼란형 47.5%, 휴식형 31.3% 순으로 나타나서 유형별로 차이를 보인다¹⁰⁾.

[표 3-10] 퇴직 후 삶과 일에 대한 인식 태도 유형

구분	희망 일자리	희망 직업교육
활동형 (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아실현 및 능력 발휘를 위한 일자리 희망 퇴직 후 일하길 희망하는 비율이 높지만 평균 이상으로 오랫동안 일하기를 희망하지는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교육 준비 주체 - 정부 교육 기간, 비용, 거리에 무관하며 공공,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교육 희망

9) 이수정 외,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체계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pp. 208-215.

* 고령자(55~74세) 805명 대상 '퇴직 후 삶-일' 인식 군집분석 : 활동형 165명, 휴식형 230명, 방어형 197명, 좌절형 55명, 혼란형 158명

10) 비교 : 통계청 '2019 고령자 통계(p.4)'에 의하면 55~79세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4.9%로 전년(64.1%)보다 0.8%p 증가함

구분	희망 일자리	희망 직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 귀농·귀촌·귀어, 사회공헌 희망 비율이 가장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급과 중급 수준의 교육 요구
휴식형 (2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후 일하길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낮음 • 일하지 않고 쉬면서 살고 싶어 함 • 일을 한다면 기존 일이 아닌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려는 의지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 준비 주체 - 개인 • 자신감, 동기가 부족해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음 • 거리와 교육기간은 무관하나 1일 교육시간은 짧은 주중 중급 교육 선호 • 정부 중심 지원, 금전적 지원 선호
방어형 (2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후 일하길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일하길 희망함 • 이전 경력을 퇴직 후에도 이어가길 희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 준비 주체 - 개인, 정부 • 교육기간이 짧고, 비용이 매우 저렴하며, 집과 가까운 공공 및 민간 훈련기관 교육 선호 • 중급, 고급 수준의 교육과 취창업 상담 요구
좌절형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를 위해 안정적인 상용직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음 • 일에 대해 헌신도는 높으나 퇴직에 대해 부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 준비 주체 - 개인 •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해야 하므로 시간이 없어서 직업교육에 참여하지 않음 • 무료 또는 저렴하며, 집과 가까운 공공훈련기관 교육, 중급 수준 교육과 취창업 연계 선호
혼란형 (1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후 일하길 희망하는 비율은 높지만 건강 또는 가족 돌봄을 이유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임시, 일용직에 대한 선호가 높음 • 이전 일자리와 연관성 여부 및 희망 임금 수준이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 준비 주체 - 개인, 정부 • 훈련수당을 받기 위해 직업교육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큼

〈자료〉 이수정 외,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체계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pp. 208-215.

* 고령자(55~74세) 805명 대상 '퇴직 후 삶-일' 인식 군집분석 : 활동형 165명, 휴식형 230명, 방어형 197명, 좌절형 55명, 혼란형 158명

2) 노인 특성에 따른 일자리 유형의 수요 차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9)의 신노년세대 노인일자리 수요 추계 연구에서 2020년 현재 60~65세인 신노년세대(1955~1960년생)의 교육수준(역량), 소득수준, 근로생애(종사산업 및 주된 일자리 여부) 등을 기준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별 수요집단의 특성을 분류하였다.

소득수준과 역량(교육수준)이 모두 높고 주된 일자리 경력도 있는 집단은 다양한 계층을 기반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형 일자리'의 수요집단이며, 반대로 소득수준

과 역량수준이 모두 낮고 주된 일자리 경력도 없는 집단은 단순반복적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참여수당 일자리’의 수요집단이다.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 중 역량수준이 높고 주된 일자리 경력이 있는 집단은 근로경력 및 연륜을 활용할 수 있는 ‘이행형 일자리’의 수요집단이며, 역량수준은 높지만 주된 일자리 경력이 적은 집단은 준전문적 또는 특정 기술을 활용하는 ‘역량개발 일자리’의 수요집단이다.

[표 3-11] 신노년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직접 수요집단의 특성	일자리 유형	내용
저소득, 저학력, 주된 일자리 경력 없음	참여수당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과 사회참여의 중간단계로서, 일의 개념을 근로에서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다양한 활동을 확장한 일자리 단순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안정적 소득을 보장해주는 일자리
저소득, 고학력, 건강상태 좋음, 주된 일자리 경력 없음	역량개발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과 직무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준전문적 또는 특정 기술을 활용하는 일자리
저소득, 고학력, 건강상태 좋음, 주된 일자리 경력 있음	이행형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경력, 연륜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서비스형, 제조업형, 농어업형) 역량과 주된 일자리 경력은 있으나 고령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로 재취업이 어려운 상태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고소득, 고학력, 건강상태 좋음, 주된 일자리 경력 있음	기여형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재능을 기반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자료> 김수린 「신노년세대 노인일자리 수요 추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ISSUE PAPER 2019-4, 2019.11.30, p. 7.

* 집단의 특성 분류 기준은 고학력(고졸이상), 저소득(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미만), 고소득(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이상~소득인정액 1.5배 이하), 주된 일자리 없음(최근 10년 이상 지속한 일자리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함

이처럼 일자리 유형에 따라 수요집단의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확대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활동 특성 차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Age-friendly City Design 연구(국토교통부, 2019.)’에 의하면 노인이 살아가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르므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동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1 심층인터뷰 및 FGI를 통해 자기주도적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건강한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2] 건강한 노인의 활동 특성

구분	자기 주도적 라이프스타일 유형	타인 의지적 라이프스타일 유형
교통 편의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로 자차를 이용하는 노인이 많음 대중교통 이용시 자리가 없어도 노인 우대를 바라지 않음 운전시 신체적 요소로 불편함을 느끼기는 하지만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신체적 노화에 대해 인지하고 조심스러운 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음 보행 시 교통 신호 및 법규를 준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자서 이동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짐(주변인 동반) 대중교통의 이용을 꺼림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휠체어, 지팡이 등 보조기구 이용
안전 및 고령친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을 여닫는 것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지만 힘들어 함 자신의 주거환경 주변 운동시설을 주기적으로 사용함 대체로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음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 두려움이 일반 고령인보다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을 여는데 다른 사람 도움 필요 공공장소, 안전시설 이용시 행동에 장애되는 요소가 있음
주거 편의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노화로 인해 허리를 숙이는 것이 불편하여 자신의 발이나 물건 등을 이용하여 활동하는 습관을 보임 이동보조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힘이 부칠 경우 타인의 도움을 요청함 집 안 활동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욕실에 미끄럼 방지카펫을 깔아놓은 등 주의를 기울이며 활동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단지의 계단과 같은 단차 시설 이용시 불편 엘리베이터 버튼 등 확인 필요한 것에 대해 반복적인 행위를 함 집안에서 활동시 주변 사물에 의지하여 이동함
사회적 존중 및 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이라는 어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임 노인 연령 기준이 지금보다 높아야 한다고 생각함 사회적 존중을 위해 노인과 젊은 층 상호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이라는 어감에 대해 부정적임 노인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구분	자기 주도적 라이프스타일 유형	타인 의지적 라이프스타일 유형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폰, 컴퓨터 등 새로운 기기 등을 통해 정보를 습득함 신문을 보는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양방향적인 태도를 취함 노안으로 인해 사인 및 정보 등을 글자보다는 그림을 인식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폰, 컴퓨터, 신문 등 시각적 콘텐츠 보다는 청각적 콘텐츠를 선호함 노안으로 인해 시각적 사인물을 인지하기 어려움
지역사회 활동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주변 지역사회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 노인임에도 직업이 있는 경우가 많음 주민센터, 근린시설 등 공공시설을 통해 커뮤니티 활동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대해 인식하지 못함 관련활동 부재
지역복지 및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에서 노인 취급을 당연시 하는 태도에 대해 반감이 큼 정기적으로 병원에 들러 자신의 건강을 체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취급을 당연시 하는 태도에 대해 반감이 큼 자주 병원을 가야함에도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음(병원에 가기 어려움)
고령인 활용 및 일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 거주지역의 동장 및 통장 같은 활동을 하거나 직업활동을 하고 있음 퇴직한 경우 부수적인 간단한 일을 통해 취미적인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 활동에 대해 관심이 적음

<출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Age-friendly City Design 연구」, 2019. pp. 31-34.

*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8대 영역(구분)을 기준으로 분석함

연구결과(국토교통부, 2019)에 의하면 자기주도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건강한 노인은 자신의 노화를 인지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활동에 크게 애로사항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관리를 통해 취미활동 및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기기 등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지역사회활동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시 노인우대를 바라지 않으며, 노인 연령의 기준이 지금보다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돌봄을 받는 타인 의지적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노인은 혼자서 이동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과 대화하는데 소극적이거나 일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 외에는 교류할 생각이 없고, 지

역사회활동이나 직업활동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공통적인 특성은 ‘노인이라는 어감에 대해 부정적 의견’과 ‘노인 취급을 당연시 하는 태도에 대한 반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재정립 또는 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5. 노인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및 여가복지시설 이용 차이

1)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이유

노인들은 주로 학습, 건강, 친목 등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¹¹⁾, 비교적 체계적인 학습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노인복지관의 경우 능력개발 및 지적추구 등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노인복지센터의 경우 건강증진을 위해 이용 경우가 많다.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경로당은 후기 고령노인들의 친목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 유형별, 개인 특성별 여가활동의 차이

노인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동거가족수가 적을수록, 인지기능이 높을수록, 사회적 연결망의 밀도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을수록 경로당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박경순박영란염유식, 2015; 이윤경, 2013).

교육수준과 경제력이 높을수록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보다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자원봉사활동, 경제활동, 학술활동, 취미활동, 건강증진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

¹¹⁾ 노인복지관 : 아현실버복지관, 「2014 아현실버복지관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연구」, 2014. (조사 대상자 195명)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경로당 :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 「2015년 노인복지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2015. (조사 대상자 822명)

다(홍석호·김순은, 2016). 따라서 이용 노인의 수준과 다양성을 고려한 여가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조경옥 외, 2011)

지역 유형별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에 차이가 나타나는 데,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지역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고연령화 될수록 여가 시간이 증가하므로 경로당과 같은 정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 연구 결과¹²⁾ 도시지역 노인들은 먼거리의 시설, 불편한 시설, 월소득이 높을수록 이용 확률이 낮아지고, 나이가 많을수록 이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 노인들은 우울감이 높을수록, 여성, 나이가 많을수록 여가복지시설의 이용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 단독세대가 급증하는 농어촌의 현실상 고립감과 우울감이 높은 노인이 경로당과 같은 친목공간을 찾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농복합지역 노인들은 불편한 시설일수록 이용 확률이 낮고, 여성이며 나이가 많을수록 이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역 유형별, 효과적인 여가 프로그램

홍석호·김순은(2016)에 의하면 도시지역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주로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이용할 확률이 높으므로¹³⁾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노후설계와 같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초기 노인과 중위소득 이상 노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사회참여(자원봉사활동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설 면에서는 새로운 시설의 건립보다 지역의 공공시설물을 활용하거나 바우처 방식 등을 활용한 민간기관 참여 유도를 제안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은 소외와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며, 문화여가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또는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경로당 등의 정적인 시설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건

12) 홍석호·김순은,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 보건사회연구 36(4), 2016. (조사 대상자 1,060명)

13) 다양한 문화여가시설이 있는 도시지역의 경우 소득이 높은 노인들이 굳이 불편한 시설과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

강여가문화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

[표 3-13] 지역유형별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특성

구분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지역
설문응답자 (총, 1,06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자 572명 여성 58.6%, 남성 41.4% 초졸이하 57.2%, 중졸 22.0%, 고졸이상 2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자 248명 여성 60.5%, 남성 39.5% 초졸이하 66.1%, 중졸 19.8%, 고졸이상 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자 240명 여성 60.8%, 남성 39.2% 초졸이하 73.8%, 중졸 15.8%, 고졸이상 10.4%
지역 노인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밀집지역에 노인인구수 많음 노인인구의 동질성 낮음 농촌지역 노인에 비해 여가시간이 많고, 여가활동도 다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인구가 밀집해 있음 * 도농복합지역 인구의 구성은 도시적 특성과 비슷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밀도가 낮음 노인인구의 동질성 높음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의존 친목도모와 같은 여가활동에 주로 참여함
여가복지 시설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활동 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함 민간의 다양한 문화여가 인프라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복지시설의 질적양적 수준은 농어촌지역과 비슷함(질적, 양적 시설이 부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복지시설이 다양하지 않음 경로당이 유일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을 함
노인여가 복지시설 이용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이가 많을수록 이용률 높음 월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률이 낮아짐 먼거리의 시설, 불편한 시설의 이용률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나이가 많을수록 이용률 높음 불편한 시설의 이용률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나이가 많을수록 이용률 높음
공통사항	지역 유형과 상관없이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확률이 높아짐		
시설추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리적 접근성과 시설물의 편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새로운 시설 건립보다 지역의 공공시설물을 활용하거나 배우처 방식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기관의 참여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로당 등의 정적인 시설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건강문화여가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확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로당 등의 정적인 시설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건강문화여가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확충 필요
프로그램 추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노후설계 프로그램 확대 초기 노인과 중위소득 이상 노인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다양한 사회참여(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특성과 농어촌특성이 각각 존재하므로 지역 노인 특성에 맞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외와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노인상담프로그램 개설

<자료> 홍석호·김순은,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 보건사회연구 36(4), 2016. 내용 재구성

고양시는 도농복합지역이지만 도시와 농촌이 하나로 융합된 것이 아닌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지역 특성을 보이므로 지역(도시, 농어촌)별 특성을 고려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계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6. 연령, 건강상태, 운동능력에 따른 적절한 운동

“노인의 신체적 기능 저하 및 질병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유지, 사회참여, 정신건강 증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WHO, 2016)”¹⁴⁾. 따라서 노인은 어떠한 신체 활동도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도움이 되므로¹⁵⁾ 보건복지부는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매뉴얼’ 연구를 진행하였다.

노인의 운동도 성인 운동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만성적인 질병으로 제한이 있다면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 동 보고서(김창환 외, 2010)에서 무릎 관절염 환자를 제외한 모든 노인에게 걷기, 타이치, 아쿠아로빅, 수중 걷기 운동, 밴드 운동, 에어로빅, 요가, 짐볼 운동, 필라테스, 은빛건강체조, 시니어로빅, 댄스스포츠 등을 노인 맞춤형 운동으로 소개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이용자의 체중, 체질량, 복부지방률, 공복혈당, 수축기혈압이 감소하고, 근육량, 골량, 기초대사량은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 변화를 보였으며, 평형성, 유연성, 상체근력, 전신지구력 등 건강체력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⁶⁾.

운동처방은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운동형태, 운동강도, 운동시간, 운동빈도, 운동단계로 구성된다.

14)재인용 : 오수경.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효과성 측정 연구」,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2016. p. 82.

15) 김창환 외.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매뉴얼」, 보건복지부, 2010. p. 18

16) 오수경.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효과성 측정 연구」,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2016.
(조사 대상자 : 2015년 3월~2016년 4월 서울시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제공기관 3개소 이용자 134명)

[표 3-14]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기초

구분	운동 처방	노인에게 적절한 운동 예
운동 형태 (exercise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행하는 운동의 상당 부분을 유산소성 지구력 운동에 할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걷기, 댄스, 수영 조깅 등 (대근육군의 리드미컬한 역동적 활동)
운동 강도 (Exercise intens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폐지구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는 운동 강도가 인체에 적절한 자극을 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함 즉 안전하고 최소한의 운동 강도로 일정한 시간동안 운동해야 효과적임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뼈, 관절, 근신경계에 과도한 강도가 주어져 고령자들이 쉽게 피로해지고, 상해 가능성이 커지므로 저강도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고령자의 최대운동능력은 7METs 정도이므로 2~3METs의 운동강도(2~3mph 속도로 걷기)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증가 평균 65세 노인은 최대능력이 21ml/kg/min 수준이므로 7ml/kg/min 의 운동강도로 시작
운동 시간 (Exercise du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동시간은 처방된 운동강도의 수준에 의해 결정. 운동시간과 운동강도는 역상관계로 운동강도가 높을수록 지속할 수 있는 운동시간은 짧아짐 노인들은 생리적 자극에 대해 적응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낮기 때문에 운동단위를 짧게, 자주 반복하도록 설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운동시간 : 가벼운 운동은 30~45분 정도, 조금 강한 운동은 20~30분 정도, 강한 운동은 15~20분 정도가 적절 연령이 높을수록 준비 및 정리 운동시간을 길게 설정
운동 빈도 (Exercise frequ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당 운동을 몇 번 정도 할 것인지는 개인의 건강과 체력 수준에 달려 있음 노인들은 하루의 운동량을 줄이고 운동 빈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운동 초기에는 근 피로 회복과 뼈와 관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격일제 운동을 하고, 점차적으로 1주일에 4~5일정도의 운동자극을 주는 것이 효과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운동능력이 5~8 METs 인 정상 노인의 경우 최소한 1주일에 3회 정도는 운동을 실시해야 심폐지구력을 증가시킬 수 있음 체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주당 5회 정도 운동을 실시해야 지속적인 체력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운동 단계 (Exercise progre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건강상태, 운동능력 등에 따라 다르지만 지구력 또는 유산소 운동은 초기, 향상, 유지 단계로 나누어 처방함 준비운동 : 2/3는 가벼운 스트레칭, 근력 운동 + 1/3은 유산소 활동 본 운동 : 리드미컬한 유산소성 운동 권장 정리운동 : 5~10분 정도 가벼운 보행, 체조를 통해 혈액순환 및 피로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에게 높은 강도의 운동을 강조해서는 안 됨 운동의 유형, 빈도, 시간을 고려하여 일괄적이고 규칙적으로 적당한 운동을 천천히 점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음

<자료> 김창환 외,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매뉴얼」, 보건복지부, 2010, pp. 19-22. 재구성

* METs(Metabolic Equivalent) : 대사당량. 활동 및 운동을 했을 때 안정 상태 몇 배의 열량을 소비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

예) 1 METs : 3.5ml/kg/min 은 휴식시 1분당 체중 1kg에 대하여 3.5ml의 산소를 이용(섭취)하고 있다는 의미.

1 MET는 휴식 중 에너지 소비 비율, 2~3 MET는 사립, 느리게 걷기 정도의 가벼운 강도, 3~6 MET는 자전거, 느리게 수영하기 정도의 중간 강도, 7 MET는 에어로빅, 계단오르기 정도의 격렬한 강도임 (몸무게 70kg 기준)

7. 시사점 - 노인 특성별 지원사업의 다양화 필요

본 연구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건강한 노인’의 모습은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 문화·여가생활도 즐길 줄 알며, 앞에서 살펴본 생산적 노년 지표의 기준처럼 자신의 삶에 대해 목표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할 일과 자기계발 활동을 하고, 가족 및 주위 사람,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노인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들은 살아온 경험 및 개인적 특성이 다양하여 하나의 특성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삶과 일에 대한 인식 유형에 따라 퇴직 후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도 31%~62%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수요 추계 연구에서 신노년세대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근로생애 등에 따라 노인일자리 수요 집단 유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과 역량이 높고 주된 일자리 경력도 있는 집단은 ‘기여형 일자리’, 소득수준과 역량이 모두 낮은 집단은 ‘참여수당 일자리’, 소득수준은 낮지만 역량이 높고 주된 일자리 경력이 있는 집단은 ‘이행형 일자리’, 소득수준이 낮고 역량수준은 높지만 주된 일자리 경력이 적은 집단은 ‘역량개발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기주도적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노인은 운동 및 건강관리, 취미활동과 경제활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경우 봉사활동 자체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감이 참여 동기 및 지속 요인이 되고 있어서 언어적, 비경제적인 격려 및 지지가 중요한 보상이 된다.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농어촌지역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며,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건강여가문화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 도시지역 노인은 여가시설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우선시 하므로 근거리 지역 공공시설물 활용과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건강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 모두 ‘노인이라는 어감에 대해 부정적 의견’과 ‘노인 취급을 당연시 하는 태도에 대해 반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정책적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 재정립 또는 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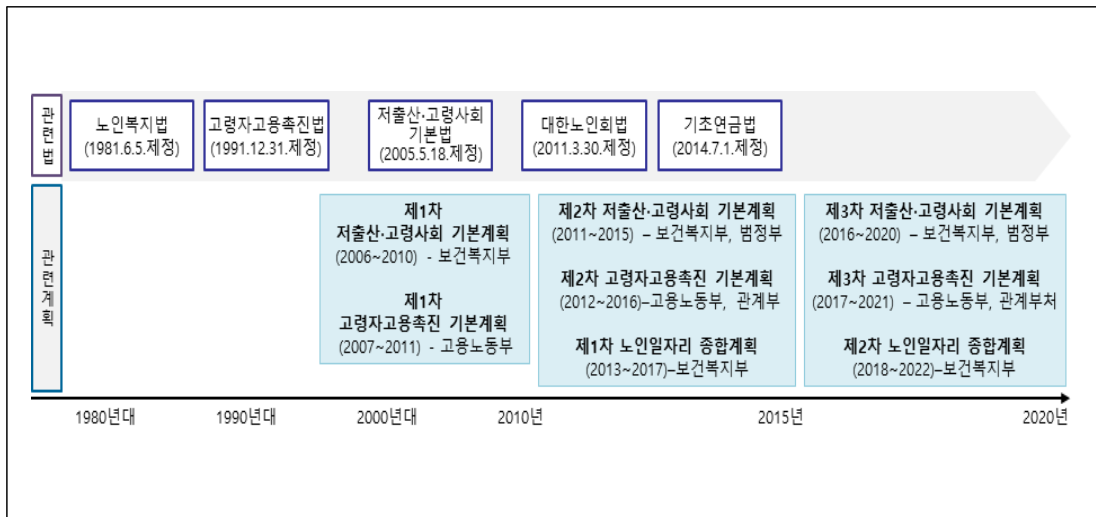
제3절 국내 노인 정책 동향

세계의 정책 동향은 국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UN의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2002년)’은 한국 정부의 고령사회 대응 계획(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WHO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2007년)’는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GNAFCC)에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정책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0년대 이전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소득, 주거, 고용, 건강, 사회서비스 등)의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으로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0년대 이후는 세계적인 고령화 대책의 영향을 받아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2005년)과 관련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졌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20년 현재 3차 계획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제4차 계획 수립 중에 있다.

[그림 3-5] 국내 고령화 대응 정책 동향 - 건강한 노인 관련



[표 3-15] 노인복지정책의 변화

구분	노인복지 관련법	노인복지 주요 정책 및 이슈
1980 년대	☐ 노인복지법 제정 (1981.6.5.)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제 첫 실시(1980.5.) 만 65세로 확대 실시(1982.1.) 노인복지법 주요 개정 내용(이하) - 노인복지주택관련(2011.3.) - 노인일자리사업 관련(2011.4.) -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2011.6.) - 경로당 양곡, 난방지원(2012.2.) - 노인학대 신고 의무화(2012.10.) - 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복지시설(2013.12.)
	국민복지연금법 제정(1973.12.24.) ☐ 국민연금법 전부개정(1986.12.31.)	일반근로자 대상 시행(1988.1.)
	-	노인여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1989) 재가복지서비스 실시(1989)
1990 년대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1991.12.31.)	가정봉사원파견, 주야간-단기보호서비스 구분(1993) 노인생활관리사 첫 등장(1994)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1997)
2000 년대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5.5.18.)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 고령자고용촉진법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 칭-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 (2008.3.21.)	제1차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2007~2011) 제2차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2012~2016) 제3차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2017~2021) 정년 60년 법제화(2013.5.) 제1차 노인일자리종합계획(2013~2017) 제2차 노인일자리종합계획(2018~2022)
	-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2004)-학대예방, 권익보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2005)-노인사회참여확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시행(2007.5.)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시행(2007.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2007.4.27.제정, 2007.10.1.시행)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2008.7.) 치매특별등급 5등급 신설(2014.7.)
2010년 대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개소(2011.1.) 제1차 독거노인종합대책(2012~2017) 제2차 독거노인종합대책(2018~2022)
	☐ 대한노인회법 제정(2011.3.30.)	대한노인회 지원(노인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 치매관리법 제정 (2011.8.4.)	제1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08~2012)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2~2015)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 치매국가책임제(2017.9.)
	☐ 기초연금법 제정 (2014.5.20.)	만 70세 이상 노령수당 도입(1991) 만 65세로 확대 실시(1997) 경로연금으로 대체(1998) 기초노령연금제도(2008.1.) 기초연금제도(2014.7.)

<출처> 문정화유선사임연목, 「고양시 노인복지 기반시설 구축 방안 연구」, 고양시정연구원, pp. 11-12.

이 중 건강한 노인과 관련한 법률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법 - 1981.6.5. 제정

1981년 제정 당시 노인복지법(1981.6.5.제정·시행)은 노인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제정되었으며, 1989년과 1997년도 전부개정 이후 매년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일부 개정되어 왔다. 2020년 현재 노인복지법의 전면 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는 수명연장과 건강한 노인의 증가에 따른 지원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 노인복지법(2018.12.11. 타법개정, 2019.12.12. 시행) >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1991.12.31. 제정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1991년 12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고령자고용법은 5년마다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고령자 취업지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정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020년 1월 현재 연령 기준 : 고령자 55세 이상, 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

< 약칭 : 고령자고용법(2019.4.30. 일부개정, 2020.5.1. 시행) >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
 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4. 고령자의 취업알선, 재취업 및 전직(轉職) 지원 등 취업 가능성의 개선방안
 5. 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시책

제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2005.5.18. 제정

2005년 5월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노인 인구비율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명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14.3.18. 일부개정, 2014.3.18. 시행) >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고령사회정책

제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과 정보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에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8조(경제와 산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대한노인회법) - 2011.3.30. 제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대한노인회법)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 3월 30일 제정되었으며, 2016년 한 차례 일부개정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2016.2.3. 일부개정, 2016.8.4. 시행)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5) 기초연금법 - 2014.7.1. 제정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법을 제정하여 2014년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기초연금법(2019.1.15. 일부개정, 2019.4.1. 시행) >

제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노인인구 증가 및 사회변화 등에 따라 노인복지 관련 법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하고 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이 증가하면서 노인의 욕구도 변화하고 있으므로 향후 노인 정책의 방향도 다소 달라질 것이다. 국내 한 연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에서 미래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비전 및 전략 설정의 기본 원칙으로 다음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고령사회 대응은 특정 노인이 아닌 사회전체,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목표로 하는 관점에서 추구 ② 개개인이 노년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존엄성을 가지고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구 ③ 기존의 ‘부양-피부양’관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세대 간 관계의 설정 필요 ④ 단편적이고 임시적인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 보조 등에서 벗어나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접근 지향 ⑤ 전통 노인복지 시각에서 벗어나 주택, 교통, 경제, 고용, 복지, 보건, 과학기술, 문화, 지역 등을 포괄하는 다영역, 통합적 접근 시도 ⑥ 인간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는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변화를 적극적으로 접목할 필요가 있다.¹⁷⁾

¹⁷⁾ 이삼식 외(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고령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방향 설정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7. pp. 163-167.

제 4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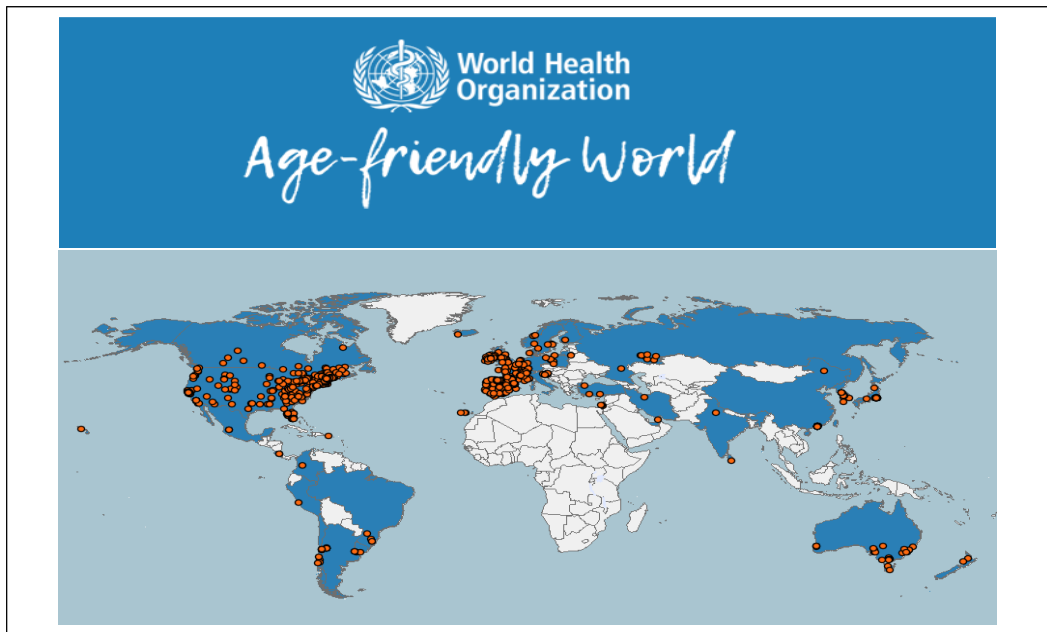
활동적 노화 정책 사례연구

제1절 국외 활동적 노화 정책 사례연구

제2절 국내 활동적 노화 정책 사례연구

제절 국외 활동적 노화 정책 사례연구¹⁸⁾

국외 건강한 노인 지원을 위한 활동적 노화 정책 사례는 ‘활기찬 노년’과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주요 가치로 하고, ‘도시 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지역(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WHO는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웹사이트(<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를 통해 전 세계 각 도시의 고령친화도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자료〉 Global Network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http://apps.who.int/agefriendlycitiesmap>) 접속일 2020.1.9.

* 2020년 1월 기준 전 세계 41개국 1,000개의 도시(지역)이 GNAFCC(국제고령친화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음

¹⁸⁾ 국외 건강한 노인 지원 정책사례는 ① 부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2018.7, ② 김영현, “고령자 활동적 삶을 위한 도시 생활권 공공공간 계획요소와 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19. ③ 2013년 브뤼셀에서 열린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유럽 혁신 파트너십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고령친화혁신 우수사례집’에 소개된 사례와 WHO의 GNAFCC(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함. * 각 도시의 인구수 및 노인인구 비율은 2020년 1월 GNAFCC 웹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임

1. 건강한노인과 건강한도시를 위한 고령친화 정책

1) 미국 뉴욕

뉴욕은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19%인 도시로 2007년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장 먼저 가입한 도시이다. 뉴욕시와 뉴욕의과대학이 협력하여 뉴욕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Age-Friendly NYC)를 추진하였으며, 공공공간과 교통, 주거환경, 지역사회 및 시민참여, 건강 및 사회서비스 영역의 전략과제를 마련하였다. 세부 영역 중 ‘부양 및 장기요양’, ‘죽음준비’를 제외한 교통, 공공공간, 주택, 고용, 경제적 안정, 자원봉사, 문화, 여가활동, 정보제공, 건강관리, 영양지원 등 모든 영역의 과제가 건강한 노인 지원 정책에 적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1] 뉴욕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Age-Friendly NYC)의 전략과제

추진 영역		전략과제
공공 공간과 교통	이용가능하고 합리적인 교통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철 정류장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서비스 개선 노인을 직접 방문하는 특수이동서비스(access-a-ride) 효율성 개선 휠체어 접근 가능한 택시모델 개발 휠체어 접근 가능한 택시에 이용자 연결 개선 공공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택시 바꾸처 개발
	안전하고 고령친화적인 공공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 정류장의 휴식시설 확충 주요 지역 내 공중화장실 설치 보행자 중심의 공공 공간 구축 교차로에서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비 고령친화공원을 지정하여 노인이용 활성화
	미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이동성 향상을 위한 연구수행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확대
주택	적정비용의 주거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주거지원금과 건설과정에서 노인에 대한 고려 실버주택 건설시 주차규정과 조닝규제 완화 검토 적정비용의 주택리모델링과 신축을 위한 융자 지원
	주택소유주와 세입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수리를 위한 대출 지원 주택 개조 계약자 고용 노인 렌트 인상 억제 프로그램(SCRIE)에 대한 접근 향상 퇴거 예방에 관련된 법률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적 은퇴공동체(NORCs)에게 추가적인지지 서비스 제공 퇴거 위험에 처한 취약 노인들을 위한 주거지원 바꾸처 제공 확대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모델 개발 촉진

추진 영역		전략과제
지역 사회와 시민 참여	고용과 경제적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대상 직무교육과 취업 알선 제공 고령자에게 근로보수가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
	자원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와 비영리단체를 통한 세대 간 자원봉사와 학습기회 제공 봉사시간만큼 봉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타임뱅크) 도입 및 지원
	문화 및 여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센터와 도서관 간의 파트너십 구축 노인센터에 문화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술가 모집 문화·예술 행사에 고령자 할인혜택 제공
	정보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웹사이트 구축 보다 친근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부 웹사이트 업데이트 지역사회 고령친화도 진단을 위한 조사 수행 성 소수자 문제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 문화적 역량 강화
건강과 사회 서비스	건강 및 건강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매에 대한 의식과 건강지식 증진 건강 증진에 초점을 둔 노인센터 개발 노인을 위한 스포츠센터 설립 정부의 노인건강보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보험 인식 확대
	취약노인을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낙상방지프로그램 실시 고위험군 노인대상 에어컨 무료 보급 사회적 고립 위험에 처한 노인을 원조하는 활동 진행 실종노인 및 독거노인을 보호하는 경보시스템 개발 노인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캠페인 확대
	영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당한 가격에 영양가 높은 식료품 구입을 지원할 앱 개발 크린카드 프로그램 시행 및 지역 식료품 마켓에 대한 운영위원회 구성 식료품 마켓 방문을 위한 노인전용 버스 서비스 시행 가정배달급식 프로그램의 효율성 증진
	부양 및 장기요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부양자에 대한 교육자료와 지원 확대 가족부양 휴가 확대를 위한 정책 모색 장기요양보험 및 고용주 대상 수발지원 관련 워크숍 개최 지역사회 및 가정에서 요양 및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유급수발자에 대한 훈련기회 및 지원확대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개선과 교육
	죽음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기환자 간병 프로그램인 완화 치료에 대한 홍보 보건병원공단에서 시행하는 말기환자에 대한 완화케어프로그램 확대 사전 의사결정 제도에 대한 홍보 의사결정이 어려운 노인의 건강관련 대리인 법제화 추진

<출처> 김영현, “고령자 활동적 삶을 위한 도시 생활권 공공공간 계획요소와 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19, pp. 33-34.

* 원자료 : NYC,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Age-Friendly NYC: A Progress Report, 2011.

** 건강한 노인 지원정책에 부양 및 장기요양, 죽음준비 영역 전략과제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 가능함

2) 영국 벨파스트

영국 북아일랜드의 수도인 벨파스트는 인구 280,962명의 19.3%가 60세 이상으로 북아일랜드 최초로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하였다. 첫 번째 고령친화 행동계획(2014-2017)에 이어 현재는 새로운 벨파스트 고령친화 계획(2018-2021)을 추진하고 있다. 벨파스트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계획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대간 툴킷 및 가이드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고령친화 헌장에 서명한 기업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 사회적 포용 측면에 기여하고 있다.

[표 4-2] 영국 벨파스트의 고령친화도시 추진 과제

구분	추진 과제
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걷기와 활동적인 노화를 위한 환경 개선 • 더 접근하기 쉬운 대중교통 네트워크 • 적절한 주택 공급 증가
사회적 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들이 사회, 문화, 시민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정보 제공 • 노인들이 더 연결되고 덜 고립되게 지원 • 노인들이 더 존경받는 사회 • 지역사회와의 안전 향상
건강과 웰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들의 서비스 접근 방법 인지 • 노인들의 더 나은 라이프스타일 선택 • 노인들의 건강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재정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기회 향상 • 혜택 및 자격에 대한 접근성 향상 • 금융사기 및 일반사기로부터 보호 강화

〈자료〉 WHO GNAFCC 벨파스트(<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belfast/>), 접속일 2020.1.14.

3) 호주 레인코브

호주 레인코브는 인구 32,000명의 21%가 60세 이상으로 적극적인 고령화 대응 및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했다. WHO

GNAFCC 가입요건의 범주(야외환경, 교통, 주거, 존중과 사회적 포용, 사회적 참여,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시민참여, 지역복지 및 보건)에 따라 수립된 고령친화 행동계획은 55세 이상 450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되었으며, 지역의 모든 부서가 이행을 책임지고 있다.

[표 4-3] 호주 레인코브의 고령친화도시 추진 과제

구분	추진 과제
야외 환경	• 노인들이 쉽고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야외 환경 조성
교통	• 노인들의 교통 접근성 향상
주거	• 노인들이 레인코브를 떠나지 않고도 돌봄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저렴한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기회 증가
존중과 사회적 포용	• 노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 받고, 배제되거나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포함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지원
사회적 참여	• 사회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레저 활동 참여 지원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 풍부하고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시민 참여	• 지역사회 결정, 고용 및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지원
지역사회 지원 및 건강서비스	• 필요한 지역사회 지원 및 건강 서비스와 연결

<자료> WHO GNAFCC 레인코브(<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lane-cove/>), 접속일 2020.1.14.
레인코브(<http://www.lanecove.nsw.gov.au/Community/CommunityServices/Pages/AgeFriendlyLaneCove.aspx>)

4) 일본 아키타

2025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34.2%로 예상되는 아키타시는 건강한 노화와 장수를 장려하고 있으며, 지역 내 통합된 지역사회 양로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이 자신의 지역에서 원할 때까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일본 최초로 고령친화 도시에 가입한 아키타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긍정적인 이미지 만들기, 배리어프리 촉진, 고령자의 고립 방지 및 교통수단 확보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표 4-4] 일본 아키타시의 고령친화도시 추진 과제

구분	추진 과제
교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의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이동수단 확보 고령자의 요구에 맞는 교통수단의 운행지원 버스사업 이외의 이동수단에 대한 검토 및 지원
옥외 공간과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식장소, 벤치, 모든 세대가 쉴 수 있는 푸른 공원 등이 있는 옥외환경 정비 고령 운전자의 사고예방대책 베리어 프리의 적극적 추진 물건 구입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지원 슈퍼 또는 상점, 의료시설 등을 집약한 시설정비 지원 시민 협동에 의한 꼼꼼한 폭설 대책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른 주거 확보 고령자나 장애인이 생활하기 좋은 집합 주택에 대한 검토
존경과 사회적 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에 대한 이미지, 이해에 대한 개혁 각 세대가 함께 활동하는 장 만들기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정보기구를 활용한 고령자의 정보발신 촉진 요양이나 고령자 복지의 상담창구에 관한 정보의 철저한 제공 고령자 관련 시민을 위한 정보에 만전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인 사회참여 촉진 고령자가 모일 수 있는 장소 만들기 고립, 우울증 예방, 자살대책 초나이카이(일본 지역 주민의 자치적 친목 조직)에 대한 섬세한 지원
지역사회의 지원과 보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익숙한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편리한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충실한 지원 지역 고령자 안부확인 대책
시민참가와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의 자원봉사활동 촉진 고령자의 일터 확보

<출처> 백영훈(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부천시, 2018.7, p. 84.

5) 홍콩

홍콩은 고령 인구의 비율 약 15%(2015년)에서 30%(2040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노인에 관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불완전해서 정부와 NGO 파트너십을 통

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부모에게 오늘날 육아지식과 교육을 실시하여 세대간 소통을 도모하는 조부모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노인의 교통수단을 위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카드를 발급해 정부, 공공·민간기업, 상업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료 또는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홍콩은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8대 영역을 홍콩의 특성에 맞추어 6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4-5] 홍콩의 고령친화도시 추진 과제

구분	추진 과제
실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 개편 • 실외 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조경 •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보행자 청신호 확장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 조건에 노출되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 연결되는 보도 제공 • 교통시스템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강화 • 모든 대중교통 이용시 2달러 요금 할인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1인가구를 위해 저렴하게 주택 제공 •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 • 노인 맞춤형 주택 복합단지
존중,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노인에게 정부, 공공·민간기업, 상업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료 또는 할인받을 수 있는 노인카드 제도 도입 • 70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연금 지급 • 부모 또는 조부모 부양에 필요한 연금 지급 •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노인의 사회적 기여를 존중하도록 장려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 이후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고용 지원 • 노인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제공하여 노인 고용 장려
의료,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 행정장관(HKSAR)과 NGO와 협력하여 노인건강평가 파일럿 프로그램 실시 : 70세 이상 홍콩 거주권자 약 1만명에게 보조금 및 건강 평가 제공

<출처> 백영훈(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부천시, 2018.7, p. 88.

2. 건강한 노인을 위한 지원사업 사례

노인의 외부 활동은 건강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각 도시는 노인의 외부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1) 미국

(1) 뉴욕주 - 노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각종 가이드 제공

뉴욕은 2007년 WHO 국제고령친화도시에 가장 먼저 가입한 도시로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9%,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27%에 달하고 있어서 노인이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거리 곳곳에 노인이 쉬어갈 수 있는 벤치를 만들거나 노인의 이동을 돕는 노인전용버스 및 택시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인의 짐수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는 고령친화짐수리 가이드, 노인을 대하는 지침이 수록된 고령친화 비즈니스 가이드, 노인의 활동을 유도하는 고령친화상점 가이드 등이 있다.

① 노인을 위한 벤치

짧은 거리의 보행도 어려운 노인을 위해 뉴욕 거리 곳곳에 쉬어갈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하고 있다. 벤치는 시민이 신청한 장소에 설치하고 있으며, 단순한 사업이지만 고령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지역에서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1] 뉴욕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노인을 위한 벤치



<출처> 정은하, “고령사회와 도시정부의 역할”, 서울연구원, 세계와 도시 Vol.12, 2015. p.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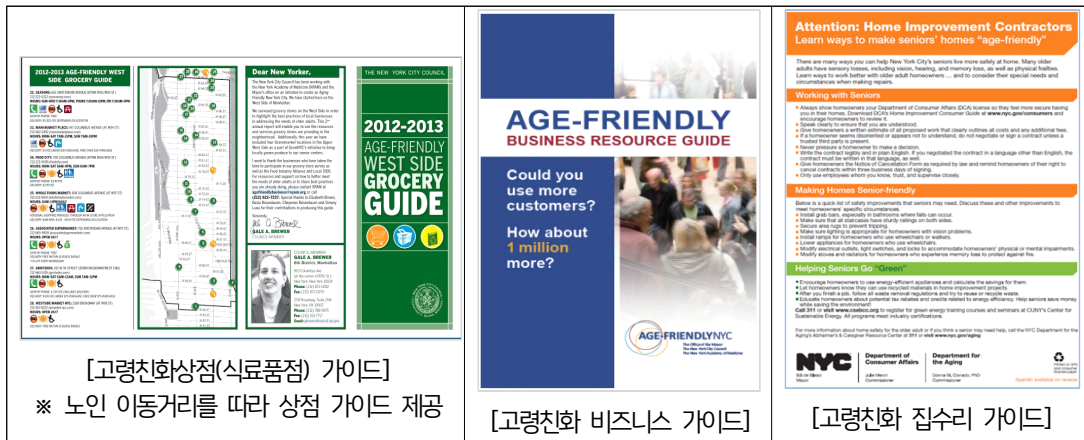
② 고령친화 상점 및 비즈니스 가이드

노인들이 이동하는 주요 거리를 중심으로 고령친화사업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근린상점(약국, 식료품점, 미용실, 카페, 영화관 등)이 수록되어 있는 ‘고령친화상점 가이드(Age-friendly West Side Grocery Guide)’를 배포하여 상업가도로 노인들의 보행을 유도하여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상점에는 노인고객을 대하는 태도, 노인에게 편리한 매장 개선 방안 등의 지침이 수록되어 있는 ‘고령친화 비즈니스 가이드(Age-friendly Business Resource Guide)’를 제공하고, 협력 상점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역 전반에 노인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형식료품점인 ‘샵라이트’는 노인들의 건강유지를 위해 저염, 저지방식품 등을 색깔별로 구분하여 진열하고 무료 영양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장 내 노인전용계산대, 휴식용 벤치 등을 배치하고 노인 고객을 위한 할인쿠폰도 제공하고 있다.

‘고령친화 집수리 가이드’는 노인의 집수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노화에 따라 특별히 신경 써서 수리해야 할 부분 등을 알려준다.

[그림 4-2] 뉴욕의 고령친화 상점, 비즈니스, 집수리 가이드



[고령친화상점(식료품점) 가이드]
※ 노인 이동거리를 따라 상점 가이드 제공

[고령친화 비즈니스 가이드]

[고령친화 집수리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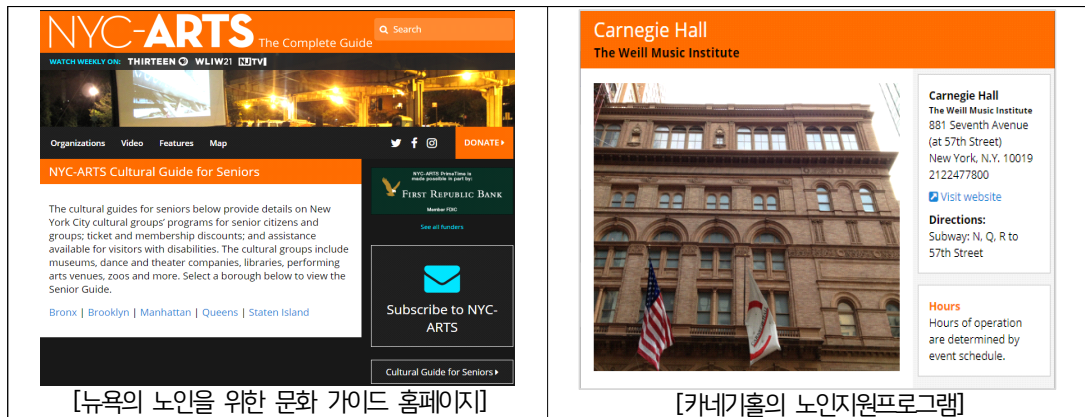
〈자료〉 정은하, “고령사회와 도시정부의 역할”, 서울연구원, 세계와 도시 Vol.12, 2015, pp. 28-30. 뉴욕 고령친화비즈니스 가이드, 뉴욕 고령친화적 집수리 가이드 / 뉴욕 고령친화상점(가이드) (<https://www.yumpu.com/en/document/view/2156196/2012-2013-age-friendly-west-side-grocery-guide>), 접속일 2020.1.8.

③ 노인을 위한 문화 가이드

뉴욕시 내 예술 아카데미, 공연예술센터, 박물관, 식물원 등 문화 예술 및 공연 이벤트를 알려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노인을 위한 문화 가이드(Cultural Guide for Seniors)’를 통해 지역별 노인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및 할인 혜택이 있는 단체를 소개하여 노인들의 외부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메트라이프재단(MetLife Foundation)과 시의원의 지원을 받아 맨해튼, 브루클린, 퀸스, 브롱스, 리치몬드(스타텐드)의 다섯 구 별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단체와 할인 혜택이 있는 단체를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맨해튼의 경우 노인을 위한 200여개의 문화 그룹 프로그램 세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민속예술박물관(American Folk Art Museum)은 알츠하이머 및 치매 환자와 간병인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나벨라 곤잘레스 무용 극장(Annabella Gonzalez Dance Theater)은 노인 연령에 적합한 운동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세계적인 음악공연장으로 유명한 카네기 홀(Carnegie Hall)은 무료 티켓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노인과 간병인에게 무료 티켓을 제공하고 있으며, Musical Connections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가들이 노인센터와 생활시설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다.

[그림 4-3] 뉴욕의 노인을 위한 문화 가이드



<자료> 뉴욕주(<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new-york-state/>), 접속일 2020.1.31.
 뉴욕시 노인을 위한 문화 가이드 홈페이지(<https://www.nyc-arts.org/seniors>), 접속일 2020.1.9.

(2) 캔자스주 위치토(Wichita) - 그랜드페어런츠 파크

캔자스주 남부 상업·산업의 중심지인 위치토 지역은 낮시간 동안 대부분의 부모가 일터에 나가므로 많은 노인들이 손자녀를 돌본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어 노인과 어린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였다. 대표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와 함께 이용하기 편리한 소규모 놀이터를 설치하는 ‘그랜드페어런츠 파크(Grandparents Park, 조부모 공원)’가 있다.

미국은퇴자협회인 AARP(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의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2013년 개장한 첫 해에 시에서 놀이터 내 조경, 울타리, 산책로, 노인을 위해 고안된 야외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고, 두 번째 해에는 공원 벤치, 입간판, 식수대, 미취학 아동을 위한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공원은 고속도로 옆에 있는 빈 부지를 활용하여 인근의 모든 지역에서 노인과 손자녀가 도보, 자전거, 유모차 또는 자동차로 쉽게 갈 수 있게 조성되었으며, 근처에 구내 주차장도 있다.

놀이공간을 만든 후에 지역 내 노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지역 내 주민들의 교류 증진에 효과를 보고 있으며, 지역 내 교육 워크숍과 주민참여프로그램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4-4] 캔자스주 위치토의 그랜드페어런츠 파크



<자료> 캔자스주 그랜드페어런츠 파크(<https://www.aarp.org/livable-communities/info-2014/grandparents-park-wichita-kansas.html>), 접속일 2020.1.9.

(3) 콜로라도주 - 노인을 위한 주택공유 서비스

비영리 단체인 Senior Homeshares는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찾는 노인들과 집에 여러분의 공간이 있는 노인들을 연결시켜 주는 주택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공유 서비스는 저렴한 주택을 찾는 노인 또는 자신의 주택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단을 찾는 노인들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감소시켜 심리적, 신체적 이익을 제공한다.

[그림 4-5] 콜로라도주의 노인을 위한 홈쉐어링(주택공유) 서비스

The screenshot shows the Senior Homeshares website. At the top, there is a logo and navigation links for 'DONATE' and 'LOG IN'.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image of an elderly woman in a kitchen. Overlaid on this image is a 'FREE MEMBERSHIP!' banner with a 'JOIN NOW' button. Below the image is a 'LEARN MORE' button. Two side panels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one for those with extra space and another for those seeking affordable housing.

<자료> 콜로라도주(<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homesharing-for-seniors/>), (www.seniorhomeshares.com), 접속일 2020.1.13.

(4) 뉴저지주 베르겐카운티(Bergen County) - 노인을 돕는 노인 ‘핸디맨 서비스’¹⁹⁾

뉴저지주의 베르겐자원봉사센터(Bergen Volunteer Center)는 카운티 노인서비스 부서의 보조금과 개인기부자의 지원을 받아 노인이 노인의 집수리를 돕는 ‘CHORE Volunteer Handyman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1977년 설립된 이래 41년 동안 5만명 이상의 노인이 집수리 서비스 도움을 받았고, 자원봉사 노인들은 매년 약 1400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6] 캔자스주 위치토의 그랜드페어런스 파크



봉사활동 참여자들은 평균 70세의 퇴직자(건강한 노인)로서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저소득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필요한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끼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2) 영국

영국 각 지역은 노인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거나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1) 벨파스트(Belfast) - 연령친화적 벨파스트 현장

벨파스트는 세대간 툴킷 및 가이드를 개발하고, 고령친화 현장에 서명한 기업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 사회통합 측면에 기여하고 있다.

세대 간 툴킷 및 가이드는 청년 및 노인서비스 자원봉사자, 일선 담당자 등이 사용하

¹⁹⁾ 뉴저지주(<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chore-handyman-service-older-adults-helping-older-adults>), 접속일 2020.1.13.

도록 설계되었으며, 지역사회에서 노인과 젊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벨파스트 노인 자원봉사자 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봉사활동 참여, 예술문화 봉사, 기부 등 5개 분야별로 자원봉사자 및 팀을 표창하고 수상자는 시의회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

[그림 4-7] 세대간 툴킷 및 가이드, 노인 자원봉사자상



[벨파스트 세대간 툴킷 및 가이드]

[벨파스트 노인 자원봉사자상 수상자]

<자료> WHO GNAFCC 홈페이지, 접속일 2020.1.14.
 (https://www.makinglifebettertogether.com/age-friendly/age-friendly-resources)
 영국 벨파스트 툴킷(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age-friendly-belfast-intergenerational-toolkit-and-guide)

벨파스트 헌장은 조직 및 기업이 고령친화적인 도시를 향해 협력하겠다는 약속의 성명서로 고객관리, 의사소통, 접근성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다. 벨파스트 헌장에 서명한 조직에는 인증서와 스티커가 발급되며, 벨파스트 팀원이 미스터리 쇼퍼객으로 해당 조직을 방문하여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그림 4-8] 연령친화적인 벨파스트 헌장



[벨파스트 헌장 내용]

1. 고객관리 : 고령자는 상점 직원이 친절하고 정중하며, 필요할 때 추가시간을 주길 원한다.
2. 의사소통 :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간단하고 찾기 쉬워야 하며, 노인들은 광고에서 긍정적으로 묘사되어야 한다.
3. 접근성 및 간판 : 노인은 구내를 쉽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4. 고령인력의 평가 : 고령의 직원이 직장에 머무를 수 있는 훈련기회와 지원을 제공한다.

<자료> 영국 벨파스트 헌장(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age-friendly-belfast-charter/), 접속일 2020.1.14.

(2) 셸퍼드(salford) - 지역 노인과 함께 연령친화도구 제작²⁰⁾

2019년에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한 셸퍼드는 지역 노인들이 함께 작업에 참여하여 지역 비전을 개발하였다. 셸퍼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을 통해 건강한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들은 활동적이고 바쁘게 지내면서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그림 4-9] 고령친화 성과가 담긴 진단지



지역 비전 개발시 노인들은 참가자와 발표자로서 워크숍 및 학습행사에 참여하고, 건강 전문가와 협력하여 노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도구를 제작, 실질적인 성과를 읽기 쉽고 짧게 요약한 진단지로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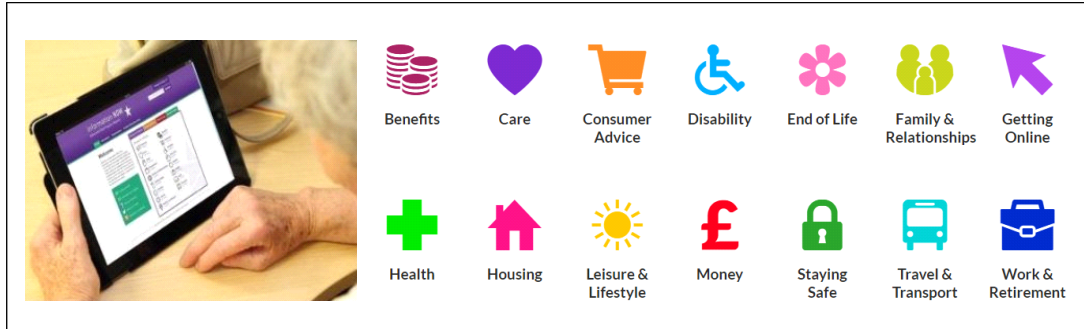
(3) 뉴캐슬어폰타인(Newcastle upon Tyne) - 노인과 함께 노인을 위한 정보사이트 개발

노인들은 삶을 관리하고 필요할 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와 조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뉴캐슬어폰타인은 노인과 함께 노인을 위한 정보 사이트를 개발하여 홍보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정보 사이트 Information NOW(www.informationnow.org.uk)에는 노인을 위한 정부 혜택, 돌봄, 소비자, 관계, 건강, 주택, 레저, 재무, 안전, 여행 및 운송, 퇴직 등의 카테고리 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본 정보를 게시하고,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²⁰⁾ 영국 셸퍼드(<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our-age-friendly-journey/>), 접속일 2020.1.14.

[그림 4-10] 정보와 조연을 위한 노인 웹사이트



<자료> 영국
 뉴캐슬어폰타인(<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older-peoples-website-for-information-and-advice/>),
 노인을 위한 정보 사이트 Information NOW(www.informationnow.org.uk), 접속일 2020.1.14.

(4) 화이트 섬(Isle of Wight) - 에이지 어워드 시상식

와이트섬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노인의 공로를 인정하는 에이지 어워드(Age Awards)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후원을 통해 8개 부분(연령 친화적인 기업가, 커뮤니티, 팀, 도전자, 기부자, 활동가, 자원봉사자 등)의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수상자들의 성과물은 해당 자료를 필요로 하는 곳에 공유된다.

[그림 4-11] 노인의 업적과 공헌을 인정하는 에이지 어워드 시상식 수상자



<자료> 영국 화이트섬
 (<http://agefriendlyisland.org/celebrating-age-awards-ceremony-recognises-achievements-and-contributions-of-older-islanders>)
 접속일 2020.1.14.

(5) 선덜랜드(Sunderland) - 웰빙 워킹 프로그램

선덜랜드의 웰빙 워킹 프로그램은 해안, 강변, 지역공원 및 도시지역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의 다양한 풍경을 감상하며 함께 걸으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웰빙 워킹(건강 걷기) 프로그램에는 연령 및 체력에 맞게 걷기를 조정하는 친절하고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하여 참가자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고 있다. 홈페이지(<https://www.walkingforhealth.org.uk/>)에 접속하면 산책 경로 및 안내, 함께 걷는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걷기가 몸과 마음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인 및 만성질환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며, 함께 걷는 동안 새로 친구를 사귀므로써 외로움도 해소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후에도 함께 차를 마시거나 점심을 같이 먹는 등 지속적인 우정이 형성되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림 4-12] 웰빙 워킹 프로그램의 산책 경로 및 참여자



[웰빙 워킹 프로그램 경로 및 접촉지점]

[웰빙 워킹 프로그램에 참가한 노인과 자원봉사자]

<자료> 영국 선덜랜드(<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active-sunderland-wellness-walking-programme/>), 웰빙워킹프로그램(<https://www.walkingforhealth.org.uk/walkfinder/north-east/sunderland-city-councils-wellness-walking-programme>), 접속일 2020.1.14.

3) 호주

호주는 노인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여가문화 활동 지원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

(1) 로킹엄 시(Rockingham) - 노인과 함께 예술작품, 노인과 함께 셀카대회

로킹엄시는 청소년과 노인이 함께 예술작품(벽화그리기) 활동을 하며 세대간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과 함께 셀카를 찍는 재미있는 대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세대 간 예술작품은 청소년과 노인들에게 Golden bay 해안의 도시예술커뮤니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노인 간호 제공자와 파트너 관계를 통해 기회가 없던 노인들이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고, 노인과 청소년이 작품 활동을 함께 하며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세대 간의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하였다. 협력을 통해 어두운 벽을 밝은 벽화로 표현한 공공예술작품을 제작하면서 청소년과 의사소통이 편안하다고 보고한 노인수, 노인들과 의사소통이 편안하다고 보고한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였다.

[그림 4-13] 노인과 청소년 세대 간 예술작품, 노인과 함께 셀카 대회



[노인과 청소년 세대 간 도시예술 프로젝트]

[자신에게 특별한 노인과 함께 셀카 찍기 대회]

<자료> 호주 로킹햄시(<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young-and-gold-intergenerational-urban-art-project/>)/
호주 로킹햄시(<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selfie-with-a-senior/>), 접속일 2020.1.13.

노인과 함께 셀카대회는 노인과 함께 셀카를 찍고 함께 사진 찍은 노인이 왜 특별한지 간단

한 설명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노인에 대한 낙인과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노인을 기리는데 공헌한 사람이 우승자로 선정되며, 우승자에게 AUD \$500(약 40만원)과 셀카 사진 액자를 수여한다. 모든 참가작품은 시의 페이스북과 웹사이트에 공유되고, 2주 동안 눈에 띄는 공공장소에 전시(지역사회예술단체와 협력)되어 노화와 관련하여 많은 대화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셀카대회 참가자의 100%가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며, 전시회를 방문한 사람의 80%가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또한 96%는 전시회 방문이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더 큰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동의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2) 레인코브 지방(Lane Cove) - 노인용 의자, 노인용 뉴스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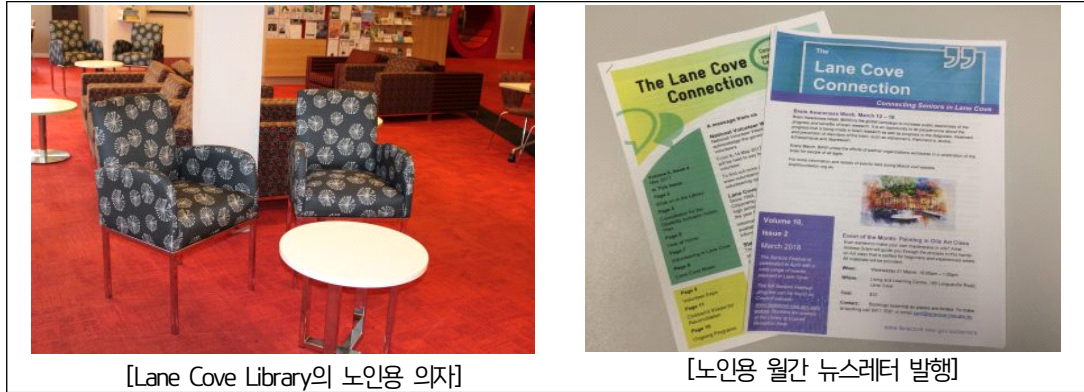
호주 레인코브 지방은 노인들이 쉽고 안전하게 나갈수 있는 야외 환경 조성, 교통 접근성 향상, 사회 및 레저활동 참여 지원, 노인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고용 및 자원봉사 지원, 건강서비스와 연결, 노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배제되거나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포함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다.

노인들이 야외 활동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노인용 월간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노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축제를 열어 활기찬 삶을 지원하고 있으며, 레인코브 도서관 의자 높이를 노인이 사용하기 편하게 설치하는 등의 배려를 하고 있다.

레인코브 도서관(Lane Cove Library)의 일반 라운지 의자는 낮아서 노인이 쉽게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도서관은 노인이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높이의 팔걸이 의자와 테이블을 설치하여 매우 인기가 있다.

레인코브 뉴스레터(Lane Cove Connection)은 5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월간뉴스레터로 노인을 위한 건강, 기술, 주택 정보,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활동 및 행사, 체육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레인코브 시니어 축제(Lane Cove Seniors Festival)을 통해 다양하면서 새롭고 즐거운 행사를 열어 노인들의 활기찬 삶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4-14] 노인에 대한 배려 - 노인용 의자, 다양한 정보 제공 - 노인용 뉴스레터



[Lane Cove Library의 노인용 의자]

[노인용 월간 뉴스레터 발행]

<자료> 호주 레인코브 지방(<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chairs-for-seniors/>)
호주 레인코브 지방(<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lane-cove-connection/>), 접속일 2020.1.13.

(3) 뉴사우스웨일즈주(NSW) - 노화예술사진 전시회²¹⁾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지역 노인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노화예술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노화 및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림 4-15] 노화 예술 사진 전시회



[노화 예술 사진 전시회]

노화예술사진전시회의 각 사진에는 참가자의 경험과 노후의 삶이 반영된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전시회를 본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노화에 대한 영감을 받았다는 피드백을 받음에 따라 전시회는 참가 지역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²¹⁾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the-art-of-ageing-exhibition-launch/>), 접속일 2020.1.13.

(4) 노던 주(Northern Territory) - 시니어 엑스포

노던 주는 2015년부터 매년 시니어 엑스포(Seniors EXPO)를 개최하여 노인들이 즐겁고 활기차게 즐길 수 있는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노던 주의 COTA NT는 1년에 한 번 Seniors EXPO를 개최하고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비즈니스, 운동, 공연, 패션 퍼레이드 등을 펼친다. 행사는 후원자, 보조금, 지역 이해관계자, 자원봉사자 등이 지원하고 있어서 Seniors EXPO의 모든 입장이 무료이며, 즐겁고 활기찬 환경에서 노인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16] 즐겁고 활기찬 교류의 장 - 시니어 엑스포



자료> 호주 노던주(<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seniors-expo-northern-territory/>)
COTA NT의 Seniors EXPO(<https://www.cotant.org.au/information/seniors-expo/>), 접속일 2020.1.14.

4) 일본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건강 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1) 오다와라 시(Odawara) - 보상 포인트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오다와라시의 '액티브 시니어 응원 포인트 사업'은 보상포인트로 건강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목할 만하다. 지역 내 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정된 복지시설 또는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경우 보상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활동실적에 따라 적립된 보상포인트(등록시 발급받은 수첩에 봉사활동 시간 만큼 스탬

프를 받음)를 현지 제품과 교환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효과가 높아서 매년 가입 및 활동하고자 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활용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은 노인, 정년 퇴직은 했지만 아직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노인,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싶는데 적절한 계기가 없는 노인, 집에만 있어서 동료로 만들고 싶은 노인들에게 사회 참여를 통해 보람 있는 삶을 지원하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4-17] 보상 포인트로 활동적인 노인 지원



[보상 포인트 지원 절차]

① 참가등록 ② 수첩과 일람표 수령 ③ 자원봉사 활동(일람표에서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고, 직접 연락을 해서 일정을 조정하고 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함) ④ 수첩에 스탬프를 받음(봉사활동 시간만큼 시설에서 도장을 찍어줌. 1일 2스탬프 이내) ⑤ 포인트 교환절차 수행(다음년도에 포인트 교환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첩과 함께 제출) ⑥ 적립포인트에 따라 상품과 교환(모든 절차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시함)

* 봉사활동 내용 : 시설 입소자의 말벗, 레크레이션 보조, 행사 보조, 음악 지도자, 바둑 및 장기 상대 등

* 보상포인트 사용 : 포인트는 적립 후 1년 내에 현지 제품 또는 비상 용품과 교환할 수 있음

[등록을 위한 세미나 / 간담회]

<자료> 일본 오다와라 시(<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support-active-seniors-with-reward-points>), 접속일 2020.1.10.

(2) 오이 시(Oi) - 집 근처에서 건강증진 활동 지원²²⁾

오이시에서 지원하는 건강증진 활동 모임 ‘켄키 카이(おーい! 元気会)’는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쌓아서 원하는 방식으로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 60세 이상 주민은 사전 등록 없이 언제라도 참여 가능하며, 대부분의 참가자는 80세 이상이다.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센터에서 운영하며, 접근성을

²²⁾ 일본 오이 시(<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genkiki-kerko-jumyo-ondashite-i-am-healthy-and-extend-my-healthy-life>), 접속일 2020.1.10.

높이기 위해 교통이 제한적인 지역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그림 4-18] 지역 커뮤니티센터 근력 트레이닝



[지역 커뮤니티센터 수석 물리치료사의 근력 트레이닝]

건강증진 활동 모임 ‘켄키 카이(おーい！元氣会)’는 65세 이상 자원봉사자들이 모임을 조직·관리하고 있으며, 체력 향상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공예 및 음악 등 다양한 활동을 노인의 집 근거리 센터에서 즐겁게 건강을 노화에 기여하고 장수를 돕고 있다.

(3) 가마쿠라 시(Kamakura) - 공중목욕탕에서 건강서비스 지원

공중목욕탕(센토)에서 노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마쿠라시의 ‘데이 센토(Day Sento)’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노인들의 간호 의존을 줄이고 지역사회 내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벼운 운동 후 상쾌한 목욕을 할 수 있어서 노인들에게 인기가 있다. 가마쿠라시는 5개의 공중목욕탕(센토)이 있으며, 시에서 한 달에 두 번 주중 오전에 ‘데이 센토(Day Sento)’라는 노인 보육(보건위생,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4-19] 공중목욕탕 건강증진 서비스 ‘데이 센토’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데이 센토 이용 서비스]

- 이용 : 65세 이상 노인은 매월 300엔(욕탕 요금 포함)으로 이용 가능함

- 서비스 : 혈압 측정, 안전하고 효과적인 목욕 지침, 간단한 건강검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체조강사가 이끄는 가벼운 운동 프로그램과 자격을 갖춘 현장 전문가의 마사지를 받을 수 있음

<자료> 일본 가마쿠라 시(<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nursing-care-service-public-bath/>), 접속일 2020.1.10.

(4) 요코스카 시(Yokosuka) - 노인들의 사랑방, 커뮤니티 카페 활동²³⁾

요코스카시의 ‘커뮤니티 카페 나고미(Community Café Nagomi)’라는 모임 공간은 처음에 주택지원활동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으나 프로젝트 종료 후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노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카페 나고미에 근무하는 직원은 노인의 삶을 즐겁고 상쾌하게 만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으며, 계절별로 카페를 장식하고 음료와 스낵을 제공하며 방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림 4-20] 커뮤니티 카페 나고미



카페 나고미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를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노인들에게는 지역사회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집에서 고립되는 것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5) 아키타 시(Akita) - 원코인 버스 프로젝트²⁴⁾

[그림 4-21] 원-코인 버스를 이용하는 노인



아키타시는 노인들이 100엔의 저렴한 가격으로 버스를 타고 나가서 사회생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1년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2013년 70세 이상에서 2017년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원-코인 버스 프로젝트는 단순한 버스요금 할인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 더 많은 외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감사를 포함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²³⁾ 일본 요코스카 시(<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activities-of-kamome-housing-complex-community-cafe-nagomi/>), 접속일 2020.1.10.

²⁴⁾ 일본 아키타 시(<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coin-bus-project/>), 접속일 2020.1.10.

(6) 즈시 시(Zushi) - 시청 내 건강상담센터 운영²⁵⁾

즈시시는 주민 건강을 개선하고 의료 의존성을 예방하기 위해 시청과 시의 스포츠 시설인 'Zushi Arena'에 'ME-BYO(未病)상담센터'를 설립하고, 노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

[그림 4-22] 즈시 시청 내 ME-BYO 상담센터



[즈시 시청 내 ME-BYO 상담 센터]

시청의 센터에서 노인들은 사용하기 쉬운 다양한 장치를 사용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체력수준을 측정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공중보건 상담공간에서 상근 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조언과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더 많은 운동을 하도록 권유 받으면 Zushi Arena의 센터에서는 운동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5) 홍콩

홍콩은 세대간 사회적 포용 및 고령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다푸 구(tai-po) - '내 인생의 이야기' 프로젝트²⁶⁾

다푸구는 홍콩자키클럽(HKJC) 자선단체의 기금으로 노인들의 삶에 관한 책을 펴는 '내 인생의 이야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청년 자원봉사자(50명)가 노인 참가자(50명)와의 의사소통 기술을 공유하는 자원봉사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인생이야기 책은 프로젝트가 끝날 때 커뮤니티에 게시되었다. 노인들은 존중과 사회적 포용을 느끼고, 청년들은 노인들의 삶에서 폭넓은 인생 경험을 통해 영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회

²⁵⁾ 일본 즈시 시(<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me-byo-centers-in-zushi-city-hall-and-zushi-arena/>), 접속일 2020.1.10.

²⁶⁾ 홍콩 다푸구(<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jockey-club-age-friendly-city-project-story-of-my-life/>)

회에는 스토리 북을 전시함으로써 일반인도 노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사업이다.

(2) 유젠왕 구(Yau Tsim Mong) - 지역사회 노인의 목소리 ‘AFC 대사’²⁷⁾

유젠왕구는 노인과 일반 대중에게 고령친화도시 개념을 홍보하기 위해 노인서비스 부서에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지역 내 노인 거주자들이 ‘고령친화도시(AFC) 대사’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림 4-23] 지역사회 노인의 목소리 역할



훈련을 통해 AFC 대사로 위촉된 노인들은 지역사회 연구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노인들의 견해가 지역사회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전달될 수 있게 활동함으로써 자신의 건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6) 기타 - 고령친화상점지침, 고령인력활용안내, 노인관광프로젝트

직접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면서 Kang & Ridgway(1996)는 ‘쇼핑이 사회활동, 소비자 시장 상호작용을 보일 때 노인들의 정신과 육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Kim & Kim(2005)는 ‘상점에서 노인이 편안하고 인락한 환경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세계 고령친화도시들은 노인 친화적인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 비즈니스 지침서, 교육 및 훈련, 상점 인증제 등을 병행하고 있다. 해외 고령친화 비즈니스 지침서에는 직원 태도 훈련, 내부 환경 조성, 정보 전달 지침 등을 포함하고 있다.

²⁷⁾ 홍콩 유젠왕구(<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jcafc-project-age-voice-in-community/>), 접속일 2020.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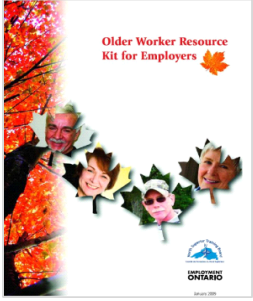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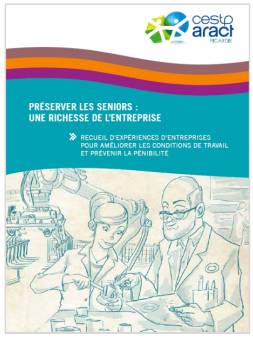
[표 4-6] 고령친화 상점 지침 사례

구분	서비스 지침
아일랜드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에게 적합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예: 1인분 등) • 가능하면 고령자에게 할인 또는 특가 판매 등을 제공 • 쇼핑 시 도움 제공, 귀가 서비스 또는 배달 서비스 제공 • 대면 및 유선 상에 존경심을 보이는 인격적 접근 • 노인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상품 배치 또는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인 경우 도움 제공 • 안내판, 인쇄물, 웹사이트 등에 크고 뚜렷한 글씨체 사용 • 심하게 시끄러운 음악 및 소음 방지 • 낮은 어조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필요시 반복함
뉴욕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에게 좋은 상품, 서비스 및 사업 특성을 홍보함 • 웹사이트는 화면 줌인, 줌아웃 기능 및 글자 크기 조정 기능을 통해 이용을 편리하게 함 • 안내판, 인쇄물, 웹사이트 등에 크고 뚜렷한 글씨체를 사용함 • 자료를 다른 언어들로 번역함 • 모든 곳(특히 입구, 출구, 복도)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함 • 과도하게 큰 소리의 음악 및 소음을 최소화함 • 계단, 기울어짐, 떨어짐 등의 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통로를 장애물 없이 깨끗하게 유지함으로써 노인의 안전을 고려함 • 문이 무겁지 않도록 하거나 자동문을 설치하고, 문을 통과하는 통로를 넓게 확보함 • 상품을 노인의 손이 닿는 곳에 배치하거나 상품을 집고자 할 때 도움을 제공함 • 공중 화장실을 제공함 • 노인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 • 대면 및 유선 상에 직원이 노인을 존중하고 참을성 있게 대하도록 교육함 • 직원이 노인에게 이야기할 때 주의하도록 교육함 • 직원이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사람을 돕는 방법 및 사고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교육함

<출처> 정은하, 「2017 고령친화마을 시범사업 성과연구보고서」, 서울시복지재단, 2017. p. 13.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는 고령자의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프랑스 피카르디는 고령근로자가 일하기 적합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였으며,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고용주를 위한 고령근로자 리소스 키트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표 4-7] 고령인력 활용 안내서 사례

구분	안내서 내용	비고(관련 사진)
<p>캐나다 온타리오주 (Ontario)</p>	<p>< 고용주를 위한 고령 근로자 리소스 키트 (Older Worker Resource Kit for Employers)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 • 다양한 세대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 근로환경 향상을 위한 구체적 지침 • 고령친화도를 직접 체크해볼 수 있는 도구 제시 (Older Worker Friendly Employer Assessment Tool) : 모집, 채용, 승진, 훈련, 편의시설, 다양한 근로형태, 부가급여 등 	 <p>[고령근로자 리소스 키트]</p>
<p>프랑스 피카르디 (Picardie)</p>	<p>< 고령근로자가 일하기 적합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한 안내서 (PRÉSERVER LES SENIORS : UNE RICHESSE DE L'ENTREPRISE)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에게 특히 힘든 작업환경 • 경력관리 방안 • 고령친화적인 작업환경조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 : 기계조작, 자세, 진동, 소음, 열기, 냉각, 작업교대, 화학약품, 순간적인 압력 등 	 <p>[고령근로자 근로조건 모범사례]</p>

<출처> 정은하 외,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2016-2020) 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2014. pp. 23-24.
프랑스 사례(<https://www.age-platform.eu/good-practice/french-publication-good-practices-working-conditions-seniors>), 접속일 2020.1.20.



여행은 삶의 만족을 주고,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풍요로운 경험이 될 수 있다. 유럽 노인 플랫폼(Age Platform Europe)은 EU의 후원을 받아 활발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인 관광 진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EUROSEN을 소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의한 협력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노인협회, 비영리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여 노인 관광을 위한 새롭고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인 시니어협회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현지 호스트로 활동하여 여행 온 외국 노인(동료)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지역 관광에 전적으로 몰입할 수 있게 안내해준다. 고령의 방문객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현지 기관의 조치(기존

인프라 및 제품을 노인의 요구와 관심에 맞게 조정, 교통, 병원 치료, 특별 요구, 문화서비스 이용, 안전 등)와 국가 간 연계 노력은 노인들의 국외여행을 촉진한다.

스페인 은 유럽 노인들에게 온화한 기후와 도시, 풍경 및 사람들을 즐길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스페인 관광경제 활성화와 유럽 노인의 건강한 노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4-8] 건강한 노화를 위한 노인관광프로젝트

구분	내용	비고(관련 사진)
EUROSEN (Europe for Senior)	<p>〈 노인들의 국가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EuroSen 관광 모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관광을 위한 새롭고 효과적인 조직 및 비즈니스 모델 : 지역 전통을 발견할 수 있는 덜 알려진 장소(자연과 문화의 다양성이 풍부한 작은 마을) 여행, 언어장벽을 겪지 않고 다른 국가 동료들과 사회적 상호작용과 우정을 촉진, 지역사회와 노인들이 홍보하는 지역사회 관광 등 성과 : 소규모 기업, 작은 마을에 중점을 둔 유럽 관광 산업 강화, 노인들이 여행자로서 또는 방문 손님의 호스트로 참여하면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 증진 	 <p>[EUROSEN 마크]</p>
스페인 Europe Senior Tourism	<p>〈 유럽 노인들의 위해 설계된 Europe Senior Tourism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 스페인 정부가 추진하는 여행프로그램으로 55세 이상 유럽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페인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함. 최고의 호텔 및 레스토랑 안내, 각 목적지마다 다양한 요리법, 자연, 여가 및 문화를 제공함(2009년 시작되어 16개국 15만명의 유럽 노인들이 관광 여행을 즐김) 성과 : 관광 경제 활성화, 유럽 노인의 활발한 노화 장려 	 <p>[스페인의 유럽노인 관광상품]</p>

〈출처〉 AGE Platform Europe(<https://www.age-platform.eu/>), 접속일 2020.1.20.

EUROSEN 노인 관광 프로젝트(<https://www.age-platform.eu/project/eurosen-europe-senior-active-ageing-travelling>),

(<https://www.age-platform.eu/policy-work/news/discover-european-common-values-sharing-stories-and-get-mutual-understanding>). 스페인 유럽노인관광(<http://www.europeseniorstourism.eu/en/queesest/>), 접속일 2020.1.20.

3. 국외 건강한 노인 지원 정책사업 시사점

이상 해외 사례를 보면 노인을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적극적으로 자립적인 주체로 보고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 및 사업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한 세계 각 지역의 정책은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 도시에서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도시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친화정책 및 사례를 공유하고 행동계획을 실행하면서 노인들을 참여시키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노인이 직접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희망을 주고 있다.

노인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의 책임도 기존 노인복지부서에 국한되던 것이 WHO의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가이드(외부환경 및 시설,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 환경 안정성, 고령 인적자원의 활용, 여가 및 사회활동, 존중 및 사회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 지역지원 및 건강)에 따라 노인복지부서, 환경부서, 기업지원부서, 도시공간부서 등이 전방위적으로 이행 책임을 짐에 따라 시 전체가 인구 고령화에 대응을 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노인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장벽을 허물고(환경 개선), 노인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참여를 장려하는 등의 정책은 그동안 집 안에서 무력하게 나이 들어가던 노인을 집 밖으로 이끌어 내어 건강한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고령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시)의 노인은 지원정책에 따라 여가 및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더욱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의 증가는 노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에 따라 결국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건강한 사회가 되는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제2절 국내 활동적 노화 정책 사례연구

국내 활동적 노화와 관련한 건강한 노인²⁸⁾과 관련이 있는 고용, 사회참여, 여가 부분의 주요 지원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정부의 건강한 노인 지원 정책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1,2,3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등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고령사회 대응 계획은 2002년 UN의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AA)’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에는 노인의 발전,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 증진, 능력 부여 및 지원 환경 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범정부차원의 고령사회 대응계획으로 건강생활 보장,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촉진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고용촉진 계획의 특성상 65세 이상 노인보다 50세 이상 중장년 지원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60세 또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21조에 따라 5년마다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연도별

²⁸⁾ 본 연구에서 ‘건강한 노인’은 ‘시설 및 재가에서 타인의 돌봄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은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노후준비와 사회참여 기반 조성,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의 추진 범위는 1차 계획과 비슷하나 베이비붐세대 지원 부분이 좀 더 강화되었다.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한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대응 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 고령친화 사회 환경 조성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의 범주 역시 1,2차 기본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대간 이해 증진 및 포용 등 사회 통합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3차 계획 중 고령사회 대책에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중고령자 인력 활용 확대, 고령친화 경제로의 도약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표 4-9]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건강한 노인 관련 부문)

구분	목표	추진 과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연금제도 내실화 -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 사적 소득보장체계(퇴직연금, 개인연금) - 퇴직연금, 개인연금 •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 노인 권익 증진 •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일자리 창출 / 노후생활설계 기반 조성 -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 여건 조성 •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저출산 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임금피크제 지원확대,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고령자고용촉진 지원 강화,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등) • 고령친화산업 육성

구분	목표	추진 과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고령자의 삶의 질 항상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노인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 제공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 노인 권익 증진 및 노인 공경 기반 마련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 개선 • 고령친화산업 육성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고령사회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소득보장 강화 - 공적연금 강화 - 국민연금, 기초연금 - 주택농지연금 대폭 확산 -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 노후준비 여건 확충 •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 -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세대 간 이해 증진 - 고령자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고령자 안전 및 권익보장 •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 중·고령자 근로기반 확대 • 고령친화 경제로의 도약

〈자료〉 대한민국정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새로마지플랜 2010』, 2005.
 대한민국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새로마지플랜 2015』, 2010.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플랜 2020』, 2015.

2)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및 지원사업

고용노동부는 중장년 고용정책,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건강한 노인들은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다양한 사회활동 기회를 갖고 싶어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양적 확대에 초점을 둔 1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중점을 둔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제1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2013-2017)’은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확충 및 내실화,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민간분야 노인 취·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노인일자리 매년 5만 개 확충, 맞춤형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다양화 등 양적 확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2018-2022)’은 노인 일자리 80만개 제공 및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확립, 노인 역량 강화 및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로 기여하는 노인상 정립을 목표로 참여자 역량 및 보호 강화, 인프라 강화, 안정된 민간일자리 확대,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노인 역량 분석 및 적합 일자리 매칭, 노인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시니어인턴십 전략 직종 및 직무 지원 강화, 숙련 은퇴자의 기술과 노하우 전수, 양질의 민간 일자리 연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표 4-10]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구분	분야	세부 추진 과제
제1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2013-2017)	노인적합 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참여보수 및 기간 확대 • 노노케어 사업단 세분화 및 활동조건 개선 • 광역단위 노인취업교육센터 지정 및 전문취업교육 실시 • 지역사회 사회공헌일자리 발굴 및 부처별 특화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에 노인일자리 연계 시범사업 실시 •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처우 개선

구분	분야	세부 추진 과제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 (2018-2022)	전달체계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일자리 포털 개편 및 콜센터 운영
	민간분야 노인 취창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형 일자리 초기투자비용 지원 노인복지시설로서 시니어클럽의 시설인력기준 마련 시장형 사업단 및 고령자친화기업의 (예비)사회적기업 전환 지원 시니어인턴십을 공공기관으로 확대 및 지원 강화 고령자친화기업 경쟁력 강화 시니어직능클럽 가입연령 제한 완화 및 재능나눔 활동 활성화
	참여자 역량 및 보호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역량지표 개발 개인별 활동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맞춤형 교육훈련 인프라 확대 참여자의 인권 및 안전보호 강화
	인프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일자리 DB(가칭 '백세누리플러스') 구축 노인-일자리 매칭플러스센터 지정 노인생산물품 공동브랜드화 및 판로 확대 상권분석 및 성장지원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다변화 및 투명성 강화 전담인력 채용개선 및 전문성 강화 법적 근거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안정된 민간일자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직종 중심으로 시니어인턴십 개편 세대통합형일자리 지원 우수 노인고용기업 인증 및 지원 시장형 사업단 자립 촉진 기업의 고용창출형 사회공헌 지원 활성화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니어 사회공헌단(시니어 프로보노) 도입 지역특화사업 및 지역기여사업 육성 재능나눔 및 노인자원봉사 효율화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2013.7. / 보건복지부,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 2018.2.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보건복지부는 노인인력개발기관(노인인력개발원),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시니어클럽 등) 등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양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

터 등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기업연계형 사업을 개시하고 민간 기업과 노인일자리를 연계하는 고용창출형 사회공헌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은 기부금을 통해 고령친화기업 설립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코오롱 패션사업본부는 가방제작 시장형사업단의 디자인을 지원하고, 스타벅스는 실버카페사업단 바리스타 교육을 지원하였다. 2018년 1월 보건복지부와 우리은행, CJ대 한통운, 이마트24는 업무협약을 통해 노인생산품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²⁹⁾.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100세누리(<https://www.100senuri.go.kr:4431>)’ 시니어사회활동포털을 통해 노인일자리 및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친근한 느낌의 노인일자리 캐릭터를 개발하여 노인일자리사업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그림 4-24] 노인일자리 캐릭터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https://www.kordi.or.kr/content.do?cmsId=117>) 노인일자리 캐릭터, 접속일 2020.2.5.

²⁹⁾ 보건복지부,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 2018.2. p. 7.

2004년부터 시작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는 봉사의 성격을 띠는 노인 사회활동과 근로성격을 띠는 노인일자리가 있다. 노인사회활동 유형은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이 있다. 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노노케어(노인이 노인을 돌봄),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경험과 지혜 나눔) 등이 있다. 재능나눔활동은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

근로성격을 띠는 노인일자리 유형은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인력과견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기업연계형 등이 있다. 사회서비스형은 취약계층 지원시설 및 돌봄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이며, 시장형사업단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인력과견형사업단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노인을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리이다. 시니어인턴십은 노인이 기업에서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9년 기준 전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자리수는 61만개 인데, 이중 72.3%(44만1천개)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봉사활동의 성격인 ‘공익활동’이며, 평균 월보수는 27만원(9개월/12개월) 수준이다. ‘재능나눔활동(47,000개)’ 역시 봉사활동으로 평균 월보수 10만원(6개월)에 불과하며, 근로성격을 띠는 시장형사업단(6만개, 9.8%) 역시 평균 월보수액이 26만원에 불과하다.

민간일자리 연계형인 인력과견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기업연계형 등이 100만원 이상의 평균 월보수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체 사업의 6.6%(4만개)에 불과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일자리 성격보다는 자원봉사 또는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새로 진입하는 신 노인은 건강, 교육, 소득수준 등에서 현 노인세대와 다른 특성을 보이므로 단순 업무에 적은 수당을 지급하는 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새로운 노인층의 다양한 욕구 및 역량을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 및 민간 기업들과 연계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노인의 연령과 건강수준 등에 적합한 근로조건(작업환경, 노동강도, 근로시간 등)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 일자리 모델

의 개발이 필요하다.

[표 4-1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2019)

구분	유형(대상)	지원사업 내용	일자리수	평균월보수	
노인 사회활동 (봉사)	공익활동 (기초연금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 활동 	441,000개 (72.3%)	27만원 (9개월/12개월)	
	재능나눔활동 (만 65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각종 활동 	47,000개 (7.7%)	10만원 (6개월)	
노인 일자리 (근로)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지원시설 및 돌봄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아동시설지원, 청소년시설지원, 장애인시설지원, 취약가정시설지원 	20,000개 (3.3%)	65만원 (10개월)	
	시장형 - 취창업	시장형사업단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서비스제공형 	60,000개 (9.8%)	26만원
		인력파견형 사업단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 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26,000개 (4.3%)	113만원
		시니어인턴십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 	9,000개 (1.5%)	137만원
		고령자친화기업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2,000개 (0.3%)	98만원
		기업연계형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적합한 노인일 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직무모델 개발, 설비 구입 및 설치,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지원 	5,000개 (0.8%)	124만원

<출처> 보건복지부, 「2019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II」, 2019. p. 4.

* 유형 괄호() 안 수치는 2019년 기준 전체 노인일자리사업량에서 해당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임




비율 출처 : 송병돈·이원진·한경훈, 「노인일자리가 노인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9.12. p. 52.

(3)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

보건복지부는 민간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형 노인일자리 모델’을 확립하고자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주관기관 : 노인인력개발원)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규모는 2019년 기준 2,000개의 일자리 창출이며, 기업당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하면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 기술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노인일 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중 유형별로 60세 이상 최소 고용인원을 충족한 기업을 선정하여 교부금 및 성장을 지원한다. 고령자 적합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기업인증형, 모기업연계형,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브릿지형, 시니어직능형 등 유형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표 4-12]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

기업명	주요사업	내용	관련사진
(주)고을	문화재 발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발굴이 대부분 흙을 들어내어 유물을 찾아내는 수(手)작업이므로 고령자 적합직종으로 보아 2011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으로 개소함 문화재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노인 인력을 파견하여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역할을 함 	
(주)딜리셔스 플랜	단체급식, 도시락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영양사의 식단표에 따라 노인들이 정성껏 조리한 음식을 지역 아동센터, 회사, 공장, 각종 단체 및 기관들에게 제공함(1일 3~4시간 근무) 보건복지부, 고양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간에 지원과 협력을 통해 설립 	
(주)이웃애 카페 싱그로브	카페 운영, 복합 문화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페에 평생학습, 문화공간, 커뮤니티, 도서관 기능을 하는 시니어복합문화공간으로 커피바리스타, 주방조, 홀서비스 등에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함(1일 4시간 근무) 보건복지부, 강남구청, 민간기업이 함께 만든 카페 	

기업명	주요사업	내용	관련사진
(주)탐리사치 코리아	사회여론조사,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별 눈높이에 맞게 설명이 가능한 시니어 조사원 구원들을 활용하여 각종 사회조사 업무를 수행함 2007년 서울노인복지센터 사회적일자리사업단으로 창단하여 서울시 고령자기업을 거쳐 2012년 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주)에이지 창조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핵가족,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애완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애완동물산업이 성장하고,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됨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애완동물 상조서비스를 제공 	
(주)실버 종합물류	실버 택배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적으로 파급이 가능하며 연중 지속적인 실버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함. 실버택배, 교육장, 차량광고, 전통시장 물류센터 등 다양한 실버일자리 사업 추진 2014년 말 기준 26개의 택배거점 및 160여명의 실버일 자리를 창출함 	
(주)자원과 사람	폐합성수지 재활용 처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합성수지를 재활용 및 처리하여 개발도상국으로 수출, 외화수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2014년 기준 20명의 노인에게 월평균 110만원 지급, 만족도 증가) 	
(주)투우 엔터프라이즈	BMLT 실버 헬스케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BMLT(초동부하운동) 프로그램의 국내 유치를 통해 고령자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실버헬스코디네이터 육성을 통해 신개념 노노케어사업도 추진함 60세 이상의 시니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서비스함 	
(주)시니어 허브	액티브시니어 전문매장 타임브리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및 아이디어 용품,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한자리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전시하고, 상담을 통해 판매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익유통기업 지향 	
청초원 플랜트팜	친환경무농약 LED수경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체적 노동력이 거의 필요치 않은 LED 식물공장의 장점을 활용하여 수확 포장 공정에 노인인력을 활용하고, 지속적인 고부가가치 작물 발굴 및 생산을 통해 노인의 경제적 자립도모와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함 	
(주)리아프	원예전문 판매점 플라워 스테이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법인 세계꽃식물원과 병행하여 원예전문 판매점 플라워스테이션 운영, 화훼 상품 생산 및 판매 참여 노인들은 화훼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원예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6년 고령자친화기업 소개자료」, 2016.

(3) 취업훈련 및 사회활동형 교육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³⁰⁾’에 의하면 20~30대가 주로 참여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생 중 60세 이상이 2,294명(2018년도 전체 훈련생 65,663명의 3.5%)에 이르며, 수료율은 90.7%로 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다. 60세 이상이 주로 훈련에 참여한 직종은 건설(54.5%), 전기·전자(15.9%), 기계(8.7%) 순이며, 취업률은 50.4%로 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다(평균 취업률 65.7%).

2018년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참여자 중 60세 이상은 14,864명(전체 211,446명의 7%)이며, 수료율은 97.1%로 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다. 훈련 직종은 보건·의료(59.3%), 음식서비스(13.4%), 경영·회계·사무(8.7%) 순이며, 취업률은 45.8%로 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다(평균 취업률 52.6%).

만 15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훈련 교육에 참여하는 60세 이상의 수료율은 가장 높지만,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반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취업형교육의 취업연계율은 2018년도 기준 94.7%(노인 2,517명 일자리 연계)라고 홍보하고 있다³¹⁾.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전국 25개 ‘60+교육센터’에서 취업 교육, 자격증취득 교육, 사회활동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전문직 은퇴자가 증가하면서 전문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설되고 있다.

[표 4-1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60+교육센터의 지원사업

과정구분	교육 내용	교육 프로그램 예시(서울, 경기 지역)	비고
취업형 교육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맞춤형 교육	중소기업 경영진단 및 경영지원 전문가 과정, 직무실무 서비스 교육, 시니어 인턴십 연계, 의전서비스 코디네이터, 의전관리사, 노인 여가지도사	전문직 시니어
		시니어 열차안전원, 코레일 질서지도원, 수산물 가공 완제품 포장원, 유통관련 소포장원, 박스조립원, 골프장 잔디관리원, 조경 보조인력, 주차관리요원, 아파트 경비원, 내시니어사원 현장관리직, 스타벅스 시니어안전원, 캠핑장	일반

30) 한국고용정보원 「2018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 2018, pp. 18-35.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기간사업 및 전략산업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직종과 신규 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여 전문기술 인력난과 실업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함. 성실하게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전액과 훈련장려금 지원(소관기관: 한국폴리텍)

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9년 60+교육센터 홍보자료」, 2019, p. 6.

과정구분	교육 내용	교육 프로그램 예시(서울, 경기 지역)	비고
		시설관리원, 해안가 환경관리자, 시니어 조경원, 시니어 산모관리사, 시니어 가사도우미, 시니어 식품소분원, 시니어 조리사, [고양센터 : 지하철 택배원, 장례시설 서비스원, 임가공 생산포장원, 냉장고 소독 및 수납정리원, 킨텍스 환경정리단, 킨텍스 재활용사업단, 농어촌 일손 도우미, 경비 및 미화직종]	
자격형 교육	시니어의 노후 삶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ITQ 자격반, 창의인재놀이 자격반, 시니어 코칭상담 전문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사, 시니어 코딩교육지도사, 시니어 드론 조종사 방문가사지원 서비스 매니저, 시니어 바리스타, 시니어 칵테일 마스터, 반려 동물 돌보미, 전통놀이 지도사, 보드게임 지도사, 바른먹거리 지도사	-
사회 활동형 교육	시니어의 노후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는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	청소년 진로발달지원 지도사 양성, 시니어영재상담사 교육, 코딩을 도와주는 시니어 선생님, 성공적인 컨설팅 시장진입 노하우, 중소기업 성장 필수요소 인증 종합 컨설팅 실무, 효율적인 스마트모바일 오피스 활용, 용도별 사업계획서 코칭 실무, 사회적기업 컨설팅 실무, 시니어 호텔프런트 실무 시니어 블로그 및 컴퓨터 기초, 60+스마트폰 쉽게 배우기, 나만의 생애설계	전문직 시니어 기타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9년 60+교육센터 홍보자료」, 2019.

* 서울경기 지역 60+교육센터 주요 프로그램을 정리함(취업형 교육 중 [] 안 직종은 고양센터 프로그램임)

3)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

(1) 보건복지부 -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 대한노인회 등에서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은 정부사업과 연계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로 건강한 노인을 위하여 건강증진지원,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지원, 사회참여 및 취업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로당보다 시설규모가 조금 큰 노인교실은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 각 지회는 노인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동, 취업알선,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노인대학)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4-14] 노인복지관의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사업 구분		사업 내용
노인 상담	상담 및 정보제공	노인의 일반상담(이용상담, 접수상담), 전문상담(경제, 법률, 주택상담, 연금상담, 건강상담, 세무상담), 심리상담, 치매상담, 노인학대상담 등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우울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죽음준비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건강생활 지원	건강증진지원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교실(건강체조, 기체조, 요가 등), 독거노인지원사업(기존 재가사업), 아미용, 노인건강운동, 치매예방 인지활동서비스, 물리치료 등
노년 사회화 교육	평생교육지원	노인역량강화교육, 정보화교육, 사회화교육, 시민사회교육, 한글교실, 외국어교실, 교양교실, 인문학교육, 예비노인 은퇴준비 프로그램 등
	취미여가지원	예능활동(음악, 미술, 생활도예, 서예, 댄스), 문화활동(연극, 사진, 영화, 바둑, 장기, 레크리에이션), 취미활동(종이접기, 손뜨개질, 민속놀이), 체육활동(탁구, 당구, 게이트볼), 동아리활동 등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사회참여지원	노인지원봉사 활성화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지역봉사활동, 교통안전봉사, 동아리-클럽 활동 지원, 교통편의서비스 등
	노인권익증진	정책건의, 노인인권 옹호, 노인인식개선사업, 편의시설 설치, 노인소비자피해예방 교육,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등
	고용 및 소득지원	고령자취업지원사업, 경제교육, 취업교육 등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II」, 2019. p123.

(2) 문화체육관광부 - 노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는 ‘문화로 청춘’ 홈페이지(<http://m.seniorculture.or.kr/main>)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2005년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란 명칭으로 10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점점 사업을 확대해 오다가 2012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매년 300여개의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2005~2019년 누적 프로그램 지원수 3,604개, 참여 노인 123,56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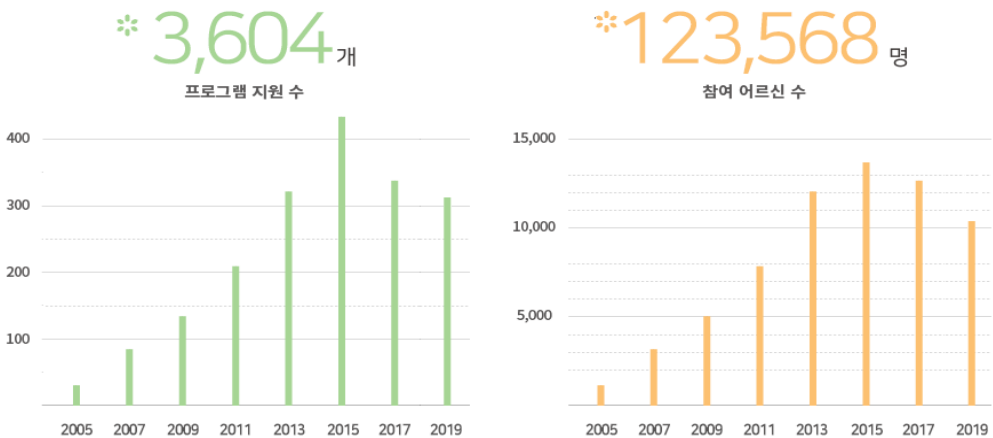
2020년도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어르신문화예술교육 지원, 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어르신&협력프로젝트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각 지역 노인복지관, 문화원, 예술단체 등에서 진행한다.

[표 4-15] 문화체육관광부의 노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어르신 문화예술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의 문화예술적 욕구, 학습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지원 • 지역의 특성이 드러나는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지원 • 교육 이후 사회활동 참여로 발전 가능한 프로그램 기획 지원 * 어르신 대상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역량을 강화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유도
어르신 문화예술 동아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목표를 설정하여 동아리 회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동아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오리엔테이션, 동아리 운영 컨설팅 등) 구성 • 지역사회 공헌활동(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 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회소속감 및 역할 확대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 공연을 통해 어르신 공연자와 관람자가 모두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어르신 문화예술 단체의 공연 무대기회 제공하여 예술적 성취감 제고 및 동세대 어르신에게 주체적 문화활동 동기 부여
어르신&협력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마을)에서 ‘어르신’과 ‘청년’ 혹은 ‘어린이’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어르신과 타 세대간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으며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사회적 세대 격차 해소 및 지역활성화 도모

[그림 4-25] 노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추진 현황



<자료>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문화로청춘> 홈페이지(<http://m.seniorculture.or.kr/main>), 접속일 2020.2.14.

2. 지방자치단체의 건강한 노인 지원 정책 사례³²⁾

2020년 1월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GNAFCC)³³⁾에 가입하였으며, 37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GNAFCC에 가입한 도시는 고령친화도시의 주요 가치인 ‘활기찬 노년’, ‘지역사회 지속 거주’, ‘도시 내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전 세대가 다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건강한 노인 지원 정책 사례는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지역은 2013년 서울시, 2014년 전북 정읍시, 2016년 수원시, 부산시, 2017년 제주도, 광주 동구, 2018년 부천시, 서울 강북구, 도봉구, 양천구, 충남 논산시, 2019년 광주 서구, 전남 나주시 등이다.

1)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친화도시 관련 조례 제정

2011년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였으며, 2015~2016년 4개, 2017년 7개, 2018년 7개, 2019년 18개로 고령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증가하여 2020년 1월 현재, 37개 지방자치단체(광역지방자치단체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6개, 세종특별자치시 1개)가 고령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경기도는 2018년 1월 경기도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동 조례 제5조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는 ① 노인의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② 노인의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③ 노인의 주거환경에 있어서 안정성 ④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에의 접근성 ⑤ 노인에 대한 존중, 세대 간 갈등 완화 등 노인의 세대 간 조화성 ⑥ 노인의 자원봉사, 취업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실현성 ⑦ 노인

32) 지방자치단체의 건강한 노인 지원 정책 사례는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GNAFCC)에 가입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봄
* 각 도시의 인구수 및 노인인구 비율은 2020년 1월 GNAFCC 웹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임

33)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GNAFCO)에 관한 설명은 제2장 이론적 검토에서 다룸

의 사회적 활동성 ⑧ 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노인의 건강영역에서의 자립성 등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8대 영역을 담고 있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도시 관련 조례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장려,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생활환경 편의증진,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건강증진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상당 부분 건강하고 활동적 노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 고령친화도시 관련 조례 상 지원 사업 -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포함 내용 >

< 사회·문화 활동의 장려 >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시정모니터링단 운영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 및 정보화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자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 생활환경 편의증진 >

1.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2.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3.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 및 소규모 주택의 공급, 주택개량 지원 등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4.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등

<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간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가치 문화 조성

< 건강증진 >

1. 노인 건강진단 사업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 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등

< 노인학대 예방 >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4. 노인학대 관련 신고를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5.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표 4-16]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친화도시 관련 조례 현황

	지역	고령친화도시 관련 조례명	제정 개정일
광역 자치 단체	경기도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2018.1.11. 제정
	경상북도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2019.4.15. 제정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3.15. 제정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2015.4.1. 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2011.7.28. 제정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2019.8.1. 제정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2015.4.13. 제정
	전라남도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2019.10.17. 제정
	전라북도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2018.2.2.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2015.8.18. 제정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2017.12.11. 제정
기초 자치 단체	경기 성남시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2.18. 제정
	경기 수원시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6.9.28. 제정
	경기 안양시	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8.1.5. 제정
	경기 평택시	평택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7.11.9. 제정
	경남 남해군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10.4. 제정
	경남 칠곡군	칠곡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8.12.28. 제정
	경남 통영시	통영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7.1. 제정
	광주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7.3.24. 제정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3.15. 제정
	광주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5.20. 제정
	대구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2019.4.10. 제정
	대구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7.3.2. 제정
	대구 유성구	대구광역시 유성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2019.10.14. 제정
	부산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2017.3.9. 제정
	서울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8.12.27. 제정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2019.3.26. 제정
	서울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10.31. 제정
	서울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8.5.10. 제정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12.27. 제정
	울산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2019.9.19. 제정
	울산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2019.9.19. 제정
	전남 나주시	나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9.29. 제정
	전남 화순군	화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10.15. 제정
	충남 공주시	공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11.7. 제정
	충남 논산시	논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8.3.30. 제정
	충남 서산시	서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7.6.2. 제정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20.1.22. 기준 (지역 가나다순 정렬)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 사례

(1) 서울시

서울시는 인구 10,369,593명의 17%가 60세 이상이다. 서울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GNAFCC에 가입(2013년 6월)한 고령친화도시로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2년 서울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의 10대 중점 과제는 노인 건강 증진, 사회공헌 및 참여 확대, 일자리 확충 및 고용구조 개선, 노인 권익 증진, 세대 통합 장려, 이동 편의 증진,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노인 복지 인프라 확충, 고령친화 도시기반 조성, 노인정책 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제1기 실행계획(2013~2015)’에 이어 현재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제2기 실행계획(2016~2020)’을 추진 중이다.

[표 4-17]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정책(2016)

구분	제2기 실행계획(2016~2020) 추진 사업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 시니어클럽 • 고령자취업지원센터, 고령자취업훈련센터 • 온라인 일자리창구, 전문직 은퇴자 인재은행, 베이비부머 엑스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직종개발 및 시범고용프로그램, 지역특화일자리 개발 • 고령친화적 근무환경 디자인 개발(근무복, 작업장 구조)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 및 장기요양보험 분담금 지원 • 사각지대 요양보험 및 돌봄종합서비스 부담금 • 저소득층 재가서비스 지원 • 시니어포털 ‘50+서울’ 홈페이지 • 서울시 어르신 정보꾸러미 발간 • 정보 전달 가이드 개발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노노케어 7085명, 친구만들기 900명, 안부반장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통합복지공동체사업 • 세대융합 프로그램 진행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 •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지원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 • 경로당 지역협의체 • 경로당 코디네이터 • 어르신 정책모니터링단, 정책워크숍 • 베이비붐 이모작 콘서트 등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시설 및 데이케어센터 확충 • 노인보호전문기관, 어르신 상담센터 • 자살예방사업, 고독사방지사업 • 치매조기발견, 경증치매환자관리 • 치매어르신 지킴이폰, 서울형 치매전문요양가정 유형 개발 • 무연고장례 지원, 장례용품 가격정보제공, 작은장례 장려 • 장사시설 확충, 자연친화적 종합자연장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 민생침해 예방교육 • 교통안전 및 사고재해예방교육 •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 노인 안전안심 디자인 개발 • 돌봄통합관리시스템, 돌봄통합지원센터, 돌봄통합협력체계 •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돌봄가족휴가제 • 요양시설 인증제도, 서울시 좋은돌봄 인증제도

구분	제2기 실행계획(2016-2020) 추진 사업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묘·탑골공원 어르신문화 특화거리 조성 • 고령친화환경 시범마을 • 고령친화적 상점 디자인 개발 • 저상버스 운영 • 실버숲 조성 • 50+센터 및 캠퍼스, 50+재단 설립 •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지원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안전관리 • 노인복지기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 적용 • 노인임대주택, 서포터브 하우스 • 독거노인-대학생 룸세어링 • 원룸형 안심공동주택 • 어르신 공동생활주택 • 서울형 Care home • 주거안전점검 노인주거안전체크리스트 주택개보수연계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경연대회, 효자손축제, 한마음축제, 행복 콘서트 • 노인영화제 개최, 신노년 문화활성화사업 공모 • 노인영화제, 실버영화관 • 어르신 아카데미 • 50+세대 평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경로당 특화 프로그램 • 어르신 동아리 활성화,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 50+세대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 생활 밀착형 마을쉼터, 공공시설사용 온라인지원 • 신규프로그램 개발(엘더호스텔, 도시교류), 신노년문화 공모


〈자료〉 고승한 외. 「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16. pp. 10-12.
 WHO GNAFCC(<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seoul/>), 접속일 2020.1.20.

제2기 실행계획 추진 사업 중 존중 분야의 ‘어르신 정보꾸러미’ 발간, ‘어르신 정책모니터링단’ 사업과 환경 분야의 ‘실버숲 조성’, ‘종묘·탑골공원 어르신문화 특화거리 조성’ 사업, 고용 분야의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어르신 정보꾸러미

서울시는 노인의 생활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담은 ‘어르신 정보꾸러미’를 소책자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2014년도에 1차 발간, 2019년도에 개정·발간하여 자치구, 노인단체, 노인복지관 등에 배포·비치함으로써 노인 지원사업의 홍보효과와 더불어 정보취약 노인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표 4-18] 서울시 어르신 정보꾸러미 발간

사업 내용	관련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 정보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접하기 쉬운 ‘어르신 정보꾸러미’를 제작·배포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시의 정책사업 활용도를 높임 • 수록내용 : 일자리 및 소득, 사회참여, 여가 및 문화, 돌봄 및 요양, 건강관리 등 각 부서(출연기관 포함)별 추진하고 있는 노인 대상 사업의 변동사항과 신규사업 수록 	

〈자료〉 서울시. 「어르신 정보 꾸러미 발간계획」, 2019.9.

② 어르신 정책모니터링단

서울시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은 노인이 자신과 가족의 삶에 직결되는 정책 및 사업을 직접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노인 참여 제도이다. 2012년 노인 20명으로 시작된 모니터링단은 2018년 노인과 청년 총 60명이 함께 하는 연령통합 모니터링단으로 운영되었으며, 활동 이후 청년층의 노인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노인층은 청년층과 함께 활동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대간 사회통합 측면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의 제안 사항은 검토 후 서울시 정책방향에 반영되고 있어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표 4-19] 서울시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운영 과정





과정	내용
모집 및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인원 : 기관에서 계획하는 예산, 인력, 공간, 장비, 외부자원 활용 정도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결정하며, 모니터링단의 활동은 조별(조당 4~6명 내외)로 이루어짐 * 모집 과정에서 모니터링단의 목적, 활동내용, 활동기간, 필요역량(인지, 정서, 행동) 고지 선발 : 모니터 위원의 다양성 보장(연령, 성별, 소득수준, 신체적 기능에 대한 차별 금지), 참여 기회의 형평성 보장(연속 3회 이상 참여 제한을 권장 - 합의 필요)
위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비 : 위촉장, 모니터링단 활동시 패용할 명찰 및 명함 의의 : 위촉식은 모니터활동의 공식적 시작으로 모니터위원으로서 모범적이고 성실한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함. 따라서 위촉장 수여는 서울시장 또는 운영주체의 대표자 명으로 수여하여 명예직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함
정책 모니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링 기획 : 모니터링의 목적, 대상과 범위, 일정 확정 자료수집과 분석 : 계획한 모니터링 활동에 따라 부합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모니터링 활동 내용 종합 정리 및 적절한 분석 방법의 활용 모니터링 결과 : 수집,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 판단과 제언을 담은 결과 작성 및 제출
활동 결과 공유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결과는 고령친화서울 홈페이지 (https://afc.welfare.seoul.kr/afc/frontList.do)에 게시하여 공유함 추합된 정책 결과 및 제언사항을 관계 부처·기관에 전달 제안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된 경우 사례 홍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정책체감도 제고와 상향식 의견수렴 문화를 전파할 수 있음 <div data-bbox="897 1381 1298 1651"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897 1657 1298 1686">[서울시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활동 사진]</p>

<자료> 서울시복지재단,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2018.

③ 서울시 실버숲 프로그램

서울시는 도시 공원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버숲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숲길 산책, 혈관나이 측정, 휴호흡, 항노화 건강차, 싱글벙글 숲놀이, 숲체조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산림복지전문업(산림치유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 23회 367명이 참가할 만큼 인기가 높다.

[표 4-20] 서울시 실버숲 프로그램

구분	내용	
프로그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회당 15명 참여(운영인력 : 산림치유지도사 2명) • 활동 : 숲길 산책, 혈관나이 측정, 휴호흡, 항노화 건강차, 싱글벙글 숲놀이, 숲체조 등 • 일시 : 5월~10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4회 연속 참여), 주중 1회 참여도 가능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 속 공원을 활용하여 접근 및 이동편의성 등이 좋아 참가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임 (만족도 평균 96.5점) • 운영 초반 60~70대가 주를 이뤘지만 2019년도는 90대 이상도 참여하여 연령대가 다양해졌으며, 남성참여자자의 경우 부부참여가 늘면서 2018년 14.1% → 2019년 36.2%로 두 배 이상 증가함 	
활동 사진	 <p data-bbox="580 1321 673 1354">[숲 체조]</p>	 <p data-bbox="1010 1321 1148 1354">[발가락 농구]</p>
	 <p data-bbox="540 1642 713 1675">[싱글벙글 숲놀이]</p>	 <p data-bbox="985 1642 1159 1675">[아로마 손 마사지]</p>

<자료>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019 태교숲실버숲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 2019.12.

④ 종묘탑골공원 어르신 문화거리 조성

서울시는 2014년부터 노인 밀집지역인 종묘·탑골공원 주변을 어르신 문화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추억과 문화의 공유, 세대간 소통과 교류의 공간, 실버경제 상권의 중심지 등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표 4-21] 종묘탑골공원 어르신 문화거리 조성 사업

구분	내용	비고(관련사진)
추억이 있는 활기찬 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혜 명언글판 : 어르신의 지혜명언 글판을 공모하여 서울노인복지센터, 낙원상가 등 4개소에 분기별로 게시함 효 우체통 : 어르신의 훈훈한 이야기를 자신 또는 자식 등에게 발송. 서울노인복지센터, 실버영화관, 이동도서관에 설치운영(매월 평균 40여통 신청) 효자손 어르신 대축제, 어르신 북콘서트 개최 등 	 <p>[효 우체통]</p>
민관협력을 통한 자생력 있는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르신 관련 민간기업 입점 유치 : 실버기업 대상 매장유치로 실버상권 활성화(실버카페 5, 실버의상실 3, 실버휴대폰점 1, 실버음식점 30개소 등) 실버상권 안내 싹집지도 제작 : 저렴한 가격에 청결한 음식점과 문화시설 중 종로구 착한가게로 선정하여 싹집지도를 구성함. 노인들이 다수 왕래하는 2개 장소(5호선 종로3가역, 육의전빌딩 앞)에 설치 모바일 앱을 통한 정보 제공 : 모바일 앱 제작후 실버영화 및 문화공연프로그램 등 실시간 안내 	 <p>[저렴한 가격의 싹집지도 안내판]</p>
편리하고 안전한 고령친화 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르신 보행 전용거리 조성 낙원상가 하부도로 기둥 및 보도 환경 개선 종로 17길 디자인, 간판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하여 개선 인사동-낙원상가-돈화문로를 거쳐 걷고 싶은 길 조성 어르신이 이동하기 좋은 도로, 교통시설 정비 등 어르신 친화 교통환경 구축 : 어르신 눈높이에 맞추어 운행속도, 횡단보도폭, 노면도색, 교통표지판 등을 개선 	 <p>[경관 개선을 위한 아트기둥 설치]</p>

<자료> 서울시 어르신 복지정책-여가 및 문화(<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48441>), 접속일 2020.1.31.

⑤ 서울시어르신 취업지원센터

서울시는 2004년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서울시어르신 취업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재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취업훈련 교육과정에는 기존 경력 및 취미를 연계시키는 ‘내일행복학교’와 취업시장에서 고령자가 다수 채용되는 직종 중심의 교육을 하는 ‘시니어직업능력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표 4-22] 서울시어르신 취업지원센터

구분	지원 내용
취업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신청 - 서울시 거주, 만 50세 이상 취업희망 구직자 • 구인신청 - 서울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할 기업 • 시니어인턴십 -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고령자 임금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인턴형, 연수형)
취업 훈련 교육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취미를 미래의 일과 연결시킬 수 있게 보다 전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직무교육을 제공함(5가지 아카데미 과정) • 취업설계 아카데미 - 본인의 적성에 맞는 취업직종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취업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 • 창의직업 아카데미 - 취미와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직종에 대한 교육 진행(예 : 도슨트, 문화재해설사, 소품공예, 영상제작 과정 등) • 사회공헌 아카데미 - 경험과 능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 단기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서 장기적으로 일의 의미를 찾는 과정(예 : 들꽃가드닝, 도시정원 수경재배 교육과정, 강사양성 교육과정 등) • 직업전문 아카데미 - 현재 노인의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는 전문직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 및 소양교육 제공(예 : 비리스타, 설문조사원, 광고모델 과정 등) • 창업 아카데미 - 창업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실질적 접근법 제시 및 자신감 향상을 통해 창업 지원(예 : 소자본 창업과정, 협동조합 과정 등)
시니어 직업능력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시장에서 고령자가 다수 채용되는 적합 직종을 중심으로 교육 지원 • 취업준비교육 - 취업을 위한 다양한 기초교육(고령자 재취업시장 현황, 시니어인턴십제도 소개,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성공법, 기초 노무교육 등) • 직종교육 - 실제 고령자 취업이 유리한 직종을 중심으로 교육 운영(예 : 경비주차교육, 환경관리원, 배달원, 디쉬업&캐셔, 주유원, 산모도우미 교육 등) • 맞춤형교육 - 고령자 채용의사가 있는 기업, 공공단체와 연계하여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교육을 개설하여 실시하고, 교육 수료 후 바로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맞춤형교육 - 노인일자리에 맞는 교육 지원

<자료>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http://www.goldenjob.or.kr/>), 접속일 2020.2.24.

(2) 부산시

부산시는 인구 3,554,543명의 22.2%가 60세 이상이다. 고령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인들의 편안한 은퇴 생활 제공에 중점을 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인을 위한 취업기회 창출, 복지시설의 가용성 보장, 노인을 위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퇴직을 위한 재정 지원 제공, 활기찬 레저 문화 조성, 미래의 친환경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4-23]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정책(2016)

구분	내용
야외 공간과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의 안정성 및 편리성 강화 • 쾌적한 환경조성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주거 및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안정성 확보 • 근거리 내에 복지인프라 구축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참여 기회확대 • 사회참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존경과 사회적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간 유대감 증진 • 노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 • 지역사회통합의 장 마련
시민 참여와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 연장·재취업 기회 확대 • 사회적 경제 영역에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확장 • 고령자 공공형 취업기회 확대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접근성 강화 • 의사소통과 정확한 정보제공
지역사회 자원과 건강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관리 및 증진 • 어르신 건강사각지대 해소 • 지역돌봄체계 강화 • 부양자 지원체계 강화 • 어르신 맞춤형 건강 • 지원체계 강화 • 취약계층 지원 확대 • aging in place를 위한 서비스 지원

<자료> 이영안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 중장기 계획 수립」, 수원시정연구원, 2019. p. 41.
WHO GNAFCC(<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busan/>), 접속일 2020.11.17.

부산시 연산1동은 세대 간 유대감 증진을 위해 주민자치회 특화프로그램인 ‘1·3세대 소통 프로그램-할매랑 아이랑’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핵가족화로 외로운 노인과 맞벌이 가정 증가로 혼자 있는 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교육으로 세대 격차를 줄이고 1·3세대간 소통과 공감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된다.

[표 4-24] 부산시 1·3세대 소통프로그램 - 할매랑 아이랑

구분	내용
프로그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관내 노인과 어린이집 원생(노인 1명과 원생 2명이 한 팀을 이루어 공동체 교육) • 활동 : 전통놀이, 책임어주기, 음식만들기, 작물 심기 및 수확, 도자기만들기 등 • 일시 : 9~11월 오전 10시~12시 총 13회 운영(장소 : 어린이집, 시민공원, 자연학습장 등)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들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에 대한 흥미와 보람을 일깨워 주어 상대적 박탈감 해소, 어린이들에게는 노인에 대한 친근감과 공경심 등 올바른 인성에 기여함
활동 사진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div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p>[이야기 할머니]</p> </div> <div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p>[새콤달콤 유부초밥 만들기]</p> </div> <div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p>[신나는 전통놀이]</p> </div> <div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p>[텃밭 채소 수확]</p> </div> </div>

<자료> 부산시 연산1동, 「1·3세대 소통 프로그램-할매랑 아이랑 운영결과 보고」, 2018.12.

(3) 제주도

제주도는 인구 644,924명의 19.6%가 60세 이상이다. 2017년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하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후, 다함께 건강한 노후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수 지역 특성에 따라 매월 8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제주장수문화포럼(제주고령사회포럼)’을 창립·운영하고 있다. 2017년 ‘제주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어르신 모니터링단’을 조직·운영하고 있으며, 관광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령친화관광 환경 조성’ 과제도 수행하고 있다.

[표 4-25] 제주도 고령친화도시 정책(2017)

구분	추진 사업	
외부환경/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추진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시설물 운영 관리 저상버스 도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지역교통 안전사업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버주택 공급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로당 기능강화 사업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개발 등 이용 활성화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통한 경제력 확보 독거노인 사회관계 형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세 시대 평생교육 확대 노인복지관 확충 농어촌지역 노인복지회관 확충
시민참여/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생 이모작센터 설치 및 운영 고령자 친화기업 육성 노인취업교육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분야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생산물 판매 활성화
존중/사회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확대 노인인권 감수성 척도 개발 및 조사 세대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친화 종합체험관 설치운영 기초조사 경로효친사상 함양을 위한 효행장려운동 추진
지역사회지원/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수발자 힐링 프로그램 개발 치매노인가족 통합 사례관리
의사소통/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격차 해소 사업(재가노인 인터넷 및 핸드폰 앱 활용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령친화도시 확산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친화제주’ 홈페이지 운영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친화관광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60 자원봉사 해피콜센터 운영

<자료> 고령친화제주 홈페이지(<http://afcjeju.com/>), 접속일 2020.1.20.

WHO GNAFCC(<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jeju-province/>), 접속일 2020.1.20.

제주도 서귀포시의 ‘라이프스토리 어르신 이야기 사업’은 남주고등학교(동아리 활동)학생이 지역의 흠뻐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야외 나들이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같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 시작되었으며 2018년까지 노인 27명, 고등학생 60명,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4명이 결연을 맺은 1·2·3세대 통합프로그램으로 동행정복지센터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민관협력 세대통합 모델이다.

[표 4-26] 제주도 민관협력 123세대 통합 프로그램 - 라이프스토리 어르신 이야기 사업

구분	내용
프로그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연초에 노인 1명, 학생 2명, 협의체 위원 2명이 한 팀이 되는 사회적 가족을 구성함 (수선화, 인어공주 등 팀명으로 활동을 시작함. 2017년의 경우 12개 팀이 구성됨) • 활동 : 학생들이 한 달에 1~2차례 노인 댁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듣고 방문 내용을 일지로 기록. 연 4~5회 정도 다함께 모여 체험활동(야외 나들이, 영화관람, 제주 전통음식 만들기 등) 진행 • 발표 : 연말에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책자 발행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노인의 삶을 이해하고 인식이 개선되었으며,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됨 • 노인은 자기개발 및 참여 욕구를 촉진하여 활기찬 노년을 추구하게 됨 •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 및 학생 대상 인터뷰 결과 세대 간 관계가 더욱 친밀해짐
활동 사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라이프스토리 어르신 이야기 사업 체험활동]</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1·2·3세대 한 팀으로 사회적가족 구성]</p> </div> </div>



[자료] 공선희 외, 「제주지역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주연구원, 2018, pp. 31-35.
 제주도 남주고등학교(<http://namju.jje.hs.kr/namju-h/0602/board/14420/5416891>), 접속일 2020.1.20.

(4) 경기도

2018년 1월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는 ‘어르신 문화즐거움’ 홈페이지(<https://경기9988.kr/>)를 통해 경기도 노인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여 실버문화공간 지원(어르신 즐김터), 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9988 특특쇼), 어르신 작품공모전 및 순회전시, 어르신 문화즐김 기자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경기도 내 선정된 복지·문화·교육 관련 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진행된다. 이 중 ‘어르신 문화 즐김 기자단’은 경기도 내 지역별 노인복지관, 어르신 즐김터, 경로당 등을 취재하고 온라인 및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홍보 및 노인들의 스토리 등을 취재하고 게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표 4-27] 경기도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구분	사업 목적 및 내용
어르신 즐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내 21개 시군 총 40개 기관(단체)을 선정하여 가까운 곳에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 기화공간 마련. 고양시는 2020년 1월 현재 3개의 단체가 선정됨 지역 유휴 공간 발굴 및 활용을 통한 도내 어르신들의 자발적 문화여가활동 활성화
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내 문화소의 계층 노인을 발굴하여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자존감 회복 및 사회관계망 형성, 복지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 ‘9988특특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내 어르신 공연 동아리를 대상으로 UCC 오디션과 예선본선을 거쳐 우수한 어르신 공연 동아리 발굴 및 어르신 즐김문화 확산에 기여
어르신 작품공모전 및 순회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예, 미술, 문인화, 동영상 분야에서 1차심사와 최종심사를 거친 우수한 어르신 작품을 선정하여 노인들의 여가문화 활동의 다양화 지원
경기도 어르신 문화즐김 기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자단 활동을 통해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홍보, 참여 확대 및 여가 다양화에 기여 활동 혜택 : 어르신 문화즐김 기자단 기자증 발급, 활동을 위한 전문교육 3회 지원, 기자 활동비(월4회 이상 기사 게재 시, 월 10만원), 우수 기자 표창장 등
관련 사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어르신 문화즐김 기자단 동아리 활동]</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경기도 어르신 즐김터 현판식]</p> </div> </div>

<자료> 경기도 ‘어르신 문화즐김’ 홈페이지(<https://경기9988.kr/>), 접속일 2020.2.14.

3) 기초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 사례

(1) 전북 정읍시

정읍시는 노인인구가 많은(인구 117,580명의 23%가 60세 이상) 지역으로 2014년 국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하였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기반 조성, 생동감 있는 사회·경제적 참여 활성화 기반 조성, 공존 위한 품격 높은 배려와 존중, 소통 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맞춤형 지역지원과 보건복지 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28]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정책(2014)

구분	전략 과제	
도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친화 편의시설/비즈니스 공중화장실과 공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 분리수거/분노냄새 도로/인도안전성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등/교통안전 승강장/교통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지교통/버스배차 교통안전교육
주거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친화적 주거/주택 경로당/마을화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주거지원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자원봉사 고령자 중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지역 프로그램 홍보관 규제
존중 및 사회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위원회 고령자 중심 재능 발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이미지 제고
시민참여 및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사회 활동 지원 사업 고령자 취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재취업 훈련 근로환경 조성
의사소통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접근성/민감성 의사소통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기기 활용 정보전달 방안
지역지원 보건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매 돌봄 체계 복지관 이용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지원 체계 건강취약자 응급 대응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친화 테마파크 고령친화 모니터링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과학대 고령친화사업단 평가계획

<자료> 정읍시청(http://www.jeongeup.go.kr/index.jeongeup?menuCd=DOM_000000103007005002), 접속일 2020.1.20.
WHO GNAFCC(<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jeongeup-si/>), 접속일 2020.1.17.

정읍시는 고령친화도시 문화축제 ‘효사랑 걷기대회’ 개최 및 고령친화사업단 ‘우울No, 행복In 노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다. ‘효사랑 걷기대회’는 가족이 함께 내장산을 걸으면서 노인이 된 부모님의 인생이야기를 듣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그림 4-26] 정읍 효사랑 걷기 대회(2017.10.28.)



(2) 수원시

수원시는 인구 1,184,624명의 12.5%가 60세 이상이다. 2016년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한 수원시는 재가입을 위해 2019년 제2기 실행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4-29]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정책(2019)

구분		고령친화도시 제2기 중장기 계획 세부과제	
건강하고 유익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한 100세 노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젝트 •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건강관리 지원 • 노인차매여방 프로그램 운영지원 • 행복한 노후, 노인 정신건강종합검진
	다채로움이 가득한 노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노인 대상의 평생교육 강화 • 지역 밀착형 어르신 평생학습 프로그램 •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 실버중심 특화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 지원 • 50+ 액티브 시니어 축제 • 참여와 활력이 넘치는 경로당 • 노인복지관 기능 확대 및 운영
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교통약자 배려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상버스 도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충
	정주하고 싶은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 어르신 복지시설 운영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우수프로그램 보급 • 수원시 울전동 카네이션 마을 운영
	노인이 안전한 도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 복지사각지대 지우개 ‘휴먼살피미’ 운영 •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각지대 CCTV 확대 설치 • 주거복지센터 설립 운영 • 취약가구 ‘화재차킴이’ 지원
참여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	존중과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사회적 급여 확대 • 저소득 노인가구 서비스 지원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친구만들기) • 노인 자원봉사 지원 • 노인 무료급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문화나눔 지원 • 지속가능한 수원형 마을만들기 • 시민참여 민관 거버넌스 행정 구현 • 노인인권 강화 사업
	소통과 정보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날 축제 • 수원시민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강화 •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운영 • 마을공유소 도입운영
활기차고 안정된 경제환경 조성	맞춤형 노년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사회활동 지원 • 사회공헌활동 지원 • 어르신 자립생활 지원 • 베이비부머 생애재설계(Restart)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부머 민관 합동 취업박람회 개최 • 고령친화 노동환경 지원 • 노인역량조사 통한 노인적합일자리 개발 • 신중년 인생이모작 맞춤형 일자리 지원

<자료> 이영안,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 중장기 계획 수립」, 수원시정연구원, 2019.

WHO GNAFCC(<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city-of-suwon>), 접속일 2020.1.10.

수원시는 활동적인 노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 이중 ‘뫼라도 학교’는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로 50~60대 초기노인(신중년)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과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고령친화도시 정책 중 주민들의 소통과 정보공유의 장으로 ‘마을공유소’를 도입·운영하고 있는데, 노인은 서비스 제공자도 될 수 있고 수혜자도 될 수 있다. 2019년 10월 장안구 송죽동에 첫 번째 마을공유소가 문을 열었으며, 2022년까지 구별 1개소씩 총 4개의 마을공유소를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노인인권지킴이 ‘인권 토크’에서 활동하는 노인들은 노인인권 캠페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한다.

[표 4-30] 수원시 뫼라도학교, 마을공유소, 노인인권지킴이

구분	내용	비고(관련사진)
뫼라도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뫼라도 배우고, 나누고, 즐기고, 행하자’는 마음으로 뫼친 액티비시니어 아카데미로 노인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자발적 교육의 장임(서울시 50+센터와 유사한 성격임) 운영: 수원시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인생수업, 우리들교실, 월담, 시니어사업단, 커뮤니티 등 	 <p>2018년 수원 뫼라도학교 신중년 앙코르 라이프 포럼</p> <p>[뫼라도학교 신중년 앙코르라이프 포럼]</p>
마을 공유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 주민행복센터 개조 연면적 201.96㎡ (사비 8천만원 투입) 운영: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가 수탁 운영, 프로그램 운영은 송죽동 주민자치회가 담당함 활동: 지역주민 누구나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에게 수도꼭지, 전등교체, 막힌변기 뚫어주기 등 간단한 생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공구대여 및 택배보관 서비스도 제공함. 노인은 서비스 제공자도 될 수 있고, 수혜자도 될 수 있음 	 <p>[수원시 제1호 송죽동 마을공유소 개소식]</p>
노인 인권 지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인권 토크(Talk Talk)’ 노인 인권 지킴이는 한국마사회 수원지사 지원사업인 노인 인권향상 프로그램으로 수원 지역 노인 인권을 위해 양성됨 활동: 노인인권 캠페인, 인권실태조사,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후원: 파인트리클럽, 아름드리봉사단, 치매예방서포터즈 등 성과: 노인인권지킴이 활동에 참여한 노인은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인권적인 시선으로 주위를 보게 됨 	 <p>[노인인권지킴이 최종 활동 보고회]</p>

<자료> 경기일보 ‘2018 뫼라도학교 신중년 앙코르 라이프 포럼 성료’, 2018.10.22.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2445>), 뉴스핌 ‘수원시 첫 번째 마을공유소, 송죽동에 문 열어’, 2019.10.11. (<http://m.newspim.com/news/view/20191011000988>), 접속일 2020.1.20. e수원뉴스 ‘인권토크, 노인인권지킴이 활동 보고회 전개’, 2019.11.29. (<http://news.swongokr7.jp=41&viewMde=view&reqId=201911291824555924>).

(3)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는 인구 96,783명의 41%가 60세 이상이다. 인구 10만명 미만의 작은 지역이면서 광주에서도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초고령 도시로 노인을 위한 세심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31] 광주 동구 고령친화도시 정책(2017)

구분	전략 과제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보호 구역 개설 노인 주차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교통 안전 교육 강화
외부 공간 및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친화 공원 리모델링 공중 화장실 환경 개선 장애물 없는 보행로 확보 자전거, 보행자 다목적 도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을 위한 자전거 랙 설치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노인을 위한 특별 고객 서비스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취약자를 위한 주택지원상담센터 운영 노인 친화 주택 개보수 및 유지 보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주택 지원 계획
사회적 통합 및 노인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한 바이러스 노인센터 만들기 노인 전문 거리 조성 노인 대학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을 위한 민속놀이 노인의 날 축제
의사소통 및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노인 정보 교실 운영 사용자 중심 홈페이지 및 커뮤니케이션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생활 가이드 책자 배포 동구 시니어 뉴스 레터 발행
노인의 사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거노인을 위한 1차 연계 사업 동구 평생 학습 및 활력 학습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센터 혁신 프로그램 지원 시니어 클럽 활성화 지원
지역사회 지원 및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정신 건강 관리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 맞춤형 치과 보건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센터 노인 보건 노인 자택 지원 서비스 강화 러브 레스토랑 · 런치 박스 공유 사업
시민참여 및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구 실버 리더 육성 버스 정류장 관리자 배치 재취업 지원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니어 전문 자원 봉사단 운영 시니어 직무 활성화

<자료> WHO GNAFCC(<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Dong-gu>), 접속일 2020.1.10.

광주 동구는 건강한 노인 관련 지원 사업으로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 ‘그린실버피아 페스티벌’ 개최, 노인 부부 관계개선 프로그램 ‘꽃보다 부부’ 운영,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실버리더자’ 구성·운영,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 경로당’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표 4-32] 광주 동구 건강한 노인 지원사업 사례

구분	내용	비고(관련사진)
그린 실버피아 페스티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 1천여 명이 참여한 노인 축제로 2017년 고령친화도시 선포식, 노인의 날 기념식, 실버건강댄스 플래시몹, 실버동아리 경연대회 등을 펼침 	 <p>[그린 실버피아 페스티벌 개최]</p>
소통 경로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 경로당을 마을 의제에 대한 주민 소통의 공간과 세대간 화합의 장소로 활용 운영 : 2018년 시범운영, 2019년 5개소 운영, 2020년 13개소로 확대 예정 프로그램 :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밥상, 이웃친화교육, 손사랑 오손도손 세대공감 프로그램 등 운영 	 <p>[소통경로당 김장감치 나눔행사]</p>
꽃보다 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 노인 부부 관계개선 프로그램인 ‘꽃보다 부부’ 참여 노인 16쌍을 대상으로 행복한 신혼을 화상하는 리마인드 웨딩포토 촬영을 실시함 	 <p>[꽃보다 부부 리마인드 웨딩포토 촬영]</p>
실버 리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 동구청은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실버리더자’ 3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을 지원함 운영 : 위촉식 → 고령친화도시 조사, 모니터링 방법, 실버리더십을 주제로 교육 실시 → 활동 → 실버리더자 회의 개최 등 	 <p>[실버리더자 회의]</p>

<자료> 광주광역시 동구청-‘소통경로당 활성화 방안’, ‘꽃보다 부부 리마인드 웨딩포토 촬영’, ‘실버리더자’ 접속일 2020.1.21.
 소통경로당(http://www.donggu.kr/upload/synap_skin/doc.html?fn=1564362795614.pdf&rs=/upload/synap/202001/),
 리마인드 웨딩포토(http://www.donggu.kr/gallery.es?mid=a10102030000&bid=0001&act=view&list_no=4674),
 실버리더자 회의(http://www.donggu.kr/gallery.es?mid=a10102030000&bid=0001&act=view&list_no=3605) /
 아시아경제. ‘광주시 동구, 노인의날 기념 그린실버피아페스티벌 성료’, 2017.9.30.
 (<https://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3009034728347>), 접속일 2020.1.21.

(4) 부천시

부천시는 인구 950,329명의 17.3%가 60세 이상이다. 부천시는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고,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건강하고 활동적인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목표를 설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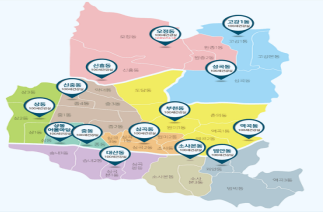

[표 4-33] 부천시 고령친화도시 정책(2018)

구분	고령친화도시 제기 실행 과제(2018-2020)	
교통 - 살기 좋은 도시 기반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교통 장애인의 교통 확보를 위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주차 공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 중심의 교통 시설 관리 확대 버스 정류장 휴게소 설치 및 개조 고령자 보호 지역 개선 사업 노인운전자 배려 분위기 조성 사업 '부천 으뜸 드라이버'
옥외공간 및 건물 - 생활의 안전한 문화 정착 및 시민의 안전한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걸고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보행 환경 개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원 시설 개선 2035 부천 기본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미산 힐링 숲 조성 및 녹지 조성 시청 및 행정 센터 접근 시설 설치 공공 설치 및 관리
주거 - 편안한 주거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사회적 존중과 포용성 - 노인들의 활동적인 삶을 위한 사회 통합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한 장수와 행복한 부모의 도시' 부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들이 행복하고 존경받는 효 문화 장려 계획
정보통신 - 공공시설의 빈 공간을 포함한 문화 공간 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기술을 갖춘 노인을 위한 안전한 도시 정보 소외자를 위한 정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친화적인 도서관 서비스 노인 정책을 위한 전담 부서
사회참여 - 포용적 문화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포용적 운동 시설 확충 공공 운동 시설 개선 및 이용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친화적인 이중작물생명지원센터 운영 Community IN - 성공적인 노년을 위한 준비 프로젝트 '지역 데뷔를 위한 베이비붐세대 가이드 북'
지역사회 지원 및 건강 - 노인들을 위한 스포츠 시설 및 레저 프로그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 파트너 '100세 건강실'의 기능 강화 웰빙 및 웰다잉의 건강 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질 높은 간호 서비스 다양한 건강 요구에 맞는 공중 보건 시설 인프라 구축 치매의 원 스톱 종합 관리
자발적 활동 및 고용 - 고령자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고용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고령자 일자리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생2막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운영

<자료> WHO GNAFCC(<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city-of-bucheon>), 접속일 2020.1.9.

부천시는 ‘고령친화도시 1기 실행계획’ 추진사업으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00세 건강실’을 설치하여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으며, 노인 보행자와 노인 운전자의 배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가 부천 으뜸드라이버’ 캠페인을 실시했다. 향후 실행 계획인 ‘2기 실행계획’ 예정사업으로 ‘노인 이해교육단’, 세대공감 ‘노리터’,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뚜뚜뽕뽕’, 시니어 재능나눔서비스 박람회, 신노년문화 조성사업 ‘시니어 문화살롱’ 등을 검토 및 협의 후 반영할 계획이다.

[표 4-34] 부천시 건강한 노인 자원사업 사례

구분	내용	비고(관련사진)
100세 건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 부천 내 10개소의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원스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작은 보건소 역할 수행 • 주요 서비스 : 어르신 건강관리, 만성질환 및 대시증후군 관리, 의료비 지원사업, 홀몸노인 등 소외계층이나 경로당을 찾아 건강검진과 상담도 진행 • 성과 :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음. 경기도 의료지원서비스 우수 사례, 타 지역에 전파 	 <p>[부천시 100세 건강실 위치]</p>
부천 으뜸드라이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 노인 운전 배려 분위기 조성 캠페인, 노인 보행자를 배려하도록 운전자 의식을 개선하고,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촉구하는 범시민 캠페인 • 활동 : 노인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 방법과 각종 정책 홍보 등. 공무원과 시민모니터링단이 참여하고, 부천시 시내버스 안전운행 준수 캠페인과 연계 	 <p>[노인 운전자 배려 캠페인, 내가 부천 으뜸드라이버]</p>
2기 실행계획 예정사업 (검토 및 협의 후 반영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형 고령친화 실버인재센터 • ‘도전 챌린지’ 고용유지프로그램 • 찾아가는 스마트 이동 복지관 • 스마트 헬스케어 맞춤형 응급관리 ‘위기탈출 넘버원’ • 실버서포터즈 운영 • 실버 ‘E-Care’ 안전지킴이 • 신노년문화 조성사업 ‘시니어 문화살롱’ • 세대공감사업 ‘공간? 공감!’ • 성공적 노화인식 사업 ‘노인이해교육단’ • 세대공감 ‘노리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인식개선사업-시니어 재능나눔서비스 박람회 • 보행친화도시 ‘부천가로수길’ 조성 • 안전한 환경을 위한 ‘우리동네 슈퍼맨’ • 표지판 등 편의시설 및 노인전용 창구 개설, 안내 도우미 배치 등공공서비스 개선 ‘엄지척! 부천!’ • 우리동네 ‘안전등급 Up’-동네 곳곳에 안심벨 설치 •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뚜뚜뽕뽕’ - 저상버스, 무료 셔틀, 자원봉사차량 등 • 고령친화 교통문화 사업 ‘메이플 실버 인증’ • 고령친화(마을)존 시범 운영

<자료> 백영훈,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18. pp. 246-254.
 100세 건강실(<http://www.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30003004>), 접속일 2020.1.21.
 부천포커스, ‘내가 부천으뜸드라이버’, 2019.5.31. (<http://www.e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94>), 접속일 2020.1.21.

(5) 서울 강북구

강북구는 인구 324,479명의 24.7%가 60세 이상이다. 강북구는 ‘건강 100세, 희망 강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했으며, 노인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표 4-35] 강북구 고령친화도시 정책사업(2018)

구분	내용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실버 코러스(강북구립시니어합창단) - 커뮤니티 실버 오케스트라 - 낙상 사고 방지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 - 노인을 위한 건강 강의 - 노인 센터 건강 관리 프로그램 - 노인을 위한 연간 파티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무료 셔틀 버스 - 자정 안전 복귀 버스 - 재택 간호 서비스 - 치매 예방 센터 - 자살 예방 센터 - 취약 집단을 위한 주택 지원 - 경로당 통합 지원 - 구직 및 사회 참여 서비스 연계 - 노인을 위한 장기 간호 보험 - 의료 비용 지원

<자료> WHO GNAFCC(<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gangbuk-gu-district/>), 접속일 2020.1.10.
강북구청(<http://www.gangbuk.go.kr/www/boardView.do?key=285&boardSeq=41&post=698034>), 접속일 2020.1.23.

강북구는 만 59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강북구립시니어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정기연주회와 음악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2005년 창단된 시니어합창단은 평소 소외된 이웃과 노인들을 위해 위문 공연을 펼치는 등 노인들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그림 4-27] 강북구립시니어합창단



(6) 서울 양천구

양천구는 인구 466,267명의 18%가 60세 이상이다. 양천구는 노인의 활력과 안전을 보장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준비하기 위해 향후 30년 동안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표 4-36] 양천구 고령친화도시 정책(2018)

구분	영역별 목표
젊고 활기 넘치는 도시 (Young)	맞춤형 평생 학습 센터 운영 노인을 위한 정보화 훈련 노인들의 자원 봉사 활동 활성화 노인을 위한 스포츠 수업 노인 복지 센터 및 노인 레저 복지 시설 운영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직업 훈련 프로그램 세대 간 통합 프로그램 노인 복지 시설 확충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Eco)	도시의 공원과 녹지 주변 산책로 만들기 보행자 거리 및 도로 관리 연령 친화적인 도시 계획 개선 연령 친화적인 생활 환경 개선 불법 쓰레기 감시 시스템 미세먼지 및 오존농도 SMS 발신
안전한 도시 (Safety)	맞춤형 생활 안전 교육 실시 빈곤층의 보살핌과 재난 대비 안전 점검 소득 보장 기본 연금 확대 지정된 노인 보호 구역의 운영 범죄 예방 CCTV 설치 고효율 LED 가로등을 설치하여 밝고 안전한 야간 거리 달성 노인 질병 예방 및 관리 노인 학대에 대한 노인 권리 보호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원 스톱 케어 서비스 요양원 및 탁아소 확대 건강 관리 프로젝트

<자료> WHO GNAFCC(<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yangcheon-gu-district>), 접속일 2020.1.9.

(7) 서울 도봉구

도봉구는 인구 341,928명의 23.9%가 60세 이상이다. 도봉구는 노인 센터의 개선, 복지 시설 지원, 노인들을 위한 지역 사회 간호, 노인들을 위한 상담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표 4-37]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정책(2018)

구분	영역별 목표
교통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 대중교통 편의 증진 및 취약한 교통 지원
야외 공간 및 건물	고령 친화 동네 만들기 노인 이동 경로 및 접근성이 있는 안전한 환경 구축
주택	장애가 있는 노인들의 주거 적합성 보장 및 안전한 주거 환경 구축
존중과 사회적 포용	세대 간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 된 환경 구축
의사소통 및 정보	노인 세대의 맞춤형 정보 제공 연령 친화성 모니터링 지원
사회적 참여	혼자 사는 노인의 사회적 참여 지원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기회 확대 노인을 위한 정보 접근을 확대
지역사회 및 보건 서비스	의료 사각 지대 지원 강화 가족 관리 시스템 지역커뮤니티 관리 시스템 강화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확대
시민참여 및 고용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노인을 위한 직업 상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자료> WHO GNAFCC(<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dobong-gu/>), 접속일 2020.1.10.

4) 기타 - 고학력, 전문경력 은퇴자 지원 일자리사업 사례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을 시작한 이후 그동안 단순작업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 들어 고학력, 전문경력 은퇴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사업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남시니어클럽의 ‘골든리서치클럽 사업’은 노인 전문조사원이 설문조사를 하는 시장형 사업이며, ‘Edu-클럽’은 시니어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내 시설에 파견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애프터스쿨 매니저’, ‘시험감독관 파견’, ‘배트란스 통역 & 번역’ 사업 등이 있다.

[표 4-38] 강남시니어클럽 고학력 전문직 은퇴노인 일자리 사례(2020)

구분		내용
시장형	골든리서치클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 통계, 연구자료 등의 목적으로 설문조사 의뢰를 받아 전문 조사원이 조사작업을 수행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 활동 : 전화/면접 설문조사활동, 설문자료 정리 등 • 지원 : 월례회의, 교육지원, 간담회, 활동물품지원 등
시장형	Edu-클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 시니어전문강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내 보육시설, 교육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아동을 대상으로 경제 및 한자지도 프로그램 제공 • 활동 : 교육 희망 수요처의 파견 지원(주 2~3회, 1일 3시간 활동, 만근시 월 25만원 지원)
시장형	애프터스쿨 매니저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 은퇴교직원 및 육아경험이 풍부한 시니어를 선발하고 전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방과후 아동(유치원, 초등학생)을 보호하고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 활동 :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 이용금액 : 시간당 11,000원(2019년 1인 기준)
취업 알선형	시험감독관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 전직 교직원 및 시험감독 관련 업무 경력자를 선발하여 소양 및 전문교육 후 각종 시험기관에 감독관으로 파견 • 활동 : 국가자격증시험, 기업 사내시험, 기타 민간자격증 등의 시험감독관으로 활동(강남시니어클럽 연 1,000회 수행)
취업 알선형	배트란스 통역 & 번역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 영어, 일어, 중국어 등 통역과 번역 가능한 시니어를 선발하여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진행하여 전문성 강화 후 인력 투입 • 활동 : 수요처 사업장 및 재택근무 • 수익 : 개인 역량에 따라 수익금 상이(통역 1시간 5만원, 번역 1회 1만5천원 이상)
취업 알선형	주례 클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 전직 교육, 정치, 문예, 언론계 등 각종 전문 분야에서 퇴직한 지역 시니어를 모집하여 주례관련 교육을 통해 전문 주례인을 양성하고, 주례 파견을 지원하는 사업 • 활동 : 서울, 경기지역 워딩홀(활동비는 수요처에서 지급) • 지원 : 사업홍보, 교육 및 월례회의, 평가회, 활동지원 등

<자료> 강남시니어클럽(<https://www.gnsc.or.kr/business/b031.html>), 접속일 2020.1.30.

강남구청(http://www.gangnam.go.kr/board/article/3129/view.do?mid=FM0508&schArticle=ARTICLE_08), 접속일 2020.1.31.

3. 국내 건강한 노인 지원 정책사업 시사점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회참여, 여가활동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는 ‘기초연금법’을 제정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수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정책연구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향후 나아갈 방향으로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노인 당사자의 주체적인 참여, 민간 협력 활성화를 통한 대중 참여적 접근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³⁴⁾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 준비하는 도시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이므로 생활환경 편의시설을 개선 또는 확충하여 노인들이 안전하게 집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여가문화 활동 장려 등을 통해 노후생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 사업의 예로 노인 정책에 노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운영, 정보에 소외되는 노인이 없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어르신 정보꾸러미’ 책자 배포, 1·2·3세대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이해와 존중 분위기 형성, 노인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정보와 공간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근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건강서비스를 제공받는 ‘100세 건강실’, 건강한 100세 노년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노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통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기간을 연장시키고, 길어진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부차적으로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 등을 통해 돌봄 노인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막는 데도 의의가 있다.

34) 변수정·황남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pp. 58-59.

제 5 장

고양시 노인 인구변화 및 노인복지 정책

제1절 고양시 노인 인구 규모 및 전망

제2절 고양시 노인복지 정책 및 사업

제절 고양시 노인 인구 규모 및 전망

1. 고양시 노인 인구 규모

2020년 1월말 기준 고양시 만 65세 이상 인구는 136,316명으로 전체 1,068,641명의 12.8%이다. 이 중 남성은 57,681명(42.3%), 여성은 78,635명(57.7%)으로 여성노인인구가 남성노인에 비해 약 2만명 이상 많으며, 고연령화 될수록 여성의 비율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1] 고양시 성별 노인인구 현황(2020년 1월 기준)

(단위 : 명, %)

구분	고양시 전체		남성		여성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계	1,068,641	100.0	523,803	49.0	544,838	51.0
0~19세	193,594	18.1	99,174	51.2	94,420	48.8
20~39세	291,404	27.3	146,478	50.3	144,926	49.7
40~64세	447,327	41.9	220,470	49.3	226,857	50.7
65~69세	40,204	3.8	19,605	48.8	20,599	51.2
70~74세	32,204	3.0	14,208	44.1	17,996	55.9
75~79세	28,289	2.6	11,496	40.6	16,793	59.4
80~84세	20,795	1.9	7,859	37.8	12,936	62.2
85~89세	10,149	0.9	3,307	32.6	6,842	67.4
90~94세	3,548	0.3	891	25.1	2,657	74.9
95~99세	810	0.1	235	29.0	575	71.0
100세 이상	317	0.03	80	25.2	237	74.8
65세 이상	136,316	12.8	57,681	42.3	78,635	57.7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27.101.213.4>) 접속일 2020.2.3. 주민등록인구현황(2020.1.31.기준) 인출

덕양구 노인인구는 65,341명(구 전체 467,673명의 14.0%), 일산동구는 35,360명(298,093명의 11.9%), 일산서구는 35,615명(302,875명의 11.8%)으로 덕양구의 노인 인구비율(14%)이 일산동구(11.9%)와 일산서구(11.8%)에 비해 훨씬 높다.

[표 5-2] 고양시 구별 노인인구 현황(2020년 1월 기준)

(단위 : 명, %)

구분	고양시 전체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계	1,068,641	100.0	467,673	100.0	298,093	100.0	302,875	100.0
0~4세	36,810	3.4	17,578	3.8	9,165	3.1	10,067	3.3
5~9세	47,957	4.5	21,344	4.6	12,653	4.2	13,960	4.6
10~14세	49,427	4.6	19,778	4.2	13,718	4.6	15,931	5.3
15~19세	59,400	5.6	22,767	4.9	17,065	5.7	19,568	6.5
0~19세	193,594	18.1	81,467	17.4	52,601	17.6	59,526	19.7
20~24세	73,473	6.9	29,829	6.4	21,588	7.2	22,056	7.3
25~29세	76,299	7.1	32,530	7.0	22,938	7.7	20,831	6.9
30~34세	64,389	6.0	29,768	6.4	18,090	6.1	16,531	5.5
35~39세	77,243	7.2	36,506	7.8	20,498	6.9	20,239	6.7
20~39세	291,404	27.3	128,633	27.5	83,114	27.9	79,657	26.3
40~44세	81,587	7.6	36,027	7.7	22,683	7.6	22,877	7.6
45~49세	104,062	9.7	42,556	9.1	30,092	10.1	31,414	10.4
50~54세	99,607	9.3	41,478	8.9	28,627	9.6	29,502	9.7
55~59세	92,227	8.6	40,068	8.6	26,380	8.8	25,779	8.5
60~64세	69,844	6.5	32,103	6.9	19,236	6.5	18,505	6.1
40~64세	447,327	41.9	192,232	41.1	127,018	42.6	128,077	42.3
65~69세	40,204	3.8	19,747	4.2	10,522	3.5	9,935	3.3
70~74세	32,204	3.0	15,961	3.4	8,035	2.7	8,208	2.7
75~79세	28,289	2.6	13,653	2.9	7,188	2.4	7,448	2.5
80~84세	20,795	1.9	9,498	2.0	5,459	1.8	5,838	1.9
85~89세	10,149	0.9	4,368	0.9	2,838	1.0	2,943	1.0
90~94세	3,548	0.3	1,553	0.3	1,012	0.3	983	0.3
95~99세	810	0.1	360	0.1	245	0.1	205	0.1
100세 이상	317	0.03	201	0.04	61	0.02	55	0.02
65세 이상	136,316	12.8	65,341	14.0	35,360	11.9	35,615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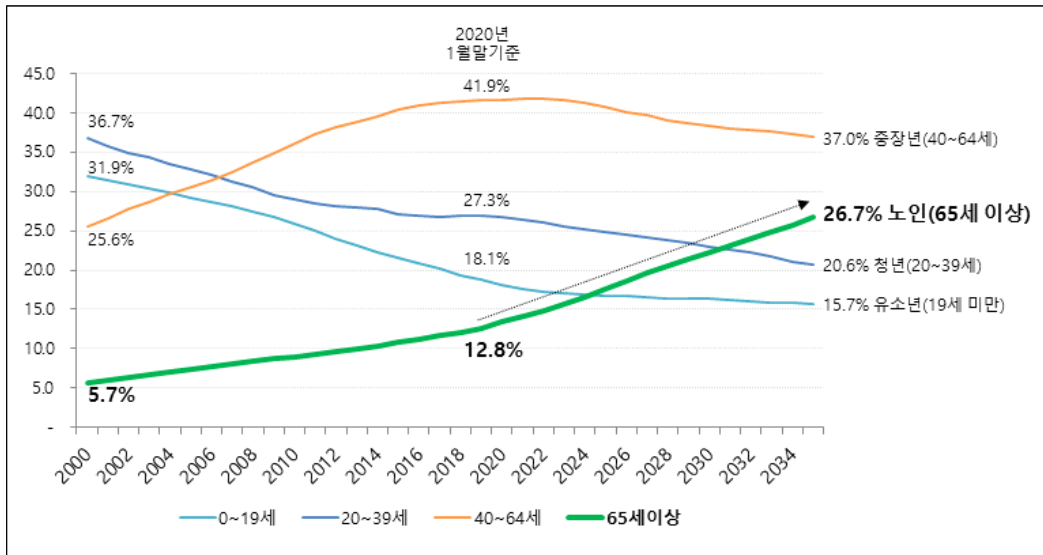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27.101.213.4>) 접속일 2020.2.3. 주민등록인구현황(2020.1.31.기준) 인출

2. 고양시 노인 인구 변화 추이

2000년 5.7%였던 고양시 노인인구 비율은 2020년 1월 12.8%(136,316명)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 15.6% 보다 낮고, 경기도 평균 12.6%와 유사한 비율이다.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고양시는 2021년 노인인구 15만명(150,398명, 14.1%)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되어 2035년 고양시 노인인구는 30만명(305,687명, 26.7%)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는 2004년도 노인인구 비율 7.0%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1년 14.1%로 고령사회, 2028년 20.6%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고령화사회(2004년)에서 고령사회(2021년)로 진입하는데 1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해 고령사회(2021년)에서 초고령사회(2028년)로 진입하는데 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에 대한 빠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5-1] 고양시 인구 변화(2000~2035)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00~2010) 각 년도말 기준. / 2020년도는 1월말 기준 비율임
경기도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 추계보고서(2015~2035)』, 2017. (기준인구 2015.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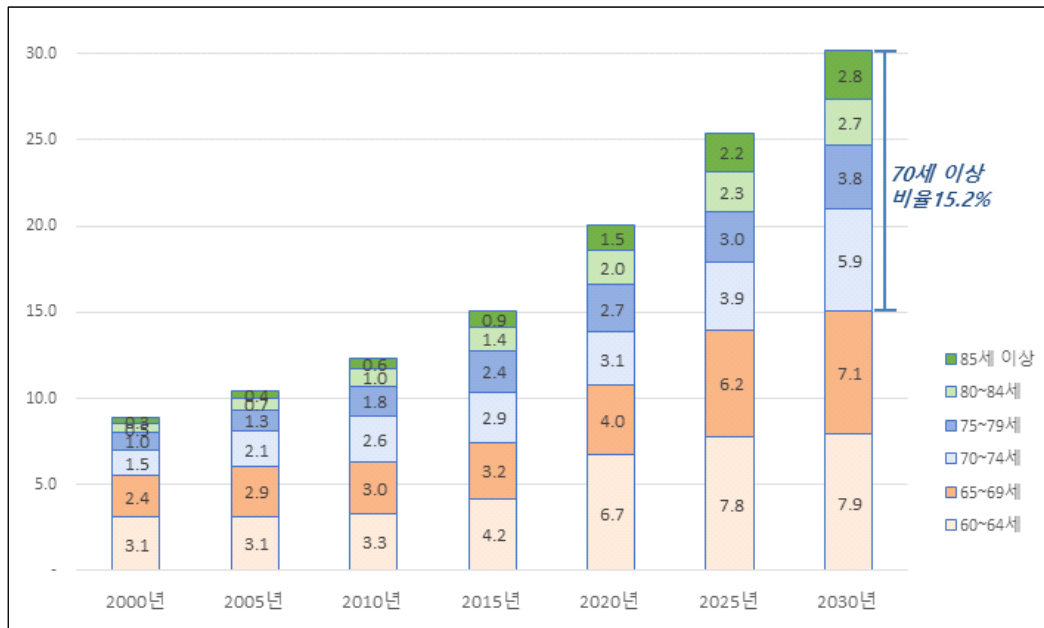
3. 5세 단위 인구 변화

5세 단위 연령별 인구 변화를 보면 2020년 5.8%인 70대 인구 비율이 10년 후인 2030년에 9.7%(109,558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80세 이상 인구 비율 역시 5.5%(62,212명)까지 증가가 예상된다(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 2015~2030).

고양시노인복지통계보고서(2018)에 의하면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중 70세 이상 인구(2017년 기준 90.9%)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역시 70세 이상 이용자 비율(2019년 기준 92.2%)에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양적·질적 노인일자리의 확대 및 노인복지관 확충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5-2] 고양시 60세 이상 인구 변화(2000~2035)

(단위 : %)



<자료> 2000~2010년도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27.101.213.4/>), 접속일 2019.3.20. (각 연도말 기준 인출) /

2015~2030년도 :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 추계보고서(2015~2035)』, 2017. (기준인구 2015.7.1.) * 2015~2030년도는 연앙인구임

[표 5-3] 고양시 5세 단위 연령별 인구 변화(2000~2030)

(단위 : 명,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계	797,597 (100.0)	904,077 (100.0)	950,115 (100.0)	982,070 (100.0)	1,056,987 (100.0)	1,104,689 (100.0)	1,132,639 (100.0)
0~4세	65,933	50,003	43,212	44,169	40,515	42,408	43,937
5~9세	79,140	72,273	51,430	46,416	47,639	43,526	44,713
10~14세	61,247	81,360	72,110	54,703	48,458	49,871	45,259
15~19세	48,208	60,857	78,753	66,359	55,280	49,526	50,655
0~19세	254,528 (31.9)	264,493 (29.3)	245,505 (25.8)	211,647 (21.6)	191,892 (18.2)	185,331 (16.8)	184,564 (16.3)
20~24세	41,703	52,665	59,059	66,612	69,493	57,210	51,075
25~29세	65,704	57,870	58,384	58,279	72,455	72,878	58,247
30~34세	89,228	86,049	66,445	66,991	64,252	74,812	72,772
35~39세	96,358	100,259	91,338	74,412	76,739	69,649	78,919
20~39세	292,993 (36.7)	296,843 (32.8)	275,226 (29.0)	266,294 (27.1)	282,939 (26.8)	274,549 (24.9)	261,013 (23.0)
40~44세	78,881	97,748	100,425	97,146	81,344	83,552	73,976
45~49세	42,932	77,281	94,604	97,550	100,374	85,457	87,099
50~54세	30,252	42,553	74,889	90,892	98,183	100,605	86,455
55~59세	27,447	30,840	42,550	70,417	90,000	94,909	97,241
60~64세	24,939	28,379	31,450	41,059	70,903	85,681	89,689
40~64세	204,451 (25.6)	276,801 (30.6)	343,918 (36.2)	397,064 (40.4)	440,804 (41.7)	450,204 (40.8)	434,460 (38.4)
65~69세	18,894	26,022	28,527	31,741	42,601	68,541	80,832
70~74세	12,224	18,807	25,009	28,834	33,104	43,152	67,006
75~79세	7,778	11,309	16,949	23,361	28,683	32,820	42,552
80~84세	4,114	6,161	9,069	13,930	21,243	25,947	30,060
85~89세	1,885	2,609	4,170	6,421	10,906	16,231	20,091
90~94세	607	828	1,277	2,230	3,882	6,323	9,446
95세 이상	123	204	465	548	933	1,591	2,615
65세 이상 노인 인구	45,625 (5.7)	65,940 (7.3)	85,466 (9.0)	107,065 (10.9)	141,352 (13.4)	194,605 (17.6)	252,602 (22.3)

<자료> 2000~2010년도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27.101.213.4/>), 접속일 2019.3.20. (각 연도말 기준 인출) /

2015~2030년도 :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 추계보고서(2015~2035)』, 2017. (기준인구 2015.7.1.) * 2015~2030년도는 연앙인구임.

4. 고양시 건강한 노인³⁵⁾ 인구 추정

노인의 기능상태 구분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저하 노인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저하 노인까지 일반적 돌봄의 대상으로 볼 때 노인의 약 18.4%를 광의의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다³⁶⁾.

현 복지정책에서 광의의 보호 대상 노인(약 18.4%)은 시설요양, 재가돌봄, 생활지원 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추정되며, 이를 제외한 약 81.6%의 노인을 본 연구에서 정의한 건강한 노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20년 1월말 고양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36,316명(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이며, 2025년 194,605명, 2030년 252,602명으로 증가(경기도 시군구 장래인구추계)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ADL 및 IADL 제한 비율이 높아지므로 각 연령대별 해당 비율을 적용하여 노인의 기능상태 규모를 추정하면 중증 및 경증 기능저하를 모두 포함하는 ADL 및 IADL 제한 노인은 2020년 26,166명, 2025년 37,013명, 2030년 47,922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³⁷⁾

[표 5-4] 건강한 노인 인구 추정 - 65세 이상

구분	2020년(1월말)	2025년	2030년
고양시 전체 인구수	1,068,641명	1,104,689명	1,132,639명
만65세 이상 노인인구수	136,316명	194,605명	252,602명
건강한 노인수	110,150명	157,592명	204,679명
돌봄 필요 노인수	26,166명	37,013명	47,922명

* 경기도 시군구 장래인구추계(2015~2035)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각 기능별, 연령별 ADL, IADL 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돌봄 필요 노인(ADL 및 IADL 제한 노인)을 제외한 노인을 건강한 노인으로 추정할 때, 만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 인구는 2020년 1월 110,150명에서 2025년 157,592명, 2030년 204,679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35) 본 연구에서 건강한 노인은 '시설 및 재가에서 타인의 돌봄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정의한다.

36) 이윤경·염주희·이선희.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pp. 48-49.

* 일상생활수행 능력(ADL)은 식사하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일어나기, 걸기 등의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활동을 의미하며, 도구적 일상생활수행 능력(IADL)은 일상생활 중에서 생존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생활을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가사일, 타인과의 접촉을 위한 연락, 교통수단 이용 등의 활동을 의미함.

37) 문정화·유선차·임연옥. 『고양시 노인복지 기반시설 구축 방안 연구』, 고양시정연구원, pp. 61-64.

제2절 고양시 노인복지 정책 및 사업

1. 고양시 노인복지증진 정책 예산

고양시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약 775억원(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이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노인단체 활동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쾌적한 경로당 환경조성, 저소득 노인계층 보살핌 사업,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에 사용되고 있다.

[표 5-5] 고양시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증진 정책 예산(2020년도 본예산)

(단위 : 천원)

정책사업	예산액	비고
고양시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증진 정책 예산 계	77,469,020 국 19,905,069 도 14,650,144 시 42,913,807	시청 노인복지과 예산 중 장사시설관리 및 행정운영경비는 제외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19,923,058 국 9,523,271 도 1,558,480 시 8,841,30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활성화(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등
노인단체 활동지원	504,487	대한노인회 고양시 지회(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지회) 운영비, 사업활동비 지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	509,774 도 14,598 시 495,176	경로당 활성화사업, 경로당 효사랑 물품지원 사업, 노인복지정보 제공(신문보급) 사업 등
저소득 노인계층 보살핌 사업	43,640,377 국 6,748,256 도 12,675,957 시 24,216,164	생계급여,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재가급여, 저소득노인 사랑의 밑반찬 나눔사업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2,584,624 국 3,633,542 도 401,109 시 8,549,973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양로시설 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	304,700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노인복지지원	2,000	기초연금 등 사책 홍보

<출처> 고양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20.

각 구별 노인복지증진 예산(국·도·시·비 보조금)은 덕양구 약 1409억원, 일산동구 약 587억원, 일산서구 약 595억원이다. 구별 노인복지증진 예산의 대부분(약 97% 정도)은 기초연금 지급에 사용되며, 나머지는 경로당 및 경로식당 운영 지원 등에 사용된다.

3개구 기초연금 지급 예산 합계는 약 2514억원이며, 경로당 운영 지원 등 기초연금을 제외한 노인복지 지원 예산 합계는 약 78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표 5-6] 고양시 구별 노인복지증진 정책 예산(2020년도 본예산)

(단위 : 천원)

구	정책사업	예산액	비고
3개구 기초연금 지급액 합계		251,372,807	구청 가정복지과 노인복지증진 예산
3개구 경로당 운영지원 등 합계		7,783,963	
덕양구	기초연금 지급	137,448,000	국고보조금 96,213,600 / 도비보조금 8,246,880 / 시비보조금 32,987,520
	노인복지 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등)	3,511,685 (국·도·시·비 포함)	경로당 운영, 사회활동, 냉난방비 및 양극비 지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지원, 경로잔치 지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효 가정 지원, 100세인 지원 등
일산동구	기초연금 지급	56,639,000	국고보조금 39,647,30 / 도비보조금 3,398,340 / 시비보조금 13,593,360
	노인복지 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등)	2,047,640 (국·도·시·비 포함)	상동
일산서구	기초연금 지급	57,285,807	국고보조금 96,213,600 / 도비보조금 8,246,880 / 시비보조금 32,987,520
	노인복지 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등)	2,224,638 (국·도·시·비 포함)	상동

<출처> 고양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20.

2. 고양시 건강한 노인 지원 사업 사례

고양시 노인복지증진 정책 중 건강한 노인이 주요 대상이 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전문자원봉사단, 교육 및 취미여가 활동 지원,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한 노인 지원사업은 주로 고양시 시니어클럽

립,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고용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고양시는 노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2019년 8월 고양시 노인일자리종합센터(대화동, 4층 규모, 고양시니어클럽 및 사업장 입주)를 개관하여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와 공익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추진(2020년 시 직접 추진사업 : 18개 사업, 70명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과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꾸준히 확대(2010년 1,626명 → 2019년 5,146명)하고 있다. 고양시는 2014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전국평가 3개 분야(시장진입형, 인력파견형, 사회공헌형) 대상을 차지하고, 201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경기도 평가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었다.

대표적 사례로 고양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시장형사업단(노인 적합 소규모 매출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인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단’과 ‘행주농가 참기름사업단’이 있다.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단’은 2011년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옷, 앞치마 등을 제작하다가 2014년부터 민간기업 제품도 주문받아 제작하고 있다. 2014년도에 청년기업과 연계하는 ‘어글리캐츠 한정판 수제인형 제작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제작 인형이 완판되면서 30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재봉기술을 가진 노인들이 핸드메이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한 수익금은 사업단 노인 일자리 창출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행주농가 참기름 사업단’ 역시 제작한 제품(전통식품인증)을 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2018년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노후시설 개선 및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설비 개선을 통한 매출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덕양노인복지관의 ‘카페 아르젠또’는 200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노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실버카페로 카페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거나 기말고사 기간에 관내 대학교를 찾아가 음료 및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청년 응원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2016년부터 3년 연속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시장형 분야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

[표 5-7] 고양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총괄(2019)

구분		사업명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노노케어 (586명)	노노케어
	공공시설/ 취약계층 지원봉사 (2,938명)	우리천 살림이, 도서관리 지원, 365우리동네지킴이 사업, 의료기관 지원, 보육시설 도우미, 지역아동센터 도우미, 버스승강장 관리지원 사업단, 공공시설 및 체육시설 관리 지원, 문화재 지킴이, 근린공원 환경 지킴이, 몰래카메라감시단, 미소나눔거리안 전지킴이, 공공기관 관리지원, 호수공원 환경지킴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예방, 노인학대예방활동, 타요타요서비스봉사단, 창릉천 환경지킴이, 우리동네 방역지킴이 사업, 대중교통 취약계층 지원봉사사업, 굿모닝 바른생활 길잡이사업, 복지시설 지원봉 사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봉사사업, 놀이터 지킴이, 건물청소파견, 문화시설지원사업, 실버안전지킴이, 호수공원 반려견캠페인, 어르신활동보조지원사업, 마을청결활동사 업, 늘푸른청결사업단, 시니어안전지킴이, 체육시설 지원사업, 녹색마을꾸미기, 복지교 육시설도우미, 실버안전보안관, 경로당중식도우미사업, 공동묘지 일제조사, 경로당생 활도우미사업, 체육시설지킴이사업, 우리하천가꾸기사업, 경로당 행정코디, 경로당 중 식도우미사업, 도촌천지킴이, 어린이안심등하교지원사업, 단독주택가 생활쓰레기 관 리사업, 장애인 주간보호 지원 등
	경륜전수지원봉사 (207명)	꿈전파문화공연단, 실버강사파견, 전통놀이지도봉사단, 인형극단 활동사업, 이야기 할 머니사업, 1-3세대 강사파견, 종이접기선생님, 노노강사, 숲생태해설사업
사회 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240명) 보육시설도우미사업, 시니어컨설턴트사업	
시장형 (만 60세 이상)	제조판매형 (62명)	행주농가, 할머니와 재봉틀, 카페아르젠또, 대화실버카페 등
	공동작업형 (289명)	경로당 공동작업장(행복공작소, 도란도란대화공작소), 카네이션하우스, 공동작업사업
	서비스제공형 (624명)	마카롱서차사업, 신바람저하철택배, 배움터지킴이사업, 스콜존교통지원사업, 학교급 식도우미사업, 학교 화단 텃밭 관리지원사업, 공립유치원 보육도우미사업, 사회복지시 설 EM 청소서비스사업, 경로당도우미사업
	인력파견형 (200명)	시니어인력파견, 농어촌 인력지원
총 5,146명 지원		2019년도 지원 예산 약 141억원(국비 70억, 도비 10억, 시비 60억)





< 고양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기관 현황(2019년도) >

지원 기관명	일자리사업 참여노인수	지원 기관명	일자리사업 참여노인수
고양시니어클럽	24개 사업, 776명	고양노인복지센터	11개 사업, 327명
고양실버인력뱅크	20개 사업, 730명	고양통합지원센터	11개 사업, 238명
덕양노인종합복지관	19개 사업, 405명	덕양구노인지회	13개 사업, 864명
일산노인종합복지관	18개 사업, 345명	일산동구노인지회	10개 사업, 554명
대화노인종합복지관	15개 사업, 297명	일산서구노인지회	9개 사업, 608명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2019)

[표 5-8] 고양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사례(2019)

구분	내용	비고(관련사진)
<p>시장형</p> <p>할머니와 재봉틀 사업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 고양시니어클럽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단'은 할머니들의 과거 봉제 관련 근무 경력 및 경험을 바탕으로 봉제 생활용품을 제작, 판매함. 2019년 기준 10명의 노인이 참여함 활동 : 연중사업(월 56시간 이하, 시급 9천원) 성과 : 청년 브랜드 디자인기업과 캐릭터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2014년)하고, 고양이 캐릭터 '어글리 캣츠' 인형을 만들어 판매함 	 <p>[할머니와 재봉틀 사업단]</p>
<p>시장형</p> <p>행주농가 참기름 사업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 고양시니어클럽 '행주농가 참기름 사업단'은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8명의 노인이 참여함 활동 : 연중사업(월 56시간 이하, 시급 9천원) 성과 : 생산제품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전통식품인증을 받고, 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함. 2018년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노후시설 개선 및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설비를 개선함 	 <p>국산 참기름/들기름/볶음참깨/생들기름 시니어클럽 행주농가 참기름 선물세트</p> <p>[행주농가 참기름 사업단 제품 사진]</p>
<p>시장형</p> <p>카페 아르전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 고양시덕양노인복지관 '카페 아르전또'는 덕양점, 어울림점 두 곳에 매장을 두고 노인 바리스타 14명이 운영하는 실버카페임 성과 : 200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실버카페로 2016년부터 3년 연속 노인일자리 시장형 분야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됨 	 <p>[카페 아르전또 10주년 기념 사진]</p>
<p>시장형</p> <p>도란도란 대화 공작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 고양시 대화동주민센터, 대화동주민자치위원회, 대화노인종합복지관 등이 연계해서 '도란도란 대화 공작소'를 운영함 활동 : 관내 3개 경로당에서 18명의 노인이 참여하여 쇼핑백, 전단지 등을 제작함 	 <p>[도란도란 대화 공작소]</p>
<p>시장형</p> <p>마카롱 세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 찾아가는 출장 세차사업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세차기술을 활용하여 고양시 내 관공서 차량 내외부 세차를 통해 수익을 창출함 활동 : 월 30~36시간(월 28만원 정도, 근무일에 따라 변동) 	 <p>[마카롱 세차 사업]</p>

구분		내용	비고(관련사진)
공익 활동	우리 하천 자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 고양시 관내의 실개천을 돌보기 위한 쓰레기 줍기, 수질개선 활동 등의 환경자킴이 활동 • 활동기간 : 2월~10월(9개월) • 활동시간 : 월 30시간(1일 3시간, 월 10회) • 지원급여 : 월 27만원 • 기타사항 : 교육 및 간담회 참석, 상해보험 가입 	 <p>[우리 하천 자킴이 활동]</p>
공익 활동	몰래 카메라 감시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 최근 사회적 문제인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 및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불법카메라 감시 활동 * 공익활동 - 활동기간, 시간, 급여, 기타사항 동일 	 <p>[불법 몰래카메라 감시 활동]</p>
공익 활동	버스 승강장 관리지원 사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 고양시 관내의 버스승강장 환경 정비 및 불법 광고물 홍보물 제거, 노약자 및 어린이 승하차 지원 활동 * 공익활동 - 활동기간, 시간, 급여, 기타사항 동일 	 <p>[버스승강장 관리 지원 활동]</p>
공익 활동	경로당 행정 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 고양시 대한노인회 지회는 2015년부터 문서 작업이 가능하고 인터넷 숙련도가 높은 노인을 '경로당 행정코드'로 선발하고, 경로당에 문서 전달 업무를 수행함 • 활동 : 1인당 3개의 경로당을 맡아 월 40~50시간 정도 활동. 경로당별로 주회 방문해 회계장부와 경로당 일지 정리,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함 • 성과 : 행정코드들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서 문서를 전달하고 관련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정보 전달력이 높아짐. 노인일자리보다 수당이 많은 고령친화 일자리로 발전시킨 지역(제주)도 있음 	 <p>[경로당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행정코드]</p>

<자료> 고양시니어클럽(<http://www.goyangsenior.com>), 접속일 2020.1.23.
 백세신문 '청년들과 손잡고 고양이 컴퓨터 인형 만들어 성공', 2015.3.20.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dxno=30454>).
 내일신문 '꽃보다 아름다운 실버 노년도 행복한 고양시', 2015.6.5. (http://www.naeil.com/news_view/?d_art=152974),
 고양신문 '아르전토와 함께해서 행복해요', 2018.10.19.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dxno=48633>),
 국제뉴스 '고양시, 대화동주민센터 노인일자리 창출 앞장서', 2015.8.12.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dxno=314502>),
 백세신문 '경로당 문서처리 돕는 행정도우미 활동 확산', 2018.2.9.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dxno=52003>),
 접속일 2020.1.29.

2) 사회참여 - 노인전문자원봉사단

고양시 3개의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전문자원봉사단을 모집하여 지원하고 있다. 선발을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한 노인의 자원봉사 실적은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시스템(VMS)과 연계하여 관리되며, 관련 교육 지원, 우수 봉사자 추천, 나들이 및 송년행사 참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표적 예로 일산노인복지관의 IU시니어봉사단은 붓글씨, 탁구, 구연동화, 뜨개질, 사진촬영 등 5개 분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 출범하여 2019년 5기 봉사단을 배출하였다. 탁구 및 구연동화 봉사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활동하여 1·3세대간 통합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뜨개 봉사자가 만든 완성품은 국립암센터 및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하거나 바자회를 통해 불우이웃을 돕고 있다. IU시니어봉사단 기수별 발대식을 통해 활동명찰 전달, 전년도 활동성과 및 금년도 활동일정 공유, 희망나무세우기 집단 활동 등을 실시하며, 활동 노인의 소속감 고취 및 지속적 활동의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한국실버경찰봉사대와 MOU를 체결하고 활동을 시작한 고양실버경찰봉사대는 2016년 덕양노인복지관, 2017년 일산노인복지관과 대화노인복지관에서도 활동을 시작했다. 대화노인복지관은 2020년에도 대화실버경찰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실버경찰단에 참여한 노인은 마을순찰, 무단횡단 방지 캠페인, 교통지도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며, 지역사회를 지킨다는 자부심과 함께 생활의 활력을 되찾고 있다.

덕양노인복지관의 특화사업인 '5! 해피데이'에도 신바람행복봉사단의 노인들이 참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16년 11월부터 시작된 '5! 해피데이'는 매월 5일을 행복 나눔의 날로 지정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게 1천원 나눔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봉사활동 노인들이 '차 나눔'을 통해 직접 주변 사람들에게 나눔을 알리고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소액 후원으로 후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해 2017년 773명, 2018년 762명의 후원자가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양실버인력뱅크(<http://www.gysilver.com/>)는 고양시 노인사회참여지원기관으로 꽃노인 사회공헌단(지혜나눔 봉사단, 재능형 봉사단, 사회공헌형 봉사단), 꽃노인 아카데미(리플아카데미, 사회공헌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다.

[표 5-9] 고양시 노인전문자원봉사단 사례(2020)

구분	내용	비고(관련사진)
<p>덕양 노인 복지관</p> <p>신바람 봉사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봉사단 : 5!해피데이(후원모금행사 지원), 경로 식당(식사준비, 배식보조), 주차관리(복지관 내 주차 안내), 실별관리(자유이용실 및 각 프로그램실 관리), 신규회원안내(복지관 신규회원 대상 안내), 실버경찰(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등 나눔봉사단 : 재능기부(고전무용, 풍물, 합창 등) 혜택 : 봉사시간 실적 인정, 고양시 내 주요 기관 및 업체 할인, 나들이 및 송년행사 참여 등 	 <p>[덕양노인복지관, '5! 해피데이' 자원봉사 활동]</p>
<p>일산 노인 복지관</p> <p>IU 시니어 봉사단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분야 : IU시니어봉사단(벗글씨, 뜨개질, 탁구, 사 진촬영, 구연동화 등 재능기부 봉사단), 경로식당(식 당 배식보조, 환경정리, 도시락 준비 및 배달), 전문 봉사(상담, 레크리에이션, 이미지 등 재능기부), 가족 봉사단(독거노인과 1:1매칭), 행사 및 프로그램 지원 (관내 각종 행사 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활동보조) 등 혜택 : 봉사시간 실적 인정, 우수봉사자 추천,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지원, 나들이 및 송년행사 참여 등 	 <p>[일산노인복지관, IU시니어봉사단 5기 출범식]</p>
<p>대화 노인 복지관</p> <p>대화 실버 경찰단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화실버경찰단 : 격주 1회 순찰활동 및 지역사회활동 참여(캠페인 등), 소양교육(연 2회), 월례회의(순찰활동, 교통안전 정보 교류) 책사랑봉사단 : 지혜의 숲 운영, 도서관리(주회), 월례회의(이달의 문학, 화장실 문구 추천) 지역사회활동 참여(캠페인 등) 상담서포터즈 : 식권판매, 복지관 정보 및 행사 안내(주회), 월례회의(복지관 정보, 행사 일정 교류) 혜택 : 봉사시간 실적 인정, 우수봉사자 추천, 소식지 제작참여, 나들이 및 송년행사 참여 등 	 <p>[대화노인복지관, 대화실버경찰대 소양교육]</p>

자료>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http://withnoin.org/>),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http://ilsansenior.org/>), 고양시대화노인종합복지관(<http://www.dh-seniorwelfarecenter.co.kr/>), 접속일 2020.1.28.
 복지타임즈 '어르신들의 특별한 재능-눔-2019년 IU시니어봉사단 5기 출범', 2019.3.15. (<http://www.bokjitim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33>),
 뉴스파고 '고양실버경찰봉사대-준법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 2017.6.5. (<http://www.newspago.com/62040>), 접속일 2020.1.28.

3) 여가 - 교육, 취미여가 활동 지원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 등에서 교육 및 취미여가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은 음악영화 감상실, 자유훈노래방, 도서실, 바둑장기실 등 자유훈 이용 여가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수강기간 3개월~6개월, 6개월 수강료 3~4만 원 정도의 프로그램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인문교양, 어학, 건강증진, 문화예술, 음악, 서예, 정보화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이 많아서 인기 프로그램은 대기자가 많은 상태이다.

일산노인복지관의 ‘한뫼누리예술단’은 2005년 결성된 역사가 오래된 문화여가 지원 프로그램이다. 외부공연 및 대회 출전반으로 매년 12월 진행되는 오디션 합격자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고전무용, 에어로빅, 풍물, 합창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예술단에 참여한 노인들은 공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예체능 활동의 즐거움과 새로운 노인문화활동을 보여 준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덕양노인복지관의 특화사업인 ‘행복한 에버그린’은 노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라디오 방송, 청소년과 함께 하는 1·3세대 통합 라디오, 공익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세대간 통합 및 건강한 노년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대화노인복지관의 특화사업인 ‘선배시민 대학교’는 기본과정(사회적 역할 인식), 심화과정(나의 모습 이해하기), 선배시민활동(수료생 학습동아리, 노인인식개선 캠페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배시민 활동을 통해 돌봄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노인이라는 인식을 벗어나 후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선배시민이라는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노인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펼치며, 2019년도에는 고령친화지도를 제작하였다.

2015년부터 시작한 고양시 경로당 활성화 롤모델 육성 사업인 ‘신바람 난 경로당’은 노인복지관 등에서 관내 협약 경로당을 대상으로 여가, 교육, 건강, 특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한노인회 고양시 3개 지회의 주최·주관으로 신바람 난 경로당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경진대회 결과에 따라 소정의 시상금 전달 및 ‘신바람 난 경로당’ 종합 평가 점수에 반영된다.

[표 5-10] 고양시 노인 교육, 취미여가 활동 지원 사례(2020)

구분	내용	비고(관련사진)
<p>덕양 노인 복지관</p> <p>행복한 에버그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 라디오라는 매개체를 통해 라디오 방송, 공익 캠페인 등의 활동으로 노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건강한 노년상을 확산함 • 활동 : 집단프로그램(신노년 문화 이해, 선배시민 강의, 갈등관리, 의사소통 및 워크숍), 라디오 보수 교육, 월2회 공익캠페인 및 방송단 홍보활동, 1·3세대 통합라디오, 주회 라디오 방송, 자조모임 등 * 제6회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우수프로그램상 수상 	 <p>[덕양노인복지관, 행복한 에버그린]</p>
<p>일산 노인 복지관</p> <p>한미누리 예술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전무용 : 풍년가, 입춤 등의 전통 무용 연습과 공연 • 에어로빅 : 다양한 음악의 에어로빅 연습 및 공연 • 풍물 : 장구, 북, 팽과리, 태평소 등의 장단을 통한 합주 연습 및 공연 • 합창 : 가곡 합창 연습 및 공연 * 오디션 합격자에 한하여 참여가능 하며 내외부 활동을 하게 됨 	 <p>[일산노인복지관, 한미누리예술단]</p>
<p>대화 노인 복지관</p> <p>선배시민 (Senior citizen) 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과정 : 선배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인식(선배시민 이해하기, 자원봉사, 토론방법 등 교육) • 심화과정 : '나'의 모습 이해하기(인생수업, 인생특강, 전문클래스) • 선배시민활동 : 수료생 자조모임(학습동아리), 노인 인식개선 캠페인 * 노인을 돌봄의 대상이 아닌 지혜와 경험이 풍부하고 후세대의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시니어로 인식 개선 	 <p>[대화노인복지관, 선배시민 캠페인]</p>
<p>노인 복지관 지원</p> <p>신바람 난 경로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 고양시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관내 협약 경로당(연 15개)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지원운영 • 지원 내용 : 경로당 추가 운영비 지급, 건강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연, 재능기부 등 지역연계 프로그램, 경로당 환경개선, 경로당 일거리, 임원 워크샵, 프로그램 경진대회 및 시상 등 	 <p>[고양시 신바람 난 경로당 경진대회]</p>

<자료>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http://withnoin.org/>),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http://ilsansenior.org/>), 고양시대화노인종합복지관(<http://www.dh-seniorwelfarecenter.co.kr/>), 접속일 2020.1.28.
 일요서울, '2017년 한미누리예술단 정기발표회 개최' 2017.11.22.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54>),
 불교공뉴스 '고양시 신바람 난 경로당 어르신들의 열정 기록', 2018.12.27. (<http://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823>),
 접속일 2020.1.29.



4) 건강 -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지원

고양시 노인복지관에는 체력단련실, 탁구장, 당구장, 게이트볼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증진과 관련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건강관리는 의학적 검사가 병행되는 사업이므로 보건소와 협력해서 사업을 운영하기도 한다.

덕양노인복지관의 특화사업인 ‘생생 클럽’은 종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노년기 신체기능과 질환에 따른 1:1 맞춤 운동, 대인관계 증진, 자아존중감 향상 등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일산서구보건소와 대화노인복지관은 2017년부터 ‘건강안심경로당’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로당 건강 리더자(건강지킴이 노인)를 양성해 경로당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혈압 체크나 체조를 통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표 5-11] 고양시 노인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지원 사례(2020)

구분		내용	비고(관련사진)
덕양 노인 복지관	생생 클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 노인 종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우울척도 16점 이상 또는 노인체력검사 50점 이하를 대상으로 운영하여 노년기 심리적 우울감 감소 및 신체기능의 건강 증진을 도모함 지원 : 신체기능에 따른 1:1 맞춤형 소그룹 운동, 건강정보 제공, 사전/사후 건강 검사 및 상담, 심리검사, 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 문화체험활동 등 	 [생생클럽의 1:1 맞춤형 소그룹 운동]
일산 서구 보건소 + 대화 노인 복지관	건강 안심 경로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 경로당 건강 리더자를 양성해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자기관리능력을 높이고, 치매 예방운동법 교육 등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함 활동 : 경로당 건강지킴이 노인들은 경로당 회원의 혈압 측정 및 혈압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치매 예방 체조를 실시하는 등 스스로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건강안심 경로당 현판 사진]

<자료>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http://withnoin.org/>), 접속일 2020.1.28.
 세계로컬타임즈, ‘스스로 건강관리-고양시 건강안심경로당 현판 전달식’, 2019.11.19.
 (<http://www.segyelocalnews.com/news/newsview.php?ncode=1065579542927535>), 접속일 2020.1.29.

3. 고양시 건강한 노인 지원 정책사업 시사점

고양시는 노인일자리 공동브랜드인 이음플러스를 개발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대표적인 예로 고양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단’, ‘행주농가 참기름 사업단’ 등이 있으며, 덕양노인복지관의 ‘카페 아르젠토’ 등이 있다.

앞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고양시 65세 이상 고용률도 계속 증가하여 2013년 15.3%에서 2019년 20.2%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도시 평균 22.2% 및 수원시 24.0%, 성남시 22.9% 보다 낮은 수치이며, 직업도 청소, 경비, 운수 등의 비율이 높아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 구직노인의 약 54%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며, 대다수(65세 이상의 93.4%, 60세 이상의 88.9%)가 고양시 내에서 직장을 구하길 원하고 있다.

고양시 노인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 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질적인 고용환경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 개관한 노인일자리종합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서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과 함께 새로 노년기에 진입하는 세대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하면 노인들이 한 자리에서 일자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종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노인일자리 사업량 확대와 더불어 고양 누리길, 평화통일 관련 노인일자리 사업 등 고양시 특성화 노인일자리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고령자 친화기업의 지속적인 개발 및 노인 고용률이 높은 직종의 사업장에 고령친화적 환경개선 인센티브 지급 등 노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질적인 부분의 지원도 필요하다.

여가 부문에서는 노인의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 기관인 노인 복지관의 확충이 필요하다. 불과 10년 후인 2030년에 고양시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30%(70세 이상 인구는 1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양시 노인복지관의 신규회원이 매달 100여명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복지관의 확충은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다.

제 6 장

고양시 노인 생활실태 분석

제1절 분석개요

제2절 일반적 특성

제3절 고양시 노인의 사회참여 및 관계 영역

제4절 고양시 노인의 건강 및 행복감

제5절 고양시 노인의 안전 및 노후준비 영역

제6절 활동적 노화 구성요소와 행복감

제절 분석 개요

1. 고양시 노인 생활실태 분석 목적 및 방법

1) 실태분석 목적

고양시 노인과 관련된 일반영역, 사회참여 및 관계 영역, 건강 및 삶의 만족 영역, 안전 영역 등에서 현재 생활실태와 욕구 등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수요를 파악해 노인의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를 위한 고양시 노인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태분석 대상 및 방법

고양시 건강한 노인의 생활실태 분석을 위하여 2019년 지역별 고용조사(65세 이상 고양시 노인인구 492명), 2018년 고양시 사회조사(65세 이상 고양시 노인인구 601명) 및 2019년 고양시 사회조사(65세 이상 고양시 노인인구 623명), 2018년 고양시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65세 이상 고양시 노인인구 312명), 2020년 고양시민 행복증진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65세 이상 고양시 노인인구 397명),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인생활 변화조사(65세 이상 고양시 노인인구 216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각 조사에서 해당 데이터 추출 후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또 평균수명 증가와 노년기 확대를 고려한 정책제안을 위하여 전기노인(early old age, young-old, 만 65~74세), 중기노인(middle old age, middle-old, 만 75~84세), 후기노인(advanced old age, old-old, 만 8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³⁸⁾ 각 집단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38) 권석만, 『현대 이상심리학』, 학지사, 2013.

3) 실태분석 내용

고양시 노인 생활실태 분석을 위한 영역별 내용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6-1] 고양시 노인 생활실태 분석 내용

영역	세부 영역	분석 내용
일반영역	인구사회학적 현황	교육수준, 결혼상태, 주택형태, 주택 점유형태, 고양시 거주기간
	가구 경제	가구 월평균 가구 소득, 개인소득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 생활비 지출 부담항목, 사회경제적 위치 평가
사회참여 및 관계 영역	고용	경제활동 현황, 종사상 지위, 월평균 임금, 직업분포, 종사산업 분포, 사업체 소재지, 고용관련 만족도, 일자리 선택의 주요 고려사항,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여가 문화	평생교육 경험, 평생교육 미참여 이유, 사회공헌활동(자원봉사, 후원) 경험, 선거투표 참여, 주말휴일 여가생활, 노후생활과 복지기관 이용, 노인복지관 이용현황
	가족사회적 관계	홀몸노인(1인 가구) 여부, 가족관계 만족도, 가사분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 여부, 이웃과 일반인에 대한 신뢰, 지역사회 소속감, 디지털 활용정도
건강 및 삶의 만족 영 역	건강	건강상태 평가, 우울정도, 만성질환 여부, 규칙적인 운동 여부 및 주요 운동장소, 고양시 보건의료시설 만족도
	행복도	행복도, 영역별 생활만족도
안전 및 노 후준비 영역	안전 인식	영역별 안전 인식, 영역별 피해 두려움
	노후준비	노후준비 여부, 노후준비 방법, 노후준비 못하는 이유 노인이 인식하는 생활에서의 문제, 희망 노인복지서비스

제2절 일반적 특성

1. 고양시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현황

1) 교육수준-65세 이상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는 53.2%, 타지역에 비해 수준이 높음

고양시 노인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46.7%, 고등학교 졸업 29.4%, 전문대졸 이상은 23.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전기노인(만 65~74세)이 중기노인(만 75세~84세)과 후기노인(만 85세 이상)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았다.

성별에 있어서는 전기, 중기, 후기노인 세 집단 모두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경향이 뚜렷하며, 특히 전기노인보다는 중기노인, 후기노인 각 집단 내의 성별 교육수준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별 내에서도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의 경우 후기노인은 1/3 가까이가 중학교 이하의 교육에 머물러 있는 반면 전기노인은 절반 이상이 고등학교 교육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여성의 경우에도 후기노인이 대다수인 93.4%의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하였으나, 전기노인은 69.6%가 중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연령 및 성별에 따라 교육수준에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 중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고,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이 적다는 공통성을 보인다.

또한 서울시, 경기도와 비교해 볼 때 고양시 노인이 전체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기노인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43.3%, 고등학교 졸업 31.5%, 전문대졸 이상 25.2%로 나타났고, 중기노인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49.4%, 고등학교 졸업 26.5%, 전문대졸 이상 24.2%였다. 후기노인의 경우는 절반을 넘는 55.0%가 중졸이하, 고등학교 졸업이 29.4%, 전문대졸 이상이 15.6%로 세 집단 중 교육수준이 가장 낮았다.

[표 6-2] 고양시 노인의 교육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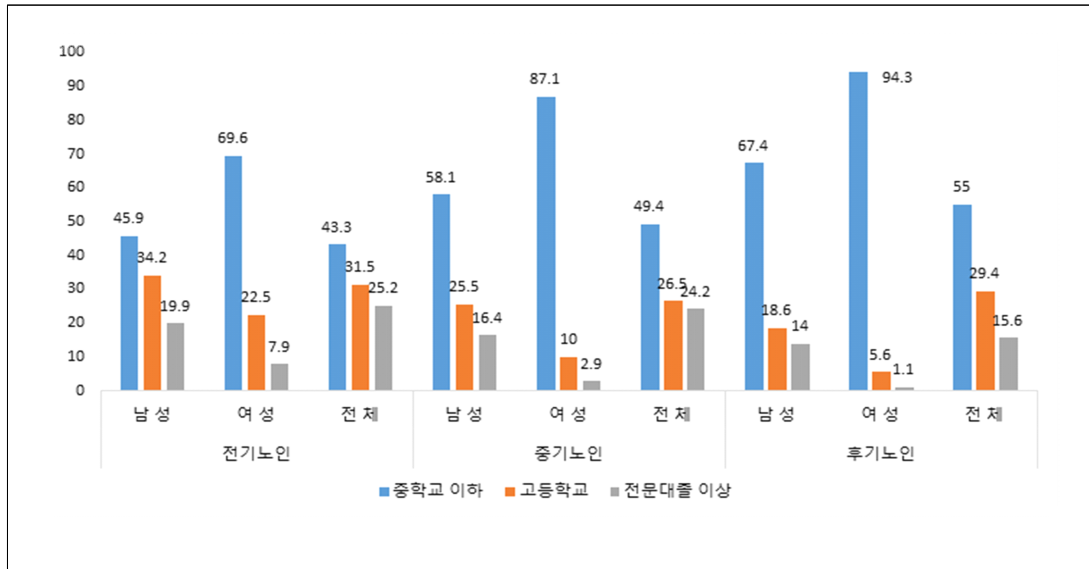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전문대졸 이상
전기노인	남 성	45.9	34.2	19.9
	여 성	69.6	22.5	7.9
	전 체	43.3	31.5	25.2
중기노인	남 성	58.1	25.5	16.4
	여 성	87.1	10.0	2.9
	전 체	49.4	26.5	24.2
후기노인	남 성	67.4	18.6	14.0
	여 성	94.3	5.6	1.1
	전 체	55.0	29.4	15.6
전체		46.7	29.4	23.8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9, 하반기)

[그림 6-1] 고양시 노인의 교육수준

(단위 : %)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9, 하반기)

[표 6-3] 고양시 노인의 교육수준 타지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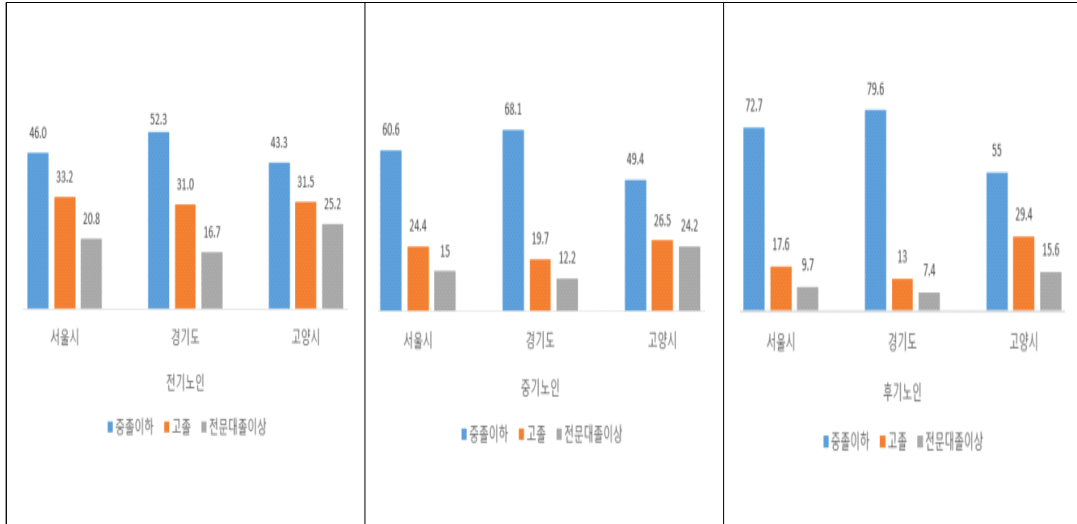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전기노인	서울시	46.0	33.2	20.8
	경기도	52.3	31.0	16.7
	고양시	43.3	31.5	25.2
중기노인	서울시	60.6	24.4	15.0
	경기도	68.1	19.7	12.2
	고양시	49.4	26.5	24.2
후기노인	서울시	72.7	17.6	9.7
	경기도	79.6	13.0	7.4
	고양시	55.0	29.4	15.6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9, 하반기)

[그림 6-2] 고양시 노인의 교육수준 타지역 비교

(단위 : %)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9, 하반기)

2) 결혼상태-65세 이상 노인의 35.2%, 후기노인의 55.1%는 배우자 없음

고양시 노인의 결혼상태는 유배우자인 경우가 64.8%로 가장 많고, 사별 31.3%, 이혼 3.1%, 미혼 0.8%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노인의 유배우자율은 76.0%로 매우 높았고, 중기노인의 54.4%, 후기노인의 44.9%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사별노인은 전기노인 19.8%, 중기노인 41.7%, 후기노인 53.2%로서 연령이 많을수록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배우자 비율이 연령과 비례하고, 사별 비율이 연령과 역비례하는 일반적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혼의 경우는 전기노인이 3.5%, 중기노인이 2.7%, 후기노인이 2.0%로서 큰 차이는 없지만 나이가 적을수록 이혼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표 6-4] 고양시 노인의 결혼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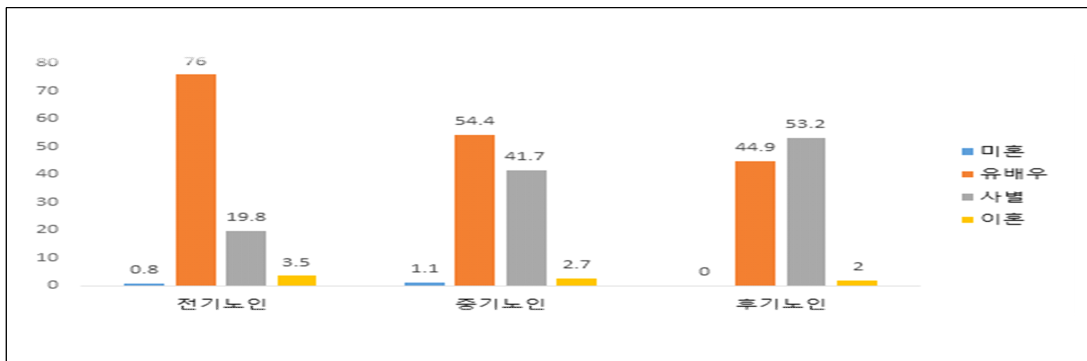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전기노인	0.8	76.0	19.8	3.5
중기노인	1.1	54.4	41.7	2.7
후기노인	0.0	44.9	53.2	2.0
전 체	0.8	64.8	31.3	3.1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9, 하반기)

[그림 6-3] 고양시 노인의 결혼상태

(단위 : %)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9, 하반기)

3) 주택형태-65세 이상노인의 55.3%는 아파트 거주, 22.2%는 단독주택 거주

고양시 노인 가운데에는 아파트 거주자가 55.3%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 거주자가 22.2%,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16.2%, 기타 유형의 주택형태 거주자가 6.3%로 나타났다.

전기노인의 56.9%, 중기노인의 53.1%, 후기노인의 54.2%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큰 차이는 없지만 전기노인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세 집단 모두 단독주택 거주자가 두 번째로 많고, 중기노인의 경우에는 특히 해당 연령층의 1/4 정도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5] 고양시 노인의 주택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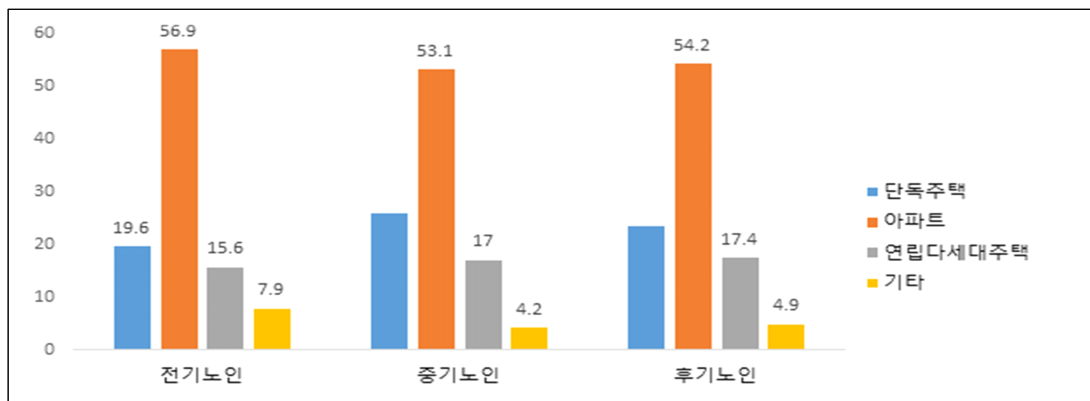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기타
전기노인	19.6	56.9	15.6	7.9
중기노인	25.8	53.1	17.0	4.2
후기노인	23.5	54.2	17.4	4.9
전 체	22.2	55.3	16.2	6.3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9)

[그림 6-4] 고양시 노인의 주택형태

(단위 : %)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9)

4) 주택점유형태-65세 이상노인의 61.3%는 자가 거주

고양시 노인 중 61.3%가 자가주택 소유자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1.2%가 보증금 있는 월세, 11.9%가 전세, 4.9%가 무상임대, 0.7%가 사글세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기노인은 61.2%가 자가, 22.6%가 보증금 있는 월세, 1.4%가 사글세, 4.1%가 무상임대였고, 중기노인은 전기노인보다 약간 많은 63.7%가 자가, 18.4%가 보증금 있는 월세, 4.9%가 무상임대 순이었다. 한편 후기노인의 자가주택 소유 비율은 세 노인집단 중 가장 낮아 52.3%로 파악되었으며, 23.0%가 보증금 있는 월세, 14.3%가 전세, 10.4%가 무상임대였다. 세 집단 모두 주거지 소유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으나 또한 세 집단 모두 1/5 전후의 노인들이 월세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고양시 노인 주택점유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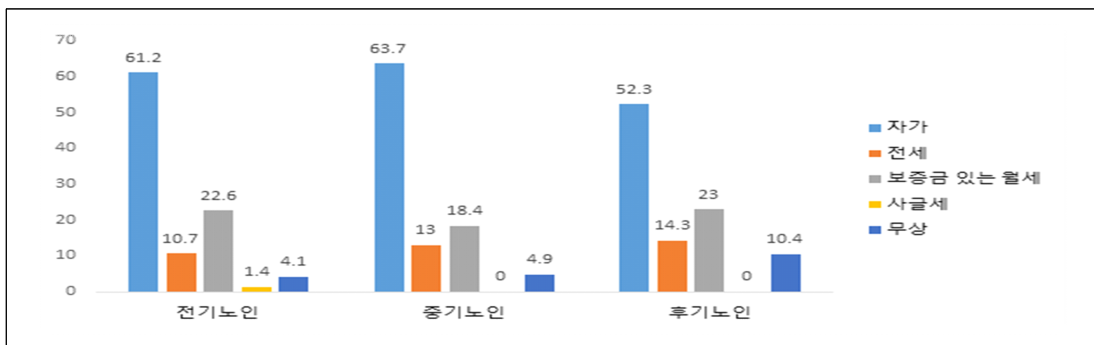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사글세	무상
전기노인	61.2	10.7	22.6	1.4	4.1
중기노인	63.7	13.0	18.4	0.0	4.9
후기노인	52.3	14.3	23.0	0.0	10.4
전 체	61.3	11.9	21.2	0.7	4.9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9)

[그림 6-5] 고양시 노인의 주택점유형태

(단위 : %)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9)

5) 고양시 거주기간-65세 이상 노인 고양시 거주기간 19.98년, 연령대 차이 없음

노인의 고양시에서 거주한 기간은 평균 19.98년이었다. 연령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중기노인의 거주기간이 20.13년으로 가장 길었고, 전기노인의 거주기간은 19.99년, 후기노인의 거주기간은 19.26년으로 나타났다.

[표 6-7] 고양시 노인의 거주기간

(단위 : 년)

구분	전기노인	중기노인	후기노인	전체
거주기간	19.99	20.13	19.26	19.98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9)

2. 고양시 노인 가구의 경제

1) 월평균 가구 소득-65세 이상노인 월평균 가구소득 203만원

고양시 노인의 월평균 가구소득(근로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 연금 및 사회보장수입 포함)은 평균 203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기노인은 월평균 222만원, 중기노인은 189만원, 후기노인은 188만원이며 통계적 차이는 없다.

[표 6-8] 고양시 월평균 가구 소득

(단위 : 만원)

구분	전기노인	중기노인	후기노인	전체
월평균가구소득(세전)	222	189	188	203

<자료> 고양시민 행복실태조사 (2020)

2) 개인소득 만족도-65세 이상노인의 개인소득만족도는 4.66점, 중간보다 낮음

고양시 노인의 개인소득 만족도는 총 10점 만점 중 4.66점으로 중간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득 만족도는 전기노인 4.56점, 중기노인 4.69점, 후기노인 4.91점으로 연령이 증가할 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연령대별 개인소득 만족도를 살펴보면, 청년은 4.87점, 중년은 4.90점, 노인 은 4.66점으로 노인의 개인소득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표 6-9] 고양시 개인소득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전기노인	중기노인	후기노인	전체
개인소득만족도	4.56	4.69	4.91	4.66

<자료> 고양시민 행복실태조사 (2020)

3) 소비생활 만족도-65세 이상노인의 소비생활만족도는 5.04점으로 보통

고양시 노인의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만족도는 총 10점 만 점 중 5.04점으로 중간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비생활 만족도는 전기노인 5.04점, 중기노인 5.05, 후기노인 5.06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다. 청년세대는 평균 5.38점, 중년은 5.23점으로 노인의 소비생활만족도는 청년과 중년 에 비해 낮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

[표 6-10] 고양시 소비생활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전기노인	중기노인	후기노인	전체
소비생활만족도	5.04	5.05	5.06	5.04

<자료> 고양시민 행복실태조사 (2020)

4) 생활비 지출 부담항목-보건의료비가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 항목

고양시 노인들의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은 보건의료비가 44.5%로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는 주거비가 22.2%로 부담이 컸고, 부담스러운 지출이 없다는 경우도 15.8%였다.

전기노인(35.2%), 중기노인(55.6%), 후기노인(55.7%) 모두 보건의료비 부담이 가장 커 이는 연령을 불문하고 노년기에 들어선 개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공통된 특성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보건의료비 다음으로 노후생활에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이 주거비라는 점은 전기노인과 중기노인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었는데 전기노인 26.2%, 중기노인 19.1%로 파악되었다. 후기노인의 경우에는 주거비 부담된다는 응답이 11.5%로 3순위를 차지하였다.

[표 6-11] 고양시 노인의 생활비 지출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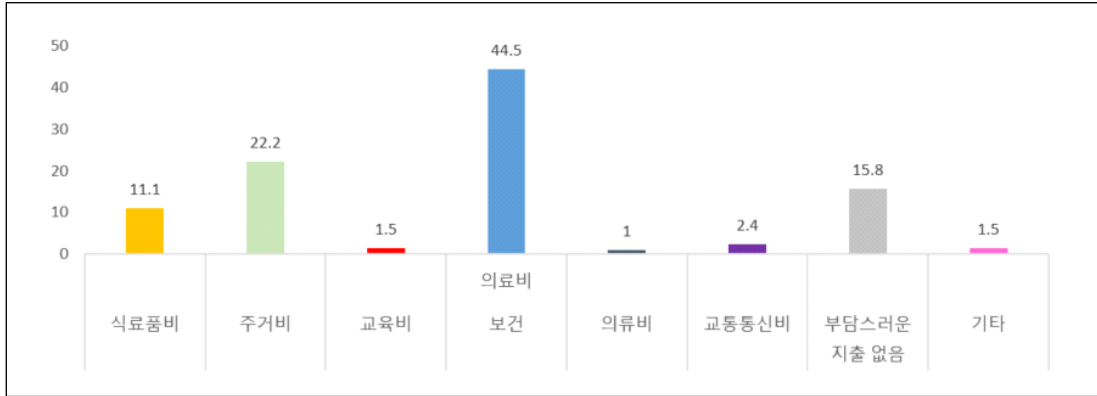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보건 의료비	의류비	교통통 신비	부담스러 운 지출 없음	기타
전기노인	12.7	26.2	1.8	35.2	0.6	3.0	18.2	2.4
중기노인	8.7	19.1	1.5	55.6	1.8	2.0	10.7	0.6
후기노인	10.7	11.5	0.0	55.7	0.0	0.0	22.2	0.0
전 체	11.1	22.2	1.5	44.5	1.0	2.4	15.8	1.5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9)

[그림 6-6] 고양시 노인의 노후생활비 지출 부담

(단위 : %)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9)

5) 사회경제적 위치 평가-65세 이상노인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중간보다 낮고 청년, 중년에 비해 더 낮음

고양시 노인의 사회경제적 위치 평가는 10점 만점 중 4.97점으로 나타나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노인이 5.02점으로 가장 높고 후기노인 4.95점, 중기노인 4.92점으로 전기 노인이 가장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청년세대는 평균 5.47점, 중년은 5.48점으로 노인의 사회경제 위치 평가는 노인이 청년과 중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2] 고양시 사회경제적 위치 평가

(단위 : 점)

구분	전기노인	중기노인	후기노인	노인전체
소비생활만족도	5.02	4.92	4.95	4.97

〈자료〉 고양시민 행복실태조사 (2020)

제3절 고양시 노인의 사회참여 및 관계 영역

1. 고양시 노인의 고용

1) 경제활동 현황 - 고용률 19%, 타지역에 비해 낮음

고양시 노인들의 19.0%가 경제활동을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세대와 비교할 때 중장년 70.9%, 청년 62.2%에 비해 노인의 고용률은 현저히 낮아 고양시 전체적으로는 중장년>청년>노년 순으로 고용률이 높게 파악되었다.

또한 전국 노인 고용률 32.3%, 경기도 노인 고용률 25.2%에 비해 고양시 노인의 고용률이 낮고, 동시에 실업률도 고양시가 0.4%로 전국(0.6%) 및 경기도(0.7%)의 실업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 고양시의 비경제활동 노인이 80.6%인데 비해 전국 노인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67.5%, 경기도 74.1%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양시는 생산활동 미참여 노인 비중이 높다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표 6-13] 지역별·세대별 경제활동 현황 타지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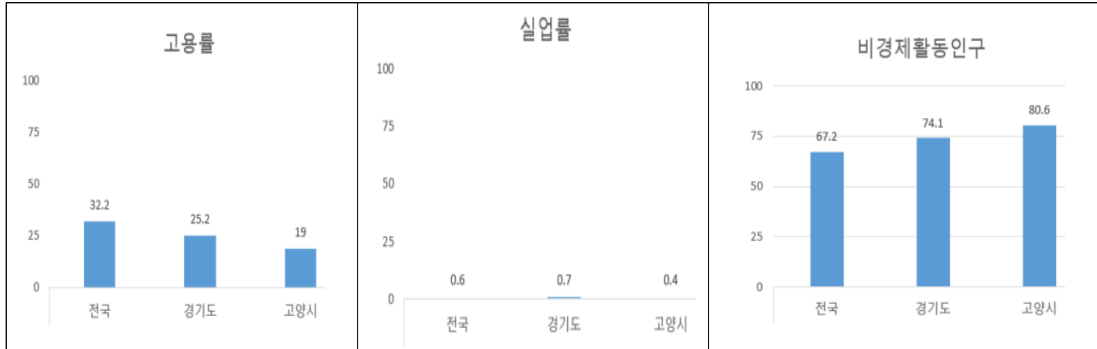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청년	중장년	노년	전체
고용률	전국	61.6	72.6	32.2	61.5
	경기도	63.4	72.3	25.2	62.0
	고양시	62.2	70.9	19.0	59.9
실업률	전국	3.9	1.9	0.6	2.3
	경기도	3.8	2.0	0.7	2.5
	고양시	3.2	1.2	0.4	1.7
비경제 활동인구	전국	34.6	25.5	67.2	36.2
	경기도	32.8	25.7	74.1	35.5
	고양시	34.5	27.9	80.6	38.4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9, 하반기)

[그림 6-7] 고양시 노인의 경제활동 현황 타지역 비교

(단위: %)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9, 하반기)

고양시 노인의 고용률을 전기노인, 중기노인, 후기노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전기노인 30.5%, 중기노인 7.7%, 후기노인 0.0%로 전기노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기노인의 68.7%도 비경제활동인구로 파악되고 있어 노년기 진입 후 경제활동에 대한 의향을 가진 고양시 노인의 비중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14] 고양시 노인의 경제활동 현황

(단위: %)

구분	전기노인	중기노인	후기노인	전체
고용률	30.5	7.7	0.0	19.0
실업률	0.8	0.0	0.0	0.4
비경제활동인구	68.7	92.3	100.0	80.6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9, 하반기)

노인연령대별 전국과 경기도 고용률을 비교해 보면 고양시는 전기, 중기, 후기 노인 전반적으로 전국과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표 6-15] 지역별 노인 고용률 비교

구분	전기노인	중기노인	후기노인	전체
전국	40.8	24.3	7.8	32.2
경기도	35.0	15	4	25.2
고양시	30.5	7.7	0.0	19.0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9, 하반기)

고양시 전기노인 중 남성의 고용률이 50.9%로 연령 및 성별로 구분한 노인집단 중 가장 높은 경제활동 참여집단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경제활동인구집단인 여성 전기노인의 고용률 15.1%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중기노인의 경우에도 남성의 고용률(10.5%)이 여성 고용률(5.7%)의 2배 가량 되었다.

남녀 모두 전기노인이 중기노인에 비해 고용률이 높으며, 중기노인의 경우에는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파악되고 있어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기노인 여성 84.2%, 남성 48.2%, 중기노인 여성 94.3%, 남성 89.5%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후기노인의 경우는 성별과 무관하게 모두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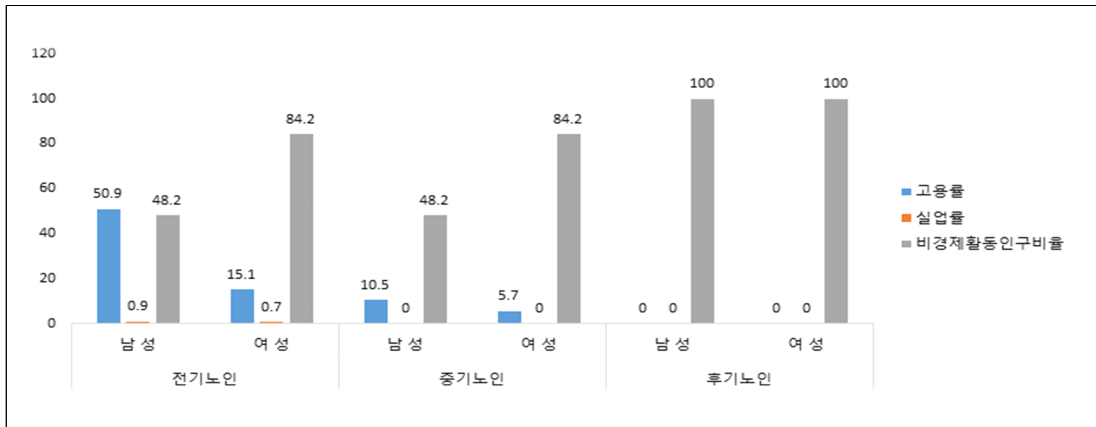
[표 6-16] 고양시 노인의 성별 경제활동 현황

(단위: %)

구분		고용률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비율
전기노인	남 성	50.9	0.9	48.2
	여 성	15.1	0.7	84.2
	전 체	30.5	0.8	68.7
중기노인	남 성	10.5	0.0	89.5
	여 성	5.7	0.0	94.3
	전 체	7.7	0.0	92.3
후기노인	남 성	0.0	0.0	100.0
	여 성	0.0	0.0	100.0
	전 체	0.0	0.0	100.0
전체		19.0	0.4	80.6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9, 하반기)

[그림 6-8] 고양시 노인의 성별 경제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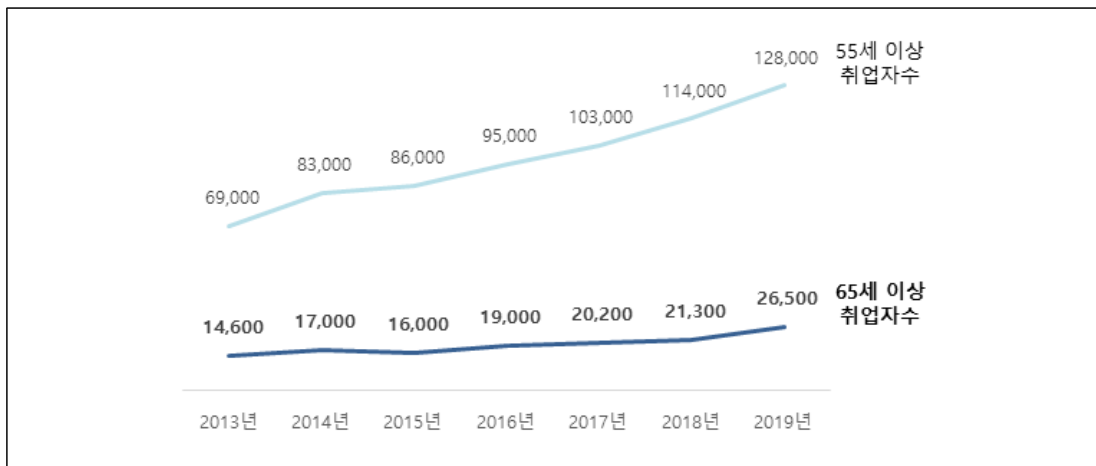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9, 하반기)

(1) 고양시 고령자 취업자수 변화 추이-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65세 이상 취업자는 2013년 14,600명에서 2019년 26,500명으로 약 12,000명 정도 증가하였으며, 고용률은 2013년 15.3%에서 2019년 20.2%로 증가하였다.

[그림 6-9] 고양시 고령자 취업자수 변화 추이(2013~2019)

(단위: 명)

**[표 6-17] 고양시 고령자 취업자수 변화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취업자	65세 이상	14,600	17,000	16,000	19,000	20,200	21,300	26,500
	55세 이상	69,300	83,300	85,800	95,200	102,600	113,800	127,900
고용률	65세 이상	15.3%	16.8%	14.9%	16.9%	17.2%	17.3%	20.2%
	55세 이상	37.2%	41.2%	39.1%	40.1%	40.5%	42.4%	44.8%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지역별 고용조사 - 시군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인출일 2020.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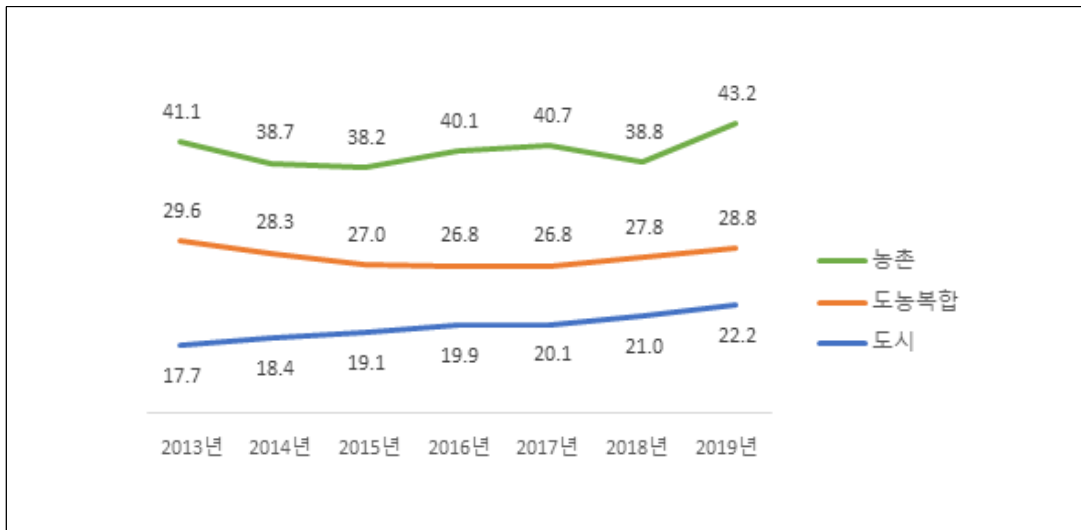
(2) 경기도 지역유형별 노인 고용률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의하면 도시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이 도농복합도시 및 농어촌지역보다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어촌지역의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노인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도시지역에 속하는 고양시의 노인 고용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9년 기준 20.2%로 도시지역 평균 22.2% 보다도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 24.0%, 성남시 22.9% 보다 낮은 수치임).

[그림 6-10] 경기도 지역유형별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2013~2019)

(단위: %)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http://kosis.kr>) 시군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인출일 2020.3.3.

[표 6-18] 경기도 지역유형별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2013~2019)

(단위: %)

구분	경기도 지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농촌지역 평균	3개군	41.1	38.7	38.2	40.1	40.7	38.8	43.2
도농복합지역 평균	12개시	29.6	28.3	27	26.8	26.8	27.8	28.8
도시지역 평균	16개시	17.7	18.4	19.1	19.9	20.1	21	22.2

구분	경기도 지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농촌	연천군	35.3	35	37.1	38.6	43	41.7	45.7
농촌	가평군	47.3	45.5	41	44.5	40.9	37.1	41.9
농촌	양평군	40.8	35.7	36.5	37.1	38.2	37.5	41.9
도농복합도시	이천시	35.2	35.9	37.1	35.6	37.8	39.9	40.6
도농복합도시	안성시	42.7	45.3	42.1	38.8	36.7	37	37.2
도농복합도시	포천시	33.1	27	26.9	30	30.6	36.1	36.6
도농복합도시	화성시	32	31.3	30.5	30.3	29.4	33.2	35.5
도농복합도시	여주시	35.9	29.7	30.1	28.8	29.8	30.6	30.9
도농복합도시	평택시	29.1	33.3	26.0	26.6	27.0	26.6	27.1
도농복합도시	파주시	27.0	26.1	24.1	25.1	24.7	26.3	26.9
도농복합도시	양주시	25.2	20.6	17.2	19.6	22.2	21.7	25.1
도농복합도시	광주시	21.7	21.9	22.4	20.5	21.7	25	23.2
도농복합도시	김포시	31	30.5	28.7	27.2	24.9	20.3	22.5
도농복합도시	남양주시	24.1	19.3	18.2	20.1	17.4	17.7	20.6
도농복합도시	용인시	19	19.6	20.6	19.3	19.7	19.7	20.3
도시	시흥시	15.6	18.4	21.1	19.6	18.4	21.5	28.1
도시	하남시	20.3	20.3	22.0	20.1	26.2	28.9	26.5
도시	안산시	15.8	15.5	20.7	21.9	18.4	18.7	25.8
도시	오산시	18.2	19.6	23.4	23.5	24	27.9	25.3
도시	광명시	15.9	17.7	16.7	16.8	19.3	19.4	24.1
도시	수원시	22.4	23.2	21.3	19.6	22	24.5	24.1
도시	부천시	15.4	20.7	19.1	21.7	20.3	21.3	23
도시	성남시	24.5	21.7	22.6	25.2	21.4	22.6	22.9
도시	안양시	18.3	18.8	17.9	19.4	20.5	22.6	22.7
도시	의왕시	16	18.5	19.3	19.1	19.4	20.7	21.4
도시	고양시	15.3	16.8	14.9	16.9	17.2	17.3	20.2
도시	의정부시	12.8	13.5	16.2	16.7	17.5	19.3	19.4
도시	동두천시	17	18.9	19.6	16.9	18.8	18.3	19.4
도시	구리시	21.4	17.4	19.6	23.3	21.3	19.7	19.4
도시	군포시	16.6	17.5	17.2	20.3	19.5	18.9	18.5
도시	과천시	18.7	16.4	14	18.3	17.5	14.1	15.1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http://kosis.kr>) 시군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인출일 2020.3.3.

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6.1%로 타지역에 비해 매우 높음

고양시 노인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가 36.1%, 임시근로자 27.8%,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9.0%,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1.6%, 일용근로자 4.3%, 무급가족 종사자 1.1%로 나타났다.

전기노인은 상용근로자 38.7%, 임시근로자 25.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1.1%,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1.2%, 일용근로자 2.5%로 전체 노인의 종사상 지위와 동일한 순서를 보여주었다. 반면 중기노인은 임시근로자 42.9%가 가장 많고, 상용근로자 21.4%, 일용근로자 14.5%,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4.1%,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7.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노인집단이 연령이 낮은 노인집단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6-19] 고양시 노인의 종사상 지위와 타지역 노인 비교

(단위: %)

구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 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 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국	전기노인	20.5	23.3	6.4	5.0	33.0	11.9
	중기노인	4.3	35.7	4.0	2.5	40.7	12.6
	후기노인	1.8	36.3	2.2	2.6	47.1	9.9
	전 체	15.8	26.9	5.7	4.3	35.3	12.0
경기도	전기노인	31.2	25.1	6.9	5.7	25.4	5.7
	중기노인	13.4	39.9	6.1	4.2	29.5	6.9
	후기노인	7.4	38.3	9.5	4.8	32.4	7.6
	전 체	27.2	28.4	6.7	5.3	26.4	6.0
고양시	전기노인	38.7	25.2	2.5	11.2	21.1	1.3
	중기노인	21.4	42.9	14.5	14.1	7.1	0.0
	후기노인	-	-	-	-	-	-
	전 체	36.1	27.8	4.3	11.6	19.0	1.1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9, 하반기)

앞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국 및 경기도 노인의 종사상 지위와 비교하면 고양시 노인의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고, 임시근로자 비율은 비교적 유사하며, 일용근로자 비율은 전기노인의 경우 고양시가 낮고, 중기노인의 경우 고양시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자영업자 역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비율이 고양시가 더 높게 나타났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전혀 없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경제활동 중인 고양시 노인은 타지역 경제활동 참여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고용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성별로 살펴볼 경우 전기노인 여성 상용근로자(31.8%)가 남성 상용근로자(41.4%)에 비해 그 비율이 낮은 반면, 임시근로자는 여성 50.0%, 남성 15.5%, 일용근로자는 여성 4.6%, 남성 1.7%로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확연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노인의 경우에도 수치상 전기노인과 차이는 있지만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는 남성노인은 전무한 반면 전기여성 노인 중 4.6%는 무급가족종사자로 확인되었다. 종사상 지위의 연령별, 성별 비중을 종합해 볼 때 연령이 높은 여성노인의 종사상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표 6-20] 고양시 노인의 성별 종사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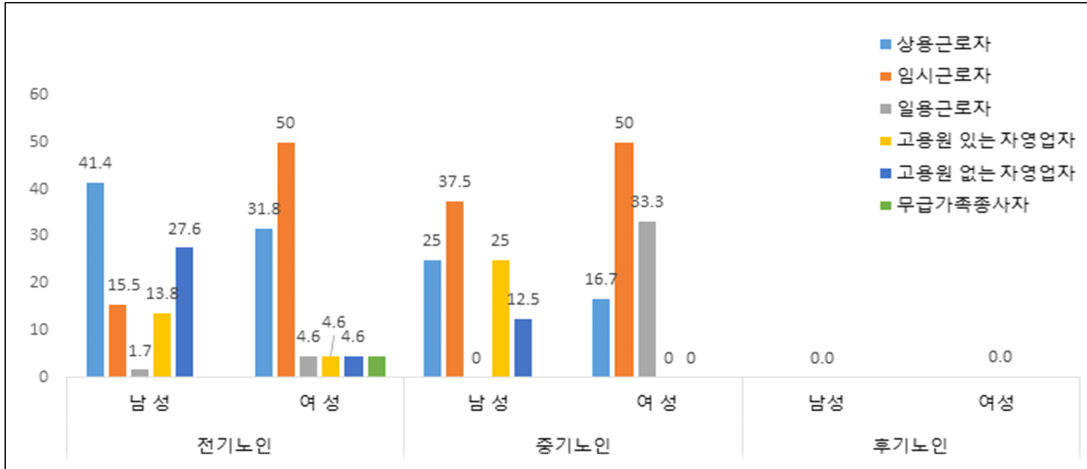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기노인	남 성	41.4	15.5	1.7	13.8	27.6	0.0
	여 성	31.8	50.0	4.6	4.6	4.6	4.6
	전 체	38.7	25.2	2.5	11.2	21.1	1.3
중기노인	남 성	25.0	37.5	0.0	25.0	12.5	0.0
	여 성	16.7	50.0	33.3	0.0	0.0	0.0
	전 체	21.4	42.9	14.5	14.1	7.1	0.0
후기노인	남 성	-	-	-	-	-	-
	여 성	-	-	-	-	-	-
	전 체	-	-	-	-	-	-
계		36.1	27.8	4.3	11.6	19.0	1.1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9, 하반기)

[그림 6-11] 고양시 노인의 성별 종사상 지위

(단위: %)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9, 하반기)

3) 월평균 임금 - 월평균임금 187만원으로 중장년층의 절반수준

최근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고양시 노인의 월평균 임금은 186.77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양시 중장년 월평균 임금인 357.49만 원의 절반 수준이며, 고양시 청년 월평균 임금의 70% 정도 수준이다.

그러나 전국 노인의 월평균 임금이 124.43만원, 경기도 노인의 월평균 임금이 149.80만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양시 노인의 월 소득이 타 지역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고양시의 경우 청년 월평균 임금은 타 지역과 유사한 반면 중장년 이상의 세대는 타 지역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며, 세대를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다도 타 지역에 비해 고양시 소득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성별로 살펴보면 고양시 여성 전기노인의 월평균 임금이 남성 전기노인에 비해 88만 원 이상 적으며, 여성 중기노인은 남성 중기노인에 비해 66만원 이상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전기노인, 중기노인 두 집단 모두 남성에 비해 여성의 월평균 임금 표준편차가 적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여성 노인의 경우는 남성 노인에 비해 낮게 형성된 평균임금이 큰 편차 없이 집단 내 보편적 임금수준으로 상용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표 6-21] 고양시 노인의 지역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구분	청년	중장년	노년	전체
전 국	254.63	308.97	124.43	275.40
경기도	260.49	318.91	149.80	286.31
고양시	257.53	357.49	186.77	310.81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8)

[표 6-22] 고양시 노인의 성별 월평균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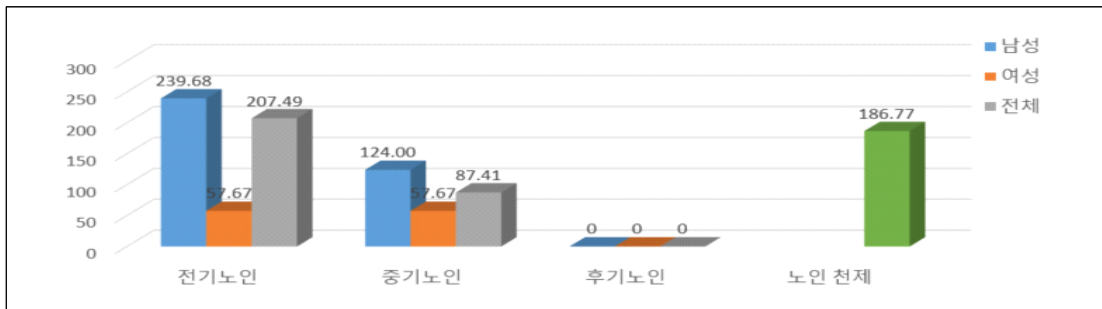
(단위: 만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기노인	남 성	239.68	217.076
	여 성	151.32	93.224
	전 체	207.49	186.896
중기노인	남 성	124.00	63.773
	여 성	57.67	40.343
	전 체	87.41	61.717
후기노인	남 성	-	-
	여 성	-	-
	전 체	-	-
총		186.77	177.817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9, 하반기)

[그림 6-12] 고양시 노인의 성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9, 하반기)

4) 직업분포 - 단순노무종사자가 36.3%로 가장 많음

고양시 노인의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가 36.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4.8%, 서비스종사자 10.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판매종사자가 각각 9.6%, 사무종사자 6.4%,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6.3%, 관리자 3.2% 순이었다.

이 결과를 서울시 및 경기도 노인의 직업분포와 비교해 본 결과, 단순노무종사자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고양시의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세 지역 중 가장 낮았다. 반면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비율은 고양시가 타지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23] 고양시 및 타지역 노인 직업분포

(단위: %)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서울시	전기노인	2.2	9.1	5.5	10.5	11.4	0.5	8.9	13.5	38.4
	중기노인	1.6	6.8	4.0	10.0	7.6	1.2	2.8	4.9	61.0
	후기노인	0.0	0.0	10.1	0.0	9.8	10.1	0.0	10.1	59.8
	전 체	2.0	8.6	5.3	10.4	10.7	0.7	7.7	11.9	42.6
경기도	전기노인	1.2	6.2	3.7	10.0	7.8	13.1	6.0	13.1	38.9
	중기노인	0.6	4.6	2.6	8.7	3.5	29.8	0.6	2.9	46.6
	후기노인	4.3	2.7	1.6	4.0	3.7	37.1	0.0	3.8	42.9
	전 체	1.1	5.8	3.5	9.6	6.8	17.0	4.8	10.8	40.6
고양시	전기노인	3.7	10.0	7.5	8.8	10.0	3.7	7.4	16.2	32.6
	중기노인	0.0	7.1	0.0	21.4	7.1	0.0	0.0	7.1	57.4
	후기노인	-	-	-	-	-	-	-	-	-
	전 체	3.2	9.6	6.4	10.7	9.6	3.2	6.3	14.8	36.3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9, 하반기)

고양시 전기노인 및 중기노인 모두 성별과 무관하게 단순노무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전기노인의 경우 여성의 45.4%, 남성의 27.6%가 단순노무종사자였고, 중기노인의 경우 여성이 83.3%로 극단적인 수치에 달하였으며, 남성은 37.5%로서 전기노인에 비해 단순 노무종사자 비율이 확연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기 및 중기노인 집단 모두 여성이 관리자로 일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다수의 여성 노인이 주로 서비스종사자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6-24] 고양시 노인의 연령별·성별 직업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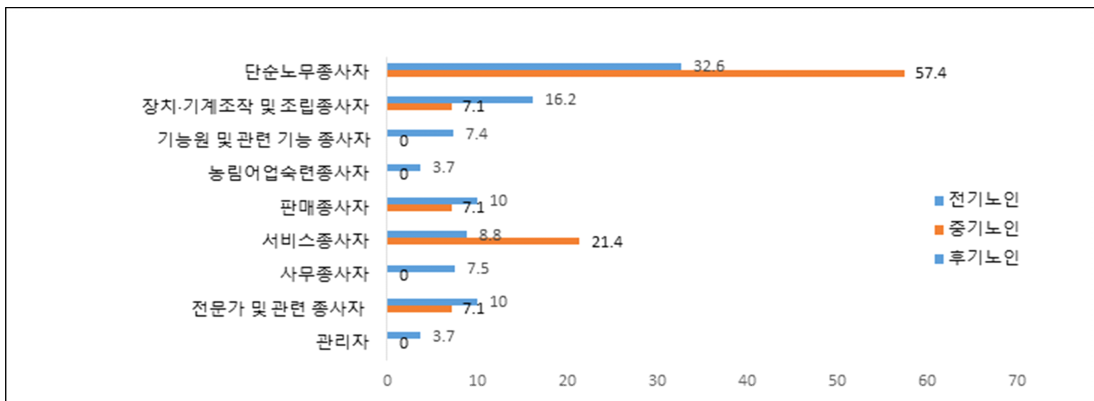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전기노인	남	5.2	10.3	6.9	3.4	10.3	5.2	10.3	20.7	27.6
	여	0.0	9.1	9.1	22.7	9.1	0.0	0.0	4.6	45.4
	전체	3.7	10.0	7.5	8.8	10.0	3.7	7.4	16.2	32.6
중기노인	남	0.0	12.5	0.0	25.0	12.5	0.0	0.0	12.5	37.5
	여	0.0	0.0	0.0	16.7	0.0	0.0	0.0	0.0	83.3
	전체	0.0	7.1	0.0	21.4	7.1	0.0	0.0	7.1	57.4
후기노인	-	-	-	-	-	-	-	-	-	-
총		3.2	9.6	6.4	10.7	9.6	3.2	6.3	14.8	36.3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9, 하반기)

[그림 6-13] 고양시 노인의 직업분포

(단위: 만원)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9, 하반기)

5) 종사산업 분포-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은 임대서비스업(18.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

고양시 노인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영역은 사업시설 관리 및 임대서비스업으로서 18.1%였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0%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기노인의 종사산업 분포는 사업시설 관리 및 임대서비스업이 18.7%로 가장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 12.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5%, 도매 및 소매업 11.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기노인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36.0%로 단연 높고, 사업시설 관리 및 임대서비스업이 14.3%로 그 뒤를 이었으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3%), 교육서비스업(7.1%), 도매 및 소매업(7.1%), 가구 내 고용활동 및 기타(7.1%)가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6-25] 고양시 노인의 종사산업 분포

(단위: %)

구분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노인	5.0	8.7	6.2	11.3	9.9	12.6
중기노인	0.0	0.0	0.0	7.1	0.0	0.0
후기노인	-	-	-	-	-	-
전 체	4.3	7.4	5.3	10.6	8.4	10.7
구분	사업시설 관리 및 임대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가구 내 고용활동 및 기타
전기노인	18.7		6.2	12.5	1.3	1.3
중기노인	14.3	7.3	7.1	36.0	0.0	7.1
후기노인	-	-	-	-	-	-
전 체	18.1	1.1	6.4	16.0	1.1	2.1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9, 하반기))

6) 사업체 소재지 - 고양시 소재 사업체 62.9%, 서울시 22.3%

고양시 노인의 직장은 고양시에 소재하는 경우가 62.9%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22.3%, 파주 10.6%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노인의 경우 남성 전기노인의 55.2%, 여성 전기노인의 77.3%가 고양시에서 일하고 있어 성별과 무관하게 고양시 거주, 고양시 경제활동 노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기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별과 무관하게 고양시 거주, 고양시 경제활동 노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에는 전기노인 및 중기노인 모두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각각 25.9%, 25.0%로 높은 편이었으며, 남성 전기노인은 서울 외에도 파주시(12.1%), 김포시(3.4%), 연천군(1.7%) 등 인근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반면 남성 중기노인의 근무지로 서울 외 타지역으로는 파주가 25.0%를 점하고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고양시와 가까운 거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6-26] 고양시 노인의 재직 사업체 소재지

(단위: %)

구분		고양시	서울시	김포시	안양시	파주시	연천군
전기노인	남성	55.2	25.9	3.4	1.7	12.1	1.7
	여성	77.3	18.2	0.0	0.0	4.6	0.0
	전체	61.4	23.7	2.5	1.2	10.0	1.2
중기노인	남성	50.0	25.0	0.0	0.0	25.0	0.0
	여성	100.0	0.0	0.0	0.0	0.0	0.0
	전체	71.8	14.1	0.0	0.0	14.1	0.0
후기노인	-	-	-	-	-	-	-
전체		62.9	22.3	2.1	1.1	10.6	1.1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9, 하반기)

7) 고용 관련 만족도 - 임금수준과 고용안정성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편

노인의 고용 관련 만족도는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3.42점으로 가장 높았고, 근로시간 3.29점, 근무환경 3.20점, 고용안정성 3.11점이 그 뒤를 이었으며, 임금수준이 3.04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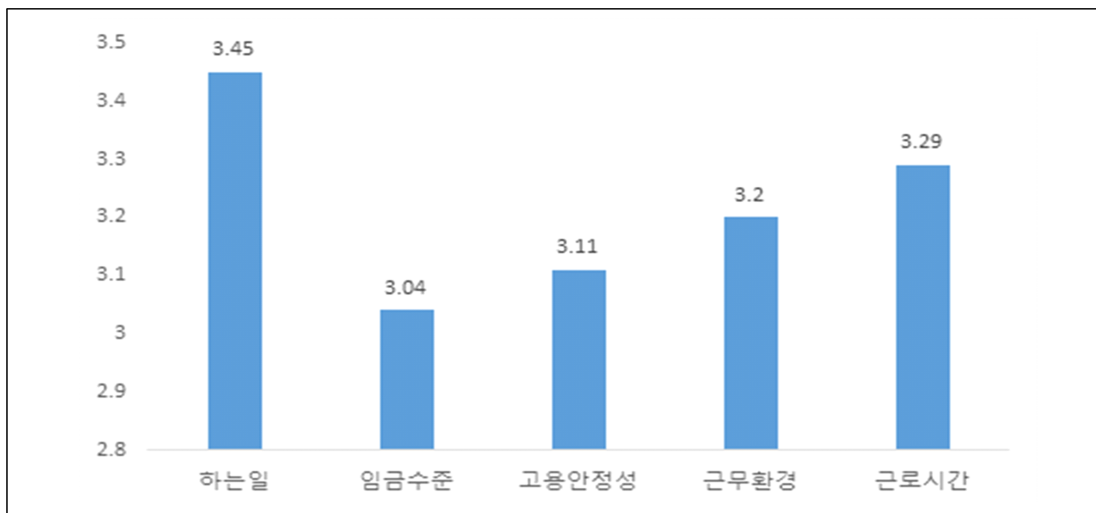
전기노인의 고용 관련 만족도가 중기노인의 만족도에 비해 대체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전기노인은 전 영역에서 3점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 보통 수준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기노인의 영역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하는 일(3.44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근로시간(3.36점), 근무환경(3.27점), 고용안정성(3.13점), 임금수준(3.09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기노인의 경우는 하는 일(3.30점)을 제외하고는 고용안정성(2.95점), 근로시간(2.92점), 근무환경(2.82점), 임금수준(2.73점)에서 3점 미만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기노인과 중기노인 모두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림 6-14] 고양시 노인의 고용 관련 만족도

(단위: 점)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9) 1: 매우 불만족 5: 매우 만족

[표 6-27] 고양시 노인의 고용 관련 만족도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하는 일	전기노인	3.44	1.01958
	중기노인	3.30	0.88011
	후기노인	-	-
	전 체	3.45	1.00012
임금수준	전기노인	3.09	1.04734
	중기노인	2.73	0.94208
	후기노인	-	-
	전 체	3.04	1.03995
고용안정성	전기노인	3.13	1.04284
	중기노인	2.95	0.70185
	후기노인	-	-
	전 체	3.11	0.99929
근무환경	전기노인	3.27	1.09945
	중기노인	2.82	0.94704
	후기노인	-	-
	전 체	3.20	1.08924
근로시간	전기노인	3.36	1.07834
	중기노인	2.92	1.03249
	후기노인	-	-
	전 체	3.29	1.08296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9) 1: 매우 불만족 5: 매우 만족

8) 일자리 선택의 주요 고려사항 - 수입,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함

고양시 노인이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수입, 고용안정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중기, 후기노인 모두 공통적으로 수입을 1순위로 꼽았다.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은 안정성, 장래성·발전성, 보람·자아성취, 적성·흥미 순으로 고려한다고

답하였으며, 중기노인은 안정성, 장래성·발전성, 적성·흥미, 보람·자아성취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연령 및 성별로 살펴보면 전기노인의 경우 남성(35.7%), 여성(41.2%) 모두 수입을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점으로 꼽았다. 또한 그 다음으로 고용의 안정성, 장래성·발전성, 보람·자아성취, 적성·흥미 순으로 나타난 것도 성별과 무관한 양상으로 파악된다.

반면 중기노인의 경우 남성은 수입(36.6%)을 일자리 선택의 가장 중요한 점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전기노인과 동일하지만, 여성은 고용안정성(33.6%)을 가장 중시하였다. 후기노인의 경우는 중기노인과 달리 남성이 고용안정성(33.3%), 여성이 수입(41.1%)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전기, 중기, 후기노인 모두 일의 내용보다는 수입과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현실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28] 고양시 노인의 일자리 선택시 주요 고려사항

(단위: 점)

구분		수입	고용의 안정성	장래성, 발전성	보람, 자아성취	적성, 흥미	기타
전기노인	남 성	35.7	29.2	12.4	11.9	10.8	0.0
	여 성	41.2	30.9	10.8	9.1	7.9	0.0
	전 체	38.6	30.1	11.6	10.4	9.3	0.0
중기노인	남 성	36.6	29.7	14.7	7.8	10.3	0.9
	여 성	31.9	33.6	17.8	6.1	8.3	2.3
	전 체	33.9	31.9	16.5	6.8	9.2	1.7
후기노인	남 성	29.1	33.3	20.9	12.5	4.2	0.0
	여 성	41.1	23.0	24.8	5.7	5.3	0.0
	전 체	37.1	26.5	23.5	8.0	4.9	0.0
총		36.7	30.4	14.6	8.8	8.8	0.6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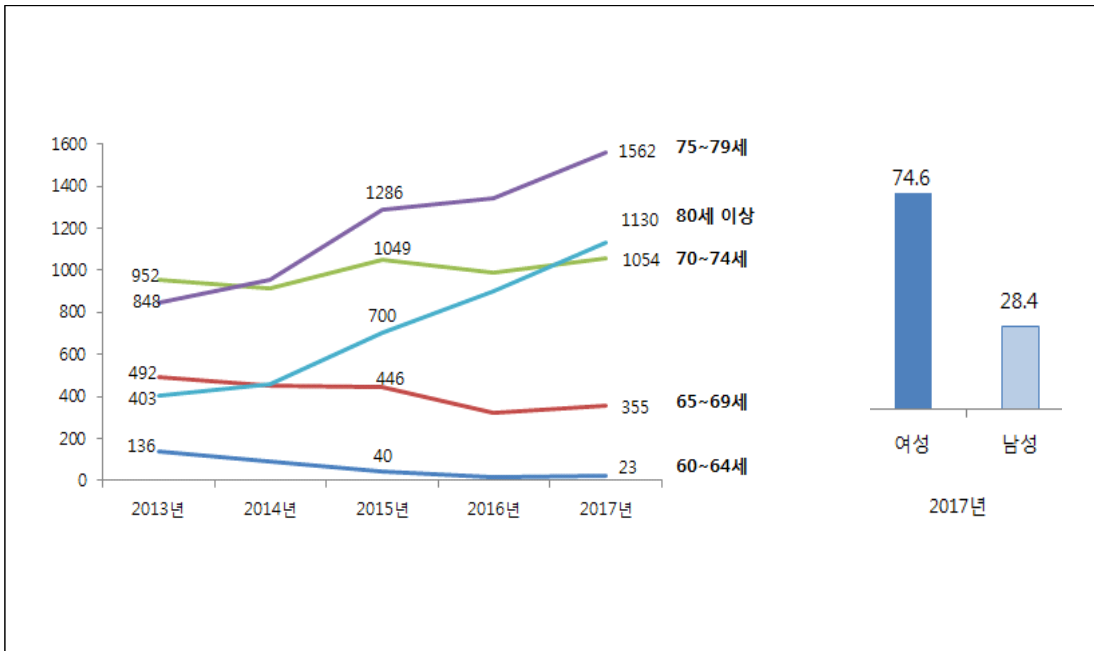
9) 고양시 노인일자리 자원사업 참여자 - 75세 이상 65.3%, 여성 71.6%

고양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동기는 경제적 도움 76.2%, 사회참여 9.2%, 자기발전 7.6% 순으로 경제적 동기의 비중이 가장 크다.

참여자수는 2013년 2,831명에서 2017년 4,12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원사업의 확대에 계속 증가하고 있다(2019년 5,146명). 참여자 중 75세 이상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기준 75~79세 37.9%, 80세 이상 27.4%, 70~74세 25.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2,954명(71.6%), 남성 1,170명(28.4%)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발 시 여성 고령노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6-15] 고양시 노인일자리 자원사업 참여자수

(단위: 명, %)



<출처> 문정화유선차임연목, 『고양시 노인복지 기반시설 구축 방안 연구』, 고양시정연구원, p. 49.

* 원자료 : 고양시, 『2018년 제1회 고양시 노인복지통계 보고서』, 2018. 데이터 추출 후 도표 구성.

2. 고양시 노인의 여가문화

1) 평생교육 경험-경험률 22.6%로 중기노인의 참여율이 가장 높음

고양시 노인 중 지난 1년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노인은 22.6%에 불과하였다. 전기노인은 19.2%, 중기노인은 27%, 후기노인은 17.4%로 중기노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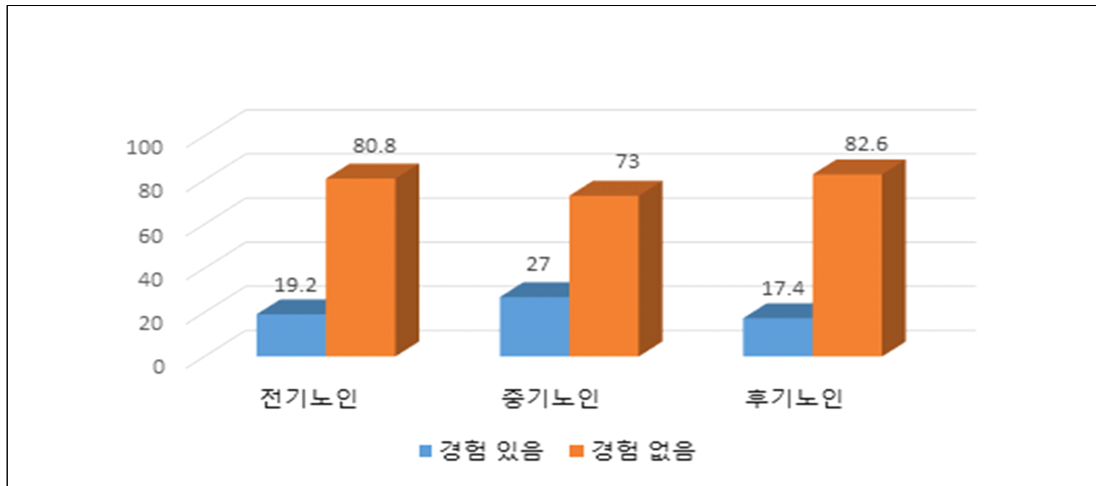
[표 6-29] 고양시 노인의 평생교육 경험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전기노인	19.2	80.8
중기노인	27.0	73.0
후기노인	17.4	82.6
전 체	22.6	77.4

<자료> 고양시민 행복실태조사 (2020)

[그림 6-16] 고양시 노인의 평생교육 경험

(단위: %)



<자료> 고양시민 행복실태조사 (2020)

2) 평생교육 미참여 이유 - 프로그램 정보가 없어서 38.1%

평생교육 미참여는 ‘프로그램 정보가 없어서’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18.7%)’와 ‘비용 때문에(18.1%)’가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그 이유가 다소 상이했는데, 전기노인 경우 ‘프로그램 정보가 없어서’가 36.2%로 가장 많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25.3%, ‘비용 때문에’가 15.4%로 주요 이유로 손꼽혔다. 중기노인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정보가 없어서’가 38.9%로 가장 많은 이유였지만 두 번째 이유는 ‘비용 때문에(21.3%)’, 세 번째 이유는 ‘집 근처에 시설이 없어서(14.5%)’로 나타났다.

한편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이 없어서’도 전기노인 9.7%, 중기노인 11.4%에 달하고 있어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부재가 평생교육 미참여 이유의 10% 전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조사결과로 보인다.

[표 6-30] 고양시 노인 평생교육 미참여 이유

(단위 : %)

구분	프로그램 정보가 없어서	비용 때문에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집근처에 시설이 없어서	기타
전기노인	36.2	15.4	9.7	25.3	13.4	0.0
중기노인	38.9	21.3	11.4	12.1	14.5	1.8
후기노인	100.0	0.0	0.0	0.0	0.0	0.0
전 체	38.1	18.1	10.4	18.7	13.8	0.9

<자료> 고양시 지역사회보장담당부서 (2018)

3) 사회공헌활동(자원봉사, 후원) 경험 - 11.6% 자원봉사, 14.9% 후원 경험 있음

고양시 노인의 사회공헌활동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자원봉사 유경험자는 11.6%, 후원 유경험자는 1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노인 중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15.4%, 후원 경험이 있는 사람은 19.5%였으며, 중기노인은 자원봉사 경험자가 10.1%, 후원 경험자가 12.4%, 후기노인 중 자원봉사 경험자는 4.3%, 후원경험자는 9.1%로 매우 낮았다.

[표 6-31] 고양시 노인의 사회공헌 활동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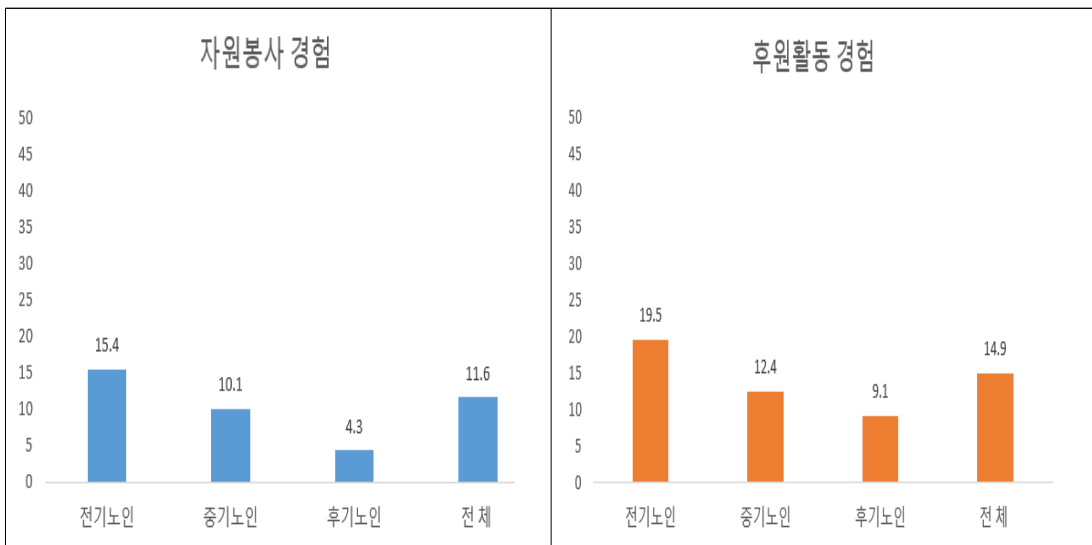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회공헌 활동 경험	
	자원봉사경험 有	후원경험 有
전기노인	15.4	19.5
중기노인	10.1	12.4
후기노인	4.3	9.1
전 체	11.6	14.9

〈자료〉 고양시민 행복실태조사 (2020)

[그림 6-17] 고양시 노인의 사회공헌활동 경험

(단위 : %)



〈자료〉 고양시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2018)

4) 선거투표참여 - 60세 이상 인구의 63.6%, 전체 평균보다 높음

60세 이상 인구의 '2018년도 제7회 지방선거' 투표참여율은 63.6%로 고양시 전체 인구의 투표참여율 58.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17년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및 '2016년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60세 이상 투표참여율 역시 각각 79.9%, 68.9%로 고

양시 전체 투표참여율(대통령선거 78.8%, 국회의원선거 59.8%)보다 높게 나타났다.

5) 정기모임 - 33.4%는 정기모임이 없고 30.2%는 2개 정기모임이 있음

고양시 노인이 평소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개수를 살펴본 결과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3.4%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2개의 정기모임을 갖는 노인이 30.2%, 1개 28.9%, 3개 4.3%, 4개 이상 3.3% 순이었다.

전기노인은 2개의 정기모임을 가진 경우가 가장 많아 35.3%였고, 중기노인은 없는 경우가 37.9%, 1개 있는 경우가 30.4%, 2개 25.2%였다.

[표 6-32] 고양시 노인의 정기모임 수

(단위: %)

구 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이상
전기노인	28.2	27.9	35.3	3.4	5.2
중기노인	37.9	30.4	25.2	5.3	1.2
후기노인	100.0	0.0	0.0	0.0	0.0
전 체	33.4	28.9	30.2	4.3	3.3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9)

6) 주말·휴일 여가생활 - 68.8%는 여가생활로 TV 시청을 하고 있음

고양시 노인의 주말과 휴일 여가활동 내용을 살펴본 결과, TV시청이 68.8%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기노인, 중기노인, 후기노인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은 활동은 수면, 사우나 등과 같은 휴식활동으로서 9.3%였다. 그 뒤는 봉사, 종교 등의 사회 및 기타활동이 5.2%, 스포츠활동 4.1%, 문화예술관람 3.9%, 요리, 독서 등의 취미·자기계발 2.7% 순이었고, 순서상 연령별 차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표 6-33] 고양시 노인의 주말·휴일 여가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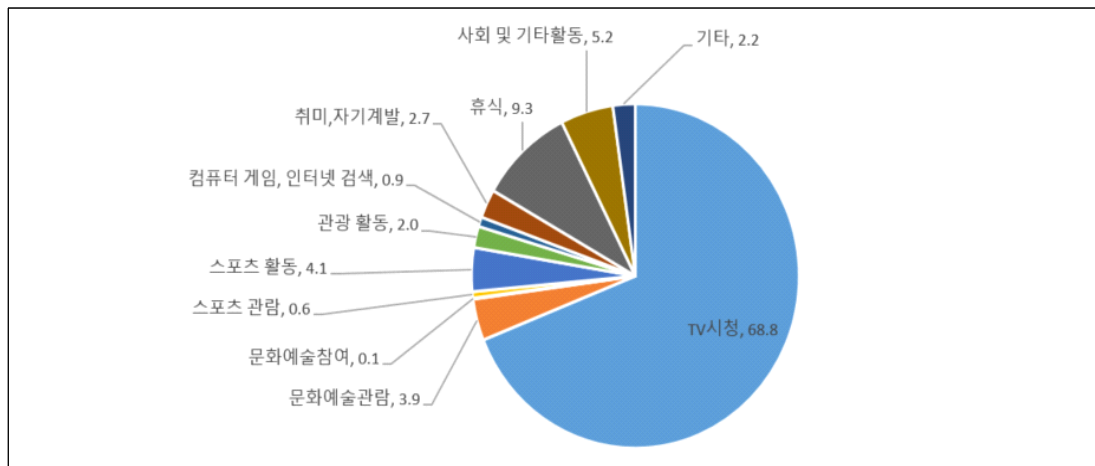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TV시청	문화예술관람 (연극, 영화, 연 주회 등)	문화예술참여 (미술활동, 악 기 연주 등)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축구, 테니 스, 골프 등)	관광 활동 (여행, 캠핑 등)
전기노인	63.9	6.3	0.0	1.1	6.0	3.5
중기노인	75.3	1.1	0.0	0.0	2.1	0.4
후기노인	70.9	1.4	1.3	0.0	1.9	0.0
전 체	68.8	3.9	0.1	0.6	4.1	2.0
구 분	컴퓨터게임, 인터넷검색	취미, 자기계발 (요리, 독서 등)	휴식활동 (수면, 사우나 등)	사회 및 기타활동(봉사, 종교 등)	기타	
전기노인	0.4	3.2	7.1	5.6	2.9	
중기노인	1.3	2.2	11.5	5.1	1.2	
후기노인	3.0	1.9	13.0	3.8	2.8	
전 체	0.9	2.7	9.3	5.2	2.2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9)

[그림 6-18] 고양시 노인의 주말·휴일 여가생활

(단위: %)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9)

7) 노후생활과 복지기관 이용 - 보건소 이용 69%로 가장 많음, 복지관 이용의향 70.4%

고양시 노인이 각종 노인복지 관련 시설을 이용한 경험을 살펴본 결과 보건소 이용 경험이 69.0%로 가장 많았고, 경로당 57.6%, 노인종합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36.3%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노인의 경우에는 보건소, 경로당, 복지관 외에 주간보호센터, 방문센터, 실버인력센터,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 이용 경험이 각각 5.0%에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기노인의 경우에는 경로당 이용경험이 있는 노인이 74.5%로 가장 많았고, 보건소 이용경험이 73.6%로 두 번째로 많았다. 또 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시설 이용경험자가 5.0% 전후로 나타났다. 후기노인의 경우에는 보건소와 경로당 외 노인복지 관련 시설 이용경험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4] 고양시 노인의 노인복지 관련 시설 이용 경험

(단위: %)

구 분	종합복지관 이용경험 有 (노인, 종합)	경로당 이용경험 有	보건소 이용경험 有	노인 시니어클럽 이용경험 有	고양 실버인력뱅크 이용경험 有
전기노인	32.3	41.3	64.1	3.5	4.0
중기노인	41.3	74.5	73.6	2.1	1.3
후기노인	0.0	100.0	100.0	0.0	0.0
전 체	36.3	57.6	69.0	2.8	2.7
구 분	주간보호센터 이용경험 有	방문센터 이용경험 有	재가노인 복지센터 이용경험 有	노인 장기요양시설 이용경험 有	
전기노인	5.2	4.7	4.0	4.0	
중기노인	2.8	3.6	5.4	4.0	
후기노인	0.0	0.0	0.0	0.0	
전 체	4.0	4.1	4.6	3.9	

〈자료〉 고양시 지역사회보장담당구조사 (2018)

노인복지 관련 시설에 대한 향후 이용 의향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보건소 이용에 대한 의향이 85.1%로 가장 높았고, 경로당 이용 의향은 75.9%, 노인 및 종합복지관 이용 의향은 70.4%로 나타났다.

더불어 실제 이용 경험이 많은 위의 세 유형의 노인복지 관련 시설 외에 재가노인복

지센터나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이용 의향이 30% 가까이 높게 나타났으며, 시니어클럽, 방문센터, 주간보호센터, 인력뱅크 등에 대한 이용 의향도 실제 이용 경험에 비해 높은 비율로 파악되었다.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 관련 시설의 확충 뿐 아니라 이용이 저조한 유형의 시설에 대한 점검과 활용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6-35] 고양시 노인의 노인복지 관련 시설 이용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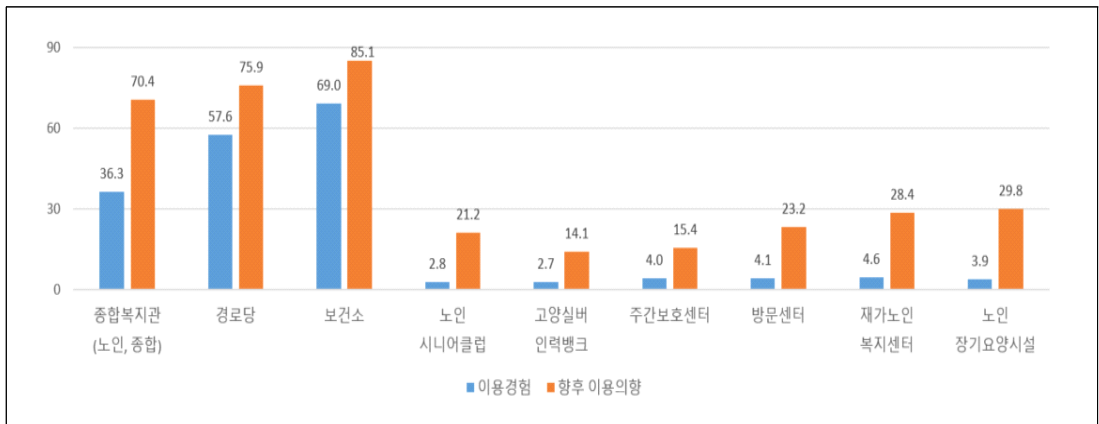
구 분	종합복지관 이용의향 有 (노인, 종합)	경로당 이용의향 有	보건소 이용의향 有	노인 시니어클럽 이용의향 有	고양 실버인력뱅크 이용의향 有
전기노인	66.7	70.2	82.2	18.2	15.7
중기노인	75.7	81.6	88.1	24.7	12.6
후기노인	0.0	100.0	100.0	0.0	0.0
전 체	70.4	75.9	85.1	21.2	14.1

구 분	주간보호센터 이용의향 有	방문센터 이용의향 有	재가노인 복지센터 이용의향 有	노인 장기요양시설 이용의향 有
전기노인	10.7	19.5	27.2	27.5
중기노인	20.8	27.6	30.2	32.8
후기노인	0.0	0.0	0.0	0.0
전 체	15.4	23.2	28.4	29.8

〈자료〉 고양시 지역사회보장담당자조사 (2018)

[그림 6-19] 고양시 노인의 노인복지 관련 시설 이용경험 및 향후 이용의향

(단위: %)



〈자료〉 고양시 지역사회보장담당자조사 (2018)

8) 노인복지관 이용 현황 - 만 70% 미만은 전체의 7.9%만이 안됨

노인의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 기관인 고양시 노인복지관의 65세 이상 회원수는 약 7만명(2019년 8월말 기준 71,748명)으로 노인인구(132,096명)의 54.3%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매달 100여명씩 신규회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복지관 3개의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약 7천명(2019년 1월 기준 7,111명)이며, 고양시 전체 경로당의 1일 이용인원은 약 1만7천명(2018년 1월 기준 17,968명)이다.

2019년 8월말 기준 고양시 노인복지관 이용회원의 절반 이상인 51.1%가 만 80세 이상이며, 92.2%가 만 70세 이상으로 노인복지관 이용 연령도 고령화되고 있다. 70세 미만 이용회원은 7.9%에 불과하다.

[표 6-36] 고양시 노인복지관 연령별 회원 현황(2019년 8월말 기준)

(단위 : 명, %)

구분	덕양노인복지관	일산노인복지관	대화노인복지관	계	연령별비율(%)
61~64세	313	591	170	1,074	1.5
65~69세	1,660	2,205	704	4,569	6.4
70~74세	4,347	5,070	2,215	11,632	16.2
75~79세	6,667	8,682	2,487	17,836	24.9
80~84세	6,665	10,321	1,711	18,697	26.1
85~89세	4,301	6,958	428	11,687	16.3
90세 이상	2,623	3,630	0	6,253	8.7
합 계	26,576	37,457	7,715	71,748	100

<출처> 문정화유산차임연육, 「고양시 노인복지 기반시설 구축 방안 연구」, 고양시정연구원, p. 144.

* 원자료 : 고양시 내부자료(2019.10.)

3. 고양시 노인 가족·사회적 관계

1) 홀몸노인(1인 가구) 여부 - 23.5%가 1인 가구

고양시 노인 중 홀몸노인은 23.6%로 나타났다. 전기노인 중 홀몸노인은 18.7%, 중

기노인 중 홀몸노인은 26.6%, 후기노인 중 홀몸노인은 37.3%로서, 1인 노인가구의 비율이 후기노인>중기노인>전기노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고령 홀몸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 6-37] 고양시 노인의 홀몸노인(1인 가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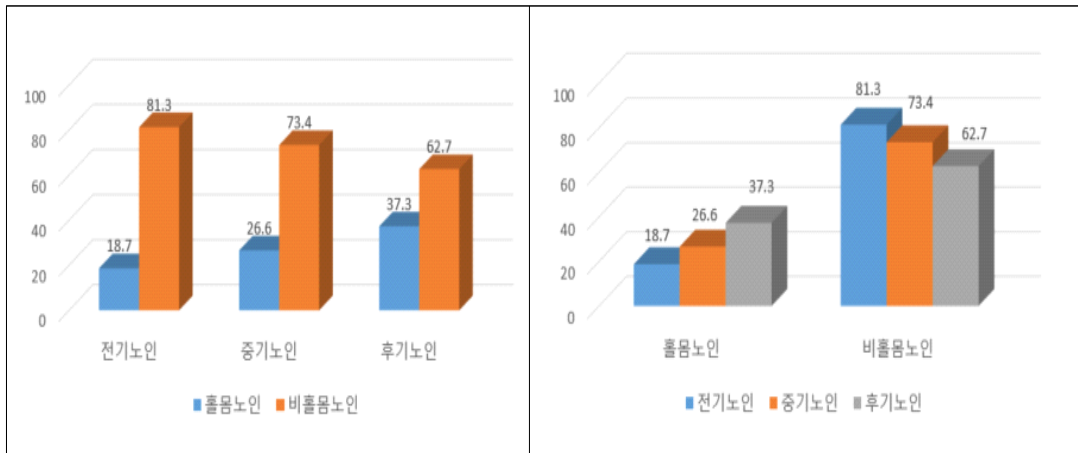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홀몸노인	비홀몸노인
전기노인	18.7	81.3
중기노인	26.6	73.4
후기노인	37.3	62.7
전 체	23.5	76.5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9)

[그림 6-20] 고양시 노인의 홀몸노인(1인 가구) 여부

(단위 : %)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9)

2) 가족관계 만족도 -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간이하로 가장 낮음

고양시 노인의 가족관계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 등과의 관계 및 전반적인 가족관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자기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3.98점으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평균 2.69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3.37점으로서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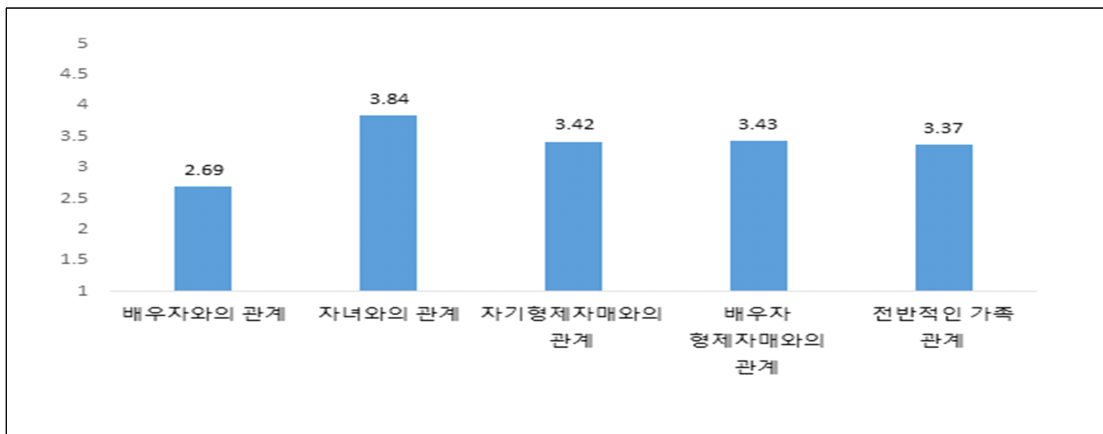
먼저 배우자와의 관계 항목을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전기노인, 중기노인, 후기노인이 각각 2.28점, 2.60점, 2.34점으로서 세 집단 평균이 모두 보통수준 이하인 동시에 다른 가족관계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장기화된 노년기를 부부가 함께 보내야 한다는 점에서 노인의 배우자 관계가 보통수준 이하라는 점을 고려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녀와의 관계 만족는 세 집단 모두 높았는데, 특히 중기노인이 4.09점, 후기노인이 4.08점으로 모든 관계만족도 영역에서 유일하게 4점 이상의 평균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자기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한 대체로 보통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만족도는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평균점수는 전기노인, 중기노인, 후기노인이 각각 3.37점, 3.40점, 3.32점으로 세 집단 모두 보통 수준을 조금 넘는 정도였으며,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중기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전기노인 및 후기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보다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21] 고양시 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점)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9) 1: 매우 불만족 5: 매우 만족

[표 6-38] 고양시 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평균
배우자와의 관계	전기노인	2.9	24.7	65.5	5.2	1.7	2.78
	중기노인	5.8	35.6	52.9	3.6	2.1	2.60
	후기노인	14.8	39.7	42.0	3.4	0.0	2.34
	전 체	4.6	29.3	59.9	4.5	1.7	2.69
자녀와의 관계	전기노인	1.6	5.6	34.1	35.8	22.9	3.73
	중기노인	1.0	2.6	23.1	33.2	40.2	4.09
	후기노인	0.0	0.0	36.0	20.0	44.0	4.08
	전 체	1.4	4.5	30.9	34.6	28.6	3.84
자기 형제자매와의 관계	전기노인	2.6	0.0	62.7	19.9	14.8	3.44
	중기노인	0.0	0.0	57.5	21.3	21.3	3.64
	후기노인	100.0	0.0	0.0	0.0	0.0	1.00
	전 체	4.3	0.0	60.5	19.7	15.5	3.42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전기노인	2.1	7.4	53.3	25.6	11.6	3.37
	중기노인	1.9	1.6	54.6	27.9	14.0	3.51
	후기노인	0.0	0.0	41.7	39.2	19.1	3.77
	전 체	2.0	5.2	53.2	27.0	12.7	3.43
전반적인 가족 관계	전기노인	2.9	5.6	53.6	27.9	10.1	3.37
	중기노인	2.8	6.3	53.5	23.6	13.9	3.40
	후기노인	0.0	8.0	64.4	14.8	12.8	3.32
	전 체	2.7	5.8	53.9	26.2	11.3	3.37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8)

3) 가사분담 - 공정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전체의 11.7%

고양시 노인의 46.9%는 가사를 ‘부인이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하는 상황이었으며, 공정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11.7%였다.

전기노인은 절반이 넘는 52.6%가 가사를 ‘부인이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하였으며,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경우가 31.6%로 그 뒤를 이어 전기노인 중 83.7%가 부인 중심의 가사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기노인의 경우에는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경우가 50.8%로 절반을 차지하고, ‘부인이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한다’가 35.7%로 나타나 1, 2위 내용이 전기노인과 뒤바뀐 양상을 보이지만 여전히 중기노인의 86.5%가 부인 중심의 가사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후기노인의 경우에도 부인 중심의 가사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은 전기노인, 중기노인과 다를 바 없지만 ‘부인이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한다’가 42.1%,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가 40.3%로 서로 유사한 비율을 보이면서 가사분담 방식의 내용에 있어 다소 차이점을 보여 주었다.

[표 6-39] 고양시 노인의 가사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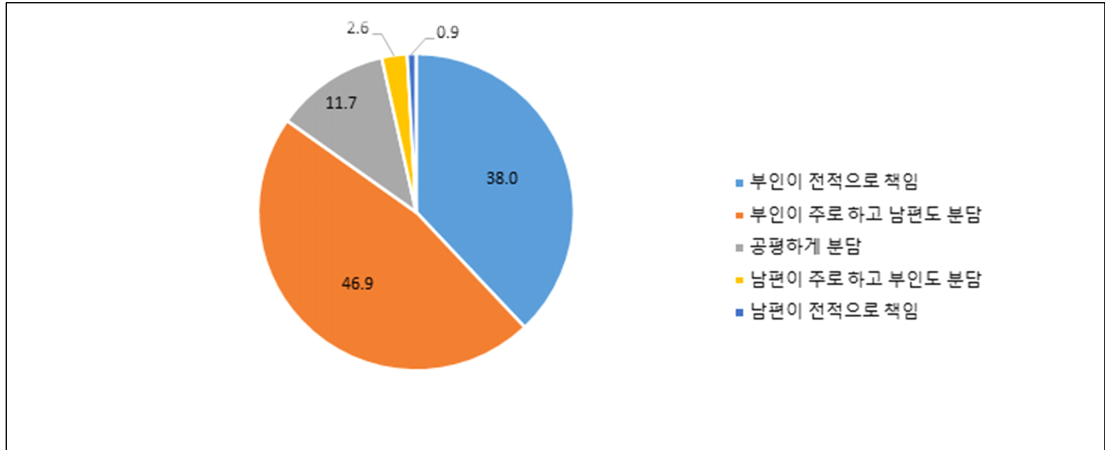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	공정하게 분담	남편이 주로 하고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전기노인	31.6	52.6	12.9	2.3	0.7
중기노인	50.8	35.7	10.2	1.8	1.5
후기노인	40.3	42.1	0.0	17.7	0.0
전 체	38.0	46.9	11.7	2.6	0.9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8)

[그림 6-22] 고양시 노인의 가사분담

(단위: 점)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8)

4)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 여부 - 어려움에 처했을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노인 10.6%, 특히 후기노인은 18.2%가 도움 받을 사람이 없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족, 친구, 이웃 등으로 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노인의 89.4%로 나타났고 중기노인이 91%로 가장 많고 전기노인 89.7%, 후기노인 81.8%로 가장 적었다. 후기노인의 18.2%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6-40]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 여부

(단위: %)

구분	도움받을 사람이 있음	도움받을 사람이 없음
전기노인	89.7	10.3
중기노인	91.0	9.0
후기노인	81.8	18.2
전 체	89.4	10.6

<자료> 고양시민 행복실태조사 (2020)

5) 이웃과 일반인에 대한 신뢰 - 일반인에 대한 신뢰가 4.34점/10점만점으로 낮음

고양시 노인의 이웃에 대한 신뢰는 10점 만점 중 5.39점으로 전기노인 5.27점, 중기노인 5.32점, 후기노인 6.10점이다.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4.34점, 전기노인 4.34점, 중기노인 4.18점, 후기노인 4.67점으로 고양시 노인의 이웃에 대한 신뢰와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다. 특히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표 6-41] 이웃과 일반인에 대한 신뢰

(단위: %)

구분	이웃에 대한 신뢰	일반인에 대한신뢰
전기노인	5.27	4.34
중기노인	5.32	4.18
후기노인	6.10	4.67
전 체	5.39	4.34

<자료> 고양시민 행복실태조사 (2020) 0점~10점

6) 지역사회 소속감 - 6.76점으로 소속감 높으며 후기노인의 소속감이 더 높음

고양시 노인의 지역사회 소속감은 10점 만점에 6.76점으로 중간보다 높다. 전기노인은 6.57점, 중기노인 6.87점, 후기노인은 7.03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역사회 소속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2] 지역사회소속감

(단위: 점)

구분	전기노인	중기노인	후기노인	노인전체
지역사회소속감	6.57	6.87	7.03	6.76

<자료> 고양시민 행복실태조사 (2020)

7) 디지털 이용 실태³⁹⁾

(1) 평소 스마트폰 사용 유무

평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응답자의 대부분(94.0%)이 평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여성(94.4%)이 남성(93.5%)보다 약간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연령대별로는 60대(98.7%)가 70대(91.5%)나 80대 이상(91.4%)보다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구별로는 일산동구의 경우 응답자 모두(100.0%)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6-43] 평소 스마트폰 사용 유무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구분		예	아니오
전체		203(94.0)	13(6.0)	거주형태	1인가구	60(95.2)	3(4.8)
성별	남성	101(93.5)	7(6.5)		다인가구	143(93.5)	10(6.5)
	여성	102(94.4)	6(5.6)		구별	덕양구	80(94.1)
연령별	60대	74(98.7)	1(1.3)	일산동구		42(100.0)	0(0.0)
	70대	65(91.5)	6(8.5)	일산서구		81(91.0)	8(9.0)
	80대 이상	64(91.4)	6(8.6)				

<출처> 문정화 외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의 생활변화와 정책적 욕구』, 고양시정연구원, p. 100

(2) 자택에 와이파이 설치 유무

자택에 와이파이기가 설치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7%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택의 와이파이 설치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거주형태별로는 1인가구(68.3%)보다 다인가구(83.0%)의 와이파이 설치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일산동구(85.7%), 일산서구(80.9%), 덕양구(72.9%) 순으로 나타났다.

39) 디지털 이용실태는 고양시 내 복지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6-44] 자택 와이파이 설치 유무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구분		예	아니오
전체		170(78.7)	46(21.3)	거주형태	1인가구	43(68.3)	20(31.7)
성별	남성	86(79.6)	22(20.4)		다인가구	127(83.0)	26(17.0)
	여성	84(77.8)	24(22.2)			구별	덕양구
연령별	60대	67(89.3)	8(10.7)	일산동구	36(85.7)		6(14.3)
	70대	56(78.9)	15(21.1)	일산서구	72(80.9)		17(19.1)
	80대 이상	47(67.1)	23(32.9)				

<출처> 문정화 외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의 생활변화와 정책적 욕구』, 고양시정연구원, p. 100

제4절 고양시 노인의 건강 및 행복감

1. 고양시 노인의 건강

1)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 28.2%가 건강이 좋다고 평가, 전반적으로 보통보다 낮음

고양시 노인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자가평가는 평균 2.90점으로서 보통이라는 인식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65세 이상 노인의 28.2%는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주관적)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36.2%, 나쁘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35.5%이다.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노인(33.6%)이 여성노인(24.3%)보다 높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노인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에서 40.9%가 보통, 27.1%가 좋은 편, 3.0%가 매우 좋은 편이라고 응답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중기노인의 경우 나쁜 편이라는 응답자가 31.8%로 가장 많았고, 보통 28.5%, 좋은 편 25.1%, 매우 나쁜 편 11.6%, 매우 좋은 편 3.0%로 나타났다.

후기노인 가운데 자신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없었으며, 나쁜 편이 41.6%로 가장 많았고, 보통 33.6%, 매우 나쁜 편 14.4%, 좋은 편 10.4% 순으로 나타났다.

5점 만점 기준으로 전기노인은 평균 3.01점, 중기노인은 2.76점, 후기노인은 2.40점으로 나타나 노인의 연령과 건강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역비례하는 일반적인 노인집단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6-45] 고양시 노인의 건강상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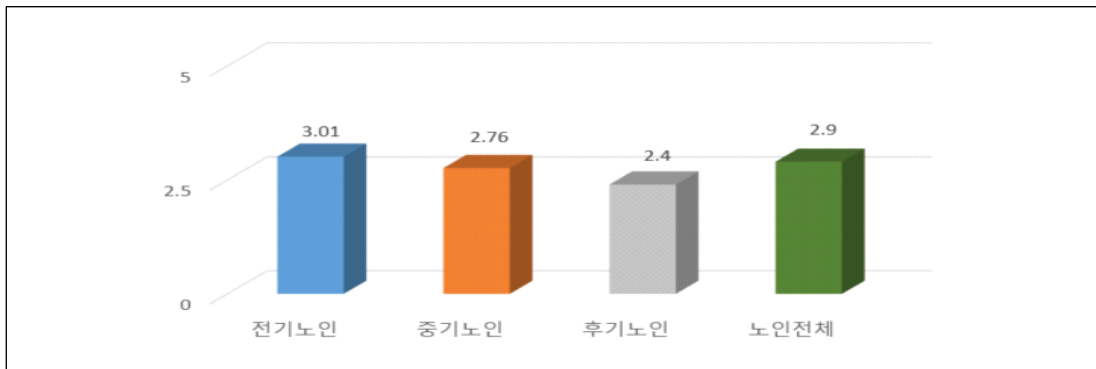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매우 나쁨	나쁜 편	보통	좋은 편	매우 좋음	점수/ 5점만점
전기노인	1.6	27.3	40.9	27.1	3.0	3.01
중기노인	11.6	31.8	28.5	25.1	3.0	2.76
후기노인	14.4	41.6	33.6	10.4	0.0	2.40
전 체	5.8	29.7	36.2	25.4	2.8	2.90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8)

[그림 6-23] 고양시 노인의 건강상태 평가

(단위: 점)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8) 1: 매우 불만족 5: 매우 만족

2) 우울정도 - 노인의 10.6%, 후기노인의 13.6%가 우울증 성향이 있음

PHQ-9 우울증 척도를 사용하여 노인의 우울증 성향을 측정하였다. 9문항의 합은 최소 0점에서 최대 27점이 나올 수 있으며 10점 이상이면 우울증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전기노인은 평균 3.68점, 중기노인은 평균 3.95점, 후기노인은 4.75점으로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연령과 우울감 정도는 비례하고 있었다. 총점이 1점이상으로 우울증상이 있는 비율은 전기노인 9%, 중기노인 11.2%, 후기노인 13.6%로 후기노인의 우울증상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우울증에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6-46] 고양시 노인의 우울감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우울증 있음	우울증없음
전기노인	3.68	4.08	9	91.0
중기노인	3.95	4.17	11.2	88.8
후기노인	4.75	4.58	13.6	86.4
전 체	3.93	4.17	10.6	89.4

<자료> 고양시민 행복증진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2020)

3) 만성질환 여부 - 노인의 84.9% 후기노인의 92.8%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음

고양시 노인들의 만성질환율은 84.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기노인의 경우는 80%, 중기노인은 87.2%, 후기노인은 92.8%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율이 높으며 노인들의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7] 고양시 노인의 만성질환여부

(단위: %)

구분	만성질환 있음	만성질환 없음
전기노인	80.0	20
중기노인	87.2	12.8
후기노인	92.8	7.2
전 체	84.9	15.1

<자료> 고양시민 행복증진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2020)

4) 규칙적인 운동여부 및 운동장소 - 51.9%는 운동을 하지 않으며 80.9%가 운동장소로 공원을 이용함

규칙적인 운동 여부를 살펴본 결과 고양시 노인의 절반 이상인 51.9%가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전기노인 중 48.2%, 중기노인의 56.8%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후기노인은 모두 주 5회 이상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6-48】 고양시 노인의 규칙적인 운동 여부

(단위: %)

구분	운동하지 않음	주 1~2회	주 3~4회	주 5회 이상
전기노인	48.2	20.7	25.5	5.7
중기노인	56.8	17.5	15.0	10.7
후기노인	0.0	0.0	0.0	100.0
전 체	51.9	19.0	20.3	8.8

〈자료〉 고양시 사회보장특구조사 (2018)

한편 운동시설로는 전기, 중기, 후기노인 모두 공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특히 중기노인의 공원 이용 비율이 88.3%로, 전기노인의 공원 이용자 비율 74.6%보다 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 전기노인은 다른 노인집단에 비해 공공(8.6%) 및 사설(6.5%)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정(3.9%), 기타 시설(8.4%) 등 다양한 공간을 운동장소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여성노인은 공원과 공공체육시설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 전기노인의 76.6%는 공원, 22.5%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여성 중기노인의 87.9%가 공원, 5.2%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여성 후기노인의 운동장소는 공원이 유일했다.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많은 노인들이 주로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유용한 운동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의 개선과

유지가 요구된다.

[표 6-49] 고양시 노인의 운동장소

(단위: %)

구분		공원	공공체육시설	사설체육시설	가정	기타
전기노인	남 성	72.6	8.6	6.5	3.9	8.4
	여 성	76.6	22.5	0.0	0.0	0.0
	전 체	74.6	15.9	3.1	1.9	4.5
중기노인	남 성	88.8	0.0	1.7	3.1	6.4
	여 성	87.9	5.2	0.0	0.0	0.0
	전 체	88.3	2.8	0.8	1.4	6.7
후기노인	남 성	-	-	-	-	-
	여 성	100.0	0.0	0.0	0.0	0.0
	전 체	100.0	0.0	0.0	0.0	0.0
총		80.9	10.0	2.1	1.6	5.3

〈자료〉 고양시 사회보장욕구조사 (2018)

5) 고양시 보건의료시설 만족도 - 보건시설은 63.9%, 의료시설은 67.5%가 만족하고 있음

고양시 노인의 보건시설 만족도는 3.77점, 의료시설만족도는 3.88점으로 보건 및 의료서비스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건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평균이 3.77점이고, 전기노인의 만족도 3.7점, 중기노인 3.92점, 후기노인 3.58점이었다.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평균 3.88점으로 보건시설만족도보다 약간 높았으며, 집단별로는 전기노인 3.81점, 중기노인 3.99점, 후기노인 3.97점으로 확인되었다.

비율로 살펴보면 보건시설만족도가 ‘약간 만족 및 매우 만족’인 경우가 63.9%, 의료시설만족도가 ‘약간 만족 및 매우 만족’인 경우가 67.5%였다. 집단별로 볼 때 특징적인 부분은 불만족 비율이 보건시설보다는 의료시설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그 중 보건시설에 대한 중기노인의 불만족 비율이 10.7%로 가장 높았다. 또 전기노인은 보

건시설만족도나 의료시설만족도 두 가지 모두 보통 수준으로 응답한 경우가 1/3정도로 유사하고 불만족 비율도 뚜렷하였으나, 중기 및 후기노인은 의료시설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보건시설에 대한 불만족 비율의 절반 수준으로 줄고, 보통이라고 평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6-50] 고양시 노인의 보건시설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점수/ 5점만점
전기노인	2.3	9.5	30.3	32.0	25.9	3.70
중기노인	1.1	10.7	13.6	44.6	30.0	3.92
후기노인	11.1	9.4	21.1	27.5	31.0	3.58
전 체	2.2	10.0	23.9	36.3	27.6	3.77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8)

[표 6-51] 고양시 노인의 의료시설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점수/ 5점만점
전기노인	0.3	5.5	30.5	40.5	23.3	3.81
중기노인	0.6	5.0	21.3	41.4	31.7	3.99
후기노인	0.0	3.1	24.9	43.8	28.2	3.97
전 체	0.4	5.2	26.9	41.0	26.5	3.88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8)

2. 고양시 노인의 행복감

1) 행복도 - 5.82점/10점 만점으로 높지는 않음

고양시 노인의 행복도(삶의 평가)를 살펴본 결과 전체 노인의 행복도는 100점 만점에 5.82점으로 중간 정도를 약간 상회하였다.

연령별 행복도 점수는 전기노인이 5.77점, 중기노인이 5.88점, 후기노인이 5.84점으로 전기노인이 중기, 후기노인에 비해 행복도가 낮게 나타났지만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UN 행복보고서(2020)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세계평균 5.45점보다는 높지만 한국전체 평균 5.90점 보다 낮고, 북유럽 7.55점 보다 낮은 점수이기 때문에 고양시 노인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6-52] 고양시 노인의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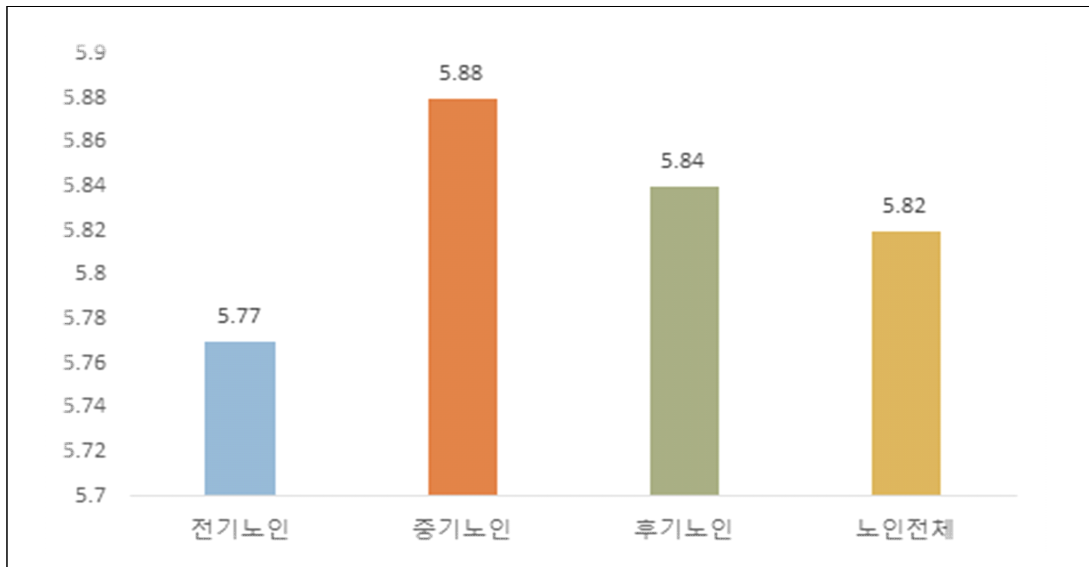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0	1	2	3	4	5	6	7	8	9	10	점수
전기노인	1.3	0	5.1	3.8	11.4	24.1	20.3	20.3	8.9	3.8	1.3	5.77
중기노인	0	0	4.5	7.9	9.0	23.6	12.4	20.2	15.7	4.5	2.2	5.88
후기노인	0	0	4.5	0.0	13.6	31.8	18.2	18.2	9.1	4.5	0.0	5.84
전 체	0.5	0	4.7	5.3	10.5	24.7	16.3	20.0	12.1	4.2	1.6	5.82

<자료> 고양시민 행복실태조사 (2020)

[그림 6-24] 고양시 노인의 만족도

(단위: 점)



<자료> 고양시민 행복실태조사 (2020)

2) 영역별 생활만족도 - 환경, 가족관계만족도가 높고, 경제고용, 거버넌스 만족도 낮음

고양시 노인의 영역별 생활만족도(10점 만점) 중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7.7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안전 7.52점, 가족관계만족도가 7.12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고용만족도가 5.7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거버넌스 6.38점, 문화여가 6.5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각 영역별 만족도 전반적으로 전기노인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다음이 중기노인, 후기노인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53] 고양시 노인의 영역별 생활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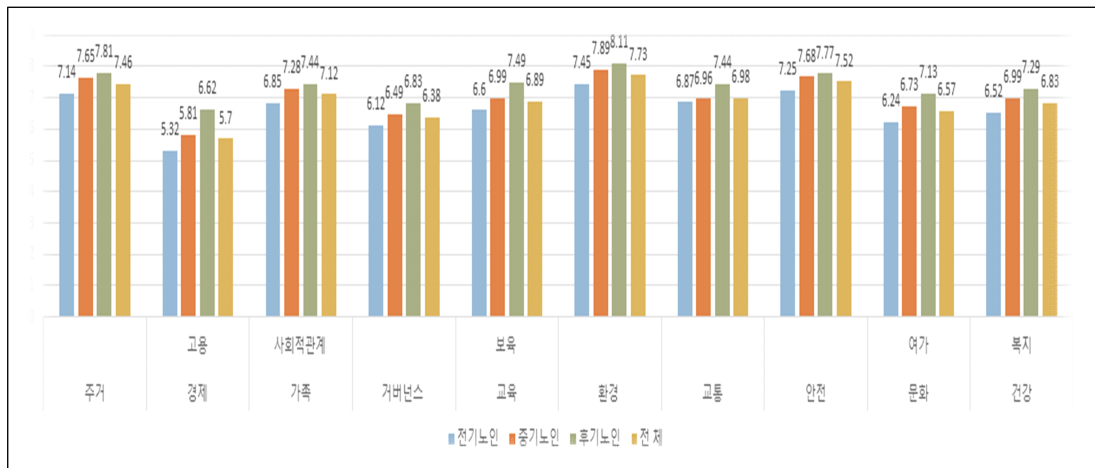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주거	경제 고용	가족 사회적 관계	거버넌 스	교육 보육	환경	교통	안전	문화 여가	건강 복지
전기노인	7.14	5.32	6.85	6.12	6.60	7.45	6.87	7.25	6.24	6.52
중기노인	7.65	5.81	7.28	6.49	6.99	7.89	6.96	7.68	6.73	6.99
후기노인	7.81	6.62	7.44	6.83	7.49	8.11	7.44	7.77	7.13	7.29
전 체	7.46	5.70	7.12	6.38	6.89	7.73	6.98	7.52	6.57	6.83

<자료> 고양시민 행복실태조사 (2020)

[그림 6-25] 고양시 노인의 영역별 생활만족도

(단위: 점)



<자료> 고양시민 행복실태조사 (2020)

제5절 고양시 노인의 안전 및 노후준비 영역

1. 고양시 노인의 안전

1) 영역별 안전 인식 - 정보보안 및 신종전염병에 대한 안전인식이 가장 낮음

고양시 노인의 안전 인식을 사회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평균점수(5점 만점)는 3.14점으로 보통 이상의 안전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영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자연재해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2.96점으로 가장 높았고, 반대로 동일하게 2.65점을 받은 정보보안 및 신종전염병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가장 높았다.

전기노인, 중기노인, 후기노인을 구분해 살펴보면 전반적인 사회안전은 세 집단 모두 3점 이상으로 보통 이상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전기노인, 중기노인, 후기노인 전체 및 세부영역 전체 점수 중 평균이 3점을 넘는 경우가 후기노인의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 인식 단 한 가지 뿐이었다. 그 밖의 다른 세부영역은 모두 3점 미만의 점수를 얻어 고양시 노인이 갖는 안전에 대한 신뢰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하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기노인의 경우 안전에 대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자연재해로 2.94점이었으며, 중기노인 역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 인식이 가장 높아 2.97점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전기노인, 중기노인, 후기노인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영역은 자연재해임에도 전기 및 중기노인 집단의 평균점수가 각각 2.94점, 2.97점으로 3점을 넘지 못하였고, 후기노인의 경우에도 3.03점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고양시 노인들의 안전에 대한 믿음이 높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기노인의 경우는 정보보안의 안전에 대한 평균점수가 2.1점으로 가장 낮았고, 중기노인과 후기노인은 신종전염병의 안전에 대한 평균점수가 각각 2.65점, 2.7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6-54] 고양시 노인의 영역별 안전 인식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안 전	약간 불안 전	보통	조금 안전	매우 안전	평균
국가안보	전기노인	4.4	43.3	35.1	14.7	2.5	2.68
	중기노인	1.5	43.9	34.8	16.5	3.4	2.76
	후기노인	3.1	28.0	44.4	24.4	0.0	2.90
	전 체	3.3	42.6	35.6	15.9	2.7	2.72
자연재해	전기노인	1.5	29.3	46.2	19.3	3.7	2.94
	중기노인	1.5	27.0	47.8	20.1	3.7	2.97
	후기노인	0.0	28.6	42.7	26.5	2.3	3.03
	전 체	1.4	28.5	46.5	20.0	3.6	2.96
건축물 및 시 설물	전기노인	4.0	37.4	44.9	12.6	1.1	2.69
	중기노인	2.8	37.7	44.8	12.5	2.3	2.74
	후기노인	5.7	27.0	49.2	18.1	0.0	2.80
	전 체	3.7	36.9	45.1	12.9	1.4	2.72
교통사고	전기노인	2.8	34.0	49.5	12.6	1.1	2.75
	중기노인	3.3	31.8	49.1	12.6	3.2	2.81
	후기노인	2.5	30.8	48.7	15.7	2.3	2.84
	전 체	2.9	33.1	49.3	12.8	1.9	2.78
화재	전기노인	6.1	32.2	39.4	19.7	2.6	2.81
	중기노인	2.2	31.2	49.9	15.0	1.7	2.83
	후기노인	2.5	31.0	51.0	15.5	0.0	2.79
	전 체	4.5	31.8	43.7	17.8	2.2	2.81
먹거리	전기노인	7.7	33.9	45.1	12.2	1.1	2.65
	중기노인	3.4	28.2	58.9	7.2	2.3	2.77
	후기노인	5.2	27.5	54.1	13.2	0.0	2.75
	전 체	6.1	31.6	50.3	10.6	1.4	2.70
정보보안	전기노인	8.0	39.3	37.5	14.4	0.8	2.61
	중기노인	3.9	39.6	40.5	13.2	2.8	2.71

구분		매우 불안 전	약간 불안 전	보통	조금 안전	매우 안전	평균
	후기노인	8.6	26.9	45.8	18.7	0.0	2.75
	전 체	6.6	38.7	39.0	14.2	1.5	2.65
신종전염병	전기노인	5.4	43.6	35.2	13.7	2.2	2.64
	중기노인	5.9	43.4	33.4	14.6	2.8	2.65
	후기노인	2.5	39.9	39.6	18.0	0.0	2.73
	전 체	5.4	43.3	34.8	14.3	2.2	2.65
범죄위험	전기노인	2.3	31.8	51.1	13.9	0.8	2.79
	중기노인	0.9	28.9	55.0	13.7	1.4	2.86
	후기노인	5.7	18.8	54.2	21.4	0.0	2.91
	전 체	2.0	30.0	52.6	14.3	1.0	2.82
전반적인 사회안전	전기노인	4.3	28.5	26.2	29.2	11.8	3.16
	중기노인	6.3	30.0	22.4	29.2	11.9	3.10
	후기노인	0.0	36.5	22.9	24.1	16.4	3.20
	전 체	4.7	29.5	24.7	28.9	12.1	3.14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8)

2) 영역별 피해 두려움 - 밤에 혼자 택시타는것에 대한 두려움이 큼. 후기, 여성 노인의 두려움이 높음

사회 영역별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해서 고양시 노인들은 ‘밤에 혼자 택시 탔을 때(3.22점)’ 가장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항목에서 후기노인이 갖는 두려움은 평균점수 3.9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중기노인도 3.72점이었다. 반면 전기노인은 ‘밤에 집에 혼자 있을 때(2.85)’ 느끼는 두려움이 가장 컸다.

밤에 혼자 집에 있거나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느끼는 두려움은 전기노인, 중기노인, 후기노인 모두 평균 3점 미만으로 두려움의 크기가 보통 수준 이하로 파악되었다.

이런 내용은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밤에 택시 타는 것에 높은 두려움을 느끼고, 집이

나 동네 등 익숙한 장소에서의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표 6-55] 고양시 노인의 영역별 피해 두려움

(단위: %, 점)

구분		전혀 두렵지 않다	약간 두렵지 않다	보통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평균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전기노인	19.2	18.8	25.2	31.0	5.7	2.85
	중기노인	19.8	20.9	24.3	30.2	4.8	2.79
	후기노인	27.8	13.0	33.9	16.5	8.7	2.65
	전 체	19.9	19.2	25.4	29.9	5.6	2.82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전기노인	20.3	17.1	29.4	26.4	6.7	2.82
	중기노인	20.1	19.1	25.9	31.0	3.9	2.79
	후기노인	27.8	13.1	31.2	21.7	6.1	2.65
	전 체	20.7	17.6	28.3	27.7	5.7	2.80
밤에 혼자 택시를 탔을 때	전기노인	31.9	10.8	11.4	33.9	12.0	2.83
	중기노인	8.8	6.4	8.7	56.1	20.0	3.72
	후기노인	0.0	8.9	14.8	45.2	31.1	3.98
	전 체	21.7	9.1	10.6	42.6	16.0	3.22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8)

성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의 피해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려움의 평균 점수가 가장 큰 것은 ‘여성 후기노인이 밤에 혼자 택시를 탔을 때’ 4.75점이었다. 두려움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남성 후기노인이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2.21점이었다.

전기노인 및 중기노인 모두 성별과 무관하게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나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느끼는 두려움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밤에 혼자 택시를 탔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 확연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56] 고양시 노인의 성별·영역별 피해 두려움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전기노인	2.34	3.21
	중기노인	2.36	3.15
	후기노인	2.27	2.92
	전 체	2.34	3.17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 걸을 때	전기노인	2.30	3.19
	중기노인	2.37	3.14
	후기노인	2.21	2.96
	전 체	2.32	3.16
밤에 혼자 택시를 탔을 때	전기노인	2.50	3.45
	중기노인	3.55	4.01
	후기노인	3.39	4.50
	전 체	3.26	4.75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8)

2. 고양시 노인의 노후준비

1) 노후준비 여부 - 40.3%만 노후 준비를 하고 있음

고양시 노인 중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의 40.3%이며 59.7%가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어 노후준비 상황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노인은 54.5%, 중기노인 30.3%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으며 후기노인은 전체의 12.1%만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7] 고양시 노후준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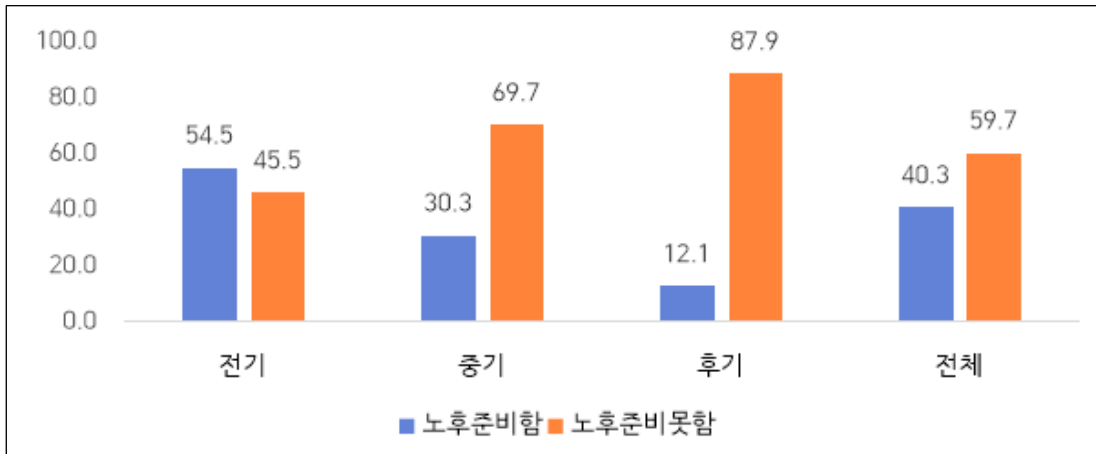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기노인	중기노인	후기노인	전체
노후준비함	54.5	30.3	12.1	40.3
노후준비하지 않음	45.5	69.7	87.9	59.7

〈자료〉 고양시 사회조사 (2019)

[그림 6-26] 고양시 노인의 노후준비

(단위: 점)



〈자료〉 고양시 사회조사 (2019)

2) 노후준비 방법 - 예금, 노후준비하는 노인의 42.7%는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으로 노후준비

노후준비가 되어 있거나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고양시 노인의 주요한 노후준비 방법을 확인한 결과 예금·적금·저축성 보험이 42.7%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부동산 운용 24.6%로 나타났다.

전기노인의 경우에도 예금·적금·저축성 보험이 40.8%로 가장 주요한 노후준비 방법이었고, 부동산 운용 24.4%, 사적 연금 16.0%, 퇴직급여 10.1%, 주식·채권 4.0%, 국민연금 2.7%, 기타 공적 연금 2.2%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노인 역시 예금·적금·저축성 보험(49.8%), 부동산 운용(22.7%)이 많은 것은 동일하였으며, 주식·채권 8.2%, 퇴직급여 7.2%, 기타 공적 연금 5.7%, 사적 연금 4.7% 순으로 나타났고, 국민연금은 0.0%였다.

후기노인의 경우에는 부동산 운용이 46.0%로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방법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공적 연금 22.9%인 점이 특징적이며, 사적 연금과 예금·적금·저축성 보험이 각각 15.5%씩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은 중기노인과 마찬가지로 0.0%였다.

[표 6-58] 고양시 노인의 노후준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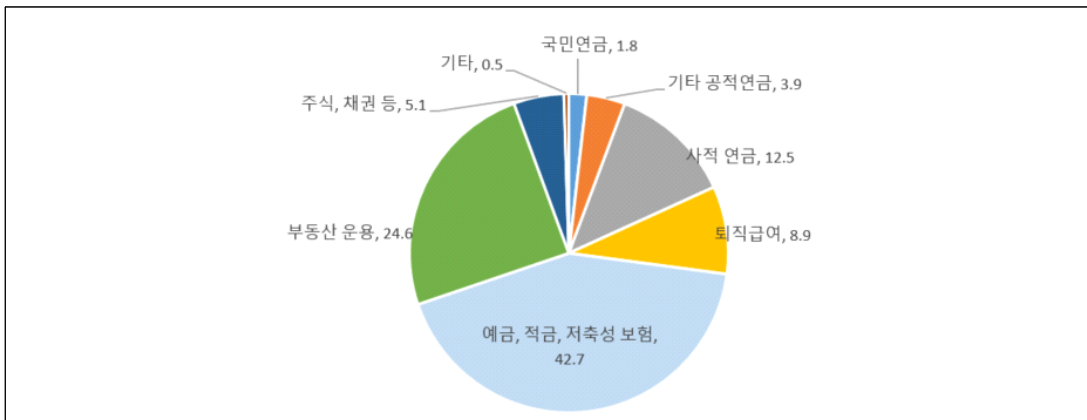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국민 연금	기타 공적연금 (공무원, 군인, 교원)	사적 연금 (은행, 보험회사 등의 개인연금)	퇴직급여 (퇴직금, 퇴직연금)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주식, 채권 등	기타
전기노인	2.7	2.2	16.0	10.1	40.8	24.4	4.0	0.0
중기노인	0.0	5.7	4.7	7.2	49.8	22.7	8.2	1.6
후기노인	0.0	22.9	15.5	0.0	15.5	46.0	0.0	0.0
전 체	1.8	3.9	12.5	8.9	42.7	24.6	5.1	0.5

자료 : 고양사회조사 (2019)

[그림 6-28] 고양시 노인의 노후준비 방법

(단 : %)



<자료> 고양사회조사 (2019)

3) 노후준비 못하는 이유 - 52.6% 준비할 능력이 없어서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고양시 노인이 그럴 수 밖에 없는 가장 많은 이유는 ‘준비할 능력이 없어서(52.6%)’였고, ‘자녀에게 의존한다’는 응답이 41.0%로 그 뒤를 이었다.

전기노인, 중기노인, 후기노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기노인의 58.78%, 중기노인의 53.8%가 노후준비를 할 능력이 없어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며, 자녀에게 의존하는 방식을 선택한 경우는 전기노인 28.4%, 중기노인 42.9%로 나타났다. 후기노인의 경우는 자녀에게 의존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65.6%로 가장 많았고, 34.4%의 후기노인이 노후준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미 노년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4.3%,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1.3%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노년기 진입 이전에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노후준비를 할 능력이 없는 노인 및 자녀에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지원책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표 6-59] 고양시 노인 노후준비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

구 분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음	앞으로 준비할 계획임	준비할 능력이 없음	자녀에게 의존함	기타
전기노인	8.5	3.4	58.7	28.4	1.0
중기노인	2.5	0.0	53.8	42.9	0.8
후기노인	0.0	0.0	34.4	65.6	0.0
전 체	4.3	1.3	52.6	41.0	0.8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9)

4) 노인이 인식하는 생활에서의 문제 - 경제문제 38.7%, 건강문제 36.8%

고양시 노인들이 노후생활에서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문제로 전체의 38.7%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는 인식된 문제는 비율에서 경제문제와 근소한 차이를 보인 건강문제(36.8%)였다.

연령별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기노인의 경우 전체 노인과 마찬가지로 노인이 인지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경제문제(48.8%)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건강문제 30.8%, 외로움·소외감 10.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기노인과 후기노인은 각각 45.7%, 34.8%의 비율로 건강문제를 가장 심각한 노인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경제문제를 두 번째로 꼽았다.

한편 후기노인의 경우 외로움·소외감 문제가 전체의 21.1%였는데 이는 전기노인이거나 중기노인의 같은 항목에 비해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고령노인의 심리·정서적지원과 관련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6-60] 고양시 노인이 인식하는 노인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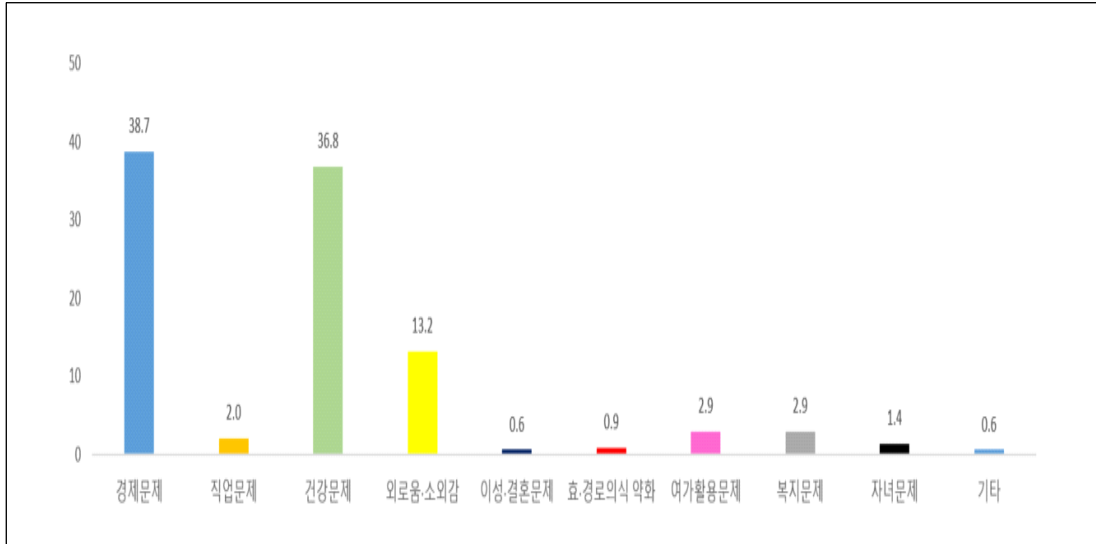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경제문제	직업문제	건강문제	외로움·소외감	이성·결혼문제
전기노인	48.8	2.7	30.8	10.6	0.8
중기노인	27.4	1.2	45.7	14.9	0.5
후기노인	27.2	1.9	34.8	21.1	0.0
전 체	38.7	2.0	36.8	13.2	0.6
구 분	효·경로의식 약화	여가활용문제	복지문제	자녀문제	기타
전기노인	0.5	2.9	1.7	0.9	0.3
중기노인	0.7	2.7	3.8	1.9	1.1
후기노인	3.3	3.5	6.0	2.1	0.0
전 체	0.9	2.9	2.9	1.4	0.6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9)

[그림 6-29] 고양시 노인이 인지하는 노인의 문제

(단위: %)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9)

5) 희망 노인복지서비스 - 건강검진 28.6%, 간병·목욕서비스 18.2%

고양시 노인이 노후생활을 위해 우선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노인복지서비스는 건강검진 28.6%, 간병·목욕서비스 18.2%, 가사서비스 16.9% 순이었다.

연령집단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전기노인과 중기노인의 확대를 희망하는 첫 번째 노인복지서비스는 건강검진으로 동일했으나 그 비율은 각각 32.1%, 26.1%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전기노인은 취업알선(16.6%), 가사서비스(13.8%)가 그 뒤를 이은 반면, 중기노인은 간병·목욕서비스(22.5%), 가사서비스(20.3%) 순으로 나타나 우선 적용 노인복지서비스를 판단하는 시각과 욕구의 차이를 보여 주었다.

후기노인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 무엇보다 간병·목욕서비스(30.4%)가 최우선되어야 할 노인복지서비스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건강검진 21.3%, 가사서비스 18.8%, 식사제공 14.4%가 그 뒤를 이어 돌봄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욕구와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61] 고양시 노인의 우선확대 희망 노인복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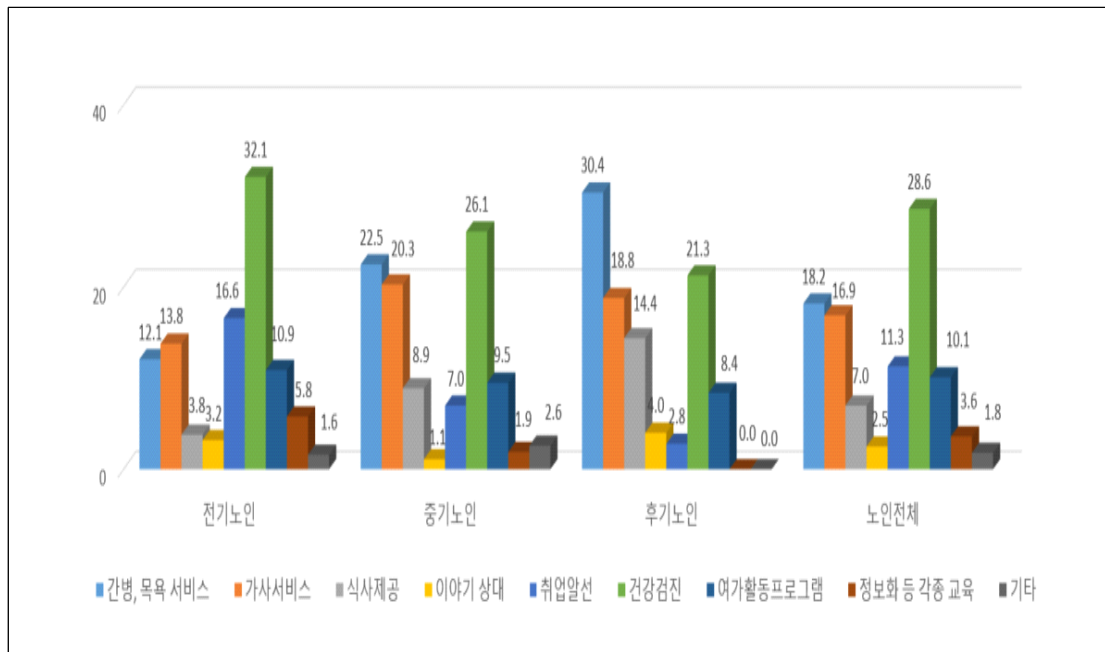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간병, 목욕 서비스	가사서비스 (집안청소 등)	식사제공	이야기 상대	취업알선
전기노인	12.1	13.8	3.8	3.2	16.6
중기노인	22.5	20.3	8.9	1.1	7.0
후기노인	30.4	18.8	14.4	4.0	2.8
전 체	18.2	16.9	7.0	2.5	11.3
구 분	건강검진	여가활동 프로그램	정보화 등 각종 교육	기타	-
전기노인	32.1	10.9	5.8	1.6	-
중기노인	26.1	9.5	1.9	2.6	-
후기노인	21.3	8.4	0.0	0.0	-
전 체	28.6	10.1	3.6	1.8	-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9)

[그림 6-30] 고양시 노인의 우선확대 희망 노인복지서비스

(단위 : %)



<자료> 고양시사회조사 (2019)

제6절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구성요소와 행복감

1. 개요

본 절에서는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의 구성요소와 행복감의 관계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활동적 노화의 구성요소인 건강, 사회참여, 안전 영역이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양시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력, 성별, 연령대를 변수로 투입하였으며, 활동적 노화의 구성요소인 건강 영역에는 주관적 건강 상태와 PHQ-9⁴⁰⁾ 합계 점수, 만성질환 수, 사회참여 영역에는 고용 여부,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평생교육 참여 여부,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 관람 및 참여 횟수 합계, 안전 영역에는 지역의 생활환경 전반에 있어서의 안전 만족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가족, 친구, 이웃의 존재 여부, 가구월평균 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가구 균등화 소득 변수를 투입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분석결과

고양시 65세 이상 노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활동적 노화 구성요소를 투입한 결과 회귀식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2.5% 설명력을 보였다.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노인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40) PHQ-9 우울증 자기진단 테스트는 지난 2주일을 기준으로 각 문항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0점, 며칠 동안 그랬다 1점, 7일 이상이다 2점, 거의 매일이다 3점'으로 답변하며, 1. 일 또는 여가 활동을 하는데,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함. 2. 기분이 기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음. 3. 잠이 들거나 계속 잠을 자는 것이 어려움, 또는 잠을 너무 많이 잠. 4.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음. 5. 입맛이 없거나 과식을 함. 6. 자신을 부정적으로 봄. 자신이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자신 또는 가족에게 실망함. 7.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에 집중하기 어려움. 8. 다른 사람들이 주목할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거나 말함. 반대로 평상 시 보다 더 많이 움직여 안절부절 못하거나 들떠 있음. 9. 자신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함 등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합계 점수가 10점 이상이면 우울증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나타났으며, 활동적 노화 구성요소 중 건강 영역에 포함된 3개 변수 중 2개, 안전 영역에 포함된 3개 변수 중 2개가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 영역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감이 낮을수록 행복감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영역에서는 지역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해 느끼는 안전 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며, 가구 균등화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감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주관적 건강 상태, 안전 만족도, 가구 균등화 소득, 우울감의 순으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활동적 노화 구성요소가 65세 이상의 노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건강 영역과 안전 영역에 속하는 변수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참여 영역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노인의 행복감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과 노인 소득보장 방안 마련, 노인의 우울감에 대한 관심과 꾸준한 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표 6-62] 활동적 노화 구성요소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영역	구분 변인 (상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B	표준오차	β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0.335	0.257	-0.091	-1.301
	학력	0.135	0.099	0.104	1.362
	연령대	0.159	0.178	0.058	0.893
	주관적 건강상태	0.256	0.070	0.306	3.656...
건강	PHQ-9 합계 점수(우울감)	-0.059	0.030	-0.136	-1.996
	만성질환 수	-0.062	0.104	-0.048	-0.601
	고용 여부	-0.324	0.349	-0.060	-0.929
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0.495	0.365	0.087	1.357
	평생교육 참여 여부	0.229	0.365	0.052	0.627
	문화·예술·스포 츠활동 총합	-0.001	0.054	-0.002	-0.019
	안전만족도	0.285	0.076	0.240	3.726...
안전	도움받을 수 있는 지인 여부	-0.503	0.378	-0.085	-1.334
	가구균등화 소득	0.004	0.002	0.140	2.143
	F			7.937...	
R ² (Adj R ²)			.371(.325)		

.p<.05, ..p<.01, ...p<.001

성별: 여성=0, 남성=1; 학력: 무학=1, 초졸 이하=2, 중졸 이하=3, 고졸 이하=4, 대졸 이상=5;

연령대: 65-74=1, 75-84=2, 85이상=3; 주관적건강상태: 전혀건강하지않음=0~매우건강함=10;

PHQ-9합계: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 며칠 동안 그랬다=1, 7일 이상이다=2, 거의 매일이다=3'. 27점 만점에 해당 합계 점수;

만성질환 수: 없음=0, 1개~4개=1~4, 5개 이상=5;

고용여부: 미고용=0, 고용=1;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미참여=0, 참여=1; 평생교육 참여여부: 미참여=0, 참여=1;

문화·예술·스포츠활동 총합: 문화·예술·활동 관람 및 참여 횟수 합계

안전만족도: 전혀만족스럽지못함=0~매우 만족함=10;

도움받을 수 있는 지인 여부: 없음=0, 있음=1;

가구균등화소득: 가구월평균소득/가구원수

제 7 장

정책 방안 및 연구의 한계점

제1절 건강한 노인을 위한 활동적 노화 정책방안

제2절 연구의 한계점

제절 건강한 노인을 위한 활동적 노화 정책 방안

활동적 노화의 패러다임 적용, 국내외 활동적 노화 정책사례 분석, 고양시 노인의 인구변화 및 생활실태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고양시 건강한 노인 활동적 노화 정책 지원 방안 및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7-1] 건강한 노인을 위한 활동적 노화 정책 추진 방안 및 전략과제

건강한 노인을 위한 활동적 노화 정책 추진 방안 및 전략과제	
노인의 활동적노화 (Active ageing)을 위한 기반 조성	전략과제 1. 고령친화도시 추진(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전략과제 2. 노인 지역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전략과제 3. 정기적인 노인실태 및 행복도 조사
	전략과제 4. 고령사회대응센터 설치
노인 일자리·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정책	전략과제 1. 노인 일자리 관련 조사, 연구
	전략과제 2. 전기노인을 위한 일자리 모델 개발
	전략과제 3. 노인일자리종합센터 기능과 역할 강화
노인 문화·여가 지원 정책	전략과제 1. 노인복지관 추가 건립
	전략과제 2. 경로당 활성화 방안 모색
	전략과제 3. 노인이 주도가 되는 노인을 위한 정보사이트 개발
노인 가족·사회적 관계 지원 정책	전략과제 1. 부부관계 증진 및 가족 소통 프로그램 운영
	전략과제 2. 노인 디지털 접근성 강화
	전략과제 3.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 지원
노인 건강·행복 지원 정책	전략과제 1. 노인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전략과제 2. 공원 운동 환경 조성
	전략과제 3. 지역 내 시설을 활용한 건강서비스 지원
	전략과제 4. 우울증 관리 프로그램 지원
노인 안전·노후준비 지원 정책	전략과제 1. 신종전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 강화
	전략과제 2.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교육 지원

1. 건강한 노인의 활동적 노화를 위한 기반 조성

1) 고령친화도시 추진(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인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하였다.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자들이 연령에 따른 환경 변화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도시를 뜻한다. 2020년 1월 기준 전 세계 41개국 1,000여개의 도시지역이 GNAFCC(국제고령친화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서울시가 2011년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였고 2020년 1월 현재 37개 지방자치단체가(광역시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6개, 세종특별자치시 1개)가 고령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고양시도 활동적 노화 구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WHO 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에 가입하여 고령자, 나아가 전 연령대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노인 지역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고양시의 노인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 급증을 감안하여 정책수요자인 노인들의 적극적인 정책결정과정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선진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홍콩 유젠왕 구에서는 지역사회 노인의 목소리 ‘AFC’대사를 위촉·운영하여 지역사회 연구 활동 및 노인들의 견해가 지역사회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고양시도 노인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인 지역정책모니터링단(혹은 대사)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정기적인 노인 실태 및 행복도 조사

보건복지부에서는 3년 주기로 노인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시

수준에서 실태 파악이 가능하고 기초지자체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 최근 고양시 정책과제로 고양시정연구원에서 행복지표 개발과 실태조사, 행복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그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이어서 노인의 생활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었다. 고양시 노인의 삶의 현황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시계열적으로 삶의 변화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노인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고양시 노인의 행복 DB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4) 고령사회대응센터 설치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일자리 개발과 상담을 위해서 서울시 및 인천시 등은 50+재단이나 고령사회대응센터 등의 이름으로 별도의 전담기구를 만들고 있다. 미래 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양시 고령사회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맞춤형 연구 및 조사를 통해 신중년 및 노인의 행복한 노년기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기반 조성 및 인생설계를 위해 필요한 교육 및 네트워크 사업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노인일자리·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정책 강화

1) 노인 일자리 관련 조사·연구

고양시의 노인 고용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양시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와 공익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고양시의 노인 고용율은 19~20.2%로 전국 32.3%, 경기도 25.2%에 비해 낮고, 대체적으로 고용율이 농촌지역에 비해 낮은 도시지역과 비교해 볼 때도 성남시(22.9%)와 수원시(24%)보다 낮으며 특히 여성 고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포함한 전체 일자리와 관련한 노인의 욕구는 충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노인 고용을 위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2) 전기노인을 위한 일자리 모델 개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분석해 보면 중기와 후기노인의 참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기 노인층의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고양시 전기 노인은 타 시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학력 수준과 경제력이 높은 편이다. 앞서 노인의 다양성에서 살펴보았듯이 학력과 소득, 건강에 따라 노인 일자리 유형은 달라진다. 노인의 경우, 일자리 선택 시 수입과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 마련과 동시에 전기 노인들의 일자리, 특히 본인의 능력과 재능을 기반으로 사회에 기여하면서 일할 수 있는 ‘양코르 커리어’ 일자리 등 전기노인을 위한 일자리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노인일자리종합센터 기능과 역할 강화

고양시는 노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19년 노인일자리 종합센터를 개관하였다. 노인일자리 종합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과 함께 노년기에 진입하는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one-stop 창구 역할이 요구된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정보화와 자원의 발굴·보급, 노인인력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노인일자리사업 경영컨설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양시 노인빈곤율(특히, 후기노인) 및 실질적으로 이른 은퇴연령(특히, 예비전기노인), 세대 간 일자리 경쟁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노인 고용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노인의 문화여가 지원정책

1) 노인복지관 추가 건립

건강한 노인들이 여가생활, 자원봉사, 일자리를 위하여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노인복지관으로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복지서비스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관은 법적인 분류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역 노인의 평생교육 및 여가, 문화 공간으로써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최근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복지관 이용 인원이 급증하여 현재 고양시 노인복지관은 포화상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노인복지관과 종합복지관 이용 의향을 가진 노인이 전체의 70.4%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노인 인구의 증가를 고려하여 노인복지관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 고양시 장래 노인 인구 변화추이, 노인복지관 최저기준선 적용, 타 지역 노인복지관 면적, 인구규모 유사지역 노인 1인당 평균 이용면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고양시 노인복지관 추가 필요 개수 및 필요면적을 산출하면, 고양시는 2020년 노인복지관 2개소(필요면적 8,119㎡)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정화, 유선치, 2019).

노인복지관 추가 건립 추진과 함께 지역 내 기관을 활용하여 공용공간 및 문화강좌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추진도 필요하다.

2) 경로당 활성화 방안 모색

2020년 1월 기준 고양시 경로당은 562개소이다. 고양시 60세 이상 연령층의 여가생활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며, 대부분의 여가생활은 TV시청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고양시 노인을 위한 여가·문화프로그램에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로당은 주로 후기 노인이 이용하는 곳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노인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곳도 있다. 지역 곳곳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높은 경로당을 후기노인뿐 아니라 전기, 중기 노인이 잘 이용하는 곳으로, 노인세대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또 ‘찾아가는’ 문화시설의 재능기부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는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즐기는 곳으로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

3) 노인이 주도가 되는 노인을 위한 정보사이트 개발

고양시 노인 중 지난 1년간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노인은 22.6%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미참여 이유는 ‘프로그램 정보가 없어서’가 38.1%로 가장 높았다. 노인

들에게는 삶을 관리하고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다양한 지원에 대한 양질의 정보와 조언이 필요하다. 선진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영국의 뉴캐슬어폰타인 지역에서는 노인과 함께 노인을 위한 정보사이트인 ‘Information NOW’를 개발하여 정부혜택, 여행 및 운송, 건강, 돌봄, 관계 등 카테고리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관련 단체 및 연락처를 게시하여 필요한 경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양시도 노인이 중심이 되어 노인을 위한 정보사이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노인의 가족·사회적 관계 지원 정책

1) 부부관계 증진 및 가족 소통 프로그램 운영

가족관계 만족도에 있어 자기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3.98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녀와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세 집단 비슷하게 4.0점 이상으로 평균정도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평균 2.69점으로 가장 낮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장기화된 노년기를 부부가 함께 보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노인의 배우자 관계가 보통수준 이하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부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부상담 및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노부모 및 자녀들 간 좋은 관계형성 및 유지를 위한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가족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을 위한 고령친화와 세대통합 지향 가족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노인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노인복지관을 이용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스마트폰 보유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 생활방식 적응 정도에 따라 삶의 질 차이가 있고 디지털 격차는 정보격차, 정서 지원의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노인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일상생활 속 노인의 디지털 적응력 및 활용능력을 위하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와이파이 설치 지원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 지원

고양시 노인의 이웃에 대한 신뢰도는 10점 만점 중 5.39점, 일반인에 대한 신뢰도는 4.34점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북유럽의 행복도가 높은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로 높은 신뢰도를 꼽는다. 따라서 고양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특히 타 세대와 신뢰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호주 로킹엄시에서는 청소년과 노인이 함께 벽화그리기 등 예술 작품을 만들며 세대간 소통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세대 간의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하고 있고, 노인과 함께 하는 셀카 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함께 사진 찍은 노인이 왜 특별한지를 제출하면서 노인에 대한 낙인과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있다. 따라서 고양시도 세대간, 이웃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5. 노인의 건강·행복 지원 정책

1) 노인의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본 연구에서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고양시의 전기노인과 중기노인은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로 건강분야에서 건강검진 서비스가 1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한 노인의 경우 현재 노년기의 주요 문제를 이미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건강검진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의 고양시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정비하고 노인성 질환에 대해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한 노인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기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4년마다 수립하는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있어 WHO에서 제시하는 건강개념 즉, 신체·정신·사회적 차원의 건강, 나아가 영적인 측면에서의 건강개념을 반영한 고양시 노인의 건강기초조사를 토대로 예방과 관리에 역점을 둔 건강생활실천과 보건·의료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2) 공원 운동 환경 조성

본 연구에서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노인의 건강상태 평가는 5점 만점 중 2.90점으로 보통보다 낮게 나타났고 노인의 만성질환율이 84.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양시 노인의 절반 이상인 51.9%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건강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인의 80.9%가 운동장소로 공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공원에서의 운동 환경을 잘 조성할 필요가 있다.

3) 지역 내 시설(예: 공중목욕탕)을 활용한 건강서비스 지원

일본 가무쿠라이시는 공중목욕탕(센토)에서 노인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 센토’라는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한 달에 한 두번 주중 오전에 체조강사가 이끄는 가벼운 운동을 목욕탕에서 같이하고 전문가의 마사지 후 상쾌한 목욕을 하며 시에서 노인 보육(보건위생,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내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노인들의 건강도 지원할 수 있는 건강서비스를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4) 우울증 관리 프로그램 지원

PHQ-9 우울증 척도를 사용하여 노인의 우울증 위험 정도를 측정한 결과, 고양 노인의 10.6%가 우울증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후기노인의 경우 13.6%로 우울증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은 자살과도 관련성이 높고 본 연구 결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양시에서도 노인의 우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일본 즈시시는 시청 내 건강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도 시청, 행정복지센터 등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사를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고양시 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우울증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6. 노인의 안전·노후준비 정책

1) 신종전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 강화

본 연구에서 안전에 대한 만족도는 행복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건강한 노인의 안전 인식을 사회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평균점수(5점 만점)는 3.14점으로 보통 이상의 안전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영역별로 보면, 정보보안 및 신종전염병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가장 높았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전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로, 코로나19 이후에는 신종전염병에 대한 불안은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코로나19 등의 신종전염병 및 재해에 대한 불안감을 낮출 수 있도록 생활 속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과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

2)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교육 강화

고양시 건강한 노인의 노후준비 실태와 관련하여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가장 많은 이유는 ‘준비할 능력이 없기 때문(52.6%)이며, ‘자녀에게 의존하기 때문(41.0%)’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양시 건강한 노인들이 노후생활에서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문제로 전체의 38.7%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건강문제(36.8%)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준비를 할 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경제 및 건강문제 등을 가진 노인을 고려한 노후대비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사실상 늘어난 기대여명으로 노후는 길어졌지만, 준비하지 않은 노후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노후준비능력은 단기간 내에 축적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 세대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 노후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노후대비 정책이 반영되어 재무/건강/여가/사회적 관계 등 분야별로 미래와 노후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국내외 건강한 노인을 위한 활동적 노화 정책사례를 검토하고 활동적 노화 개념틀을 적용하여 고양시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실태를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시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활동적 노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한계점이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 반영될 부분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한 노인 당사자들의 활동적 노화에 대한 양적·질적 혼합연구가 필요하다. 건강한 노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원에서 다른 연구과제를 위해 실시했던 서베이 자료와 2차 자료를 활용하여 활동적 노화 관점에서 다각적인 영역의 실태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연초 코로나19의 확산과 노인의 높은 치명률로 노인 대상 FGI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추후 당사자 노인들의 삶 속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노인이란, 건강한 노후란 어떤 것인지, 각 영역에 있어서의 건강한 노인/활동적 노화가 무엇인지 등에 주관적 이해가 반영된 질적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건강한 노인의 개념 정의와 관련한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조작적 개념을 ‘시설 및 재가에서 타인의 돌봄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건강한 노인의 개념 자체는 사실상 모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고려한 ‘시설 및 재가에서의 타인의 돌봄을 받지 않는 노인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가능여부’와 함께 추가적인 주관적·객관적 지표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령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는 물론 만성 질환여부 및 질환 수, ADL/IADL의 독립적인 생활여부, 서비스 접근능력(역량)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셋째, 활동적 노화 관점에 기초한 고양시 노인 실태조사에 기초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다각적인 영역의 전기, 중기, 후기노인세대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차 자료가 가진 한계로 깊이 있는 실태분석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활동적 노화 관점에 기초한 고양시 노인실태조사를 진행, 깊이 있는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경기도(2017).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 추계보고서(2015~2035)」
- 고승한·이서연·고수희·임병우·정은하(2016). 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 고양시(2018). 「2018년 제1회 고양시 노인복지통계 보고서」
- 고양시(2020).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 고영호·강현마·김꽃송이·오성훈·이성민·정순돌·황남화·권영란·남성현·서경주·신초롱·이선재·최은재(2018).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건축도시환경의 고령친화도 진단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공선희·장매나·주지현·강혜원(2018). 제주지역 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주연구원.
- 국토교통부(2019).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Age-friendly City Design 연구」
- 권석만(2013). 「현대 이상심리학. 학지사」
-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7판. 학지사
- 김교성·김수연(2014). '활동적 노화'에 관한 다차원적 측정과 국가간 비교. 사회복지정책, 41(1), 1-32.
- 김수린 외(2019). 신노년세대 노동시장 전망과 노인일자리 수요 추계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9.11.
- 김영현(2019). “고령자 활동적 삶을 위한 도시 생활권 공공공간 계획요소와 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김영화(2015). 「한국 산업화 시기의 교육과 경제성장」, 교육과학사, 2015.7.
- 김창완·이중원·오충현·김석원(2010).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매뉴얼」,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정부(2005).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새로마지플랜 2010」
- 대한민국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새로마지플랜 2015」
-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플랜 2020」
- 모선희, 김형수, 유성호, 윤경아, 정윤경(2018). 현대 노인복지론-6판. 학지사.
- 문정화·유선차·Kang Chae Ryn외(2018). 고양시 인구변화 분석. 고양시정연구원.
- 문정화·유선차·임연옥(2019). 「고양시 노인복지 기반시설 구축 방안 연구」, 고양시정연구원.
- 문정화·유선차(2020).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의 생활변화와 정책적 욕구. 고양시정연구원
- 박경순·박영란·염유식(2015). 사회참여가 농촌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3(2), 200-227.
- 박기범·하형주·신영균(2009). 「노인여가시설 이용자의 서비스질 만족요인」, 2009.8.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7(1)

- 박영란(2013). 초고령사회 대비 EU의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정책 패러다임. 유럽연구 31(1), 135-158.
- 배재윤·허진무·이인혁·이경희·최보라·임수아·이현진·송명호(2019). 「활동적 노년지수 산출 및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 백영훈(2018).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부천시, 한국산업개발연구원.
- 변금선(2018). 「활동적 노화 수준의 변화 : 1931~1951년생 출생 코호트 비교」, 비판사회정책 제61호.
- 변수정·황남희(20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13).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 보건복지부(2018).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
-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II」
- 보건복지부(2002).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 부산시 연산동(2018). 「1·3세대 소통 프로그램-할매랑 아이랑 운영결과 보고」
- 부천시(2018).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2015). 「2015년 노인복지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 서울시 동부공원복지사업소(2019). 「2019 태교숲·실버숲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
- 서울시(2019). 「어르신 정보 꾸러미 발간계획」
- 서울시복지재단(2018).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 선우덕·김세진·모선희(2012).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활기찬 노후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2012). 「2012 만족도 조사 및 연구보고서」
- 이현실·복지관(2014). 「2014 이현실복지관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연구」
- 안준기·권혜자·이정아·오민홍·이아영(2018). 「2018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심층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양윤정(2011). 노동시장참여 중심의 '활동적 노화'와 그 한계. 국제노동브리프, 9(3), 49-62.
- 오수경(2016).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효과성 측정 연구」,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원시연(2019). 「OECD 통계에서 나타난 한국 노인의 삶과 시사점」,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3호.
- 윤민석·서명희(2015). 활동적 노화지수의 서울시 적용가능성 검토. 서울연구원.
- 이동현·황영우·이은진(2012). 부산시 노인친화도시 조성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이삼식 외(2018). 「고령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방향 설정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 이선호(2019). 「고용조사 브리프-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자영업 전환 전·후 사회경제적 특성 변화」, 한국고용정보원.
- 이수정·양정승·강서울·김윤정·곽미선(2018).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체계 구축」,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 이수희 외(2005).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II」, 한국경제연구원.

- 이영안(2019).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 중장기 계획 수립」, 수원시정연구원.
- 이윤경·염주화·이선희(2013).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경·강은나·황남희·주보혜·김세진(2019). 노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은진(2016). 노인인구와 노인부부가구의 활동적 노화 유형화 및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주일(2011). “노인의 일과 행복: 생산적 노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임호·오재환(2017).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부산연구원.
- 정경희·정은자·남현주·최혜지(2012).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오영희·강은나·김경래·이윤경·오미애·황남희·김세진·이선희·이석구·홍송이(2017). 「2017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순돌·어윤경(2012). WHO 의 고령친화도시모델가이드 충족도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2(3), 913-926.
- 정순돌·윤희수(2014). WHO 고령친화도시 실현가능성 분석: 서울특별시 조례분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5, 109-130.
- 정영호·고숙자·최슬기(2019). 「건강영양평가 사업 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은하·송인주·황혜신(2014).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2016-2020) 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정은하 외(2015). “고령사회와 도시정부의 역할”, 서울연구원, 세계와 도시 Vol.12
- 정은하 외(2017). 「2017 고령친화마을 시범사업 성과연구보고서」, 서울시복지재단.
- 정진아·박은자(2017). 「아시아 주요국의 노인 건강 수준과 건강 노화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경욱(2011). 베이비붐 세대의 부상, 정책패러다임 변화 필요하다. 전북발전연구원.
- 조현성·김영범·이주연(2004). ‘노인 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지은구·이원주·김민주(2013). 한국형 고령친화도시 점검척도 개발연구. 사회과학연구, 29(3), 459-489
- 지은정(2017). 노인일자리 종합계획(2018-2022)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최희경. (2010). “신노년” 정책 담론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활동적 노화,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7(3), 41-65.
- 한국고용정보원(2018). 「2018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6). 2016년 고령자친화기업 소개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9). 「20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통계동향」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9). 「2019년 60+교육센터 홍보자료」
- 홍석호·김순은(2016).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 보건사회연구 36(4).
- 황남희·유재언·김세진·이선희·김난주(2018). 「초고령사회 대응 노년기 생산적 활동 지원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UNFPA(2012) “21세기의 고령화 : 축복받을 성과와 당면한 도전 요약본(한글판)”

WHO(2007).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가이드’

[해외문헌]

Bass, S. A., & Caro, F. G. Chen.(1993). Achieving a productive aging society.

Bauknecht J., Tiemann, E., & Velimsky, J. A. (2016). Gerontology study-extending the active ageing index to the Local level in Germany.

Boulton-Lewis, G., & Tam, M. (2011). Active ageing, active learning: Issues and challenges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Breza, M., & Perek-Białas, J. (2014). The Active Ageing Index and its extension to the regional level (Cracow, 15-16 October 2014).

Deeming, C. (2009). 'Active ageing'in practice: a case study in East London, UK. Policy & Politics, 37(1), 93-111.

Dykstra, P. A., & Fleischmann, M. (2018). Are societies with a high value on the Active Ageing Index more age integrated?. In Building Evidence for Active Ageing Policies (pp. 19-37). Palgrave Macmillan, Singapore.

Fernández-Ballesteros, R., Caprara, M., Schettini, R., Bustillos, A., Mendoza-Nunez, V., Orosa, T., ... & Molina, M. Á. (2013). Effects of university programs for older adults: changes in cultural and group stereotype, self-perception of aging, and emotional balance. Educational Gerontology, 39(2), 119-131.

Giorgi, L.(2005). Overcoming the barriers and seizing the opportunities for active ageing policies in europe. Brussels.

Havighurst, R. J. (1963). Successful aging. Processes of aging: Soci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1, 299-320.

Havighurst, R. J. (1968).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on aging. The Gerontologist.

Hooyma, N. R., & Kiyak, H. A. (2014). Social gerontology: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ninth edition ed.) Pearson Education.

Hoskins, A.(2007). Focusing on poortunities: Active ageing. Conference on Ageing of UNECE Ministerial, Spain.

Hutchison, T., Morrison, P., & Mikhailovich, K. (2006).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active ageing Canberra: Healthpact Research Centre for Health Promotion and Wellbeing.

Morrow-Howell, N., Hinterlong, J., & Sherraden, M. (2001). Productive aging: Concepts and challenges JHU Press.

Nayak, R., Buys, L., & Lovie-Kitchin, J. (2006). Influencing factors in achieving active ageing. Data Mining Workshops, 2006. ICDM Workshops 2006. Six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ong Kong. 858-862.

Norazizan, S., & Aizan, T. (2007). Active ageing of older persons: The case for malaysia. Seminar on the Social, Health and Economic Consequences of Population Ageing in the Context of Changing Families. Bangkok,

- Bangkok.
- OECD. (1998). 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eing society.
- Polykreti, M. (2006). Comparative studies to analyse the results of coordinated policies in the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sectors by EU member states that have developed good practices. IOBE, INE/GSEE, EKE Network,
- Rowe, N. M., Kahn, F. B., Acinapura, A. J., & Cunningham Jr, J. N. (1998). Nonsurgical pneumoperitoneum: a case report and a review. *The American Surgeon*, 64(4), 313.
- Stone, J. L., & Norris, A. H. (1966). Activities and attitudes of participants in the Baltimor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21(4), 575-580.
- Tesauro, T., & Pianelli, L. (2010). The elderly between the needs for care and active ageing. *European Papers on the New Welfare*. the Counter-Ageing Society, 15, 7-28.
- Thanakwang, K., & Soonthornhdada, K. (2006). Attributes of active ageing among older persons in thailand: Evidence from the 2002 survey. *Asia-Pacific Population Journal*, 21(3), 113-139.
- Um, J., Zaidi, A., & Choi, S. J. (2019). Active Ageing Index in Korea – Comparative with China and EU countries.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1-13.
- UN. (2008). *The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Guiding Framework and Toolkit for Practitioners & Policy Makers. Available online at <https://www.un.org/esa/socdev/documents/ageing/guiding-toolkit2008.pdf>
- UNECE(2019). 2018 Active Ageing Index: Analytical Report. UNECE.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2013). Active Ageing Index.
- Vidovićová, L. (2018). New roles for older people. *Journal of Population Ageing*, 11(1), 1-6.
- Walker, A., & Kyōkai, N. R. (2001). Towards active ageing in the european union Japan Institute of Labour.
- Walker, A. (2006). Active ageing in employment: Its meaning and potential. *Asia-Pacific Review*, 13(1), 78-93.
- Walker, A. (2008). Commentary: The emergence and application of active aging in europe.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21(1), 75-93.
- WHO(2002). Active Ageing – A policy framework. A contrib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o the Second United Nations World Assembly on Ageing. Madrid, Spain, April 2002.
- Wilckens, M., Wöhrmann, A. M., & Deller, J. (2018). Extending the AAI to the Organizational Level: First Insights into the Operational-ization of the Later Life Work Index.
- Zaidi, A., Harper, S., Howse, K., Lamura, G., & Perek-Białas, J. (Eds.). (2018). Building evidence for active ageing policies: Active Ageing Index and its potential. Springer.
- Zaidi, A., & Um, J. (2019). The New Asian Active Ageing Index for ASEAN+3: A Comparative Analysis with EU Member States. *Journal of Asian Sociology*, 48(4), 523-557.

[기타자료]

- 강남구청(http://www.gangnam.go.kr/board/article/3129/view.do?mid=FM0508&schArticle=ARTICLE_08), 접속일 2020.1.31.
- 강남시니어클럽(<https://www.gnsc.or.kr/business/b031.html>), 접속일 2020.1.30.
- 강북구청(<http://www.gangbuk.go.kr/www/boardView.do?key=285&boardSeq=41&post=698034>), 접속일 2020.1.23.
- 경기도 '어르신 문화즐김' 홈페이지(<https://경기9988.kr/>), 접속일 2020.2.14.
- 고령친화서울 홈페이지(<http://afc.welfare.seoul.kr>), 접속일 2020.1.7.
- 고령친화제주 홈페이지(<http://afcjeju.com/>), 접속일 2020.1.20.
- 고양시니어클럽(<http://www.goyangsenior.com>), 접속일 2020.1.23.
- 고양시대화노인종합복지관(<http://www.dh-seniorwelfarecenter.co.kr/>), 접속일 2020.1.28.
-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http://withnoin.org/>), 접속일 2020.1.28.
- 고양시민 행복증진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2020)
- 고양시 사회조사(2018)
- 고양시 사회조사(2019)
- 고양시 사회보장욕구조사 (2018)
-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http://ilsansenior.org/>), 접속일 2020.1.28.
- 고양시민 행복실태조사 (2020)
- 고용조사분석시스템 - 고령화연구패널조사(<https://analysis.keis.or.kr/klosaSubject.do#none>), 인출일 2020.3.6.
- 광주 동구청 소통경로당 (http://www.donggu.kr/upload/synap_skin/doc.html?fn=1564362795614.pdf&rs=/upload/synap/202001/), 접속일 2020.1.21.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접속일 2020.1.22.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접속일 2020.1.21.
- 경기일보(2018.10.22.일자). '2018 무라도학교 신중년 양코르 라이프 포럼 성료',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2445>), 접속일 2020.1.19.
- 고양신문(2018.10.19.일자). '아르젠또와 함께해서 행복해요',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33>), 접속일 2020.1.19.
- 국제뉴스(2015.8.12.일자). '고양시, 대화동주민센터 노인일자리 창출 앞장서',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502>), 접속일 2020.1.19.
- 내일신문(2015.6.5.일자). '꽃보다 아름다운 실버, 노년도 행복한 고양시',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52974), 접속일 2020.1.19.

- 노인을 위한 정보 사이트 Information NOW(www.informationnow.org.uk), 접속일 2020.1.14.
- 뉴스파고(2017.6.5.일자). ‘고양실버경찰봉사대-준법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 (<http://www.newspago.com/62040>), 접속일 2020.1.28.
- 뉴스핌(2019.10.11.일자). ‘수원시 첫 번째 마을공유소, 송죽동에 문 열어’, (<http://m.newspim.com/news/view/20191011000988>), 접속일 2020.1.20.
- 뉴욕 고령친화상점(가이드) (<https://www.yumpu.com/en/document/view/2156196/2012-2013-age-friendly-west-side-grocery-guide>), 접속일 2020.1.8.
- 뉴욕시 노인을 위한 문화 가이드 홈페이지(<https://www.nyc-arts.org/seniors>), 접속일 2020.1.9.
- 뉴욕주(<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new-york-state/>), 접속일 2020.1.31.
- 뉴저지주(<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chore-handyman-service-older-adults-helping-older-adults>), 접속일 2020.1.13.
- 100세 건강실(<http://www.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30003004>), 접속일 2020.1.21.
- 백세신문(2018.2.9.일자). ‘경로당 문서처리 돕는 행정도우미 활용 확산’,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003>), 접속일 2020.1.20.
- 백세신문(2015.3.20.일자). ‘청년들과 손잡고 고양이 캐릭터 인형 만들어 성공’,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54>), 접속일 2020.1.20.
- 북지타임즈(2019.3.15.일자). ‘어르신의 특별한 재능나눔-2019년 IUS니어봉사단 5기 출범’, (<http://www.bokjitim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33>), 접속일 2020.1.20.
- 부천포커스(2019.5.31.일자). ‘내가 부천옴드라이버’, (<http://www.e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94>), 접속일 2020.1.21.
- 불교공뉴스(2018.12.27.일자). ‘고양시 신바람 난 경로당 어르신들의 열정 가득’, (<http://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823>), 접속일 2020.1.21.
- 서울시 어르신 복지정책-여가 및 문화(<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48441>), 접속일 2020.1.31.
-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http://www.goldenjob.or.kr/>), 접속일 2020.2.24.
- 세계로컬타임즈(2019.11.19.일자). ‘스스로 건강관리-고양시 건강안심경로당 현판 전달식’, (<http://www.segyelocalnews.com/news/newsview.php?ncode=1065579542927535>), 접속일 2020.1.29.
- 스페인 유럽노인관광(<http://www.europeseniorstourism.eu/en/queesest/>), 접속일 2020.1.20.
- 아시아경제(2017.9.30.일자). ‘광주시 동구, 노인의날 기념 그린실버피아페스티벌 성료’, (<https://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3009034728347>), 접속일 2020.1.21.
-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문화로청춘> 홈페이지(<http://m.seniorculture.or.kr/main>), 접속일 2020.2.14.
- 영국 뉴캐슬어폰타인(<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older-peoples-website-for-information-and-advice/>), 접속일 2020.1.14.
- 영국 벨파스트 툴킷(<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age-friendly-belfast-intergenerational-toolkit>)

- t-and-guide), 접속일 2020.1.14.
- 영국 벨파스트 한장(<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age-friendly-belfast-charter/>), 접속일 2020.1.14.
- 영국 선덜랜드(<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active-sunderland-wellness-walking-programme/>), 접속일 2020.1.14.
- 영국 셸퍼드(<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our-age-friendly-journey/>), 접속일 2020.1.14.
- 영국 화이트섬 (<http://agefriendlyisland.org/celebrating-age-awards-ceremony-recognises-achievements-and-contributions-of-older-islanders>), 접속일 2020.1.14.
- 웰빙워킹프로그램(<https://www.walkingforhealth.org.uk/walkfinder/north-east/sunderland-city-councils-wellness-walking-programme>), 접속일 2020.1.14.
- e수원뉴스(2019.11.29.일자). '인권특독, 노인인권지킴이 활동 보고회 전개', (<http://news.suwon.go.kr/?p=41&viewMode=view&reqIdx=201911291824555924>). 접속일 2020.1.20.
- 일본 가미쿠라 시(<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nursing-care-service-public-bath/>), 접속일 2020.1.10.
- 일본 아키타 시(<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coin-bus-project/>), 접속일 2020.1.10.
- 일본 오다와라 시(<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support-active-seniors-with-reward-points>), 접속일 2020.1.10.
- 일본 오이 시(<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genkide-kenko-jumyo-o-nobashite-i-am-healthy-and-extend-my-healthy-life>), 접속일 2020.1.10.
- 일본 요코스카 시(<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activities-of-kamome-housing-complex-community-cafe-nagomi/>), 접속일 2020.1.10.
- 일본 즈시 시(<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me-byo-centers-in-zushi-city-hall-and-zushi-arena/>), 접속일 2020.1.10.
- 일요서울(2017.11.22.일자). '2017년 한미누리예술단 정기발표회 개최'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54>), 접속일 2020.1.21.
- 정읍시청(http://www.jeongeup.go.kr/index.jeongeup?menuCd=DCM_000000103007005002), 접속일 2020.1.20.
- 제주도 남주고등학교(<http://namju.jje.hs.kr/namju-h/0602/board/14420/5416891>), 접속일 2020.1.20.
- 캔자스주 그랜드페어린츠 파크(<https://www.aarp.org/livable-communities/info-2014/grandparents-park-wichita-kansas.html>), 접속일 2020.1.9.
- 콜로라도주(<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homesharing-for-seniors/>), (www.seniorhomeshares.com), 접속일 2020.1.13.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http://kosis.kr>) 시군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인출일 2020.3.3.
- 프랑스 사례(<https://www.age-platform.eu/good-practice/french-publication-good-practices-working-conditions>)

- ns-seniors), 접속일 2020.1.20.
- 한국노인인력개발원(<https://www.kordi.or.kr/content.do?cmsId=117>) 노인일자리 캐릭터, 접속일 2020.2.5.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27.101.213.4>) 접속일 2020.2.3.
- 호주 노던주(<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seniors-expo-northern-territory/>), 접속일 2020.1.13.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the-art-of-ageing-exhibition-launch/>), 접속일 2020.1.13.
- 호주 레인코브 지방(<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chairs-for-seniors/>), 접속일 2020.1.13.
- 호주 레인코브 지방(<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lane-cove-connection/>), 접속일 2020.1.13.
- 호주 로킹햄시(<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selfie-with-a-senior/>), 접속일 2020.1.13.
- 호주 로킹햄시(<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young-and-gold-intergenerational-urban-art-project/>), 접속일 2020.1.13.
- 홍콩 다푸구(<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jockey-club-age-friendly-city-project-story-of-my-life/>), 접속일 2020.1.13.
- 홍콩 유전망구(<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jcafc-project-age-voice-in-community/>), 접속일 2020.1.13.
- AGE Platform Europe(<https://www.age-platform.eu/>), 접속일 2020.1.20.
- COTA NT의 Seniors EXPO(<https://www.cotant.org.au/information/seniors-expo/>), 접속일 2020.1.14.
- EUROSEN 노인 관광 프로젝트(<https://www.age-platform.eu/project/eurosen-europe-senior-active-ageing-travelling>), 접속일 2020.1.9.
- Global Network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http://apps.who.int/agefriendlycitiesmap>), 접속일 2020.1.9.
- OECD, Historical population data and projections(1950-2050),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20.1.10.
- WHO (<https://www.who.int/ageing/global-strategy/en>), 접속일 2020.1.10.
- WHO GNAFCC 레인코브(<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lane-cove/>), 접속일 2020.1.14.
- WHO GNAFCC 벨파스트(<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belfast/>), 접속일 2020.1.14.
- WHO GNAFCC 홈페이지(<https://www.makinglifebettertogether.com/age-friendly/age-friendly-resources>), 접속일 2020.1.14.
- WHO GNAFCC(<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busan/>), 접속일 2020.1.17.
- WHO GNAFCC(<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city-of-bucheon>), 접속일 2020.1.9.
- WHO GNAFCC(<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city-of-suwon>), 접속일 2020.1.10.
- WHO GNAFCC(<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dobong-gu/>), 접속일 2020.1.10.
- WHO GNAFCC(<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Dong-gu>), 접속일 2020.1.10.
- WHO GNAFCC(<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gangbuk-gu-district/>), 접속일 2020.1.10.
- WHO GNAFCC(<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jeju-province/>), 접속일 2020.1.20.

WHO GNAFCC(<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jeongeup-si/>), 접속일 2020.1.17.

WHO GNAFCC(<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seoul/>), 접속일 2020.1.20.

WHO GNAFCC(<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yangcheon-gu-district>), 접속일 2020.1.9.

Abstract

Active Ageing Study II. A Study on Active ageing Policy for Healthy Elderly in Goyang City

Junghwa Moon*, Sun Chi Yoo*, Ahra Ko*

This study is the second in a series of studies on ‘Active Ageing’ policy to cope with the rapidly ageing population in Goyang City—preemptively and actively. The study is intended to identify the living conditions of healthy elderly and to seek active ageing policies supporting them.

The study proceeds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and components of the active ageing policy paradigm as the study’s theoretical foundation are addressed with the international response to ageing. Second, population changes and policy trends for the elderly are reviewed. Third, different domestic and foreign active ageing policy cases for healthy elderly are discussed. Fourth, the elderly population change and policies for healthy elderly in Goyang City are examined. Fifth,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in Goyang City are analyzed using the active ageing policy paradigm framework.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and suggestive implications from the study. First, it is imperative to create a foundation for the active ageing of the elderly, such as promoting an aged-friendly city, operating a regional policy monitoring group for the elderly,

* Goyang Research Institute, Goyang, Korea

conducting regular survey on status of the elderly as well as level of happiness, and establishing an aged social response center. Second, it is significant to activate the policies of the elderly employment including research on the elderly' jobs, development of job models for young elderly, and strengthening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comprehensive center for senior citizens' jobs. Third, policies to support the culture and leisure of the elderly are required. For instance, the construction of additional welfare centers for senior citizens, the solution for revitalization of senior citizen centers, and the development of elderly-led information web site are desired. Fourth, policies to support family and social relations of the elderly are essential, in particular, running marital relations and family communication enhancement programs, strengthening digital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reinforcing intergenerational exchange programs. Fifth, policies in regards to health examination services, parks for outdoor exercise, health services using facilities in the region, and depression management programs are critical to support the elderly's health and happiness. Finally, considering elderly safety and preparation for becoming elderly, policies to prevent and manage new epidemic diseases in addition to elderly preparation education by life cycle are necessary.